

유라시아 문명과 실크로드

Eurasian Civilization and Silk Roads

- 일시** 2014년 12월 10일(수) 09:30~18:00
- 장소** 서울 프레스센터 20F 국제회의실
- 주최** 동국대학교 유라시아 실크로드 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

이 발표논문집은 2014년도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인사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21세기에 들어서 문명의 질이 변하고 국제질서도 예측불허의 상태에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함께 경제전쟁의 시대, 문화의 시대로 전환하고 있으며, 국가나 체제 간의 경쟁이 경제나 문화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적으로 이해가 일치하고, 종족 문명 등으로 비교적 관계가 깊은 국가들이 모여 경제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큰 역사단위가 탄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모든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생존경쟁에 골몰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유라시아에서는 ‘신거대게임(new great game)’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실크로드는 향후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매우 역동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특히 우리의 생존전략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유라시아 실크로드 공간은 언어 혈연 문화적으로 친연성이 깊습니다. 고대 이전부터 ‘초원의 길’, ‘사막의 길’을 통해 직간접으로 우리와 정치 군사 경제 문화에 영향을 끼쳤고, 반면에 우리 문화도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따라서 이 공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문화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알고, 우리와 맺은 연관성을 찾는 작업과 그들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유라시아 실크로드 연구소는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에 근거해 제 1회 학술회의의 주제를 “유라시아 문명과 실크로드”로 선정했습니다. 이 국제학술회의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유라시아 실크로드의 개념 정의 등 기본적인 정체성을 유라시아 각 지역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둘째, 유라시아 실크로드 문명과 한국의 연관성을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셋째, 유라시아 실크로드 지역이 가진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문학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한국발전전략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넷째, 반도사관의 인식과 연구태도에 집착하는 한국학의 공간적인 지평을 확장하여 ‘유라시아 실크로드’라는 거시적인 관점을 제안하고, 아울러 확립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다섯째, 한민족 문화의 복합성과 다양성을 관념이나 선언이 아닌 학문적이고 실증적으로 입증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 국제학술회의에는 다양한 학자들이 참가합니다. 국가별로는 동쪽의 한국과 중국, 북쪽의 몽골과 러시아,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서쪽의 이란 등 7개국입니다. 또한 전공별로는 역사학, 인류학, 고고학, 국제정치학, 국제경제학, 국문학, 터키 문학, 중앙아시아 문화, 유목사 등입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명실 공히 유라시아 문명과 현재를 통일적으로 이해하는데 하나의 초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한국 지성사의 지평을 넓히고, 민족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의미 깊고 성대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적극적인 지원해주신 ‘동북아역사재단’ 김학준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 12월 10일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유라시아 실크로드 연구소

소장 **윤 명 철**

Prof. Myung-chul Youn

유라시아 문명과 실크로드 국제학술회의

- 행사 일정표 (* 발표에 따른 모든 토론은 종합토론 시간에 진행합니다.)

시 간	내 용
9:30~09:50	<p>전체 사회: 김장구 (동국대학교 유라시아 실크로드 연구소 연구원)</p> <p>* 개막식 및 축사</p> <p>김학준(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p> <p>김희옥(동국대학교 총장)</p>
09:50~10:20	<p>* 기조발표 :</p> <p>유라시아 실크로드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p> <p>윤명철 (동국대학교 교수, 유라시아 실크로드 연구소 소장)</p>
10:20~11:40	<p>제1부 유라시아 문명과 실크로드의 범주</p> <p>사회자: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p> <p>(1) 한국에서 본 유라시아 문명과 실크로드</p> <p>이희수 (한양대학교 교수)</p> <p>토론: 이난아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교수)</p> <p>(2) The Ancient Immigration of Iranians to China and Korea along the Silk Road</p> <p>(실크로드를 통한 고대 이란인들의 중국과 한반도 이주)</p> <p>보수기 (Mohammad Bagher Vosooghi, 이란 테헤란대학교 교수)</p> <p>파샤 (Hamid Reza Pasha (PhD candidate of History Department, 역사학과 박사과정)</p> <p>토론: 김창겸 (한국학중앙연구원 수석연구원)</p> <p>(3) 유라시아 실크로드 발전에 기여한 우즈베키스탄의 공헌</p> <p>베르디무로도프 (Berdimurodov A, 우즈베키스탄 고고학연구소장)</p> <p>토론: 지배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p>
11:40~13:00	점심식사

시 간	내 용
13:00~14:20	<p>* 제2부 유라시아 문명과 실크로드, 그리고 고대 한반도 사회자: 정재훈 (국립경상대학교 교수)</p> <p>(1) 신라-흉노의 무덤구조 비교검토 윤형원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토론: 김재홍 (국민대학교 교수)</p> <p>(2) 실크로드의 재발견-키르기스스탄과 한국의 만남 백태현 (키르기스스탄국립대학교 교수) 토론: 최형원 (고려대학교 연구교수)</p> <p>(3) 실크로드의 복식 문화교류 김용문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수) 토론: 권현주 (호원대학교 교수)</p>
14:20~14:40	휴식
14:40~16:00	<p>* 제3부 유라시아 실크로드 지역의 정치 경제 (주제 / 발표자 / 토론자) 사회자 : 김태현 (중앙대학교 교수)</p> <p>(1) '시진핑 주석의 유라시아 실크로드 외교전략' 리젠양 (李雋陽, Li Juanyang, 중국외교학원 연구원): 토론: 최정호 (한국외교부)</p> <p>(2) 유라시아·실크로드 지역의 변화와 한국외교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이종국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토론: Alexandre-Repkine (건국대학교 교수)</p> <p>(3)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에서 한국과 몽골의 관계 바트투르 (J.Battur, 몽골국립대학교 교수) 토론: 김홍진 (순천향대학교 교수)</p>
16:00~18:00	<p>* 종합토론 좌장 : 윤명철 (동국대학교 교수, 유라시아 실크로드 연구소 소장)</p>

목 차

기조강연 유라시아 실크로드 문명, 역사와 현재 미래	9
제1부 유라시아 문명과 실크로드의 범주	
• 한국과 유라시아간 실크로드 문화교류와 역사적 접촉	37
• Ancient Immigration of Iranians to China and Korea along the Silk Road	49
• 유라시아 실크로드 발전에 기여한 우즈베키스탄의 공헌	73
제2부 유라시아 문명과 실크로드 그리고 고대 한반도	
• 新羅 - 匈奴의 무덤구조 비교 검토	93
• 실크로드의 재발견: 키르기스스탄과 한국의 만남	113
• 실크로드의 복식 문화교류	139
제3부 유라시아 실크로드 지역의 정치 경제	
• 다층의 통일- 시진핑 시대의 실크로드 외교전략	167
• 유라시아·실크로드 지역의 변화 한국의 외교	173
•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국제질서에서 몽골과 한국의 관계	187
종합토론	211
제목 및 부록	233



| 기초강연 |

유라시아 실크로드 문명, 역사와 현재 미래



기조발표

유라시아 실크로드 문명, 역사와 현재 미래

-한국과 연관하여-

윤 명 철*

1. 들어가는 말

21세기는 인류가 가꾸어온 역사의 대지에서 가장 큰 격변기임에 틀림없다.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등 놀랄 만한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새로운 성격과 형태의 사상 종교 등 예측하지 못했던 신문명이 탄생할 것은 자명하다. 뿐만 아니라 국제 질서라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측면에서도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제는 지구 전체가 곧 세계이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 중심의 세계화(globalization)와 중간단계로서 넓은 범주의 지역화(regionalization)이 추진되고 있다. 소비에트의 붕괴, WTO 체제의 등장, 세계화의 진행 등으로 미국 1極중심의 세계화가 진행 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하지만 강력한 EU, 여전히 힘을 보유한 일본, 러시아의 재등장, G2가 된 중국의 부상, 방어와 생존이라는 명분 밑에서 분열하는 중동국가들의 저항, 신흥지역으로 떠오르는 소위 타타르권 등의 변수들 등장하면서 현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민족주의가 발흥하고, 지역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공간적인 구분과 종족적인 구분에도 혼선이 생기고 있다. Edward.W.said의 『ORIENTALISM』에서 문제를 제기했듯이 강대국을 중심으로 세계화 전략은 지역 간의 갈등, 문명의 문제로 확산되었다.¹⁾ 샴우엘 헌팅톤은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s)』에서 의미있고 중요한 말들을 하였다. 즉 세계정치는 소비에트연방이 붕괴한 이후에 多極化 多文明化하였으며, 문명에 기반을 둔 세계질서가 태동하고

* 동국대 역사학, 유라시아 실크로드 연구소 소장 (Prof. Myungchul, Youn. Dongguk university).

1) Edward W Said 著 박홍규 譯,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1991.

있다고 하였다. 가장 중요한 국가군은 7개 내지 8개에 이르는 주요문명이라고 하면서 동아시아를 중국과 일본이라는 2개의 문명권으로 분류하였다.²⁾ 현재 동아시아의 상황과 중앙아시아, EU, 미국 등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의미있고 심각한 표현이다.

이러한 인류 문명과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유라시아 지역, 그리고 동아시아와 우리 한민족은 어떤 위사영 놓여있으며, 향후 인류의 미래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까?

고전적 의미의 실크로드가 통과하는 중앙아시아 지역은 향후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매우 역동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우리의 생존전략과도 직결되어 있다.

첫째,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비롯한 자원의 공급지이며, 시장의 확보와 인력의 공급지라는 지정학적 가치이다. 둘째는 우리에게 심각한 존재인 중국을 배후에서 압박할 수 있는 전략지역이라는 지정학적 가치이다. 셋째는 망각하고 상실했던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대상이라는 지문화적 가치이다. 이 글은 그동안 알려졌던 내용들을 토대로 필자의 관점에서 유라시아 실크로드 지역의 역사를 시대별로, 지역별로 서술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역사와 밀접한 부분들은 연관시켜 언급할 예정이다.

2. 유라시아 실크로드 공간의 역사

1) 유라시아 실크로드의 범주와 성격

본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라시아 실크로드는 고전적 의미의 중앙아시아 지역과 동아시아 지역 및 서아시아 지역을 포함한다. 유라시아라는 단어는 러시아인들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일반적으로는 유럽과 아시아를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의 단위로 보면서 주도권을 유럽이 갖고자하는 유럽중심적인 시각이 드러난다. 아시아의 어원은 아수(asu), 즉 동쪽을 의미한다. 이때 동쪽은 초기에는 근동(Near East) 즉 오리엔트(Orient)를 가리킨다. 현재는東西로 구분해서 우랄산맥의 동쪽, 카스피해, 지중해의 동쪽을 가리킨다. 아시아는 동서의 길이가 9,700km(동경 26°~서경 170°), 남북의 길이가 8,690km(북위 77°~북위 1°), 해안선 길이 12만 9077km, 면적 4,397만 6000km²(섬을 제외한 대륙만의 면적)로 세계 육지 면적의 30%이다.³⁾

2) 사무엘 헌팅톤(Samuel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하랄트 뮐러(Harald Muller)는 『문명의 공존』(Das- Zusammenleben der Kulturen)이라는 역설적인 제목에서 보여 지듯이 헌팅톤과는 반대되는 이론을 주장하였다.

3) 네이버 지식 검색

지리적 범주로서의 아시아는 17세기 이후에 동남아시아 지역에 자행된 서구인의 침략과 이에 맞서는 과정에서 새롭게 부각되었다. 19세기에는 근대적인 의미로서 ‘아시아인의 자각’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아시아의 유형화 작업과 문화 및 문명에 대한 근대적인 모색 작업이 있었다.⁴⁾ 3대 문명 외에 각 각 다른 소단위 문명들도 수없이 생성해왔다. 그러므로 또 다른 세계관과 이론 속에서 이러한 문명들의 특성을 찾아 재분류하며, 그에 따라 위상과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범아시아(pan-asia)의 모든 문명들에 고유성과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역할론’을 부여하고, 호혜와 상생의 대상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이미 5 만 년 전을 전후한 시대에도 중앙아시아는 인류의 이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공간이었다. 기원전 7~9 세기 에 이르면 동서를 횡단하는 집단의 존재가 부각되었고, 이들은 정치적인 성격을 띄우고 있었다. 특히 기원을 전후한 시대에 ‘초원의 길(steppe-road)’ ‘사막의 길’ (oasis-road) ‘바다의 길(marine-road)’ 등을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의 동쪽 끝은 간접적으로 연결되었다. 초원유목 문명지대는 스텝로드로 이어지는 알타이 산록과 중앙아시아 북부 지역 일대이다. 사막 농경 문명은 실크로드로 이어지는 중앙아시아의 남부 일대이다. 이 두 문명지대는 중앙아시아의 역사에서 늘 갈등을 유발시키면서 공존해왔다.

중앙아시아는 동서의 교류와 군사활동이 본격화된 기원 전부터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었다. 페르시아와 알렉산더가 세운 그리이스, 동쪽에는 匈奴 月支 漢 등의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18세기 이후에는 한 동안 역사의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전락했으나 지금은 세계질서의 재편과 관련하여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시대와 지역, 국가와 학자들에 따라서 중앙아시아의 범주 및 성격 등은 새롭게 정의되면서 부분적으로 차이가 생겼다.

독일의 지리학자인 훔볼트는 위도 44.5도를 기준으로 해서 남쪽과 북쪽의 위도 5도 이내 있는 지역 즉 위도 39.5~49.5 지역을 중앙아시아라 명칭하고 있다. 서쪽 경계는 카스피해와 맞닿은 부분을 의미하고 있으나 동쪽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중앙아시아(Central Asia)를 동투르크িস탄과 서투르크িস탄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중국 소속의 중앙아시아와 옛 소련 소속의 중앙아시아를 합한 공간으로 보기도 한다. 일본인들은 내륙아시아(Inner Asia)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중앙아시아와 북아시아를 포

4)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古)의 『탈아(脫亞)』 오카쿠라 덴신(岡倉天心)의 『아시아는 하나』 쑤원(孫文)의 『대아세아주의(大亞細亞主義)』 기타.

함한 개념이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최근에는 유라시아라는 용어에 중앙을 덧붙여 ‘중앙유라시아 (Central Eurasia)’라고 명명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1960년대 헝가리계 알타이학 연구자 Denis Sinor가 사용한 단어인데, 이 지역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이론이다. 그 밖에도 ‘서역(西域)’이라는 중국 사료에서 나오는 용어를 확장시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본고는 유라시아 실크로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 범주는 서로는 이베리아 반도와 동유럽의 일부지역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 한국 일본에 이르는 아시아 전지역을 포함한다. 또한 북으로 시베리아와 남으로는 인도양을 중핵으로 한 남아시아와 해양도 포함한다. 이러한 큰 범주의 해석과 대단위의 유형화 작업들이 활발해지는 이유는 시대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 코드의 확장은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인간의 활동단위가 확장되었으며, 협력과 공존구조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자연환경 종족 언어 역사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크게 분류하면 5개의 권역으로 나눌 수 있다. 1 극동의 한반도와 일본을 포함한 지역, 2 중국의 신장지역 및 북쪽의 일부 초원지대이다. 중국 역사에 나타난 좁은 의미의 서역이다. 3 중앙아시아의 5개국과 아프카니스탄의 일부를 포함하는 지대이다. 4 극서의 카스피해의 남쪽 연안지역, 고대 페르시아였던 이란 지역 및 터키의 일부 지역을 포함한다. 5 동남아시아를 가운데 둔 해양이다.

유라시아 실크로드 공간의 핵심인 중앙아시아라는 공간은 ‘다양성’과 ‘복합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지역은 복잡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자연은 지리 지형 기후 등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 외에 동물 식물의 분포 등 생태계를 포함한 영토나 토지 등 인간의 역사 활동이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환경이다.⁵⁾ 자연현상 자체들도 각 요소들 간에 연결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동아시아중해, 비옥한 농경지대, 건조한 사막과 초원지대, 알타이산록과 연결되는 초원, 발하슈호 이식쿨호 아랄해 카스피해 같은 큰 호수, 사막 가운데 발달한 오아시스, 흑해 같은 바다와 아시아 대륙의 해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농경의 정주성(stability) 문화와 유목 및 해양의 이동성(mobility) 문화가 만난 ‘혼합 문화대’를 이루었다. 인간은 다양한 문화권, 생활하는 자연환경에 따라서 신체 구조의 일부가 다르고,

5) 윤명철『東아시아의 海洋空間에 관한 再認識과 活用- 동아시아중해모델을 중심으로-』『동아시아 고대학』 14집 동아시아 고대학회. 경인문화사, 2006,12

윤명철『고구려 문화형성에 작용한 자연환경의 검토-‘터와 多核(field & multi-core)이론’을 통해서』『한민족』 4호, 2008년. 외 참고

가진 능력도 다른 점이 있다. 즉 농경적 인간, 유목적 인간, 수렵적 인간, 그리고 해양적 인간은 다양한 면에서 다른 점이 있다. 가치관과 신앙 등 생활양식 등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또한 지리적인 특성이다. 중앙아시아의 범주에 대한 견해들이 다양하다. 이 것은 이 지역이 주변의 모든 지역과 교차되거나 간접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汎아시아의 동서남북이 모여드는 대륙의 십자로(i c) 역할을 한 곳이다. 이러한 자연환경 속에서는 인종과 종족이 혼합되어 매우 복잡하다. 현재도 우즈베크인, 카자흐인, 키르기즈인, 위구르인 등 92개의 투르크계 종족이 있고, 타지키스탄처럼 이란계 주민도 살고 있다. 역사를 살펴보면 다양한 종족들이 장 단기간 거주했거나, 경유하였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투르크계 언어와 페르시아 언어를 사용하였다. 종교는 동으로는 샤머니즘과 천승배신앙, 중국지역의 영향을 받은 유교도 있고, 남쪽에서는 불교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스키타이 문화를 기본으로 페르시아의 동진 이후에 들어온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이 있었다. 이 후 7세기 부터는 이슬람교의 절대적인 영향 아래에 있다.

중앙아시아라는 광대한 공간을 구성하는 고유성을 가진 문화권들을 유기적인 만남과 다양성의 인정이라는 방식으로 개별문화의 존재도 인정하고 상생하는 관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앙아시아는 동과 서, 북방과 남방이 모여들며, 다양한 종족들이 직접충돌하면서 이합집산을 하고, 자연환경도 다양한 것이 만나고 있으며, 문화 또한 독특한 성격을 지닌 것들이 관련을 맺어온 공간이다.

2) 유라시아 실크로드 공간과 한국 -적극적 관계 시대

유라시아 실크로드와 우리의 관련성을 주장한 사람은 육당 최남선이다. 육당은 ‘불함문화론’을 제기하면서 인류 3대 문화권 중 하나이며, 그 중심은 조선이라고 하였다. 불함문화권의 범위는 조선 일본 및 동부중국, 유구(琉球)를 남극(南極)으로 하여 하이(蝦夷), 장백산(長白山)의 만주(滿洲), 불아한산(不兒罕山: 보르항산, 부르한산, 바이칼호 남부)의 몽골, 등격리산(騰格哩山: 텡그리산 내몽골), 포류해(蒲類海: 현재 중국 신강성 위구르족 자치구 합밀 지역의 파리곤(巴里坤) 호수를 말한다.)의 중앙아시아에로, 서(西)쪽으로 서쪽으로 그 연결선을 명백히 찾을 수 있어서 적어도 발칸산(山)의 발칸반도까지는 그 분포 범위로 상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⁶⁾ 이 주장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문명이라는 큰

6) 최남선 지음, 정재승 이주현 역주, 불함문화론 우리역사연구재단, 2008년 12월

를 속에서는 가능성이 높다. 유라시아 실크로드의 범주와 가장 부합한다.

민족을 구성하는 요소에 관하여 각각의 연구자들이 주장한 요소들은 순서, 비중, 의미의 차이 등이 있지만 血緣, 言語, 地緣, 經濟, 역사적인 경험, 인식 등 몇 가지 요소로 귀결된다.⁷⁾ 중앙아시아와 한민족과 연관성을 거론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언어와 혈연이다. 특히 언어는 중요한 요소인데, 매체는 언어 외에 몸짓, 소리, 신호, 도상(상징), 언어, 글자, 기호 등으로 확장시킨 개념이다. 언어는 문화의 일부로서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일정한 범위에서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사용한 언어는 알타이어계에 속한다. 알타이어계란 18세기 중반 스타라흐렌베르그가 제창한 알타이어족설부터 시작한 것이다. 그 분포는 유라시아 대륙의 중앙부를 중심으로 동으로 캄차카반도에서 서쪽으로 발칸반도까지, 북으로는 시베리아 북부에서 남으로는 중국 서남부까지 미치는 아주 광대한 지역이었다. 그 알타이어는 다시 사용하는 종족에 따라서 튀르크어, 몽골어 통구스어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근대에 사용한 종족의 명칭을 고려하여 분류한 것이다. 우리는 알타이어(드라비다어 및 중국절강지역 언어도 포함되었다는 주장들이 있다.)라는 큰 틀 속에 포함되어 각 요소들이 다 나타나지만, 다소 차이가 있어 ‘예맥어’라고 분류하고 있다. ‘텡그리(天)’ ‘탈르(達)’ ‘칸(한, 韓 干 可汗 등)’ ‘팍’ ‘감(고마 개마 등)’ 등은 알타이어 가운데에서도 튀르크계에 속한다. 현재 중앙아시아에는 주로 튀르크계 종족이 살고 있다. 그런데 흉노 이전의 유적에서는 황인종과 백인종이 섞인 혼혈의 모습을 띤 인물들이 발견된다. 흉노 문화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지만 동쪽에서는 황인종의 비율이 높고, 서쪽에서는 백인종의 비율이 높다. 우리 민족의 구성원에 튀르크족의 요소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두 번째는 문화의 문제이다. 하늘숭배 신앙, 태양숭배, 나무숭배 같은 신앙도 있지만 청동기 문화는 우리와 연관성이 깊다. 과거에는 스키타이 문화의 영향을 받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금은 다소 다른 견해들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고대국가에 이르기까지 범 유목문화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1) 기원 전후 시대

기원전 15 세기경에는 흑해 북안에서 남러시아를 거쳐 중앙아시아의 북쪽을 거쳐 스키타이 문화가 전파되었다. 특히 기원전 9세기 기마유목민 탄생하면서 중앙아시아 초원지

7) 민족형성 또는 민족의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술한 이론들이 있지만, 대체로 이러한 요소들도 모아지므로 따로 각 학설에 대한 분류와 인물 등의 주를 달지 않았다.

역에 살았던 이들은 동진하면서 만주 일대에 살았던 주민들에게 다양한 면에서 영향을 끼쳤다. 중앙아시아가 역사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기원전 7 세기부터이다. 페르시아는 동진을 하면서 현재 중앙아시아의 아프카니스탄 북부, 이란의 동쪽인 파르티아 지역을 장악하였다. 이어 알렉산더가 동쪽으로 진군하면서 이 지역을 거쳐 갔고,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여 그리이스 문화를 이식하였다. 예를 들면 ‘大夏’로 기록된 ‘박트리아’ 등이다. 이 때 충격을 받은 유목종족들은 동쪽으로 밀려나면서 기마문화와 기마습속 무기 전술 등을 보급하고, 동물을 소재와 주제로 삼은 문화와 유물 등을 전달하였다.

이어 기원 전 3세기에 무렵에 들어오면 본격적인 군사충돌이 일어난다. 이 시대 동아시아에는 4개의 강력한 국가 또는 정치체제들이 있었다. 동쪽에는 현재 요서지방과 흥안령(興安嶺)으로 이어지는 지역에 강력한 동호(東胡, 나라를 가리킴)가 있었고, 몽골초원에서는 흉노가 강력하게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서쪽인 신장 지역에는 월지(月氏)가 있었으며, 중국지역에는 秦나라를 거쳐 漢나라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른바 4각 구도를 이루고 있었다. 가장 강력한 집단은 동호였다. 월지도 역시 강력했고, 흉노는 초기에는 힘이 미약했다. 그런데 흉노의 두 번째 선우인 목특(冒頓)單于是 압력을 가하는 동호를 급습하여 멸망시켰다. 이후 동호는 鮮卑와 烏桓으로 나누어졌다. 그런데 시대상황을 고려할 때 ‘동호’라는 비칭으로 불리우던 정치적인 실체는 조선일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부여어와 선비어 거란어는 같은 계통으로서 서로 통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가정은 설득력이 높다.

흉노는 3대인 노상 선우 때에 이르러 신장 지역에 있었던 월지를 격파하였고, 그들을 실크로드의 서쪽으로 축출하였으며, 서역의 26국 탈취하였다. 그러자 패배한 월지는 서쪽으로 이주하여 대월지를 세웠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남부, 키르키즈스탄 등에 거주하고, 아프카니스탄 등에 있었던 大夏(박트리아)를 점령한다. 대월지는 왕궁(람지성)을 사마르칸트에 두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 시대에 중앙아시아에는 그리이스 페르시아계인 ‘파르티아’와 ‘박트리아’가 있었다. 박트리아는 알렉산더가 세운 헬레니즘 세계의 동쪽 식민거점이다. 박트리아는 소그디아나, 간다라와 함께 페르시아 제국에 매년 세금을 받쳤다.

한편 흉노의 목특 선우는 한나라의 고조군을 격파하여, 형제의 맹약을 맺고 화친한다. 그리고 화친의 댓가로 한나라는 40~50년 동안 흉노에게 솜, 비단, 술, 쌀, 심지어는 미녀까지 바친다. 한무제는 이러한 불평등한 상황을 타개하고, 전투마인 ‘汗血馬’를 구할 목적으로 장건을 대宛國(大宛國, 페르가나 지방)에 파견한다. 페르가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명마인 한혈마를 얻기 위해서였다.

결국 흉노는 한무제가 파견한 군대에 공격을 당한 후에 남흉노와 북흉노로 분리되었

다. 그 후에 점차 약해져서 일부는 서쪽으로 이주하면서 동아시아 역사에서 사라졌다. 그런데 훈(Hun)이라는 이름의 종족이 유럽사에 갑자기 등장하였다. 그들은 350 년경에 카스피해와 흑해의 북쪽에 거주한 알란족을 공격하였고, 376년에 서고트(west-Goat)를 공격하였다. 이어 5세기 초에는 로마제국의 변경과 사산조 페르시아를 공격하였다. 이렇게 파죽지세로 유럽을 압박해 들어가던 훈족은 453년에 아틸라가 사망하면서 정복활동이 중지되었다. 이 시대는 고구려의 장수왕 시대이다.

(2) 고대국가 시대

중국 지역의 북부는 사분 오염된 상태에서 선비족인 北魏가 통일시켰고, 북방에서는 몽골족인 유연(柔靱)이 거대한 유목국가로 탄생했다. 또한 양자강 유역에는 한족이 송나라를 건국하였다. 이렇게 해서 동아시아는 4개의 강대국을 중심으로 중소 국가들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고구려의 장수왕은 북위와 송을 동시에 상대하는 ‘동시 등거리 정책’을 펼쳤다. 고구려는 북위와 무려 43회에 달하는 교섭을 벌였으며, 유목국가인 유연과 우호관계를 맺고 북위를 포위하는 정책도 실천하였다.

이 시대에 고구려는 북위를 통해서, 또는 유연을 통해서 서역 지역과 직접 교류했을 가능성이 있다. 고구려 문화에는 유목적인 요소와 서역적인 요소들이 많이 담겨있다. 현재 만주에 있는 ‘장천 1호분’에는 다양한 기예를 공연하는 인물들이 그려져 있는데, 西域人(중앙아시아 사람)이 무려 9명이나 있다. 씨름 수박희 등은 서역과 연관이 깊다. ‘삼실총’에 그려진 무서운 형상의 力士나 ‘수산리 벽화’에 나오는 매부리코를 가진 주인공, 나무다리로 걷기, 곤봉과 방울을 돌려가며 받기, 접시돌리기 등의 그림 등은 서역은 물론이고, 현재 우즈베키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보이고 있다. 6세기 후반부터 고구려의 국경과 가까운 중국의 營州에는 소그드 상인들의 취락지가 있었으며, 이들은 당연히 고구려와 교류했을 것이다.

그 후 동아시아 역사는 물론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역사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동서를 아우르는 대제국이 건설되었다. 돌궐 제국의 성립이다. 튀르크는 돌궐(突厥)을 뜻한다. 이들은 처음에는 바이칼호(Vical lake) 지방에 살았던 철륵(鐵勒)의 한 부족이었는데, 552년에 몽골족인 유연으로부터 독립하였다. 동쪽으로는 고구려와 국경을 접했고,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에까지 세력이 미쳤다. 583년에 이르러 동돌궐은 몽골고원, 서돌궐은 중앙아시아를 지배하였으며, 크림 반도부터 중국 국경 일대까지 이르는 초원지대를 장악하였다. 즉 서 투르키스탄과 동 투르키스탄을 복속시킨 것이다.

이 대제국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였다. 중국지역에서 隋나라가 등장하여 400년 만에 통일을 이룩하였다. 돌궐은 고구려와 전투를 벌이는 한편 고보녕(高寶寧, 종족이름)과 연합하여 수나라를 수세에 몰아넣기도 하였다. 고구려는 돌궐의 지배하에 있었던 실위에 철을 수출하였는데, 이는 돌궐과 상호우호적인 관계를 모색한 것일 수도 있다. 598년에 고구려가 선제공격을 하면서 국제대전이 발발하였다. 고구려가 승리한 후에 황제가 된 수양제는 본격적으로 대원정을 추진하였다. 수양제는 607년에 돌궐의 영토에 갔다가 임금인 계민가한(啓民可汗)의 장막에서 고구려의 사신을 만났다. 수양제는 놀랍고 당황하였다. 그 후에 고구려를 침공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612년에 동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국제대전이 벌어졌다. 수나라는 돌궐을 비롯하여 주변의 국가들을 우호 세력으로 만들어놓고, 고구려와 5차의 전쟁을 벌였다. 그러나 대패하고, 40년 만에 멸망하였다. 이어 618년에 당나라가 건국하였다. 당나라의 태종은 전쟁 준비를 단계적으로, 외교적으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고구려는 직접 간접으로 동아시아 국가들과 연관을 맺었다. 이때 중앙아시아와 관계를 맺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마르칸트 아프리카시압 궁전 벽화에 고구려 사신이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사마르칸트(康國)는 627년~649까지 매년 당나라에 사신을 보냈다.

서돌궐은 소그드의 본토를 차지하였다. 당나라는 고구려를 고립시키려고 외곽포위전선을 구축하였다. 우선 북방에 있는 강대국인 돌궐을 외교정책을 사용해서 東과 西로 분할시켰고, 그 다음에 약화된 동돌궐과 싸움을 벌여(630년) 승리하였다. 또한 서쪽에 있었던 강한 국가인 吐蕃(현재의 티베트 지방)을 정벌(638년)하였다. 이 토번은 후에 당나라의 발목을 잡아 결국은 나당 전쟁(670년~676년에 벌어진 신라와 당나라 간의 전쟁)이 진행될 때 신라의 전황을 유리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어 고선지 군대를 대패시키는데 역할을 담당하였다. 당나라는 서역과 이루어지는 장삿길(商道)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투르판에 있었던 고창국을 공격해서 멸망(640년)시켰고, 642년에는 소그드 지역의 도시들을 빼앗았다. 모두 고구려와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그리고 645년에 고구려와 당나라 간의 대전쟁이 벌어졌다. 하지만 당나라 군대는 패배하고 돌아왔다. 그런데 패전한 직후인 646년에 당나라는 철륵(鐵勒)의 맹주였던 설연타(薛延陀, 사람 이름)를 공격한 후에 세력권 아래에 넣었다. 이어 649년에는 서돌궐의 임금인 칸(khan)이 당나라에 투항하였다. 물론 고구려와 당나라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런데 654년에 사마르칸트 부근 지역으로 아랍 세력들이 접근해왔다. 658년, 서돌궐은 결국 당나라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으며, 중앙아시아는 당나라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당

나라와 신라는 동맹관계에 돌입하면서 각각 고구려와 백제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660년 나당연합군은 백제를 멸망시켰고, 당나라는 북방전선에서 고구려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남쪽에서는 나당연합군과 백제 왜의 연합군이 치열한 전투를 계속하였다. 그러다가 백제의 부흥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그 후에 고구려는 사신들을 사마르칸트(康國)에 파견한 듯하다.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시압 궁전에서 발견된 벽화에는 고구려인으로 추정된 사신들이 2명 있다. 그 사신단은 머리에 조우관(양 쪽에 새깃을 꽂은 모자)을 쓰고, 양손을 모아서 끼고 있으며, 허리에는 고구려의 전형적인 칼인 환두대도를 차고 있다. 7세기 중반 경에 고구려는 돌궐과 소그드의 우호관계를 이용하여 사마르칸트까지 사자를 보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그드인들이 이미 고구려에서 상업활동을 벌이고 있었으므로 그 상인들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은 높다. 이 무렵 중앙아시아에서는 투르크족과 아랍세력 간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었다. 결국 사마르칸트, 부하라 포함한 아무다리야 시르다리야 두 강 일대가 아랍의 수중에 들어갔지만 두 도시의 주민을 뺀 나머지 소그드인들은 아랍의 지배에서 독립하였다.

(3) 남북국 시대

682년에 제 2 돌궐제국이 건설되었다. 그 무렵에 요서(남만주의 서쪽)지방에서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돌궐이 다시 발흥하여 흥안령(興安嶺)을 넘어 만주 일대에 세력을 뻗었다. 한편 고막해(庫莫奚), 거란(契丹), 室韋 등이 다시 등장하였고, 북쪽의 흑룡강 유역에서는 黑水靺鞨이 강력해졌다. 당나라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면서 북방종족들 간에는 충돌과 혼란이 생겼다. 696년에 거란 사람인 李盡忠이 요서지방인 영주(조양)도독을 살해한 후에 당나라와 전쟁을 벌였다. 당나라는 서역에서 벌어지는 상황 때문에 군사력을 집중시키기 힘들었다. 이 때 고구려의 유민출신인 大祚榮과 말갈출신인 曷薩比(乞四比羽)는 이진충을 도우면서 고구려 유민들을 규합하였다. 그런데 돌궐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이진충은 패배하고 曷薩比는 사망하였다. 그러자 대조영은 대탈출을 감행하여 698년에 고구려의 옛 땅에 ‘진(震. 振. 발해)’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한편 돌궐은 철륵의 한 부족이었던 ‘위구르 한국’에게 멸망하였다. 이 시대 동쪽에서는 신라와 발해가 적대관계에 있었고, 신라와 일본도 적대관계를 맺고 있었다. 당연히 발해와 일본은 동맹관계를 맺고 일축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당나라는 신라 발해와 맺었던 적대관계를 청산해가면서 교류를 시작하고 있었다. 이 때 아랍 세력들은 본격적으로 중앙아시아로 진입하고 있었다. ‘우마이야 왕조’는 현재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남서부 지역을 통치하였다. 이렇게 해서 중앙아시아는 ‘당나라’ ‘토번’ ‘서역의 아랍세력’이라는 3 세력이 각축전을 벌이는 장소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구려 유민 출신인 고선지(高仙芝)의 제2차 서역 원정이 실행된다. 당나라 현종은 티베트 세력이 아랍 세력과 제휴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747년에 군사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고선지가 거느린 1만 명의 원정군은 파미르 고원의 連雲堡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다시 탄구령(해발 4600m)을 넘어 小勃律國을 정벌하였다. 이 시대에 石國(타쉬켄트)은 일 년에 1번, 어떤 해는 3번씩 당나라에 조공을 받쳤는데, 大食國(현재 이란의 니샤프르 지역)이 석국을 압박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당나라는 고선지로 하여금 석국을 공격하게 하였다. 승리한 고선지는 왕을 생포해왔다. 하지만 그 결과로 인하여 당나라 군대, 아랍, 서방 연합군 사이에는 ‘탈라스(Talas) 전투’가 벌어졌다. 이 전투에서 고선지군은 대패하였다. 동투르크스탄은 티베트의 지배로, 스텝 서부의 트란숙시 아나는 압바스 왕조의 지배로 들어갔다. 이 때 사마르칸트와 아랍으로 잡혀갔던 당나라 군대 가운데는 제지공(종이만드는 기술자)들이 포함되었다. 이렇게 해서 사마르칸트에는 이슬람 최초의 제지공장이 만들어졌다. 바로 그 해 신라에서는 불국사와 함께 석굴암이 조영되었다. 그리고 동해를 건너 일본에서는 東大寺와 함께 대불전(큰 대웅전)이 완성되었다. 발해 또한 안정적으로 국가의 발전을 이룩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동아시아는 안정된 질서 속에서 실크로드가 활성화되었다.

신라는 일본에 朝霞紬·魚牙紬·鏤鷹鈴 등의 고급직물과 금은 세공품 등을 수출하였고, 남중국·동남아시아·인도·아라비아산의 각종 향료, 동남아시아·페르시아산 약재, 新羅墨·종이·악기·毛氈·松子·密汁·口脂·經卷·佛具·鏡·鉢·盤箸(佐波理加盤) 등도 수출하였다. 신라는 아라비아·페르시아 등 이슬람교권 상인들과 교역을 했다. 몇몇 문헌에는 아랍·무슬림 상인들의 신라 내왕이나 신라 견문에 관한 기술과 함께 신라로부터 수입한 상품에 관한 기사도 실려 있다.(정수일) 경주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乳香은 수입품이었다. 금관총·서봉총·천마총·皇南洞 98호의 북분과 남분 등 5~6세기에 만들어진 고분에서 총 18여 점의 유리기구가 발견되었다. 이것들은 물론 후기 로마 글래스(비잔틴 유리, 페르시아인 글래스라는 주장도 있다.)계에 속한 것이며, 무역의 산물이다. 신라에서 유행한 ‘처용가’나 경주의 과릉(掛陵)에 서있는 돌로 만든 인물들은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신라에서 중요한 활동을 하였음을 알려준다. 일본의 정창원(正倉院)에서 발견된 유리제품들은 신라인들이 아라비아상인들과 무역한 사실을 알려준다.

이 무렵에 신라는 실크로드를 연장시키면서 서쪽으로는 당나라를 중간 매개체로 삼아

서역, 페르시아 아라비아까지 무역망과 물류망을 확장하고 있었으며, 동쪽으로는 일본을 무역권에 편입시켜 국부를 창출하고 있었다. 그 체제의 한 부분을 차지한 것이 장보고(張保皋)로 대표되는 ‘범신라인’들이다. 장보고는 당나라에는 大唐賣物使라는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 즉 수입상인들을 ‘교관선’이라고 부르는 무역선에 실어 파견하였다. 당나라의 제품과 毳毼(페르시아산 담요) 紫檀(자바 등의 향목) 沉香(수마트라산 향료) 등 동남아시아와 아라비아산의 고가 사치품을 수입하여 신라의 귀족들에게 팔았다. 반대로 신라의 여러 가지 물품들도 당나라와 아라비아에 수출하였다. 한편 발해도 무역국가였는데, 주로 영주로(남만주에 개설된 도로)를 통해서 당나라와 교섭했는데, 당연히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소구드인들과 연결하여 실크로드와 무역을 했을 것이다. 발해는 동해를 건너 일본에 중계무역을 벌였다. 이무렵에 중앙아시아에서는 위구르국이 840년에 붕괴되었고, 투르크족은 서진을 시작하였고, 서아시아까지 진출하였다.

(4) 고려 조선시대

10세기 전반에 이르면서 또 한번 질서가 재편되었다.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킨 후에 힘을 모아 중국의 북부지역을 공격하여 요나라를 세웠다. 한편 양자강 이남에서는 송나라가 건국하였다. 송은 고려를 夏國과 동일하게 대우하였고, 고려의 사신을 西夏보다 높게 대했으며, 거란사람과 똑같이 대우하게 하였다. 그리고 거란을 공격할 목적으로 고려에 파병을 요청하는 등 교섭에 적극적이었다.

요나라를 대신하여 1125년에는 금나라가 건국하고, 남송과 금나라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고려와 송나라는 엄청난 규모의 무역을 했다. 보통 100명에서 300명을 태운 사신선들은 곧 공무역선이었다. 예를 들면 송나라는 고려에 의복, 상아, 물소뿔, 옥, 술, 새(鳥), 차, 칠, 약기 등을 수출하였고, 고려는 비단, 금, 은, 나전 세공품, 꽃방석, 자개박이 그릇, 인삼, 소나무, 부채, 종이, 붓, 먹, 가죽 등 수 천 점을 보냈다. 1078년에는 송나라가 100종이 넘는 품목과 6천 건에 달하는 물건을 보냈고, 고려 역시 그에 상당하는 물건을 보냈다. 민간무역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발달하였다. 이때 온 상인들은 절강성, 복건성, 광둥성 등 주로 강남출신이었다. 오늘날의 아랍인인 서역상인들도 많이 왔다. 현종 때인 1024년에는 대식국(현재의 이란 및 아라비아지방)의 상인이 100여명이나 한 번에 온 적도 있었다. 마팔국(인도), 삼라곡국(태국), 교지국(베트남) 등의 국가들과도 교역을 하였다. 이들 외국인들 가운데에는 고려에 귀화하여 결혼하거나 정치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산 사람들도 꽤 있었다. 그런데 이때는 주로 송을 통한 해양실크로드를 이용하였기 때문

에 중앙아시아와는 관계가 없었다.

요나라는 금나라에게 멸망하였지만 1132년에는 파미르의 동·서에 걸친 제2차 거란제국을 수립했다. ‘카라 키타이’라고 불리는 ‘서요(西遼)’이다. 우리가 다시 중앙아시아와 관련을 맺게 된 것은 몽골이 등장하고 원나라가 세워진 후이다. 칭기스칸은 1207년에 거란족의 西夏를 공격한 이후에 1211년~1214년 간에는 동아시아의 최대 강국인 금을 공격하였고, 이어 1215년~1218년에도 공격하였다. 그리고 1218년~1219년에는 고려를 침입하였다. 1219년 가을, 칭기스가 이끄는 몽골군은 서쪽 원정길에 올랐다. 킵차크는 서북 유라시아 대초원에서 살던 투르크계 유목집단의 이름이다. 몽골군은 불가르왕국과 러시아 지역에 있던 루시(러시아를 세운 민족)를 공격했다. 1227년에 징키스칸이 사망하자 둘째 아들인 차가타이는 한국(chagatai khanate)을 건국하여 중앙아시아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 2년 후인 1229년에 오고타이 대칸은 금을 친정하였고, 곧 1231년(고종 18) 8월에 사리타이(撒禮塔)이 고려를 침공하였다. 드디어 1234년 1월에는 금을 멸망시키고 나서 남송과 고려, 이어 일본을 목표로 삼았다. 금나라 지배하에 있었던 漢族·거란·여진병력을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고려를 침공하였다. 남송은 1279년에 멸망한다. 한편 서쪽에서는 1258년 2월에 바그다드가 함락되면서 압바스조는 5백년의 역사를 마쳤다. 훌레구는 '이란땅'에 새로운 울루스를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해서 이슬람 서아시아세계는 동쪽의 페르시아어 문화권과 서쪽의 아랍어 문화권이라는 구도가 고정된다. 고려는 몽골 제국의 질서 속에 있었지만 중앙아시아 및 아라비아 지역과는 관련을 맺는 일이 없었다.

그 후에 중앙아시아에서는 티무르 제국이 세워졌고, 1370년에는 티무르(timur, 1336~1405)가 군주로 취임하였다. 그는 현재 중앙아시아의 전지역을 점령한 후에 서쪽으로 진군하기 시작하였다. 이란 지역을 공격하였고, 동부 페르시아를 완전하게 장악하였다. 그는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아나톨리아, 북방의 킵차크 초원을 원정하여 1396년에는 공격을 완성하였다. 결과적으로 티무르는 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정복하고, 1401년에는 바그다드까지 차지하였다. 이때 사마르칸트가 티무르 제국의 수도였다. 그는 중앙아시아를 세계질서의 중심부로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명나라를 원정하기 위해 출발한 도중에 병으로 사망하였다. 1405년의 일이다. 그 후 우리와 중앙아시아는 관계를 전혀 맺지 못했다.

16세기가 되면서 세계질서에 커다란 변혁이 일어났다. 하나는 항해술의 발달로 인한 해양의 시대가 온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화약과 대포의 사용으로 인한 기마군단이 무력화된 일이었다. 해양을 통해서 서양의 제국들은 전 세계의 어떤 지역이든 진출할 수 있었

고, 불평등한 무역을 통해서 재물을 획득하여 나라의 부를 창출하였다. 이것은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고 제국주의국가들을 탄생시켰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해금정책을 취했던 청나라도 해군력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해양력을 장악한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상황이었다. 미국인 제독 앨프리드 테이어 마한(A. T. Mahan)은 해양력이 역사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에 해양세력의 우세를 강조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한편 18세기 중엽이 되면서 중앙아시아에서는 질서가 재편되었다. 몽골족은 병합되거나 제거되었고, 러시아인들은 확장된 영토를 차지하였다. 카자흐족은 초원을 무대로 살아가고 있었고, 투르크스탄인들은 파미르의 동쪽과 서쪽 영역으로 갈라졌다. 그런데 19세기가 끝나면서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유라시아의 지정학에 대한 관심이 부활했다. 1904년에 ‘스콧 헬퍼드 매킨더(Scot Halford Mackinder)’는 처음으로 유라시아라는 ‘세계섬’(World Island)에 대한 대륙 열강들의 지배에 강조점을 둔 전략적인 전망을 개괄한다. 그는 추축(pivot), 심장부(heartland) 지역 이론을 제기한다.⁸⁾ 이것은 유라시아 대륙이 전 세계 힘의 균형을 이루는 핵심지역이라는 논리이다. 실제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거대 게임(great game)’이 일어났다. 즉 제정 러시아는 남진을 하여 인도를 압박하는 한편 페르시아만으로 진출하기 위해 철도건설 등 각종 정책들을 추진한다. 반면에 영국은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각종 저지 정책을 취하고, 심지어는 일본을 이용하여 러시아의 전략적 관심과 능력을 극동으로 분산시킨다. 그 결과의 하나가 러일전쟁이고, 조선의 멸망이다.

(5) 근대 이후

926년에 연해주에는 철도, 항만 건설 노동자나 농업이민으로서 한국인이 약 17만 2,000명, 중국인 약 7만 2,000명이 유입하여 이들은 당시 극동 인구의 13%를 점유하였다. 그런데 일부의 통계에 따르면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하기까지 약 4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일본은 중일전쟁을 1937년에 일으켰다. 그러자 러시아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조선인(고려인)들은 일본을 도와 러시아를 공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하여 스탈린은 ‘극동지방 국경부근 구역에서 고려인 거주민을 이주시키는 문제에 관하여’라는 명령을 발표하였다. 이어 9월 21일부터 연해주의 고려인들은 6,000Km나 떨어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 1937년 10월 25일, 운송책임자였던 에조프가 몰로토프에게 보고한 바로는 고려인들은 124개 열차를 통해 36,642가구, 171,781명이 강제이주

8) 이채문, 『공간으로 읽는 중앙아시아』, 경북대학교 출판부, 2012 p.147

되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현재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지역, 카르키즈스탄 지역으로 이주되었다.

현재는 고려인이라는 이름으로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다. 2002년에 통계가 만들어졌다. 고려인은 약 470,000명이 독립국가연합에 살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데, 약 198,000명, 다음이 러시아로서 125,000명, 이어 카자흐스탄에 105,000명, 키르기즈스탄에 19,000명, 우크라이나에 6,000명이 살고, 타지키스탄에 3,000명,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에 5,000명이 살고, 기타 지역에 일부가 살고 있다. 극동에는 비공식 추계로 약 3만 6,000명의 한국계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93%가 사할린 주에 거주하고 있다.

3. 유라시아 실크로드 공간의 현재—세계질서 재편의 축(pivot)

1) 가치

지정학은 한 국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해준다.⁹⁾아시아는 거대한 대륙이다. 16세기 이후에 세계질서의 중심축은 해양이었다. 해양을 통해서 서구 제국들은 전세계로 진출할 수 있었고, 불평등은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재물을 획득하여 국부를 창출하였다. 이것이 결국은 제국주의국가들을 탄생시켰다. 따라서 모든 나라들은, 심지어 청나라와 일본조차도 해양력을 강화시키는데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해양력을 장악한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상황이었다.

미국인 제독 앨프리드 테이어 마한(A. T. Mahan)은 해양력이 역사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에 해양세력의 우세를 강조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하지만 19세기가 끝나면서 상황이 변하고, 유라시아의 지정학에 대한 관심은 부활했다. 1904년 스콧 헬퍼드 맥킨더(Scot Halford Mackinder)는 처음으로 유라시아라는 ‘세계 섬’(World Island)에 대한 대륙 열강들의 지배에 강조점을 둔 전략적인 전망을 개괄한다. 맥킨더(halford mackinder)는 추축(pivot). 심장부(heartland) 지역 이론을 제기한다.¹⁰⁾ 유라시아 대륙이 전 세계 힘의 균형을 이루는 핵심지역이라는 논리이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거대게임(great game)이 일어났다. 즉 제정러시아는 남진을 하여 인도를 압박하면서 페르시아만으

9) 조지 프리드먼 저. 김홍래 역. 『넥스트 디케이드』 쌤앤파커스. 2011.19p

10) 박병구, 『위의 책』, p.147

로 진출하려고 철도건설 등 각종 정책들을 추진한다. 반면에 대영제국은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각종 저지 정책을 취하고 심지어는 일본을 이용하여 러시아의 전략적 관심과 능력을 극동으로 분산시킨다. 그 결과의 하나가 러일전쟁이고, 조선의 멸망이다.

유라시아 실크로드 지역은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경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공간이다. 첫 번째는 자원의 문제이다. 이미 선사시대부터 자원의 보고였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오면 또 다른 관점에서 자원적 가치가 높다. 에너지문제이다. 에너지는 미래의 모든 면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국가, 기업은 물론 개인의 번영과 안보는 에너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에너지 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세계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조지 프리드먼의 말)

중아시아에는 온갖 종류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고,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 등 전략자원이 풍부하다. 전 세계 천연가스의 5%, 전 세계 석유와 석탄 매장량의 3.5%가 이곳에 있다. 최근에 부각되는 카스피해는 걸프만과 시베리아에 이은 제3대 석유보고이다. 반대로 자원의 부족현상도 있다. 바로 수자원 문제이다. 중아시아 문명의 초생달 지역을 만드는 강은 시르다리아강과 아무다리야강이다. 시르다리아강은 중아시아 가장 긴 강으로 3019km인데, 대부분(75.2%)이 키르기스스탄에 분포하고 있다. 서쪽인 아무다리야강은 길이가 2540km인데, 타지키스탄이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가 아프가니스칸, 이란, 우즈베키스탄에 있다. 결국 수자원 전체의 90%가 이곳에 집중되어있다. 반면에 최대의 수자원 소비국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이다. 거기에 아랄해가 이미 말라버렸다. 수자원 공급은 고사하고, 이미 심각할 정도의 환경재앙을 일으키고 있다.

둘째는 교통로 문제이다. 지리적으로 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동서남북으로 연결되는 중앙에 있다. 과거부터 특히 에너지 생산국인 아라비아와 유럽 동아시아 및 남아시아를 연결시키는 요충지이다. 과거부터 오아시스길(실크로드), 초원의 길(스텝로드), 말의 길 등을 비롯하여 몇 개의 횡단 종단 교통로가 있어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물류의 거점이었다. 대표적인 길이 소위 실크로드이다. 시안을 동쪽 기점으로 해서 란쑤우, 퉁황, 투르판, 우루무치 신장지역을 거치고, 다시 아라무투, 비스코푸, 지엠볼, 타쉬켄트, 사마르칸, 부하라, 마리, 마샤드 등 중아시아지역을 거쳐, 이란의 타브리즈, 은즈룸, 콘야와 이스탄불, 지중해 동쪽 해안까지 도달하는 전장길이 7000km의 고대 교통로로서, 그 가운데 4000km가 중국 경내를 통과한다.¹¹⁾ 실크 모피 옥 유리 황금 말 등이 이 지역을 통과하여

11) 박병구, 『한중일 석유전쟁』,한스미디어, 2008 p.49

교역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6세기 이후에 해양산업의 발달과 식민지 쟁탈전으로 인하여 중앙아시아는 교통로의 가치가 감소되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 중앙아시아의 석유와 가스가 생산되면서 이 지역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지만 국가들의 자원채굴 정책이 불명확하고, 해외에서의 투자 또한 불투명하다. 그리고 석유, 천연가스 수출 루트 또한 명확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¹²⁾ 그러므로 주변지역으로 운송하는 통로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많은 강대국들이 교통로에 대한 자국의 권리를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거기에는 경제외적인 요소, 즉 군사력도 동원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아프카니스탄이다. 카스피해산 원유를 서방으로 단거리 수송 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가치는 필연적으로 지정학적 갈등을 불러 일으킨다.

2) 소련의 붕괴와 유라시아 실크로드의 부상

중앙아시아 지역은 러시아에게 중요했다. 때문에 근대화 과정에서 러시아와 청나라가 직접 갈등을 빚었고, 영국과 정책대결을 벌였다.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성립된 이후에도 1930년에 대규모 정치범들을 이주시켰고, 1937년에는 연해주 지역에 거주하던 고려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개간하게 만들었다. 스탈린은 이뿐 아니라 이 지역들을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지역간의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시켰다. 흐루시초프 수상도 1950년도에 황무지 개간사업(virgin lands program)을 벌여 카자흐스탄 지역을 개간하도록 러시아인들을 이주시켰다. 구 소련 말기에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러시아인 수는 총 930여만 명에 이를 정도였다. 카자흐스탄에는 현재도 전체 인구의 30%를 러시아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소련은 1979년 12월에 아프카스탄의 내전에 개입했다. 아프카니스탄 지리적으로 중앙아시아 중심부에 위치하여 중동과 아시아를 연결시키는 요충지이며, 중앙아시아의 석유를 아라비아해로 운송하는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소련은 과거처럼 인도양으로 남하하고, 중앙아시아를 통제하며, 석유수송의 길목을 장악하려하였다.¹³⁾ 이후 1989년까지 벌어진 전쟁에서 소련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무엇보다도 이 전쟁에서 미·소는 간접적으로 교전하였다.

소비에트 공화국은 1991년에 붕괴했다. 그 여파로 중앙아시아에는 신흥국가들이 탄생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이다. 이 국가들은 러시아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석유의

12) 박병구, 『한중일 석유전쟁』, 한스미디어, 2008 p.179

13) 박병구, 『한중일 석유전쟁』, p63.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이고, 해양으로 빠져나가는 교통로의 확보, 영국을 대신해서 일어난 미국의 진출과 중국의 서진을 저지하는데 전진거점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의 협력기구.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회원국들은 2005년 10월 초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양대 중앙아시아 경제기구 통합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중앙아시아 협력기구는 1990년 중반에 설립되었는데-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및 타지키스탄으로 시작해서 2004년 10월에는 러시아가 가입했다. 지역 통합의 가속화와 지역 안보 및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2000년에 창설되었는데,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및 타지키스탄 등의 국가들로 구성되었다. 이는 유사하지만 역내 전체시장에서 관세통합, 대외경제정책 및 가격 단일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¹⁴⁾

이러한 움직임들은 러시아가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키면서 부분적으로는 관리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군사력을 동원하기도 한다. 특히 푸틴 정부는 소비에트가 붕괴된 1991년 이후에 사실상 손을 놓았던 중앙아시아 지역을 다시 영향권 안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중앙아시아에 직접 관련을 맺은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주변국의 우려와 바람을 일축하면서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평균 10%가 넘는 성장률을 지속시켜 지금은 G2의 반열에 올랐다.¹⁵⁾ 세계경제대국으로 치닫는 중국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의 부족이다. 이러한 중국에게 중앙아시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해외 석유자원 등의 보급지이며, 운반로이다. 실크로드는 오일 로드(oil road)¹⁶⁾이기도 하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민족문제와 영토문제이다. 현재 중국의 세운 국가전략의 지향점은 태평양과 인도양이다. 해양전략의 실패로 인하여 아편전쟁과 청일전쟁에서 패배했고, 이것이 결국 중국을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시켰으며, 그 후 분단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양을 중시할 경우에 중국의 서부인 신장지구와 중앙아시아는 후방전략의 대상이다.

따라서 중앙아시아는 우선 민족문제와 연관되었다. 중국은 55개의 소수 민족과 한족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14개 국가와 국경선이 연결되고 있는데 이 국가들은 중국 국경 내부

14) 이채문, 『공간으로 읽는 중앙아시아』, 경북대학교 출판부, 2012. p.175

15) 한광섭, 『새로운 물결의 동아시아를 본다』, 한울, 2012. p. 63 : 2010년 일본을 누르고 GDP 규모에서 세계 2위에 도달하여..<중략> 1908년대 말 개혁개방의 지도자 덩샤오핑은 ‘타오광양 후이(韜光養晦, 능력을 감추고 실력을 준비함)’ 외교노선을 표방했다.

16) 박병구, 『한중일 석유전쟁』, p.52

에 있는 주민들과 혈연적으로 역사적으로 연고가 깊고,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깊다. 중앙아시아의 동쪽지구인 新疆은 위구르 자치구이다. 민족문제는 1944년에 소련의 지원을 받아 ‘동투르크스탄 이슬람공화국’을 건설하면서 촉발됐다. 1949년 중국 인민해방군은 우루무치시를 점령했고, 1955년에 자치구로 지정했다. 동투르크스탄의 독립운동은 ‘범이슬람주의’와 ‘범투르크스타니즘(돌궐주의)’의 영향 아래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소비에트의 붕괴로 인한 이슬람국가들의 독립과 카스피해의 유전개발 등으로 인하여 이슬람 튀르크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는 그들과 혈연적으로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관된 위구르인들과의 문제이기도 하다. 당연히 영토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 작업이 서북공정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주축이 되어 2001년 6월 15일에 상해협력기구건립선언을 발표하고 상해협력기구(SOC)를 탄생시켰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중국의 신장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었다.¹⁷⁾ 중국은 상해협력기구 창설 이후에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나아가 이 기구를 중앙아시아지역에서 동북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까지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중앙아시아 정책은 마치 쿠빌라이칸 때 추진한 일종의 아시아 海陸政策의 일환처럼 보인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도 중앙아시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소비에트가 붕괴되기 전까지 중앙아시아는 소련의 영토였으므로 미국에게는 활용가능성이 전무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중앙아시아는 석유를 비롯한 자원의 보유국으로서 21세기 미국이 통제해야 할 신에너지 공급기지였다. 더욱이 잠재적 적국인 러시아와 중국과 접경하면서 반미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 국가들이 독립한 이후에 이 지역은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구실과 명분들을 제공하면서 전략적인 이해가 걸린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 지역에 진출하고 있다.

우선 1980년대에 소련과 아프가니스탄에서 간접 교전을 하였다. 근래에 들어서는 중국과 비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거나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몇몇 나라들을 동원하거나 지원하면서 중국을 고립시키거나, 힘을 약화시키려는 외곽포위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 몽골,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그리고 최근에 부상한 인도 등을 이용하고 있다.

17) 박병구, 『한중일 석유전쟁』, pp.101~103

중앙아시아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 키르시스스탄 수도인 비슈케크 교외에 있는 마나스 국제공항에 3000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9.11테러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서·동·남 3개 방향에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고 있으며, 중앙아시아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모델을 이식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¹⁸⁾ NATO도 중앙아시아에 대해 평화동반자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1999년에 벌어진 코스보 전쟁, 2001년에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반테러전쟁 등은 모두 에너지 전쟁이다.

일본은 1970년대에 이미 미국 다음 가는 경제력을 갖게 되었다. 1979년의 제2차 석유파동이 발생하여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성장을 계속했고, 정치적으로도 힘을 갖기 시작했다. 1982년 이후로 세계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일본은 더욱 성장을 계속했다. 세계 최대의 자본 공여국이 되었고, 한국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에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한편 일본은 1970년대 이후에 ‘해상교통방위 구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논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80년대 들어와 내각총리대신이 된 나카소네 야스히로는 자주방위론자였다. 그 시절에는 ‘3해협 봉쇄’ ‘불침 항공모함’ 발언과 방위비의 GNP 1% 내라는 조항을 철폐하자는 등을 주장했다.

일본은 1997년에 IMF사태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지금 상대적으로 추락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중국과 벌인 경쟁에서 점점 불리한 위치로 전락하고 있다. 1990년 대 이후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으며, 2010년에 이미 세계 경제의 2위 자리를 중국에게 내줬다. 2011년 7월 일본중앙은행이 전망한 2011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0.7%에 달한다. 그런데 지금의 아베 내각은 우리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전형적인 자원빈국이고, 그 때문에 동남아시아를 공격했고, 결국은 태평양 전쟁이라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패배하였다. 이러한 일본에게 석유수송로는 생명선 그 자체이었다. 하지만 ‘말라카 해협방위론의 실천’, ‘일본의 군사대국화’ 등은 결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다. 그러한 일본은 자구책으로 중앙아시아에 진출할 수밖에 없다.

실크로드의 중요성을 본격적으로 인식한 나라는 사실 제국 일본이었다. 그들은 실크로드 탐험대를 파견하였고, 1970년 대에 이미 실크로드 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일본 정부는 1998년 실크로드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정치·경제외교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으며(일본은 중앙아시아 5개국과 코카사스 3개국을 실크로드지역이라 부름) 일본은 중앙아시아 외교에 대한 신시기와 신모형의 구상을 내놓았다. 일본 외무성

18) 박병구, 『한중일 석유전쟁』, pp.71~73

은 유럽국에 있는 신독립국가실을 중앙아시아-코카사스실로 개편하였다. 결국 일본에게 중앙아시아는 자주적인 석유개발과 석유공급원 확보라는 신전략의 관점에서 중요한 전략 지역인 셈이다. 그래서 일본은 중앙아시아와 일본의 외무장관회담에서 중앙아시아가 인도양 항구로 진출할 수 있는 철도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물론 중국은 일본의 중앙아시아 정책을 연미제화 전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¹⁹⁾

중앙아시아 지역과 관계가 깊은 또 하나의 나라가 터키 공화국이다. 터키는 제 1차 세계대전때 독일 편에 선 댓가로 나라가 오스만 투르크제국이 해체되고 약체의 나라로 전락했다. 국명에서 보이듯 터키는 튜르크를 상징하는 나라이다. 중앙아시아 5개국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범오토만주의, 범투르트 연합의 맹주 역할을 하고 싶어하고, 또 실제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터키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언어적, 민족적, 역사적으로 유사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과 터키 이스라엘은 유라시아 연합을 모색한다. 하지만 터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중앙아시아 민족들은 독자성을 강조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러시아는 터키의 행적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중앙아시아 지역은 점차 개발되고 있으며, 과거처럼 세계의 중심자리를 회복해가고 있다. 2006년 현재, UNDP(연합국개발계획기구)는 실크로드 지역 프로젝트 추진하고 있는데, 참여국가는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크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고, 참여를 희망하는 나라들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한국, 일본, 몽고이다.

4. 맺음말

21세기는 세계화와 함께 경제전쟁의 시대, 문화의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이제는 전 시대와는 달리 명분을 찾으려 애쓰거나 위선을 떨지 않고, 군사력을 꼭 동원할 필요도 줄어들었다. 좀 더 복잡해졌지만, 노골적이고 이합집산이 자유롭다. 비록 주변부에서는 국지전들이 발생하고, 군사충돌이 산발적으로 일어나지만, 전체 판세는 국가나 체제 간의 경쟁이 경제나 문화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제는 정치적으로 이해가 일치하고, 종족 문명 등으로 비교적 관계가 깊은 국가들이 모여 경제권을 만들어가고 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큰 역사단위가 탄생하고 있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은 이 소용돌이 속에서

19) 박병구, 『한중일 석유전쟁』, pp106~108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생존경쟁에 골몰하고 있다. 세계는 경제와 무역을 매개로 삼아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이 맺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각 나라들은 넓게는 국가 간, 좁게는 지역 간이나 도시 간에 협력체를 결성하려고 많은 구상과 이론들을 내세운다. 필자는 동아지중해 모델과 해양도시연맹론을 제기한바 있다.

현재 유라시아에서는 ‘신거대게임(new great game)’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의 석유자원을 비롯하여 수송로문제, 철도건설 등을 놓고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을 비롯한 강대국들과 터키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직접 간접으로 관여하고 있다. 따라서 유라시아 실크로드는 향후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매우 역동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특히 우리의 생존전략과도 직결되어 있다.

그런데 유라시아 실크로드 공간은 우리와 언어 혈연 문화적으로 친연성이 깊다. 일종의 문화공동체 의식을 가질 논리적인 근거와 사실이 있다. 이 지역은 고대 이전부터 혈연적으로 언어적으로 유사성이 강할 뿐 아니라 초원의 길, 사막의 길을 통해서 직접 간접으로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면에서 우리 역사상에 영향을 끼쳐왔다. 반대로 우리 또한 그 지역과 문화에 영향을 끼쳤다. 앞으로 이 공간의 역사와 문화,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문화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알고, 우리와 맺은 연관성을 찾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들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에도 우리와의 연관성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50만에 달하는 고려인들이 러시아를 비롯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적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고려인의 존재는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함께 역할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뿐만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생존전략과 직결되어 있다. 자원빈국인 한국으로서는 석유자원의 공급지이며, 대중국 및 대러시아정책을 고려할 때 반드시 우호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장의 확장과 산업인력공급 등의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라시아 실크로드 공간의 가치와 역할을 제언하고자 한다. 서언에서 언급하였듯이 인류문명이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시키면서 새로운 대안문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필자는 비문명이라는 용어와 개념을 갖고 이론을 전개시키고 있다. 그때 이러한 이론의 배경이 되는 것이 유라시아 실크로드의 고대문명과 현재 남은 문명 등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유라시아 실크로드는 문명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 권영필; 정수일; 최광식; 지배선; 장준희; 유리F.부랴코프; 루스탐 X; 슬레이마노프,『중앙 아시아속의 고구려인 발자취』,동북아역사재단, 2008
- 박병구, 『한중일 석유전쟁』,한스미디어, 2008
- 이채문, 『공간으로 읽는 중앙아시아』, 경북대학교 출판부, 2012
- 최남선 , 정재승, 이주현 역주, 『불함문화론』 우리역사연구재단,2008
- 한광섭, 『새로운 물결의 동아시아를 본다』 『, 한울, 2012.
- 로버트 카플란, 이순호 옮김. 『타타르로 가는 길』 르네상스. 2003
- 사와다 이사오, 김숙경 옮김, 『흉노』, 아이필드, 2007.
- 스기야마 마사아키, 임대희 외 옮김 『몽골세계제국』, 신서원, 1999.
- 오다니 나카오, 민혜홍 옮김, 『대월지, 중앙아시아의 수수께끼 민족을 찾아서』, 아이필드, 2008.
- 劉惠瑞, 劉恩瑞, 손준식 옮김, 『중국 근현대 영토문제 연구』, 군사편찬연구소, 2012
- 조지 프리드먼. 김홍래 역. 『넥스트 디케이드』 쌤앤파커스. 2011.
- 피터 C 퍼튜, 고원국 옮김, 『중국의 서진』, 길, 2012
- 고승길, 「고구려 춤과 西城」, 제 6회 한국무용사학 학술심포지움, 한국고대 무용문화의 조명, 2006

* 본 발표문은 필자의 글을 바탕으로 여러 학자들의 연구성과를 참고로 작성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인용출처가 생략된 곳이 있을지 모른다. 있을 경우에는 추후 논문으로 발표 시에 보완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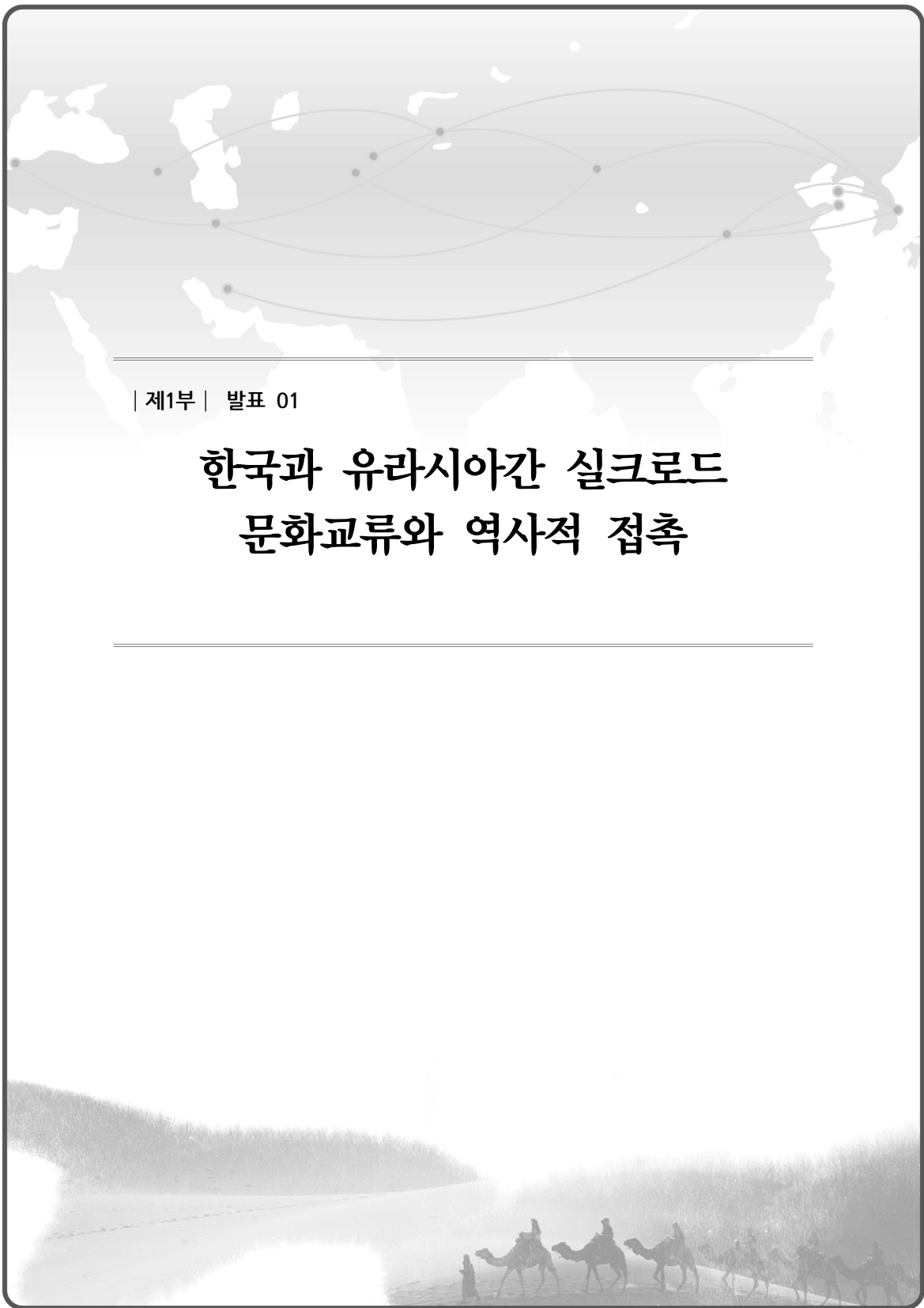




제1부

유라시아 문명과 실크로드의 범주





| 제1부 | 발표 01

한국과 유라시아간 실크로드 문화교류와 역사적 접촉

한국과 유라시아간 실크로드 문화교류와 역사적 접촉

The Cultural Exchange and Historical Encounter Between Korea and Eurasia Along the Silk Road

이희수*

목 차

1. 실크로드 고대 교류	지식네트워크 구축
2. 신라·중앙아시아·서아시아 교류	2) 실크로드(유라시아) 박물관 건립
3. 몽골시대 한국과 중앙아시아	3) 실크로드 지식포럼과 국제 학술지 발간
4. 한국과 터키의 역사 교류축 재조명	4) 경제 협력 사업에서의 인문학적 교육 연계
5. 향후 협력 아젠다	
1) 한국-유라시아간 실크로드	

1. 실크로드 고대 교류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교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유물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알타이 문명권에 속한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고대 문화는 중국 등 주변 지역과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냉

* 한양대 문화인류학과교수 (Lee, Hee Soo, Hanyang University)

전 해체 이후 한국, 몽골,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 알타이 문명에 영향을 받은 국가들 사이에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이들 국가들의 문화적 공통분모들이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향후 중요한 연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반도로 물품이 몰려오고 인적 접촉이 가속화되면서 문화적 접촉을 갖는 소통 채널은 이미 기원 전후부터 뚫려 있는 실크로드라는 문명의 젓줄이었다. 7세기 이전까지는 아직 인도양을 가로지르는 원거리 항해술과 그에 적합한 선박의 건조가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에 부분적인 근해 해상 교역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안전한 육상 실크로드가 이용되었다. 육상 실크로드의 한 축은 비잔틴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이고, 다른 한 축은 중국의 장안이었다. 물론 그 사이에 중앙아시아의 수많은 지로와 간선 도로가 있어 싹틔출처럼 교역망이 연결됐다. 콘스탄티노플에서 출발한 대상과 교역 물품들은 중앙아시아 중간지대를 거쳐 신라 사회까지 전달될 수 있었다.

이런 길들을 통해 실크로드가 개척된 기원 전후부터 중앙아시아의 진귀한 물품은 물론 생활에 혁명을 가져온 음식, 종자, 과일, 야채 등 새로운 삶의 동반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개량되었다. 한 대에 이미 페르시아산 포도와 석류가 중앙아시아에 알려져 재배되었고, 파, 마늘, 참깨, 홍화, 수박, 참외, 오이 등은 물론 러시아 남부와 카프카스 지역에서 목숙(苜蓿)이라 불리는 말의 사료로 인기가 높던 개자리가 소개되어 재배되었다. 이들 산물은 중앙아시아나 서역에서 왔다 하여 대부분 ‘호(胡)’라는 접두어를 붙였다¹⁾. 음식 재료가 오면 음식 문화도 당연히 함께 오는 법이다. 특히 설탕을 만드는 제당술과 술을 빚는 다양한 방식들이 서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로, 다시 중국과 한반도로 전해졌다.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중앙아시아-서아시아’ 관계는 이슬람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더욱이 이슬람 시기 이전 실크로드 길목을 차지하고 있던 사산조 페르시아가 중앙아시아 투르크족 영역을 거쳐 동아시아에 전해 준 문화적 파급효과는 지대했다.

고대 문화 교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을 정도로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아랍-페르시아 상인들의 신라 진출이 본격화된 8~9세기경에는 세계적 대도시인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슬람 제국의 수도 바그다드-당나라 수도 장안-중앙아시아의 부하라-신라의 수도 경주 사이에 문화적으로 거의 ‘동시 패션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콘스탄티노플의 상류 사회 왕족들이 사용하던 기호식품이나 공작새 꼬리털, 비취 모, 공

1) 호도(胡桃), 호마(胡麻), 호과(胡瓜), 호두(胡豆) 등이 대표적이다.

예품 보석류, 여성 소품들과 장신구, 바그다드 일대로부터 전해진 여러 용도의 페르시아 카펫, 모직 말안장, 카펫 장식품, 아라비아 남부의 유향과 몰약, 옥 빛과 에메랄드 제품, 유리 제품, 금속 수공예품 등이 중앙아시아의 여러 도시, 중국 장안을 거쳐 혹은 이슬람 상인들과의 직거래를 통해 신라의 수도 경주에까지 활발하게 전달되었다. 그리고 화려하고 진귀한 수입품과 사치품들은 신라 귀족 사회의 고급문화를 일구었다. 경주 고분에서 발굴되는 무수한 중앙아시아-서아시아계 출토품들과 <삼국사기> 기록에 보이는 아랍 상인들의 교역품 목록들이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된다.

서아시아-중앙아시아 문화의 한반도 유입에는 육로 못지않게 바닷길이 결정적 통로 역할을 했다. 고대부터 뚫려 있던 바다라는 무한의 가능성을 통해 사람이 왕래하고 기술을 주고받으면서 한반도는 세계적인 변화의 물결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위치에 있었다. 걸프 해에서 출발한 아랍 선단은 6개월 후면 중국 동남부 해안에 도달했다. 아랍 인들은 그곳에 정착해 살면서 공동체를 이루었고, 때로는 중국 해안가에서, 또 때로는 인접한 한반도로 직접 내왕했다. 아시아 끝과 끝은 그때부터 서로문화를 나누고 친분을 맺은 사이가 되었다.

2. 신라 · 중앙아시아 · 서아시아 교류

통일신라 이전까지는 주로 육상 오아시스 실크로드가 선호된 반면, 8세기부터는 중국 동남부 해안과 한반도 간의 직간접 해상 교역이 더욱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9세기 초 장보고의 해상 세력이 중국-한반도-일본을 잇는 동북아 경제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와 아랍 상인들 간의 교류는 중국에서의 간접 교역이 주가 되었다. 그러나 장보고 세력이 몰락하고 시장 질서에 교란이 일어난 9세기 중반 이후에는 아랍 상인들이 직접 한반도에 진출했다. 관련 기록이 아랍 사료에 빈번히 등장하고, 구체적인 교류의 흔적이 감지되는 시기와도 맞아떨어진다.

아랍 역사학자 마수디(Mas'udi)의 대표작인 <황금초원과 보석광산(Muruj al-zahab wa ma'adin al-jawahir)>에 의하면, 7세기경 진귀한 물건을 가득 실은 중국 상선들이 아라비아 동부와 걸프 해로 들어와서 교역을 했고, 이븐 알 칼비(Ibn al-Kalbi)는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Muscat)에 중국 시장이 형성될 정도라고 했다. 중국인들은 주로 겨울철 북동풍 몬순을 이용하여 중국 남쪽 광둥 지방의 광저우를 출발하여 아라비아 해로 향했으며, 4월

부터 10월 사이에 불어오는 남서계절풍을 이용하여 회항하는 항해를 반복했다. 그러나 두 나라 사이의 교역은 직접적인 내왕보다는 인도와 동남아시아를 중간 기점으로 하는 경우가 더욱 경제적으로 실질적이었다. 아랍-페르시아 상인들도 처음에는 직접 중국까지 가기보다는 인도 말라바르(Malabar) 해안의 케랄라(Kerala)와 스리랑카, 말라카(Malacca)와 수마트라 해안, 좀 더 북상해서는 베트남 남부의 참파(Champa)를 근거지로 하여 중간 교역의 이득을 챙겼다. 8세기 이후부터 항해술과 대양 횡단항로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축적되면서, 중국 광저우까지 직접 내왕하는 교역도 점차 증가하였다. 아랍·페르시아 상인들이 머물던 중국 동남부 해안은 한반도의 지척에 있다. 오랜 항해 끝에 중국에 자리 잡은 그들이 또 다른 황금시장인 신라를 놓칠 리가 없었다. 아랍 사료에 보이는 신라에 대한 무수한 기록이 이를 잘 말해 준다.

앞서 살펴본 대로 서아시아-중앙아시아-중국 사이에 벌어지는 대규모의 실크로드 교역과 문화적 접촉은 당연히 한반도에까지 그 파고가 미쳤다. 조선 초기까지도 한반도는 바깥 문명에 열려 있었고, 외부 문물을 받아들여 자기화하는 비교적 단단한 자기 용광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대 이래로 한국은 지정학적 입장이나 이념적·문화적 영향 때문에 중국과의 접촉이 주가 되었지만, 중국과 동북아 일원에서의 정치 판도에 따라 이 지역에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했던 투르크, 몽골, 만주족 같은 북방 민족과도 폭넓은 교류를 해왔다. 물론 삼국 통일 이전에도 한민족과 북방 민족과의 부분적인 직접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고구려는 6~7세기경 접경하고 있던 돌궐과 빈번하게 접촉했는데, 돌궐의 공격으로 일시적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기도 했지만, 사신을 돌궐의 카간에게 파견하여 수에 공동 대항하는 전략을 모색하기도 했다. 더욱이 돌궐 비문에는 고구려와의 충돌 사실과 함께 돌궐 카간의 장례식에 고구려에서도 조문 사절이 당도했음을 알리는 기사가 남아 있다.

시대가 흐를수록 문화 교류의 파고는 동북아 일원에 제한되지 않았고, 이슬람이 등장하는 610년경인 삼국 시대 후반에는 교역권이 서역을 지나 아랍문화권까지 확산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을 통한 서역 문물의 유입과 보급이 활발했던 통일신라 전성기에 뚜렷이 나타났다.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박물관에 가면 1965년 아프리카시업 언덕 고분 벽화에서 발견된 사신도 중 고구려인으로 추정되는 한국인 사절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7세기 사마르칸트를 통치하던 소그디아나 왕국의 바르후만(Varxuman: 650~670) 왕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고구려로부터 먼 길을 무릅쓰고 사신이 파견되었다. 이는 그 이전부터 두 나라 사이에 적지 않은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두 지역간에는

대규모 사절단 왕래나 상인들의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많은 흔적과 기록들이 남아있다.

문화적 양식면에서도 7세기 전후 고구려의 관모 중에서 돌궐의 영향이 보이고 있음은 양국 교섭을 말해주는 좋은 예이다. 물론 이러한 교류의 결과 고구려의 웅장한 예술기법과 모티브들이 중앙아시아 특히 돌궐 등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권영필 교수는 이를 ‘북방기류’라 칭했다. 예컨대 고구려 덕흥리 고분벽화(408년), 무용총 벽화(5세기)와 돈황 429굴 벽화의 수렵도, 고구려 삼실총 벽화(5세기 후반), 돈황 285굴 벽화의 지그재크식 표현 등은 고구려풍의 영향을 잘 알 수 있는 있는 흔적들이다. 현재까지 발견된 100기가 넘는 고구려 고분(4~7세기) 벽화 속의 서역적 요소들은 분명히 고구려와 고대 투르크 국가들과의 문화적 교류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751년에는 압바스 이슬람 제국과 중국 당나라가 세계대전을 펼치게 되었을 때, 당군(唐軍)을 지휘한 총사령관이 고구려 출신의 고선지(高仙芝) 장군이었고, 그 휘하 부대에도 많은 수의 고구려 출신 장수들이 포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 2만 명 가량의 당나라 군대가 이슬람군에 포로로 잡혔는데, 그 중 중국의 제지공들에 의해 이슬람 세계와 유럽에 중국종이가 도입되어 문자혁명과 아랍의 학문적 르네상스가 열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역사적 사실이다. 전쟁 바로 직후인 751년에 사마르칸트에 제지공장이 설립됨으로써 인류가 비로소 혁명적인 문명의 시대로 들어갔다. 그리고 보면 고선지 장군이 점령했던 도시 타쉬켄트, 탈라스 전쟁이 벌어졌던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접경의 탈라스 평원이나 고구려인 유민들이 포로로 머물게 되었던 사마르칸트 모두 두 민족들에게는 중요한 역사적 연결고리다.

그 후 신라출신의 불승 혜초(慧超: 704~787) 스님은 일찍이 인도로 구법여행을 떠났다가 왕오천축국전이란 소중한 기록을 남겼는데 귀로에 부하라와 사마르칸트에 들러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으로 남겨놓았다. 예술분야에서는 특히 음악교류가 활발했는데, 한국의 음악사학자인 전인평 교수 등에 따르면 한국의 전통악기인 장고, 횡적(가로피리), 비파, 거문고, 해금 등이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아시아의 여러 악기에서 유래되었다는 연구논문을 발표했고, 특히 사마르칸트의 음악인 강국기(康國伎)와 부하라의 음악과 예술양식들이 안국기(安國伎)라 하여 고려사 기록에 보이고, 이러한 가무들은 조선 초기 세종 시기까지 군악과 행진곡에 해당되는 고취악(鼓吹樂)으로 널리 연주되었다.

이처럼 고대 실크로드를 통한 이 지역과 한반도간의 교류와 접촉을 알려주는 몇몇 구체적인 고고학적 유물이 신라고분에서 발굴된 토용이다. 이 토용들은 한국미술사학자에 의해 중앙아시아, 특히 실크로드를 따라 무역을 하기 위해 왔던 오늘날 우즈베키스탄

지역의 소그드 상인의 모습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주 원성왕릉을 지키는 8세기 쾌릉의 무인 석상의 모습도 중앙아시아 투르크인이나 이슬람권 인물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돌궐을 이어받은 위구르 투르크족들은 중앙아시아를 통일하여 위구르 제국(8~9세기)을 건설했다. 그들은 이후 몽골 지배시대에는 가장 활발한 실크로드 문화전파자로서 최고의 두뇌집단으로 동서교류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들 중 일부는 한반도에까지 진출하여 활동함으로써 중세 한국과 투르크 문화권과의 문화교량 역할을 담당하였다.

3. 몽골시대 한국과 중앙아시아

칭기즈칸의 몽골은 복속된 주변 민족들에게 더할 수 없는 재앙이었지만, 인류 문명의 전파와 과학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놀라운 자극의 계기였다. 예나 지금이나 인류의 삶을 한 단계씩 높이는 주된 계기는 불행히도 전쟁과 교역이었다. 몽골의 간섭을 받은 고려 사회에서도 이미 세계를 끌어안고 있는 몽골 제국의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지금 우리의 전통문화로 굳어진 많은 요소들이 몽골 지배라는 시대적 아픔의 결과인 것이 적지 않을 것이다. 과학과 첨단 의술의 도입, 역법과 학문의 성숙, 의식주를 망라한 다양한 습속과 문화의 유입 그리고 자기화의 결과일 것이다. 소주만 해도 그렇다. 소주는 당시 ‘아라기’라고 불렸는데, 아랍 증류주 ‘알 아락’의 음역이다. 증류주의 대명사인 소주는 재미있게도 술을 철저히 금하는 아랍 사회가 만들어 낸 문화적 유산이다. 연금술로 대표되는 아랍의 수준 높은 과학 실험의 결과가 알코올 개념을 체계화시키고 실용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몽골을 통해 받아들인 선진 학문과 과학 기술은 조선 초기까지 맹위를 떨쳤다. 이슬람 역법을 빌려 우리식 음력을 창안하고, 수많은 과학기기의 발명과 정비에도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이슬람 과학이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문화 전파자 역할을 해왔던 위구르계 두뇌 집단들이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집단촌을 형성하면서 우리 사회에 그들의 지식과 경륜을 쏟아 냈다. 세종이 일군 학문과 과학의 르네상스는 이처럼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제 학계가 하나하나 새롭게 조망하면서 위구르와의 역사적 관계를 정리할 때다.

중국인들은 위구르인들을 Hui-hu(回紇), Hui-ho(回鶻), 나아가 회회인(回回人) 등으로 불렀으며, 그들이 믿는 이슬람교를 중국과 한국에서는 회교(回教), 회회교(回回教)로 불렀다. 위구르인의 종교란 뜻이다.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에 무수히 등장하는 회회인들이 이슬람화 된 위구르인을 지칭하고 있으며, 고려 말 몽골의 제국공주를 모셔왔던 회회인 삼

가(三哥)는 현재 덕수 장씨의 시조로 추앙받고 있다. 이렇게 교류하고 접촉을 계속해 온 중앙아시아 투르크 종족집단들은 몽골의 고려지배 시기에 대규모로 이주하여 고려의 수도 개경에 집단 공동체를 이루고 살 정도였다. 한국의 기록에 의하면 13세기 말에서 15세기 초까지 이슬람화 된 중앙아시아 투르크족들은 그들의 공동체내에서 고유한 종교의식을 치르고, 투르크어를 말하고 고유한 복식과 풍습을 유지하며 모스크까지 짓고 살았다.

그들 위구르계 투르크 이슬람 집단들이 결국 15세기 조선의 세종대왕의 과학 르네상스에 기여한 지적 두뇌집단 역할을 했다고 판단된다. 그 한 예가 바로 세종시기에 완성된 천문학적 역법인 “칠정산외편(七政算外篇)”이라 할 수 있다. 이 역법은 조선 왕조에서 발명한 가장 뛰어난 역법으로 오늘날 한국인들이 전통의례에서 사용하는 음력의 단단한 기초가 되었는데, 그 모태가 바로 이슬람 역법의 원리라고 여겨진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천문학적 수준을 자랑하던 울루그 베이(Ulug Bey) 천문학의 지적 결실들이 조선의 과학 르네상스에 끼친 영향을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양국학자들의 향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15세기 중반에 들어서기 전에 이슬람 문화의 흔적은 점차 희미해졌다. 1427년 세종의 외국 문화 배척 칙령으로 급격한 동화가 강요되었기 때문이다. 국가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인 신유교주의가 강조되면서, 세계관의 초점은 온통 중국에 맞춰졌다. 이즈음 이슬람권을 평정하고 세계의 새로운 패자로 떠오른 오스만 제국 및 그들과 투쟁하고 경쟁하면서 힘을 키워 가던 유럽의 변화를 읽을 수가 없었다. 글로벌 마인드가 무너지면서 세계의 흐름을 놓친 것은 후일 참담함 결과로 나타난다.

4. 한국과 터키의 역사 교류축 재조명

글로벌 공동체 중에 한국과 가장 친근한 나라가 터키이다.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등 역사적 인연으로 인한 양국 국민들 간의 단단한 신뢰와 우정의 축이 잘 다져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적 친근감은 양국 협력을 위한 귀중한 자산이다. 언어, 종족적 원류, 삶의 방식, 관습, 민간신앙 같은 문화적 동질감만큼 민족간·지역간 관계를 좁혀주고 지속가능하게 엮어주는 편안한 결속 요소도 없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터키와 중앙아시아 각국, 특히 “-스탄(-stan)국가(타지키스탄은 페르시아계 전통)”와 아제르바이잔 등은 투르크 문화(언어·종족·종교·관습)를 공유하는 동

일민족 집단이고 그러한 연계가 정치, 경제투자, 교육 등에서 활발하게 실천되고 있다. 동시에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을 중심 국가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터키·중앙아시아·한국 이라는 세 축의 알타이 문화 동질성 요소는 활용 여부에 따라 전혀 새로운 창의적인 인문벨트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의 우호적인 체계를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고 미래의 더 나은 창조적 협력체계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동질성을 학문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조선의 쇠국정치 이후 500년간의 긴 단절을 딛고, 한반도와 투르크는 19세기 말~20세기 초에 다시 만나게 된다. 오스만 제국의 술탄은 극동지방 정세 탐색을 위해 비밀사절들을 보내 조선의 상황을 살폈던 기록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1917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자, 많은 수의 투르크계 민족의 일부가 극동으로 이주하여 당시 일본군의 보호를 받아 한반도로 이주하게 되었다. 그들은 무역에 종사하거나 양복점이나 포목점을 운영하면서 정착했다. 대부분 카잔 투르크계인 그들은 단단한 공동체 결성(Mahall-i Islamiye)과 국제무역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했으며, 한국에 최초로 양복문화를 전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타타르인이라고도 불리는 그들은 민족교육을 위해 학교(Mekteb-i Islamiye)나 모스크 시설이 있는 문화회관도 있었고 서울 근교에 공동묘지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비호를 받아왔던 이들은 해방 후 우리 민족의 따가운 눈초리와 국제 정세에 불안을 느끼고 모두 터키, 호주, 캐나다 등지로 떠나버렸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에 터키가 동참함으로써 우리 민족과 투르크 민족간의 군사적 협력은 거의 1000년 만에 재개되었다. 즉, 수나라를 경계해 고구려와 돌궐이, 그 후 당나라를 대상으로 발해와 돌궐이 군사협정을 맺은 지 천년 만에 한반도에서 다시 군사적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터키는 당초 한국전쟁에 5,000명을 파견할 계획을 세우고 지원병을 모집했다. 그러나 ‘형제의 나라’에서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약 15,000명이나 자원했다. 터키는 한국전쟁에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전투병을 파견해 많은 희생자를 내었다. 공식 수치는 721명 전사, 168명 실종, 2,111명 부상(이 중 100여명이 부상 후유증으로 1년 이내에 사망)으로 알려져 있다. 역사적으로 용맹한 전사들이었던 투르크 민족은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에서도 그 용맹성을 여지없이 발휘했다. 열악한 무기로 유엔군 중 가장 용맹스럽게 싸웠다고 전해진다. 특히 ‘군우리’와 ‘금오리’ 전투는 한국 전쟁사에서 보기 드문 전투로 이 전투에서 터키군이 승리하지 못했다면 오늘날 휴전선의 위치는 훨씬 남쪽으로 그어져 있었을 것이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제는 터키와 중앙아시아를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그것도 지극히 미국 중심으로 왜곡된 현실의 축이 아니라 깊은 역사성과 우리와의 문화적 교류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역사적 사실과 사료의 발굴과 재해석을 통해 함께하는 협력적 파트너로 새롭게 보아야 한다.

5. 향후 협력 아젠다

1) 한국-유라시아간 실크로드 지식네트워크 구축

이러한 연구수행을 위해서는 실크로드와 중앙아시아 각국 대표 연구소간에 정책공조와 보다 효율적인 공동연구를 위해 종합적 지식연구 네트워크를 구축을 제안한다. 지금까지 연구는 국가별 개별연구의 성격이었고, 실크로드연구를 주관하는 연구자들조차도 중앙아시아-중국, 중앙아시아 투르크 국가 간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 분야도 고고학과 역사학이 중심을 이루었다. 실크로드 지식네트워크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각국 간 공동·양자 간 연구에 치중하는 연구공조 연계망을 의미한다. 중앙아시아 대표 인문학 연구소와 관련 최고의 연구자들이 한국학자들과 다음과 같은 실크로드 국제연구랩을 구성한다.

- ① 고대 실크로드를 통한 문화교류와 역사적 접촉
- ② 이를 밝히기 위한 고고학적 공동 발굴
- ③ 중앙아시아 알타이 벨트 속에 단단히 녹아있는 문화의 동질성 분야(언어, 문화, 관습, 종족적 원류 등)를 재평가. 집중 연구 개발
- ④ 신화, 서사시, 미술사, 복식사, 장신구, 음식, 생활용어(언어인류학)
- ⑤ 이를 통해 총서 발간과 국가별-주제별 모노그래프를 영어, 러시아어, 한국어로 출간, 배포

2) 실크로드(유라시아) 박물관 건립

우리문화를 공유하는 실크로드 알타이 벨트상의 투르크 국가들이 소장하고 있는 고고학 유물과 유적, 그리고 민속춤, 민속공예, 서사시 등을 포괄하는 무형유산, 그 지역 사람들의 생활에서 산출된 생활용품과 민속품 등을 연구, 전시, 교육하는 박물관 건립한다. 이는 각 국가를 초월한 문화교류의 장, 연구기관, 미래 인재양성기구 산실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실크로드 지식포럼과 국제학술지 발간

1년에 한 번씩 국가별로 돌아가면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주어진 연구 과제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정기포럼을 개최한다. 나아가 오리지널 연구결과를 영문과 러시아 한국어 등 수준 높은 국제학술지 발간을 통해 발표하고 공유하도록 한다. 한국역사와 문화, 더욱이 중앙아시아와의 역사적 문화교류에 관한 영문 저널 하나 제대로 없는 국내연구 풍토에서 앞으로 이러한 국제적 저널은 중앙아시아학 연구는 물론 중앙아시아-한국 간 역사교류와 문화접촉을 체계적이고 학문적으로 밝혀 두 지역 간의 두터운 상호 인문 이해와 미래 연구자들의 연구동기부여 확산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4) 경제 협력 사업에서의 인문학적 교육 연계

각국에 구축된 유라시아 지식 네트워크 연구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물류, 교통, 자원개발 등 중앙아시아 각국과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국내의 모든 국책연구소와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현지역사와 문화와 비즈니스 관행, 한국문화와의 동질성 이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친한적 시장 환경 구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중앙아시아 진출 유인비전의 토대로 삼는다.



| 제1부 | 발표 02

Ancient Immigration of Iranians to China and Korea along the Silk Road



한글요약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과 한국으로 이주한 이란인들의 고대 이민

Mohammad Bagher Vosooghi*

Hamid Reza Pasha**

동양으로의 이란 이민에 관한 역사적 연구는 그리 생소한 주제가 아니며, 하나의 큰 연구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러한 영역에서 어떠한 효율적인 결과도 산출될 수 없었다. 동양과 서양의 중간에 위치한 이란은 이민자들을 “송출”하거나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속하며, 따라서 이민은 이란 사회의 가장 현격한 특징이 되었다. 동양으로의 이민은 신화 시대 초기부터 시작되었으며 역사 시대에 이르러서는 서력 16세기까지 계속되었다. 이란인이 택한 주요 동양 이민지들은 페르시아어와 아랍어 역사서적들에서 “čīn”[중국] 과 “Mahāčīn”[중화권], “신라”[한국]라고 지칭되었던 지역이다. “Mahāčīn”의 정확한 지리적 위치가 페르시아어와 이슬람 지리서적들에 규명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중국”과 “한국” 두 나라가 역사적으로 이란 이민자의 주요 이민지로 간주되어 왔다. 또한 이민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신화와 역사 서적들에도 포함되어 있을 만큼 이민은 지속적으로 행해졌었으며, 일부 경우 이민은 점진적으로 우화와 전설의 형태로 구성되어서 종교 문헌들과 문학 작품들에 기록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역사적 증거에 기초할 때 이란인들은 이슬람 이전 시대부터 한국(신라)의 지리적, 문화적 특징을 잘 알고 있었고, 일부의 경우 이슬람 시대의 한국에 대한 지리적, 역사적 정보는 실제로는 이슬람 이전 시대의 역사 서적들 및 문학 작품들에서 인용된 것이다. 이는 두 나라 사이의 문화적/정치적 관계가 신화와 이야기들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란인들

* Prof, University of Tehran.

** PhD. candidate of History Department.

이 역사 서적들 및 지리 서적을 통해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최고의 이민자 친화적인(immigrant-friendly) 나라 중 하나이자 “이상향”으로 간주되었다는 견해를 뒷받침한다. 비록 인구 이동은 두 나라 간의 역사적인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왔지만, 이 점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역사적 사례로서 “한국”으로의 이민에 중점을 두어 “이란인들의 동양으로의 이민”이라는 이슈를 재고하고 부각시키려고 한다. 이는 역사 자료들과 미개척 원고들에 대한 조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본 논문의 주요 목표는 동양으로의 주요 이민 기간과 그 기간들이 이란의 역사 기록에 미친 영향에 대한 예비적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다.

Ancient Immigration of Iranians to China and Korea along the Silk Road

Mohammad Bagher Vosooghi(prof, University of Tehran)
Hamid Reza Pasha(PhD candidate of History Department)

Introduction:

Historical investigation of the Iranians' immigration to east is not a much uncommon subject, enjoying a large domain of research. Yet, no efficient outcome can be driven from that domain up to now. Being located in the midst of east and west, Iran is among the areas that have a big potential to "send" and "receive" immigrants, causing "immigration" to be its most salient social feature. Immigration to the East, then, had been flowing from the beginning of the mythological era up until the historical era to the 16th century CE. Major eastern destinations the Iranians chose were the areas referred to as "čīn" [China], "Mahāčīn" [Greater China], and "Sillā" [Korea] in Persian and Arabic historical texts. Given that the exact geographical location of "Mahāčīn" is not specified in Persian and Islamic geographical texts, It is likely that the two lands of "China" and "Korea", have been historically considered as the main destination for the Iranian immigrants, and the immigration had been so consistent that different narrations of the phenomenon have permeated into mythological and historical texts, and in some cases the immigration events have gradually taken the shape of fables and legends, paving their way into religious and literary texts. It should be mentioned that, based on historical evidence, the Iranians have been familiar with geograph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 -Sillā- from pre-Islamic times, and that which in some cases is referred to as the Islamic-era geographical and historical information on Korea, is in fact driven from the pre-Islamic historical and literary texts. This supports the idea that the cultural/political relations between the two nations were not restricted to mythologies and narrations, and the Iranian people had been familiar with “Korea” via historical and geographical texts, inasmuch as it was considered as one of the best immigrant-friendly lands and a “utopia”. Although such population movements have had significant effects in the history of the two nations’ relations, no comprehensive research has been done in this regard yet. The present paper attempts to rethink and shed light on the issue of “immigration of the Iranians to the East”, putting emphasis on immigration to “Korea” as a historical matter. This is done by looking into the historical sources as well as unexplored manuscripts. The main goal of the paper is to present preliminary information on key immigration periods to the East and their effect on the Iranian historical memory.

A: Historical eras of immigration of the Iranians to the East

In Persian and Islamic historical and mythological texts, abundant evidence can be found on the east-bound immigration of the Iranians and their residing there. It should be noted that Iran’s history is divided to two relatively distinguishable pre-Islamic and Islamic periods based on its cultural and social quality. The prevalence of this categorization in Iran history was a basis for the present article to follow the same path in its analysis of the immigration issue.

Pre-Islamic era:

A: The Iranians’ immigration to the Sillā (Korea) in mythological texts:

Based on mythological texts, the beginning of the Iranian history is traced back to the reluctant immigration of the progeny of Jamshid¹⁾- one of the greatest mythological

1) Jamshid (or Jam), mythical king of Iran; Middle Persian Jam, Jamšēd, Avestan Yima (Old

kings of Iran- toward China and Sillā. Events of the life of Jamshid²⁾ are penned differently in different sources; yet, a big portion of those sources coincide in relating the story of the escape of Jamshid's son from Zakhāk toward Mahāčīn and his marrying the daughter of the king of "Sillā"³⁾-Korea. Based on the same narratives, upon the 100th anniversary of his reign, Jamshid claims a divine status, thus being deprived of God's support, paving the way for Zakhāk -the Arab king- to invade Iran and topple him and his subsequent escape from Zakhāk. Some Iranian mythological texts relate the escape of Jamshid to China and his marrying the daughter of China's king.⁴⁾ Yet, a comprehensive story of Jamshid's progeny escaping to the East is brought in the versified book of *Kushnāmeḥ*. The sequence of events is that, Ābtīn, Jamshid's son, escapes to China while being chased by Zakhāk and his son Kush; Kush dominates China and Ābtīn continues his course to "Sillā" after being invited by Tēyhūr, the king

Indic Yama), with the epithet xšaēta . The common noun, meaning "twin," is attested once in Old Avestan in the dual (y and in Old Indic from the Rigveda on (singular, dual, plural), and is used to denote one of a pair of twins, twin brothers or sisters, or several individual twins. On the name, see: Manfred Mayrhofer, *Iranisches Personennamenbuch I*, Vienna, 1977, I, no. 406.

- 2) Prodsoktor Skjaervo(1992), *Myth of Jam*, in Ehsan yarshater (ed.), *Encyclopaedia Iranica*, vol. 5 (Costa Mesa, Ca.; Mazda Publishers, pp. 424-31, p. 425.
- 3) Professor J.T.Reinauld was among the first European scholars of Iran to note in the margins of his published edition of the book *Silsilat al-Tawāriḫ* (written in 851 CE), that Sillā is present-day Korea.(*Silsilat al-Tawāriḫ* (1845), ed. F.R Langlés, translated by .J.T.Reinauld, *Relation des voyage faits par Arabes et des Persian dans L'Inde et à la Chine*, Paris, p.290.) Following him, Barthold mentioned Korea in his description of the Chinestān part of the famous classical Persian geography, *Hodūd al-Ālam* (Regions of the World, written c. 982 CE)(*Ḥudūd al-Ālam* (1937), Translated and annotated by Vladimir Minorski, preface by V.V.Barthold, London. Reprinted 1993 by The Institute for the History of Arabic-Islamic Science at Johann Wilfang Goethe University Frankfurt am Main, Germany, p.228). (In earlier sources the country called Shillā or Sillā). Later, the eminent Iran scholar Professor Vladimir Minorski also mentioned Korea in his publication of the section China, the Turk and India from Sharaf al-Zamān Tāḥir Marvazi's book *Ṭabāye' al-Ḥeywān*.(Minorski, Vladimir (1942), *Sharaf al-zamān Tāḥir Marvazi on China, the Turk and India*, London, The Royal Asiatic Society, p.15.)
- 4)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Jamshid story see: Ibn Jarir al-Tabari(1976). *Tāriḫ al-Rusul wa al-Muluk*(The History of the Prophets and Kings),Tehran ,vol.1.p.115-119. and , Abu Āli Balāmi(1962),*Tāriḫ Balāmi*, edited by Bahār,Tehran,pp.131-132.

of Sillā. There he marries Fararang, the Korean King's daughter, and they continue their course toward Iran upon being chased by Kush. They return to Iran, and there is born their son, Fereydoon. The entire story is presented in versified form.

In the 1985, Professor Matini published several papers in the journal *Iran-nameh*.⁵⁾ His study of the *Kushnāmeḥ* manuscript and then his publication of the full *Kushnāmeḥ* verse work⁶⁾, both introduced a new document to the scholarship on Iran-Korea relations, and open up a new avenue for researchers to pursue. The *Kushnāmeḥ*'s publication pushed the documented history of Iran-Korea relations back into the pre-Islamic mythological period. It also suggests that it was the Iranians who introduced *Sillā* to the Islamic world, although it appears that the *Kushnāmeḥ* was originally written in Pahlavi (Middle Persian). The Pahlavi language was the more ancient version of Persian in use during the Parthian/Arsacid (220 BCE-224 CE) and Sāsānian (224-c.638 CE) periods. Following the arrival of Islam in Iran, the *Kushnāmeḥ* was translated into classical Persian, and then in the eleventh century, the story was put to verse by Ḥakim Iranshān bin Abī al-Khair.⁷⁾ This poet may also have been the one who translated the story from Pahlavi into Persian. Although it is still too early to hazard an educated guess as to the exact time and place the story is set, the text of the narrative may imply reference to certain real historical events. For example, certain goods traded by sea between Iran and Korea before the Islamic period are mentioned in the *Kushnāmeḥ* in the course of the narration of the story of Ābtin's (آبتین) return to Iran from *Sillā*. Ābtin, accompanied by a Korean prince, takes the maritime route back to Iran, guided by an experienced Korean navigator.⁸⁾ This point shows that maritime relations between Iran and Korea were probably quite well established in the pre-Islamic period. Further, the description of *Sillā*'s climatic and geographical conditions in the *Kushnāmeḥ* poem is very similar to those that prevail in present-day Korea, which

5) Matini, Jalal (1985), "Kush wa Kushe Pilgush", in "*Iran-nameh*" No.2, pp.290-300.

6) Matini, Jalal (1999), *Kushnameh*, Entesharat-e Elmi, Tehran.

7) Ḥakim Iranshān bin Abī al-Khair (1999), *The Kushnameh*, introduced and edited by Jalāl Matini, Enteshārāt Ilmi, Tehran, pp.152-153.

8) In the *Kushnāmeḥ* the name of the Korean Sailor is given as ملاح پير (Mallāḥ-e Pir), which means 'old man sailor'. See *the Kushnāmeḥ*, Ibid, pp. 363-364.

suggests the story's writer had a credible degree of knowledge about the peninsula.

“The Kushnāmeḥ , a pre-islamic epic, gives us surprisingly many remarkable description on Sillā Kingdom of the 6 to 8th centuries. Such main heroes in the shāhnāmeḥ as Ābtin, Farārang and their son Faraidun appear in the Kuahnāmeḥ in different role and social circumstances. Ābtin with his royal families migrated to Sillā with the invitation of the King, through long and difficult expedition in Iran and China, Ābtin married a Sillā princes names Farārang and a most famous Persian hero Faraidun was born. After the death Ābtin , Faraidun returned Iran to destroy Zakhāk , a demon-king who had killed Ābtin and Jamshid. Eventually, Faraidun had Zakhāk borne to mountain Demāvand chained and powerless. To the great joy of the many who had for long suffered his tyrannies, Faraidun repealed the cruel laws of Zakhāk and bade every man live in peace and work in freedom. Of course Faraidun informed the good news to his grandfather, the Sillā king Ṭayhur. But Ṭayhur is already passed away and Karam became new Sillā king with whom Faraidun continued their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The Kushnāmeḥ can be the vital sources for new interpretation of ancient Sillā history and society. Through which the study of Korean ancient history opens new horizon based on more vivid historical material unknown.”⁹⁾The Kushnāmeḥ, a highly significant work worthy of study, is about the historical relationship between Iran and Korea. A content analysis of the text is able to provide answers to numerous essential questions and clarify certain remaining uncertainties about the history of Iranian-Korean relations. Despite all this, the essentially mythic nature of the Kushnāmeḥ story should not be forgotten.

Immigration of the Iranians to China in Ancient Times

Based on the triple sources – Iranian and Chinese historical texts, Buddhist sources, and archaeological data- the Iranian people's immigration to Far East can be categorised

9) Lee, Hee Soo (2012), A study on the Kushnāmeḥ Epic characteristics compared to the Shahnāmeḥ, in “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Islamic Studies*, vol.22-1, Seoul, Korea.

in two waves: religion-induced and politics-induced immigrations.

religion-induced immigrations

The wave pertaining to the first motive happened in the Parthian era. In the second century BCE the Parthian elite, who used to translate the Buddhist faith, immigrated to China. For several centuries, they persisted in China in translating Buddhist texts into Chinese and disseminating them. In fact, the first school for translating and teaching Buddhism was established in Luoyang (capital of the Han dynasty) by the Parthian prince, An Shigao.¹⁰⁾ All teachers of the school were Iranians, namely, An Shigao, Tandi, An Faqin, among others. There they engaged in teaching Buddhism for two hundred years.¹¹⁾ The prefix “An” pertained to the people who descended from the Parthian dynasty that had immigrated to China.¹²⁾ The progeny of An Shigao were active in two areas from the 4th to 8th century CE .¹³⁾ The Chinese kings sent some of them as their ambassadors to Central Asia. For example, some of them reached high positions in Sabao 薩保, the Chinese state agency for foreign trade.¹⁴⁾ In his study, Forte tries to recognize the descending branches of An Shigao and other Parthian Iranians then residing in China. It is said that some descendants of An Shigao found high stature within the Chinese Court, namely, An Tong.¹⁵⁾ Among other famous

10) Zürcher, Erik. 2007 (1959). *The Buddhist Conquest of China: The Spread and Adaptation of Buddhism in Early Medieval China*. third ed. Leiden: Brill, pp.32-34; Howard, Michael C. (2012). *Transnationalism in Ancient and Medieval Societies: The Role of Cross-Border Trade and Travel*, McFarland & Co Inc Publication, p. 45.

11) Ch'en, Kenneth. 1964. *Buddhism in China: A Historical Surv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43-44.

12) Forte, Antonino. 1996d. "Kuwabara's Misleading Thesis on Bukhara and the Family Name An,"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Vol.116, No. 4, pp.645, 651-652; Utz, David A.2012. "Aršak, Parthian Buddhists, and "Iranian" Buddhism", John R. McRae and Jan Nattier, eds., *Buddhism Across Boundaries*, Sino-Platonic Papers, No. 222, p.179.

13) Ch'en, Kenneth. 1964. *Buddhism in China: A Historical Surv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43-44.

14) Dien, Albert E. 1962. "The 'sa-pao' Problem Re-examined".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Volume 82, p.341; , Antonino. 1996d. "Kuwabara's Misleading Thesis on Bukhara and the Family Name An."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pp. 645-646,652.

15) Wei Shou 魏收. 1974. *Weishu 魏书*, Beijing: Zhonghua shuju, j.30, 724; Forte, A. 1995.

Parthian monks who immigrated to China at the ending years of Parthian era and the beginning years of Sassanid era can be named Tandi or Tanwudi 昙谛, 昙无谛 and An Faqin 安法钦.¹⁶⁾

Governmental and religious posts of the “An” clan in China is an indication of the high status this elite Parthian clan held. Their power and influence was to the extent that they hold the highest governmental ranks in the Chinese Court. Their status, however, was tottered in the middle of the 8th century after the uprising of An Lushan 安禄山(703-757 CE). Some scholars consider An Lushan a member of the Parthian “An” clan, while others believe he is originally Sogdian.¹⁷⁾ An Lushan’s uprising, which persisted after his demise, was referred to as the “An Shi Rebellion 安史之乱” in the Chinese sources, probably referring to his Parthian origin. Occurring in the Tang era, the rebellion erupted in China in 16th December 755 and lasted until 17 February 763, weakening the Tang dynasty. The result was the Tang Empire’s feeling of anger toward the Iranian originals, inasmuch as the Iranians and Sogdians residing in China

An Shigao and His Offspring: An Iranian Family in China. Italian School of East Asian Studies. P. 13.

16) Tan Chung.1998. *Across the Himalayan Gap: An Indian Quest for Understanding China*, Gyan Publishing House, New Delhi,, India, p.185.

17) Vaissière, Étienne de la. 2003. “Sogdians in China: A Short History and Some New Discoveries”. *Silkroad Journal*, Vol. 1, No. 2, The Silkroad Foundation, p. 28. For more details see also:

Old Tang History- Biography of Ge Shuhan, Beijing: Zhonghua Book Company, 1975, p.3211.

New Tang History- Biography of Zhang hongjing, Beijing: Zhonghua Book Company, 1975, p.4448.

Four Branches of literature Collection, Beijing: Commercial Press, 1934.

Complete Prose Literature of the Tang, Beijing: Zhonghua Book Company facsimile edition, 1983, p.3474/2135.

Complete Poems of the Tang, Beijing: Zhonghua Book Company, 1960, p.2242.

Zhou Shaoliang, *Collected Tang Dynasty Epitaphs-Epitaph of Cao Runguo*, Shanghai: Shanghai Classics Publishing House, 1992, pp.1787-8.

“Secretariat of Tongshan East and West Locations in Hebei”, *General Gazetteer of the Unity of the Yuan*, Beijing: Zhonghua Book Company, 1966, p.25.- *Collected Gazetteer Records of Xijin: Ancient Traces* chapter, Beijing: Beijing Classics Press, 1983,p. 119.

concealed their foreign origin. The best example can be An Chongzhang 安重璋, the war minister of Tang Court. He changed his surname in 756 CE, and upon being asked about the reason, he reiterated that he is ashamed of having a name similar to An Lushan. He chose Li Baoyu 李抱玉 as his name and changed the name of all his ancestors.¹⁸⁾

Religion induced immigration of the Iranians to the East continued in the Sassanid era as well. As the official religion of the Sassanid Kingdom, the Zoroastrian religion paved its way to China probably in the advent of the 6th century CE as the two nations experienced a thaw in their political and economic ties. Gradually, four Zoroastrian temples were established in Chang'an, two in Luoyang, and some in Kaifeng.¹⁹⁾ The Zoroastrian religion was called “Xiān祆” in China. No doubt, the Sogdian tradesmen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dissemination of Zoroastrianism as they did for Buddhist, Manichaean, and Christian religions.²⁰⁾ Presence of the Sogdian tradesmen beside their compatriots who dwelled in China led to the dissemination of Zoroastrianism in some parts of northwest China. For example, Zoroastrian symbols found in China on the gravestone of a Sogdian tradesman named Wirkak is an indication of the fact that the Sogdian immigrants following Zoroaster lived in China.²¹⁾

The Last Sasanians in Eastern Iran and China, politics-induced immigrations

Having lost any hope of regaining Mesopotamia after his defeat at Nihāwand, Yazdegerd the last king of Iran in the Sasanian dynasty spent several years traveling from one district to the next seeking alliances with various rulers. The Arabs Muslim

18) Vaissière, Étienne de là. 2006. “Chinese-iranian Relations xiii. Eastern Iranian Migrations to China”, In: *Encyclopædia Iranica*, Online Edition, available at <http://www.iranicaonline.org/articles/chinese-iranian-xiii>

19) Forte, A. 1999: ‘Iranians in China : Buddhism, Zoroastrianism, and Bureaus of Commerce’ *Cahiers d’Extrême-Asie*, vol. 11, pp.283-87.

20) Compareti, M. 2003. “The Last Sasanians in China,” *Eurasian Studies* 2/2, p. 209.

21) Grenet, F., Riboud, P. and Yang, J. 2004. ‘Zoroastrian Scenes on a Newly Discovered Sogdian Tomb in Xi’an, Northern China’, *Studia Iranica* 33, pp. 273-284.

meanwhile encountered little resistance as they occupied districts that Yazdegerd was compelled to abandon. Thus Xūzistān was occupied in 642 prior to the Battle of Nihāwand, while afterward all of Media, including the cities of Isfahan, Jibāl, Ray, and Azerbaijan to Darband ‘Closed Gates’, was conquered by 23 AH/644 A.D. For his part, Yazdegerd fled to Fars, but he was forced to flee eastward when in 650 the Arabs Muslim conquered it. Making his way to Xwarāsān by way of Kerman and Sīstān, Yazdegerd intended to win over the margraves and nobles as the last line of defense. He had not anticipated, however, that most regarded his presence as a threat to their authority upon his arrival Sīstān. Given his inhospitable reception, he moved on to Xwarāsān in c. 650. Yazdegerd who now feared the margraves as much as he did the Arabs Muslim eventually fled to the Fary āna district in Sogdia in 650, and did not return to Xwarāsān until 651 when the uprising of its people against the Arabs gave him hope of fomenting a Tran’s regional rebellion against the Arabs. In 639 Yazdegerd sought an alliance with the Tang court of China,²²⁾ which was fast emerging as an important regional power. Yazdegerd sent two envoys to China and had also sought help from the kings of Sogdia and the khan of the western Turks. According to the新唐书 *Xin Tangshu* and册府元龟 *Cefu yuangui*,²³⁾ the first envoy was sent in 639/40. It was headed by a certain Mo-se-pan (没似半 Mo si ban i.e. Marzban). Recent scholarship shows that the second envoy was sent to China in 647/48.²⁴⁾ It was during the second envoy that Yazdegerd’s sons and daughters immigrated to China.²⁵⁾ Masoudi tells us that Yazdegerd had two sons, Wahrām and Pērōz, and three daughters, Adrag, Šahrbānu, and Mardāwand.²⁶⁾ He sent his sons and daughters to Tang controlled Central

22) Daryae, T. 2009c: ‘Yazdegerd ’s Last Year: Coinage and History of Sīstān at the End of Late Antiquity’ in T. Daryae & O. Tabibzadeh (eds.), *Iranistik: Deutschsprachige Zeitschrift für iranistische Studien. Festschrift für Erich Kettenhofen*, 5. Jahrgang, Heft 1&2, 2006-2007, Tehran, p. 25.

23) Ou Yangxiu, Songqi. 1975. “Western Regions”II, *New Books of the history of Tang Dynasty*, Volume 221(II), *Biographies* 146(II), pp. 6258-6260; Zhang, Xinglang. 1386/2006. *Tārīkh-i Ravābit-i Chīn va Īrān* (The materials for a history of Sino-Foreign relations), pp. 75-77.

24) Daryae, T. 2009c, op, cit, p.25.

25) Daryae, T. 2009c, op, cit, p. 25.

Asia in the hope of receiving military assistance from the Chinese against Arab invasion, but the Chinese emperor, Taizong 唐太宗 (626-649), was not inclined to help militarily due to the long distances involved.²⁷⁾ Pērōz, whom they call 卑路斯, or Beilusi, was king of Persia in 661.²⁸⁾ In 661-664, Pērōz requested help from emperor Gaozong.²⁹⁾ According to the *Xin Tangshu* and the *Cefu yuangui*, he finally managed to forge an Iranian kingdom, which the texts call *Po-szu* (i.e., Persia), with support from China that came from a city called Chi-ling or Tsi-ling (疾陵城, i.e., Jiling city) in 661-663³⁰⁾ lasted until 674.³¹⁾ Pērōz's reign was short-lived. Unable to withstand the Arab invasion, he returned to China in 673-674.³²⁾ BHe went again to the west and returned on 17 June 675 to China for the last time. Pērōz was warmly received by Gaozong, who bestowed upon him the honorary title of “Awe-inspiring General of the Left (Flank) Guards” (*zuǒ wēi wèi jiāng jūn* 左威卫将军).³³⁾ This title was among sixteen such titles he had received.³⁴⁾ Based on the *Liǎng Jīng Xīnjì* (兩京新記) by Wei Shu (韋述), written in eighth century, Pērōz managed to get permission from Gaozong to build a “Persian Temple” called Bosi-si (波斯寺) in Chang'an.³⁵⁾ Pērōz died the

26) Masūdi, Murūj al-Dhahab wa Maaden al-jowhar, edited by Asad Dagher, Qom, Dar al-Hejrah, 1409. vol.1. p.315.

27) Chavannes, É. 1903: Documents sur les Tou-Kiue (Tures) occidentaux, Paris, p. 257.

28) Zhang, Xinglang, op.cit, pp. 73, 76, and 77.

29) Ou Yangxiu, Songqi. 1975. “Western Regions”II, New Books of the history of Tang Dynasty, p.6258; Zhang, Xinglang. Op.cit, p.77.

30) Ou Yangxiu, Songqi. 1975. “Western Regions”II, New Books of the history of Tang Dynasty, pp. 6258-6260; Wang Qinruo 王钦若. 1960. Cefu yuangui 册府元龟, Beijing: Zhonghua shuju, vol. 12, p. 11365. According to the Cefu yuangui, the emperor Gaozong sent Pērōz to Tocharistan as the ruler on February 14th of 663, Wang Qinruo 王钦若. 1960. Cefu yuangui 册府元龟, vol. 12, p. 11365; Zhang, Xinglang. Op.cit, p. 77.

31) See, Harmatta, J. 1971: ‘Sino-Iranica’, Acta Antiqua Academiae Scientiarum Hungaricae, vol. 19, Akademiai, Budapest, pp. 140-141.

32) Ou Yangxiu, Songqi. 1975. “Western Regions”II, New Books of the history of Tang Dynasty, pp. 6258-6260.

33) Ou Yangxiu, Songqi. 1975. “Western Regions”II, New Books of the history of Tang Dynasty, pp. 6258-6260.

34) Daryae, T. 2003. ‘The Sons and Grandsons of Yazdgird in China’ Iranshenasi, A Journal of Iranian Studies, XV, no. 3, p. 542.

35) Drake, F. S. 1943: ‘Mohammedanism in the Tang Dynasty’, Monumenta Serica, vol. 8, p. 6.

following year in 678-679³⁶⁾ and was succeeded by his son Narseh.³⁷⁾ He was buried in China. His beheaded statue stands in front of the large mausoleum of Gaozong and his wife, 乾陵qian ling, near Xi'an. Gaozong's mausoleum bears the following Chinese inscription on the back pedestal: "Pērōz, king of Persia, grand general of the right courageous guard and commander-in-chief of Persia"(右骁衛大將軍兼波斯都督波斯王卑路斯).³⁸⁾After Pērōz, Narseh fought for twenty years against the Arabs until all his men and resources were exhausted; thus he reluctantly left and returned to the Chinese court in 708/9.³⁹⁾ There he received the title of "General of the Left Majestic Guard" (*zuǒ wēi wèi jiāng jūn*左威衛將軍). His statue is next to that of his father's.⁴⁰⁾

Although recent scholarship has tended to focus on Pērōz and Narseh and their struggle to regain Persia, there were other persons from the Sasanian clan who migrated to China. There is information about a Persian nobleman named Āluóhàn(阿羅憾) who is identified as Pērōz's brother, Wahrām.⁴¹⁾ A funerary stele, which was recovered near 洛陽 Luoyang, reveals important information regarding the career of Aluohan, probably the Chinese variant of Wahrām,⁴²⁾ as he is described as a Persian who was a contemporary of Pērōz and highly esteemed by Gaozong.⁴³⁾ He is also said to have been a member of the Sasanian royal family and held the title of "General of the Left Awesome Guard" (*zòu wuwèi jiàngjūn* 左威卫将军).⁴⁴⁾ Wahrām died at the age of 95 on the first day of the fourth month of Chingyūn's reign (710) in his private domicile in Honan Fu.⁴⁵⁾ After Wahrām, his son whose name is stated as Jū Luó (俱羅) in the

36) Chavannes, É. 1903: Documents sur les Tou-Kiue (Tures) occidentaux, Paris, p. 258.

37) Chavannes, É. 1903: Documents sur les Tou-Kiue (Tures) occidentaux, Paris, p. 258.

38) Forte, A. 1996b: 'On the So-Called Abraham from Persia. A Case of Mistaken Identity', in P. Pelliot, L'inscription nestorienne de Si-Ngan-Fou, ed. A. Forte, Kyoto and Paris, p. 404.; Daryaee, T. 2003,op,cit , p. 542.

39) Chavannes, É. 1903: Documents sur les Tou-Kiue (Tures) occidentaux, Paris, p. 258.

40) Daryaee, T. 2003,op,cit, pp. 543-544.

41) Forte, A. 1996a: 'On the Identity of Aluohan (616-710). A Persian Aristocrat at the Chinese Court', La Persia e l'Asia Centrale da Alessandro al X secolo, Rome, pp. 193-194.

42) Forte, A. 1996b: 'On the So-Called Abraham from Persia. A Case of Mistaken Identity', p. 411.

43) Zhang, Xinglang, op,cit, p. 89.

44) Zhang, Xinglang, p. 89.

45) Saeki, P. Y. 1916: The Nestorian monument in China, p. 258; Zhang, Xinglang. 1386/2006.

Chinese sources - the Chinese variant of Xusrow - continued his father's mission.⁴⁶⁾ He also visited China's capital in 730/31.⁴⁷⁾ In *Cefu yuangui* (册府元龜), there is information about Kings of Persia: first of them is called Bó Qiāng Huó (勃善活), probably the Chinese variant of 蒲桑 Pušang⁴⁸⁾ who sent embassies to the Tang court at 长安Chang'an from 723 to 772.⁴⁹⁾ Some scholars believe that Persia here must be understood as Tocharistan.⁵⁰⁾ In the same source, we also learn of another person called Mù Shānuò (穆沙诺) who is referred to as the king of Persia.⁵¹⁾ He came to the Tang court in 726 or 731 and was given the rank of a General (折冲zhe chong) and became a guardian (留宿卫liú sù wèi) of the emperor in 731.⁵²⁾ After Mù Shānuò, there is some information about embassies from Persia who came to the Tang court until 772, but there is no direct mention of any Persian kings who came to China.⁵³⁾

-
- Tārīkh-i Ravābit-i Chīn va Īrān (The materials for a history of Sino-Foreign relations), p. 90.
- 46) Zhang, Xinglang, p. 90.
- 47) Zhang, Xinglang, p. 79.
- 48) He was apparently the son of Narseh and the grandson of Pērōz (Shahmardān, Rashīd. 1360: The History of Zoroastrians after the Sasanian Dynasty. Tehran (in Persian), p.49).
- 49) See *Cefu yuangui*, vols (= chapters): 971, 972, 973, 975, 999 in Wang Qinruo 王钦若. 1960. *Cefu yuangui* 册府元龟; Zhang, Xinglang, op, cit, pp. 78-80.
- 50) Chavannes, É. 1903: Documents sur les Tou-Kiue (Turcs) occidentaux, Paris, p. 257; Compareti, M. 2009: 'Chinese-Iranian Relations, xv. The Last Sasanians in China,' in *Encyclopædia Iranica*, Online Edition, available at <http://www.iranicaonline.org/articles/china-xv-the-last-sasanians-in-china>.
- 51) Wang Qinruo 王钦若. 1960. *Cefu yuangui* 册府元龟, vol. 12, p. 11450; Zhang, Xinglang, op, cit, p.78.
- 52) Wang 1960, vol. 12, 11450; Zhang 2006, 78.
- 53) Although there is no mention of the names of Sasanian claimants in the histories after 731, we know that Several Persian nobles lived in the Far East. Some of these nobles lived in China because of support of the first Tang emperors, but this changed after the rebellion of General Ruhsan-An Lushan (755-756) and, especially, with the edicts issued by the minister Li Mi (722-789), which wanted to stop the monetary support granted to the Iranian nobles living at Chang'an (Dulby, M. T. 1979: 'Court politics in late Tang times', in Twitchett, D. (ed.)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III. Sui and Tang China, 589-906. Part 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593.).

The Islamic era Immigration to Korea in the first Islamic centuries

Islamic historical and geographical sources point to the immigration of a number of Iranian and Muslims dissidents in Umayyad reign (661-750 CE) toward east. The first accounts of the residence of Muslims in “Sillā” is reported in the book *Al-Masālek wa al-Mamālek* written by Ibn Khordādbeh -309 AH/956 CE-⁵⁴⁾ and then by Ibn Rusteh in his book *Al-Ālāq al-Nafisah* -309 AH/921 CE-⁵⁵⁾ Similarly, Masūdi -345 AH/956 CE-, the famous Islamic historian and Geographer, refers to the immigration and residence of Muslims in “Sillā” Island and its being an ideal land for immigration and residence.⁵⁶⁾

This kind of immigration seems to differ from the last ones regarding its routes and causes. That is, it has occurred via the Persian Gulf toward the Indian Ocean area and then to the Korea on the one hand, and is comprised of the three social groups of “anti-Umayyad dissidents”, “Iranian” and “Muslim tradesmen” on the other. Since eastward immigration occurred via some Indian ports, some historical sources consider the final destination of such immigrants -China and Korea- to be the same as some Indian and Ceylon ports. One case of incongruent report in Persian and Islamic historical texts is on immigration to “Yāqut” Island. Until recently, it was imagined that Yāqut Island is where we today know as Ceylon or Sri Lanka; yet, for the first time, Professor Lee Hee Soo postulated in his article, *A study on Historical Significance of Fathnāmeḥ Sind and its Analysis of Sillā Parts*,⁵⁷⁾ that based on some historical texts Yāqut Island is located on the same spot as the present day Korea, and the immigration to this island reported in the Persian book, *Fathnāmeḥ-I Sind*⁵⁸⁾, is the first immigration

54) Ibn Khordādbeh (1889), *Al-Masālek wa al-Mamālek*, edited by C.de Goeje , Leyden, p.70.

55) Ibn Rusteh (1891-2), *Al-Ālāq al-Nafisah*, edited by C.de Goeje, Leyden, p.83.He Wrote (Each Muslims enters to the extreme part of China called Silā (where has gold a lot) choses it as their home and never leaves it.)

56) Masūdi, *Murūj al-Dhahab*,op,cit,Vol.1.p.176.and Masūdi, *Murūj al-Dhahab* (1883-4), *Al-Tanbih A-al-Ishrāf*, edited by C.de Goeje, Leyden, p.26.

57) Lee Hee soo(2012) ,A study on Historical Significance of Fathnāmeḥ-I Sind and its Analysis of Silla Parts, in “ *Journal of Middle East Myungji University*”, vol.11.1, Seoul, Korea, pp.100-123.

58) *Fathnāmeḥ-I Sind* (the Muslim conquest of Sind) wrote by Abu al-Ḥasan Ali b. Mohamamd al-Madāini (725-839) in Arabic and then translated into Persian.

of the Iranians and Muslims to Korea after the advent of Islam. The above-mentioned article revisits for the first time the issue of the concordance of Yāqut Island as stated in Persian and Islamic texts with the present day Korea, resorting to Persian manuscripts and some Islamic texts. Nevertheless, coming to a final conclusion seems unlikely due to the scarcity of documents and proofs. The first reports of the fugitive Muslims toward east in the reign of Ḥajjāj bin Yusef Thaghafi (661-714) is brought in the book *Ṭabāye' al-Ḥeywān* [The Natural Properties of Animal] written by Sharaf al-Zamān Ṭāḥīr -d.1120.⁵⁹⁾ Based on the narrative, after the Alawis escaped toward China, they reached to a coastal region, dwelling in an Island where there were abundant snakes. Their residence was later approved by the king of the region.⁶⁰⁾ Marzawi does not state the name of the island; yet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other Islamic texts it can be inferred that the location pointed to by Marzawi is the “Sillā” Island. Abū Zayd ‘Abd al-Raḥmān bin Muḥammad bin Khaldūn, the famous Islamic historian (1332-1406), believes the Yāqut Island to be located in the easternmost point of China, reiterating that there are abundant snakes in the island as well as abundant ruby.⁶¹⁾ In a Persian geographical manuscript titled *Masālek wa Mamālek*,⁶²⁾ it is stated about Yāqut Island: “at the easternmost coast of the Surrounding Ocean, the first land is a civilised island called Yāqut Island, where ruby stone can be found”. Referring to these sources, it can be concluded that Yāqut Island is the name of an island in the easternmost point of the world and in the east of China, and the cause of its naming Yāqut [ruby] Island is that there existed abundant ruby stone there. Based on the narration of two important Islamic historical texts we now that the Muslims immigration in to Sillā , the first text is Shahāb Al-din Ahmad Nowairi a famous Islamic historian in the 13th century mentioned in his book about this regards : “*To the East of china*

59) For more details see, Bosworth, C.E. (1991), “Al-Marwazi” in “*The Encyclopaedia of Islam*” New edition, Leiden, Vol.5, p.628. also, Minorski, Veladimir (1942), Sharaf al-zaman Tahir Marvazion China, the Turk and India, London, The Royal Asiatic Society, 1942, pp.1-4.

60) Minorski, op.cit. p.5.

61) Abū Zayd ‘Abd al-Raḥmān bin Muḥammad bin Khaldūn (1995), *al-Kitābu l-‘ibar*, translated into Persian by Ayati, Tehran, vol.1, p.119.

62) Anonymous, *Masālek wa Mamālek*, MS. Iranian Parliament Library, No.4620.fol.21.

and very near that country are found six islands which are called Sillā . Some claim that its inhabitants are believed to be descendants of Ali. (The first Imam of Shii), some of whom took refuge in this country by fleeing from the persecutions of the Ummawids. It is recounted that strangers who established themselves to living in a state neighbouring on poverty since the air is pure and the water clear” and another text written by Shams Al-ddin Dameshqi in the 13th century, he written about the Sillā:” In the sea above and to the east of the Ammonia archipelago and the lower reaches of China, there is a country called Shillā consisting of six big Islands…: Alawis found shelter there feeling from the persecution of the Dynasty of Ummayya. Despite very difficult living conditions no one wanted to leave this country.^{63)64).}” Based on that hypothesis, the first post-Islamic wave of immigration of the Iranians and Muslims was destined toward Sillā or the present day Korea. They managed to dwell there and successfully coexist with the original inhabitants, leading to the attribution to “Sillā” Island of the traits of security and idealness for immigrants in Persian and Islamic historical sources.

Conclusion

Immigration of the Iranians toward the East was flowing from the second century BCE to the 16th century CE. Without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auses and motives of immigration, the movement can be deemed to have passed five eras. A part of the effects of such movements can be seen in pre-Islamic myths and narrations, while another part is visible in Persian and Islamic historical and geographical texts. This commonality has made it somehow difficult to categorically distinguish the final destination of the immigrants; yet, more exact analysis of geographical and historical sources can further reveal the traces of the Iranians’ immigration to “Sillā”. In a similar

63) Shahab Al-din Ahmad bin Abdul Wahāb bin Mohammed Nowairi, *Nihāyat al-arab fi funun aladab*, Egept, Wezarat al-thaghafeh wa al-ershad al-ghoumi, Vol.1.p.230.

64) Shams Al-ddin Dameshqi, *Nokhbat al-Dahr fi Ājāyeb al-Barr wa al-Baḥr*, San Petersburg, 1865, p.131.

vein, more exact analysis may reveal the effect of this immigration wave on mythologies and narrations, especially on the formation of the “Kushnāmeḥ” epic. Nevertheless, Persian and Islamic sources imply that, like china, “Sillā” was considered one of the main destinations and an ideal land for immigration and residence further research can better reveal the effects of the immigration on the cultural and social interrelations of the two nations of Iran and Korea.

Bibliography:

- Abū Zayd ‘Abd al-Raḥmān bin Muḥammad bin Khaldūn , *Al-Kitābu l-‘ibar*, translated into Persian by Ayati, Tehran,1995.
- Asadi Tusi, *Garshāseb nāmeḥ*, Edited by Habib Yaghmāii, (Tehran, Ketābkhāneh Tahuri, 1354/1976.
- Aspects of the Maritime Silk Road: From the Persian Gulf to the East China Sea, Edited by Ralph Kauz Wiesbaden: Harrassowitz..2010.
- Biruni, Ātār, tr. E. Sachau as *The Chronology of Ancient Nations*, London, 1879.
- Chavannes, É. 1903: *Documents sur les Tou-Kiue (Tures) occidentaux*, Paris.
- Ch’en, Kenneth. 1964. *Buddhism in China: A Historical Surv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lark, L. V. 2001. “The Conversion of Būgū Khan,” in *Studia Manichaica: IV Internationaler Kongreß zum Manichäismus*, Berlin 14.-18. Juli 1997, ed. R. E. Emmerick, W. Sundermann, and P. Zieme, Berlin, pp. 83-123.
- Compareti, M., “The Last Sasanians in China”, in *Eurasian Studies* II/2, 2003, pp. 197-213.
- Compareti, M. 2009: ‘Chinese-Iranian Relations, xv. The Last Sasanians in China,’ in *Encyclopædia Iranica*, Online Edition, available at <http://www.iranicaonline.org/articles/china-xv-the-last-sasanians-in-china>.
- Daryaeae, T, “The Sons and Grandsons’ of Yazdgird III in China,” in *Iranshenasi*, A Journal of Iranian Studies, vol. xv, no. 3, autumn 2003, pp. 540-548.

- Daryaee, T. 2009c: 'Yazdegerd 's Last Year: Coinage and History of Sīstān at the End of Late Antiquity' in T. Daryaee & O. Tabibzadeh (eds.), *Iranistik: Deutschsprachige Zeitschrift für iranistische Studien. Festschrift für Erich Kettenhofen*, 5. Jahrgang, Heft 1&2, 2006-2007, Tehran.
- Dien, Albert E. 1962. "The 'sa-pao' Problem Re-examined".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Volume 82, p.341; , Antonino. 1996d. "Kuwabara's Misleading Thesis on Bukhara and the Family Name An."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 Drake, F. S. 1943: 'Mohammedanism in the Tang Dynasty', *Monumenta Serica*, vol. 8, 1-40.
- Dulby, M. T. 1979: 'Court politics in late Tang times', in Twitchett, D. (ed.)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III. Sui and Tang China, 589-906. Part 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orte, A. 1995. *An Shigao and His Offspring: An Iranian Family in China*. Italian School of East Asian Studies.
- Forte, A. 1999: 'Iranians in China : Buddhism, Zoroastrianism, and Bureaus of Commerce' *Cahiers d'Extrême-Asie*, vol. 11, 277-290.
- Forte, A. 1996a: 'On the Identity of Aluohan (616-710). A Persian Aristocrat at the Chinese Court', *La Persia e l'Asia Centrale da Alessandro al X secolo*, Rome, 187-97.
- Forte, A. 1996b: 'On the So-Called Abraham from Persia. A Case of Mistaken Identity', in P. Pelliot, *L'inscription nestorienne de Si-Ngan-Fou*, ed. A. Forte, Kyoto and Paris, 375-428.
- Forte, A. 1996c: 'The Edict of 638 Allowing the Diffusion of Christianity in China', in P. Pelliot, *L'inscription nestorienne de Si-Ngan-Fou*, ed. A. Forte, Kyoto and Paris, 349-374.
- Forte, Antonino. 1996d. "Kuwabara's Misleading Thesis on Bukhara and the Family Name An."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Vol. 116, No. 4, pp. 645-652.
- Ibn Jarir al-Tabari. *Tārīkh al-Rusul wa al-Muluk*(The History of the Prophets and

- Kings), Tehran,1976.
- Ibn Khordābeh, *Al-Masālek wa al-Mamālek*, edited by C.de Goeje, Leyden,1889.
- Ibn Rusteh , *Al-Ālāq al-Nafisah*, edited by C.de Goeje, Leyden,1891-2.
- Harmatta, J. 1971: ‘Sino-Iranica’, *Acta Antiqua Academiae Scientiarum Hungaricae*, vol. 19, Akademiai, Budapest, pp. 113-148
- Hill, Henry. 1988. *Light from the East: A Symposium on the Oriental Orthodox and Assyrian Churches*. Toronto, Canada.
- Ḥudūd al-Ālam , Translated and annotated by Vladimir Minorski, preface by V.V.Barthold, London. Reprinted 1993 by The Institute for the History of Arabic-Islamic Science at Johann Wilfang Goethe University Frankfurt am Main, Germany,1937.
- Keevak, Michael. 2008. *The Story of a Stele: China's Nestorian Monument and Its Reception in the West, 1625–1916*.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 Lee,Hee Soo, A study on the Kushnāmeḥ Eoic characteristics comared to the Shahnāmeḥ, in “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Islamic Studies*, vol.22-1, Seoul, Korea, 2012.
- Lee Hee Soo, *the Korea in the Kushnāmeḥ(translate of the Kushnameḥ in to Korea)Korea*, Seoul, 2014.
- Lee Hee soo ,A study on Historical Significance of Fathnāmeḥ-I Sind and its Analysis of Silla Parts, in “*Journal of Middle East Myungji University*“, vol.11.1, Seoul, Korea, pp.100-123, 2012.
- Lieu, Samuel N. C. 1991. “Chinese Turkestan vii. Manicheism in Chinese Turkestan and China”, In: *Encyclopædia Iranica*, Online Edition, available at <http://www.iranicaonline.org/articles/chinese-turkestan-vii>
- Lieu, Samuel N. C. 1985. *Manichaeism in the Later Roman Empire and Medieval China , a Historical Surve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Lieu, Samuel N. C. 2002. “Manicheism i: in China.”, In: *Encyclopædia Iranica*, Online Edition, available at <http://www.iranicaonline.org/articles/manicheism-v-in-china-1>
- Lieu, Samuel N. C. 1992. *Manichaeism in the Later Roman Empire and Medieval China*, 2nd. ed., Tübingen.

- Matini, Jalal, "Kush wa Kushe Pilgush", in *"Iran-nameh"* No.2, pp.290-300,1985.
- Matini, Jalal , *Kushnameh*, Entesharat-e Elmi, Tehran,1999.
- Manfred Mayrhofer, *Iranisches Personennamenbuch I*, Vienna, 1977.
- Masūdi, Murūj al-Dhahab wa Maaden al-jowhar, edited by Asad Dagher,Qom,Dar al-Hejrah,1409.vol.1.p.315.
- Morita, Toyoko 2012: 'Japan iv. Iranians in Japan,' in *Encyclopædia Iranica*, Online Edition, available at <http://www.iranicaonline.org/articles/japan-iv-iranians-in-japan-1>
- Moffett, Samuel Hugh. 1999. "Alopen". *Biographical Dictionary of Christian Missions*.
- Ou Yangxiu, Songqi. 1975. "Western Regions"II, *New Books of the history of Tang Dynasty*, Volume 221(II), *Biographieslives* 146(II), pp. 6258-6260.
- Pelliot, P. 1923. "Les traditions manichéennes au Fou-Kien," *Toung Pao*, vol.22, pp. 193-208.
- Prodsoktor Skjaervo, *Myth of Jam*, in Ehsan yarshater (ed.), *Encyclopaedia Iranica*, vol. 5 (Costa Mesa, Ca.; Mazda Publishers, 1992).
- Saeki, P. Y. 1916: *The Nestorian monument in China*, London & New York.
- Shams Al-ddin Dameshqī,Nokhbat al-Dahr fi Ājāyeb al-Barr wa al-Baḥr, San Petersburg, 1865.
- Sharaf al-Zamān Tāḥir Marvazi's book Ṭabāye' al-Ḥeywān.(Minorski, Vladimir, *Sharaf al-zamān Tāḥir Marvazi on China, the Turk and India*, London, The Royal Asiatic Society, 1942.
- Silsilat al-Tawārikh, ed. F.R Langlés, translated by .J.T.Reinaud, *Relation des voyage faits par Arabes et des Persian dans L Inde et à la Chine*,1845.
- Shahab Al-din Ahmad bin Abdul Wahāb bin Mohammed Nowairi, *Nihāyat al-arab fi funun aladab*, Egept, Wezarat al-thaghafeh wa al-ershad al-ghoumi, Vol.1. p.230.
- Shahmardān, Rashīd. 1360: *The History of Zoroastrians after the Sasanian Dynasty*. Tehran (in Persian).
- Utz, David A. 2012. "Aršak, Parthian Buddhists, and "Iranian" Buddhism", John R. McRae and Jan Nattier, eds., *Buddhism Across Boundaries*, *Sino-Platonic Papers*, No. 222.

- Vaissière, Étienne de la. 2006. "CHINESE-IRANIAN RELATIONS xiii. Eastern Iranian Migrations to China", In: Encyclopædia Iranica, Online Edition, available at <http://www.iranicaonline.org/articles/chinese-iranian-xiii>
- Vaissière, Étienne de la. 2003. "Sogdians in China: A Short History and Some New Discoveries". Silkroad Journal, Vol. 1, No. 2, The Silkroad Foundation.
- Vosooghi , Mohammad Bagher, "The maritime silk road from Persian Gulf to the East China sea", Sino - Foreign communication and world civiliz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China , Canton, pp. 28-34, 2012.
- Wang Pu 王溥. 2012. Tang huiyao 唐会要 , Shanghai: Shanghai guji chubanshe, j. 49.
- Wang Qinruo 王钦若. 1960. Cefu yuangui 册府元龟, Beijing: Zhonghua shuju, vol. 12.
- Wei Shou 魏收. 1974. Weishu 魏书 , Beijing: Zhonghua shuju, j.30.
- Zhang Xinglang. 1977. The Collection of the Historical Materials of Communications between China and the West (《中西交通史料汇编》), Vol. III, Beijing: Zhonghua Book Co.
- Zhang, Xinglang. 1386/2006. Tārīkh-i Ravābit-i Chīn va Īrān (The materials for a history of Sino-Foreign relations) (in Persian), translated by Zhang Hongnien, Tehran: Department of Language and Dialects of Iran's Cultural Heritage.
- Zürcher, Erik. 2007 (1959). The Buddhist Conquest of China: The Spread and Adaptation of Buddhism in Early Medieval China. third ed. Leiden: Brill, pp.32-34; Howard, Michael C. (2012). Transnationalism in Ancient and Medieval Societies: The Role of Cross-Border Trade and Travel, McFarland & Co Inc Publication.



| 제1부 | 발표 03

유라시아 실크로드 발전에 기여한 우즈베키스탄의 공헌



유라시아 실크로드 발전에 기여한 우즈베키스탄의 공헌

암리딘 베르디무로도브*

슬라이드 2

유럽과 중동, 중앙아시아 그리고 극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상호 교역과 문화적 교류를 이뤄왔었다. 이렇게 동방과 서방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거대 분명의 사이에서 우즈베크 민족도 큰 역할을 수행해 왔다.

실크로드 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던 만큼 우즈베크에는 8천여 종의 문화 유산들이 있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들도 상당하다.

범대륙적 교류에 있어서 소그드인들의 역할은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는 사실이다.

슬라이드 3

소그드와 수도인 사마르칸트는 북에서 남으로 그리고 동에서 서로 가는 중간지점에 있어 서로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해왔다. 소그드의 상인들은 실크로드 상의 모든 지역에서 대우를 받았으며, 많은 나라들에 그들의 거점지역이 있었다.

소그드의 영토에는 사마르칸트와 펜지켄트를 비롯한 많은 도시들이 세워져 있었으며, 이 도시들은 교역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 했다.

슬라이드 4

위 도시들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사마르칸트로, 이 명칭의 기원은 산스크리트 어

* 우즈베키스탄 학술원 고고학 연구소 소장

로 ‘상인들이 모이는 곳’이나 ‘생동적인 교차로’를 뜻하는 -사마리아-에서 나왔다.

슬라이드 5

5-8세기 사마르칸트의 영향력은 대단해서 그들의 생활 영향권은 남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지방까지 확산되어, 그 지방들에서도 큰 시장이 열리고, 수공업과 같은 많은 산업들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사마르칸트에서 상업의 역할은 지대해서 성의 4대문 중 3개는 교역하는 지역 명을 차용하였다. 동쪽은 중국, 남쪽은 케쉬, 북쪽은 부하라.

슬라이드 6. 7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그 거리의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오랜시간 깊은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독립 이후에도 계속해서 친근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1965년 발굴된 아프로시옵 벽화에는 바르후만 왕에게 파견된 사신들의 그림이 있는데 거기엔 소그드인들의 복장을 한 사람들과 앉아있는 사람들, 왕에게 선물을 바치는 사람들, 차가니안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복장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 온 것으로 여겨지는 사신들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오랜 연구 끝에 이들이 신라에서 온 사신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당시의 신라는 강성했기에 소그드의 바르후만 왕에게 충분히 사신을 보낼 수 있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경주에는 아나르바예브 박사의 연구에 의해 소그드인으로 여겨진다고 하는 무인상이 있다. 이로 봤을 때 소그드와 신라는 오랜 기간 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여겨진다.

슬라이드 8. 9. 10

큰 고고학적 유적으로 카피르칼라가 있는데 이는 다르곰 운하의 왼편에 있으며 사마르칸트에서 남쪽으로 18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해 있다. 이는 카쉬카다리야와 사마르칸트의 교역지들을 관장하는 견고한 성이었다. 이곳에서는 약 500여개의 밀납 인봉들이 발굴되었는데 이는 당시 소그드의 행정이나 법령 그리고 소그드의 내부 상황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다. 또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곳은 사마르칸트 통치자들의 행궁이

있었던 곳이라고도 한다.

슬라이드 11. 12

사마르칸트 소그드의 생활과 교역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예로 펜지켄트라는 13헥타르에 불과한, 5세기 경에 세워진 작은 도시가 있다. 이곳에서는 대장간, 세라믹 제조장, 면직물 제조장 등이 발굴되었다. 이 외에도 많은 유물들이 펜지켄트가 국제 교역에서 큰 역할을 차지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슬라이드 13. 14

사마르칸트와 펜지켄트 사이에는 자르테파라고 하는 배화교의 사원이 있다. 이것은 5세기 경에 세워졌으며 소그드인들의 종교적 삶에 대해 잘 보여준다.

사마르칸트에서 부하라로 향하는 길에 위치한 도시 이쉬티한과 관련된 중국의 기록도 있다. 이 도시는 한때 아랍이 사마르칸트를 점령했을 때 소그드의 수도 역할도 감당했다.

605-615년에는 쿠산에서 중국으로 사신들을 파견하기도 했다. 또한 당서에는 7세기 이슬람 이전의 쿠산에 관한 기록을 하면서, 이 도시에 대한 설명이 있다. 당서에 따르면 도시의 동쪽에 2층 구조의 건물이 있고 사면의 벽에 적혀 있는 기록들에 관해 이야기 한다.

이러한 사료들로 봤을 때 쿠산 왕조도 실크로드 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슬라이드 15. 16. 17. 18. 19

소그드와 실크로드를 말할 때 빠져서는 안되는 도시 중에 하나가 파이켄트이다.

파이켄트는 부하라의 카라쿰 지방에 있는 것으로 상인들이 거쳐 가는 곳일 뿐 아니라 본격적인 무역이 행해졌던 지역이다.

한 예로 아랍이 이 곳을 침공했을 때 포로로 잡혔던 사람은 자신의 몸값으로 673-674년 부하라에서 거래된 무역량 상당의 비단을 제안했다는 기록이 있다.

나르샤히의 기록에 의하면 파이켄트가 침공을 당했을 때 이 도시의 장성한 남자들은 모두 극동 지역으로 교역을 하러 나가 있었다고도 한다. 이러한 역사적 사료들이 소그드가 실크로드에서 감당했던 역할들을 말해주고 있다.

이제 소그드와 중국과의 문화적 교류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한다. 중국과의 교류는 많은 사료들에 기록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사마르칸트의 황금 복숭아’에 관한 기록에 따

르면 중국에서 사마르칸트의 복숭아를 대량 수입했다고 한다. 중국으로부터 소그드로 들어온 상품으로는 단연 비단이 있다.

중국의 비단은 무그 성에서도 발굴 되었고, 고대 소그드는 중국과의 교류에서 다량의 비단을 수입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중세시대 초기 당나라의 동전도 중앙아시아의 많은 도시들에서 발굴되곤 한다.

슬라이드 20

동전 외에도 중국에서 소그드로 많이 유입된 것 중 하나가 바로 거울이다. 거울은 콕테파에서 발굴되었다. 또 배화교의 사원인 자르테파-II에서도 발굴되었다. 거울에는 복을 기원하는 중국 한자가 적혀 있는 것도 있었다.

중국과 소그드의 문화적인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먼저 음악적인 부분이 있다. 중국에는 제후들끼리 아름다운 연주기들을 선물 형식으로 전하는 문화가 있었다. 소그드에는 잘 수련된 무희들을 선물하는 형태가 존재했다.

중국의 시안에는 소그드인들의 무덤으로 알려진 곳이 있는데 이곳에는 낙타에 앉아있는 무희들이 묘사된 상이 있다. 아마 소그드인들의 집안에 있던 전문 무희였을 것이다.

또한 시안에서 발굴된 유물 중에 소그드의 양상블이 묘사되어 있는 도기도 있었다.

위와 같은 유물들로 보아 5-8세기경 소그드의 음악 문화가 중국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많은 중국의 악기들 중에는 소그드의 악기에서 기원한 것들을 찾을 수 있다.

소그드인들은 극동지방에 불교를 전하는 데에도 상당한 역할을 차지했다. 중국의 사료들을 보면 4명의 소그드 출신 승려들이 2-3세기 경 중국에 불교를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불교 경전을 중국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정부와 유엔의 지원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실크로드를 연구하는 것이 수월하게 되었다. <대통령 연설문 생략>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거주하던 소그드, 박트리아, 호레즘 인들은 중앙아시아 뿐만 아니라 실크로드 전역에서 경제와 문화 방면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 현재의 우즈베크 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계승하여 범문화적, 국제적 교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СЛАЙД 1

ВКЛАД УЗБЕКИСТАНА В РАЗВИТИЕ ВЕЛИКОГО ШЕЛКОВОГО ПУТИ В ЕВРАЗИИ

Амриддин Бердимуродов

(Директор института археологии Академии наук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Сформированный во II веке до н.э. Великий Шелковый путь сыграл очень важную роль в процессе развития интеграции экономики и культур народов Востока и Запада.

СЛАЙД 2

Крупнейшие государства древности – Рим и Византия в Европе; Иран, Индия и арабские страны на Ближнем и Среднем Востоке; Согд, Кушанское царство, Хорезм и Тюркский каганат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Китай, Япония и Коре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ступили между собой в торговые и культурные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было положено начало многовековым контактам между Востоком и Западом.

Выдающуюся роль в соединении двух великих цивилизаций – западной и восточной, сыграли народы Узбекистана, которые, несомненно являются проводниками как той, так и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Уникальное расположение Узбекистана на ВШП является ключевым

фактором развития торговли, ремесла, культуры, искусства и градо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аши предки дали очень многое для развития ВШП. Об этом ярко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тот факт, что на территории Узбекистана на считается более 8 тысяч памятников археологии, архитектуры и истории, многие из которых включены в список Всемирного наследия ЮНЕСКО. В их числе такие жемчужины Востока, как города Самарканд, Бухара, Шахрисабз, Карши, Термез, Ташкент, Коканд и Маргилан.

Конечно, каждый народ внес свою лепту в развитие этого трансконтинентального торгового пути. Как признают ученые многих стран мира, главенствующую роль в этом деле играли согдийцы. Об этом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письменные источники и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материалы.

СЛАЙД 3

Согд и его столица Самарканд, являлся важным стратиграфическим центром Великого Шелкового пути. Расположенный на пересечении караванных путей, город Самарканд играл важную связующую роль между севером-югом и западом-востоком.

Древние авторы называют Самарканд центром торговли и сухопутной гаванью Мавераннахра, куда сходятся купцы со всех стран мира, чтобы обменявшись товарами, снова разойтись.

Согдийские купцы господствовали на всех сухопутных трассах Шелкового пути и их колонии были организованы от Японии и Китая до Кавказа и Европейских стран. А согдийский язык был языком общения для всех купцов и караванов.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огда были построены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крупные и маленькие города, такие как Самарканд, Пенджикент, Кафиркала, Иштихан, Кушания, Босидэ (Кулдортепа), Рабинжан, Дабусия в Самаркандском Согде; Бухара, Кармана, Пайкенд, Варахша в Бухарском Согде; Несеф и

Кеш (Шахрисабз) в Кашкадарьинском Соғде. Все эти города играли большую роль в развитии ремесла и торговли.

СЛАЙД 4

Несомненно, среди этих городов особо выделяется г. Самарканд. Как считает большинство ученых, город получил свое название, восходящее к санскритскому наименованию – Самария – «место собрания купцов» или перекресток, центр торгового обмена. Расположенный на оживленном перекрестке Великого Шелкового пути, Самарканд вырастает как один из крупных пунктов торговых связей. Самаркандские ремесленники изготавливали изящные бокалы на высоких ножках, тонкостенные чашки и пиалы, покрытые красным и черным ангобом, напоминающие греческие и римские сосуды, великолепные ткани, ювелирные изделия, разнообразную металлическую посуду и др.

СЛАЙД 5

В V–VIII веках город расширяется и становится крупным экономическим и культурным центром Востока. Самарканд этого времени – место активных встреч культур Востока и Запада, Севера и Юга, центр международной торговли, синкретизма культов и культур. Город настолько расширился, что в результате торгово-ремесленной жизни средневекового Самарканда выплеснулась за пределы Афрасиаба на юг, где разместилась крупные базары и кварталы металлургов, стеклодувов, ткачей, ювелиров.

Торговая роль Самарканда запечатлена и в его исторической топонимии. Три из четырех городских ворот получили свое название по торговым трассам. Восточные ворота были названы Китайскими, южные – Кешскими, а северные ворота – Бухарскими.

СЛАЙД 6, 7

Корея и Узбекистан, не смотря на значительное географическое расстояние, разделяющее их, связаны давними историческими и культурными связями, уходящими вглубь веков. За годы независимости Узбекистана узы дружбы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постоянно укрепляются, интерес к культуре, искусству и истории обоих народов повышается с каждым годом.

В 1965 году археологи Узбекистана во время раскопок на городище Афрасиаб (Древний Самарканд) обнаружили остатки настенной росписи, относящиеся к VII веку нашей эры. На ней изображен церемониал приема самаркандским царем Вархуманом иноземных послов. Фигура царя не сохранилась, но ясно, что он был изображен в центре верхней части стены в окружении приближенных, одетых в богатые красочные одежды. Судя по костюмам и прическам (длинные, спускающиеся за спину косы), это согдийцы. Часть из них изображена сидящими на ковриках, другая — сопровождает послов, которые подносят свои дары царю. В центре перед царем китайское посольство, у них те же костюмы и прически, что и у фигур на северной стене. Слева от них — посольство, прибывшее из Чаганиана. В правой (северной) части западной стены еще две группы послов, одни, по всей вероятности, из Чача (об этом посольстве говорится в надписи), а другие, судя по характерным признакам костюмов, принадлежат послам из Кореи.

Специалисты после долгого изучения их костюмов и внешнего облика пришли к выводу, что здесь изображен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йского царства Силла. Если учесть, что к VII-VIII вв. царство Силла стало одним из крупных и сильных государств, то вполне возможно, что послы ко двору правителя Согда — Вархуману, прибыли именно оттуда.

Есть другой пример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огда и царства Силла. Недалеко от города Кёнжу сохранилась могила правителя Силла (785-798 гг.), вблизи которой расположены четыре каменные скульптуры. Об этих скульптурах идут долгие споры между учеными. Сотрудник Института архе

ологии Академии наук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А.Анарбаев после изучения этих скульптур пришел к выводу, что две скульптуры изображают согдийцев. Если учесть, что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итая, Вьетнама и Кореи имелось несколько торговых колоний согдийцев, вполне возможно, что купцы из Согда находились в хороших отношениях с правителями Силла и их скульптурные образы были выставлены вблизи могилы правителя.

СЛАЙД 8, 9, 10

Одним из наиболее интереснейших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является городище Кафиркала, расположенное на левом берегу канала Даргом в 18 километрах к югу от Самарканда. Кафиркала была хорошо укрепленным центром, контролировавшим торговую трассу из долины Кашкадарьи к Самарканду. Об исключительности памятника говорят найденные здесь буллы, в количестве более 500 экземпляров¹⁾. Буллы – это цен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источник по изучению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юридической практики и внешних связях раннесредневекового Согда. Как показывают раскопки последних лет, на этом месте располагалась загородная резиденция Самаркандских правителей

СЛАЙД 11, 12

Ярким показателем роли торговли в городской жизни может служить небольшой городок Самаркандского Согда – Пенджикент. Город был расположен в двух днях пути от Самарканда. Это был небольшой город, шахристан внутренняя часть которого составлял всего 13 га. Возникший в V в. н.э. г. Пенджикент, играл большую роль в деле ремесла и торговли. Здесь были раскопаны городские базары, мастерские металлистов, керамистов, ткачей и т.д.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монетных находок подтверждает роль Пенджикента 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торговле.

1) [для переводчика: Булла – оттиск печати на сырой глине]

СЛАЙД 13, 14

Здесь уместно упомянуть и о другом памятнике. Между Самаркандом и Пенджикентом находится изученный нами храм огнепоклонников Джартепа. Возникший в V в. н.э. этот храм играл важную роль в религиозной жизни Согда. Важной находкой является китайское зеркало и культовая утварь.

Караваны, направляющиеся из Самарканда в Бухару, останавливались на своем пути в г. Иштихане, о чем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сведения китайских хроник «Бейшу» и «Сейшу». В этих хрониках Иштихан называется Цао. По данным китайских хроник из Иштихана в Китай отправлялись посольства с данью. Иштихан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был столицей Согда. Когда арабы завоевали Самарканд, согдийские правители – ихшиды, перенесли резиденцию в Иштихан.

К западу от Иштихана располагался другой согдийский город – Кушания. Этот город в китайских хрониках называется «Хэ». Как написано в китайских хрониках: «резиденция владения Хэ лежит в нескольких ли от реки Нами (т.е. Зарафшан) на юг. Это древняя кангюйская земля».

Как явствует из хроник 605–615 годов из Кушании в Китай было отправлено несколько посольств. Также в хронике Таншу, составленной в начале VII в. имеются важные сведения о домусульманской истории Кушании. «Хэ, есть древний город Фумо, принадлежавший малому кангюйскому владетелю. По восточную сторону города есть двухэтажное здание. На северной стене красками писаны древние имена императоров Среднего царства; на восточной – тукюеские ханы и индийские владетели; на западной – владетели боссыские (персидские) и фолиньские (сирийские). Владетель, учинив по утрам поклонение перед ними, уходит».

Где еще можно встретить такое здание, на стенах которого изображены портреты китайских императоров, тюркских, согдийских, персидских

и сирийских владетелей?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владетель Кушании имел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литические и культурные связи с вышеперечислен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Конечно, эти связи существовали благодаря Великому Шелковому пути,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л через Кушанию. Не без основания арабские географы называли этот город «сердцем согдийских городов».

СЛАЙД 15,16, 17,18, 19

Когда речь идет о согдийских городах, расположенных вдоль трассы ВШП, на городе Пайкенде нужно остановиться особо.

Остатки этого города сохранились в Каракульском районе Бухарского вилоята. Пайкенд также состоит из цитадели, двух шахристанов и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рабатов – каравансараев. Пайкенд вырастает не только как транзитный пункт и военная крепость на границе Бухарского оазиса с пустынными землями кочевников, но и как связующее звено с крупными и торгово-ремесленными городами.

Наиболее интенсивный рост города приходится в раннесредневековый период. О размерах торговли пайкендцев с внешним миром можно судить по сведениям арабского историка ат-Табари. Когда во время арабского похода на Пайкенд в 706-707 годах были взяты в плен защитник и города один из пленных, старый купец, предложил выкуп за себя в размере пяти тысяч шелковых платьев или кусков китайского шелка, оцененных в миллион дирхемов, что соответствовало выкупу всей Бухары за 673-74 годы. Добыча, захваченная арабами в этом городе, по своим размерам превысила все, что они захватили прежде в Хорасане. Не зря этот город называли «городом купцов».

Здесь уместно напомнить о сведениях историка Наршахи. Как пишет историк, когда арабские войска подступили к Пайкенду, все взрослое население города находилось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отъезде по торговым

делам. Все эти данные ярко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о том, что согдийские города играли важную роль в развитии ВШП. Конечно, в одном докладе невозможно говорить о всех согдийских городах, расположенных вдоль трассы ВШП.

Поэтому теперь я хочу остановиться на экономических и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ях согдийских городов с Китаем. По этому вопросу написано много статей и монографий. Среди них особо нужно отметить книгу американского профессора Эдварда Шефера «Золотые персики Самарканда», который подробно пишет о товарах, привезенных в Китай и о китайском экспорте. Если говорить о китайских товарах, привезенных в Согд,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адо говорить о китайском шелке. До раскрытия согдийцами секретов изготовления китайского шелка, он был основным ценным и желанным товаром на всем протяжении ВШП.

Китайские шелковые ткани (гладкие и полихромные) найдены в крепости Муг. Конечно, в древности китайские шелковые ткани в Согд привозились в большом количестве. Конечно, если иметь в виду, что текстильные изделия весьма плохо сохраняются в условиях среднеазиатского климата, то объяснимо, почему они просто до нас не дошли.

В раннесредневековом периоде китайские бронзовые монеты династии Тан в большом количестве проникают в Среднюю Азию, в особенности в Согд. Эти монеты оказывают заметное влияние на сложение монетных систем Согда и Чача. Такие монеты были найдены на Афрасиабе, в Пенджикенте и Кафиркале под Самаркандом.

СЛАЙД 20

Кроме монет, наиболее значительным предметом китайского импорта в Согда были зеркала. Древние зеркала были найдены на памятнике Коктепа в Самаркандском Согде. Еще одно китайское зеркало было найдено в храме огнепоклонников Джартепа-II. Зеркала круглые, диаметром

16 см. На обратной стороне оно имеет шишку-петлю в центре, вокруг этой шишки расположены 8 иероглифов – это надпись имеет благожелательный характер. Орнамент растительный и передан волнообразным стеблем и виноградными гроздьями. Вокруг шишечек имеется изображение двенадцати животных – знаков Зодиака. Аналогичные зеркала были найдены в китайской провинции Хэлань и датированы концом VI – началом VII в.

Когда речь идет о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ях Согда с Китаем,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ужно говорить о музыкальном искусстве. В Китае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существовал обычай отправлять в качестве подарка от одного властителя к другому красивых девушек, обученных музыке – исполнительниц, музыкантш, певиц и танцовщиц.

Наибольшей любовью среди всех юных танцоров с далекого Запада пользовались «девы с Запада, крутящиеся в вихре». Они присланы в качестве даров от правителей Самарканда, Кеша и Маймурга, во время царствования Сюань-цзяна, т.е. на протяжении первой половины VIII в.

Эти согдийские девушки, облаченные в алые платья с парчовыми рукавами, скакали и передвигались прыжками и вращались стоя на шарах, перекатывавшихся по площадке для танцев к восхищению пресыщенных сердец богатых и знатных зрителей.

Как известно, в Китае в провинции Сиань найдено несколько погребений знатных согдийцев. Эти согдийцы когда-то выехали из Согда и обосновались в Сиане. В одном из погребений была найдена терракотовая статуэтка (VIII в.). На ней изображены музыканты, сидящие на верблюде. По мнению специалистов, это жители Согда.

Другая интересная находка сделана также в Китае в 1971 г. в провинции Хэнань. Здесь было открыто погребение правителя города Ланчжоу, датируемое 575 г. н.э. В погребальном инвентаре был найден керами

ческий сосуд с изображением ансамбля музыкантов из Согда.

Как показывают вышеприведенные примеры V-VIII вв. н.э. согдийское музыка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оказывало большое влияние на китайскую музыку. Как было доказано, многие китайские музыкальные инструменты были созданы на основе согдийских музыкаль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Немаловажные заслуги имели выходцы из Согда и в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и буддизм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Китайские письменные источники называют четырех согдийских монахов-буддистов, которые играли большую роль в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и буддизма в Китае во II-III веках н.э. Эти монахи и переводили буддийские тексты на китайский язык, строили монастыри и ступы. Еще в IV в. два согдийских монаха переселились в Китай, где пропагандировали буддизм и прекрасно оформляли буддийские тексты.

Исключительно 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придается изучению Великого Шелкового пути в Узбекистане. Благодаря инициативе и поддержке Президента Узбекистана И.А. Каримова, в Узбекистане проводится актив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 возрождению, развитию культуры, науки, искусства, народных промыслов и музыки. 2 октября 2014 года в Самарканде прошла 99-я сессия исполнительного совета Всемирной туристи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ООН. На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выступил Президент Узбекистана И.А. Каримов. В своем выступлении он говорил о том, что в Узбекистане широко отпраздновали 2750-летие Самарканда, 2700 лет Шахрисабза, 2500-летие Бухары и Хивы. "Именно через эти города и центры культуры пролегал Великий шелковый путь - один из самых значительных 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х феноменов мировой истории. Уже в III-II тысячелетиях до нашей эры складываются системы коммуникаций, которые связали между собой самые отдельные культуры и страны в обширном регионе Среднего Востока, простиравшихся от равнин Месопотамии до долин Инда и от оазисов Средней Азии до Аравийского моря. Именно они стали одним из основных маршрутов Великого Шелкового пути". В эт

их словах на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дана точная и ясная характеристика ВШП.


В заключении хочу сказать, что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согдийские города на ВШП играли большую роль в развитии экономики, культуры и не только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но и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и древние согдийцы, хорезмийцы, бактрийцы, живши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Узбекистана внесли огромный и ярчайший вклад в становлении и процветании культурных, идеологических и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на Евразийском континенте. И отталкиваясь от этого блестящего феномена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ой истории, современный Узбекистан развивает жизнеспособность этих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х конструкций и моделей на новом, современном этапе транскультурного и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제2부

유라시아 문명과 실크로드
그리고 고대 한반도





| 제2부 | 발표 01

新羅 - 匈奴의 무덤구조 비교 검토



제2부 : 유라시아 문명과 실크로드 그리고 고대 한반도

新羅 - 匈奴의 무덤구조 비교 검토

- 대형분을 중심으로 -

윤형원*

목 차

1. 머리말
2. 신라(新羅)-흉노(匈奴) 대형분의 구조
3. 신라-흉노 대형분의 구조비교
4. 맺 음 말

1. 머리말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과 몽골국립역사박물관·몽골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한-몽 공동학술조사단 Mon-Sol Project>은 2000년부터 흉노(匈奴)에 관심을 두고 투브아이막 모린톨고이 유적, 아르항가이 아이막 호드긴톨고이 유적, 헤티아이막 도르릭나르스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그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고 전시회를 개최하였다.¹⁾

흉노(匈奴)는 중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대제국을 건설하고 중국의 진(秦), 한(漢)을 위협했으며, 기원후 2세기에 중국 한무제의 북진정책으로 말미암아 위청, 광거병 등의 원정으로 초원의 흉노가 흩어지고 일부가 서진하여 기원후 4세기 이후에 에프탈 제국이나 앓

*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1) 국립중앙박물관·몽골국립역사박물관·몽골과학아카데미 역사연구소, 2001, 『몽골 모린 톨고이 흉노 무덤』, 한-몽 공동학술조사보고 제2책. 고고학연구소, 2003, 『몽골 호드긴 톨고이 흉노 무덤』, 한-몽 공동학술조사보고 제3책.

틸라의 ‘훈’의 이름으로 유럽의 기록에 다시 나타난다.²⁾

흉노의 이동이 세계사의 판도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난 것이었다. ‘흉노’에 대한 기록은 중국의 사료나 서양의 전쟁으로 인한 접촉과 관련된 기록에 일부 나타나 있을 뿐이며, 그 실체를 찾는 길은 고고학적 조사를 통하는 방법 뿐이다. 따라서, 프랑스, 헝가리, 벨기에, 대한민국, 러시아, 일본 등 동서양 여러나라에서 몽골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흉노의 모습을 찾기 위해 100년이 넘도록 고고학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³⁾

대한민국의 고고학자들은 신라 적석목곽분의 기원을 다양한 루트에서 찾고자 노력하였는데, 고구려 적석총의 요소가 발전하여 신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거나 심지어 멀리 파지릭 무덤에서 연원을 찾으려는 시도도 있었다. 최근에는 신라의 적석목곽분이 이전 시기의 목곽묘 문화로부터 자생적으로 발전하는 문화로 보려는 경향도 있다. 이 글에서는 신라-흉노에서 보이는 대형분의 무덤구조를 중심으로 양문화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신라(新羅)-흉노(匈奴) 대형분의 구조

가. 신라 대형분의 구조

신라의 대형 무덤은 ‘고총’이라 불리우며 중심되는 고분군은 경주 분지 한가운데에 위치한다. 이는 4세기 ~ 6세기에 이르는 시기에 유행하는 신라의 특징적인 무덤으로 ‘적석목곽분’으로 불리운다. 이 무덤에서는 금관을 비롯해 엄청난 양의 유물이 출토된다. 특히, 천마총과 황남대총은 1973 ~ 1975년에 고대 도시 ‘경주’에 대한 국가적인 정비사업으로 발굴조사하게 되었으며 이 발굴로 말미암아 신라무덤의 완형분·대형분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게 되었다. 최근 10여년간 경주시는 ‘경주 쪽샘지구 정비’를 진행하여 민가들을 이주시키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주관하여 신라 무덤들을 집중적으로 발굴조사하고 있어, 신라고고학 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신라무덤 가운데 대형분이며 가장 특징적인 황남대총(남분과 북분)과 천마총을 비교자료로 검토해 보겠다.

2) 르네 그루쎈 저, 김호동·유원수·정재훈 역, 1998,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사계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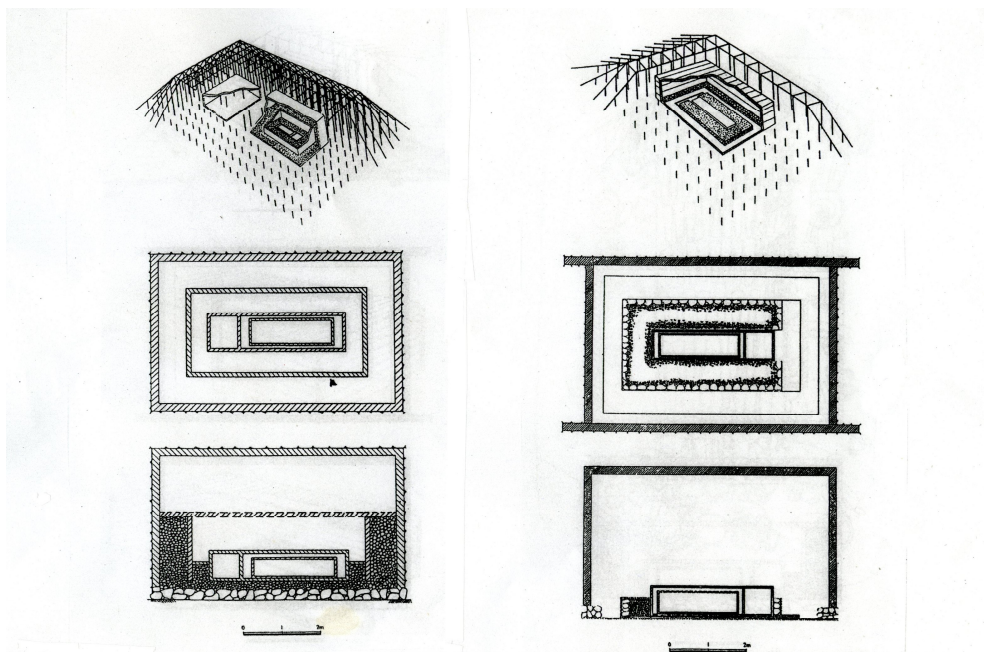
3) 윤형원, 2014, 「몽골 흉노고고학의 성과와 전망」, 『한국고고학의 신지평』, pp.375~382, 제3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문, 한국고고학회.

1) 황남대총 남분(98호)⁴⁾(도면 1)

황남대총은 신라고분 가운데에서 가장 큰 무덤이며 남분과 북분의 쌍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분이 먼저 만들어지고 북분이 남분에 잇대어 축조되었다. 남분 피장자의 성별은 치아가 출토되어 50대이후의 남성으로 판명되었다.

무덤의 외형은 반표주박형이며 남분만 놓고 볼 때에는 반구형이다. 봉토의 크기는 동서 83.0m 남북 70m, 높이 22.2m이다. 봉토는 고분의 중심부에 축조된 적석부 상면과 그 주위에 넓게 덮은 두꺼운 점토층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적석부 상면 아래가 먼저 성토되고 목곽내부 매장과 적석부의 개부가 축조된 이후에 적석부 상면 윗 부분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적석부는 봉토 꼭대기로부터 15.6m아래에서 노출되었는데 크기는 동서 27.2m, 남북 19.7m 높이 6.6m에 이른다. 적석 상부는 말각장방형을 띠며, 내부에 목조가구를 설치한 후 이에 맞추어 냇돌을 쌓아 축조한 형태이다. 목조가구는 황갈색 점토층 아래 약 50cm 깊이로 구멍을 파고 통나무 기둥을 박아 설치하였는데 기둥의 직경은 25~30cm이다. 이 기둥들은 주곽과 부곽이 배치되는 공간과 그 주위에 동서 23열, 남북 14열이 배치되었다.



도면 1. 황남대총 남분 목조가구 및 목곽 복원도 도면 2. 황남대총 북분 목조가구 및 목곽 복원도

4)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4, 『황남대총』 남분발굴조사보고서.

목곽은 주부곽의 구조이며, 주곽은 다시 내외곽 2중으로 축조되었으며 그 안에 목관이 설치되었다. 외곽의 크기는 동서 6.5m, 남북 4.1m, 높이는 3.7m에 이르고, 내곽의 크기는 동서 4.7m, 남북 2.3m, 높이는 1.8m이며, 목관은 길이 2.2m, 폭 0.7m 정도이다. 목관이 설치된 부분은 얇은 황갈색 점토로 다진 바닥면에서 45cm 정도 파낸 후 넷돌을 깔아 높이를 맞추었다. 목곽 안에는 잔자갈을 20cm 두께로 깔았는데 모두 주철되어 있었으며, 내곽과 목관 사이에는 잔자갈을 약 50cm 높이로 둘러 채워 석단 형태로 만든 후 판재와 같은 목재로 덮었다.

부장공간을 살펴보면 목관내 피장자는 장신구를 착용하고 부장품 수장부에 유물을 매납한 후 의도적으로 목관주위의 석단 상면에 유물을 부장하고 목곽의 뚜껑을 덮은 후 그 상부에 다시 토기와 마구 장신구 등을 부장하였다. 석단 상면에 15~20세 가량의 여자 1인이 순장되었으며,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로 보아 또다른 순장자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황남대총 북분(98호)⁵⁾(도면 2)

북분은 남분과 함께 신라 무덤 가운데 가장 큰 것이며 가장 이른 시기의 금관이 출토되어 주목받았다. 남분이 먼저 만들어지고 북분이 남분에 잇대어 축조되었다. 북분 피장자의 성별은 반지, 팔찌 등 장신구가 착용된 점과 ‘부인대’ 명의 은제과대가 출토된 점을 근거로 여성으로 판단되었다.

전체 외형은 반표주박형이며 북분만 놓고 볼 때에는 역시 반구형이다. 봉토의 크기는 동서 80.0m 남북 50m, 높이 22.9m이다. 봉토는 고분의 중심부에 축조된 적석부 상면과 그 주위에 넓게 덮은 두꺼운 점토층으로 구분된다. 적석부 상면 아래가 먼저 성토되고 목곽내부 매장구와 적석부의 개부가 축조된 이후 적석부 상면 이상의 봉토가 조성된 것은 남분과 같은 수법이다.

북분의 적석부는 봉토 꼭대기로부터 16.5m아래에서 노출되었는데 크기는 동서 16.0m, 남북 12.8m 높이 6.0m에 이른다. 적석상부는 말각장방형을 띠며, 내부에 목조가구를 설치한 후 이에 맞추어 넷돌을 쌓아 축조한 형태이다. 목조가구는 황갈색 점토층 아래 약 50cm 깊이로 구멍을 파고 통나무 기둥을 박아 설치하였는데 기둥의 직경은 30cm이다. 이 기둥들은 주곽이 배치되는 공간의 주위에 모두 64주가 배치되었다.

5)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85, 『황남대총』북분발굴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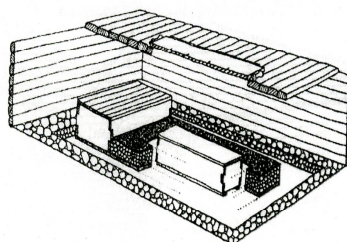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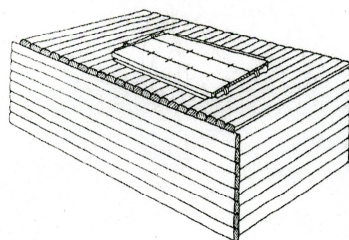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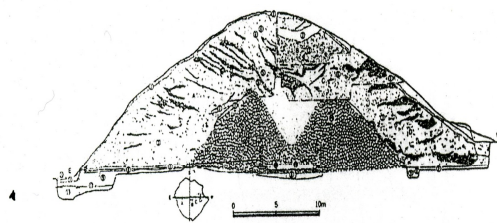
목곽은 부장계가 따로 없는 단독곽의 구조를 띠고 있는데, 목곽 주변의 3면에 석단을 만들었으며 그 안에 2중 목관이 설치되었다. 목곽의 크기는 동서 6.8m, 남북 4.6m, 높이는 4.0m에 이르고 외관의 크기는 동서 3.2m, 남북 0.8m, 높이는 0.8m 가량이며, 내관은 길이 2.2m, 폭 0.7m 정도이다. 어떠한 판재를 이용해 어떤 맞춤수법으로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금속제 연결구가 출토되지 않아 순목재의 이음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부장공간을 살펴보면 목관내 피장자는 장신구를 착용하고 부장품 수장부에 유물을 매납한 후 목곽의 뚜껑을 덮은 후 그 상부에 다시 토기와 마구 장신구 등을 부장하였다. 석단 상면으로부터 낙하된 것으로 보이는 심엽형 장식으로 보아 순장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3) 천마총(155호) (도면 3)

천마총은 황남대총 주변에 축조된 무덤으로 금관과 천마도가 그려진 말다래가 발견됨으로써 매우 중요한 무덤으로 주목받았으며 현재 내부가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다. 황남대총보다는 시기가 다소 늦으며 피장자의 성별은 남성으로 판단되었다.

봉토의 크기는 동서 60.0m, 남북 51.5m에 이르며 높이는 현지표로부터 정상부까지 12.7m에 이른다. 외호석 안쪽으로 적석을 쌓으면서 봉토를 동시에 쌓아 올렸는데 적석과 봉토의 접착면은 4.0m 높이까지 쌓았다. 내부에 황남대총과 같은 목조 가구는 설치되지 않았고 적석부와 봉토의 축조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도면 3. 천마총 동서 축위도 및 목곽 복원도

6)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74, 『천마총』.

적석부는 정상부 6.5m 아래에서 확인되었는데 단면형태는 타원형으로 동서 15.5m, 남북 13.0m, 높이는 3.3~5.9m에 이르며 장축이 동남쪽으로 17°기울어져 있다. 적석 상부에 15~20cm정도의 점토층이 피복되었다. 목곽의 기저부는 바닥을 약 40cm파고 그 위에 두께 40cm의 냇돌을 깔았다. 그 위에 동서 6.6m, 남북 4.2m크기의 판재를 올려 놓았는데 주칠되었다. 목곽의 높이는 2.1m 내외이며 환형철구를 이용하여 결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안에 수장궤와 목관을 놓아 T자형으로 배치하였다 목관의 주위에는 석단을 쌓고 부장품 수장궤를 제외한 목관과 석단 바닥에는 판재를 깔았다. 목관의 내면에는 주칠 위에 금박을 입힌 흔적이 있다.

부장공간을 살펴보면 목관내 피장자는 장신구를 착장하고 부장품 수장부에 유물을 매납한 후 목곽의 뚜껑을 덮은 후 그 상부에 다시 토기와 마구 장신구 등을 부장하였다. 목곽 상면으로부터 낙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수식 4쌍과 석단 상면의 철제유물과 무구류는 순장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나. 흉노 대형분의 구조

몽골의 흉노무덤은 북흉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남흉노가 일찍이 한화(漢化)된 것에 비하면 북흉노의 무덤들은 초원 유목민들의 생활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다고 하겠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투브 아이막 노용-울(러시아 표기로 노인-올라), 아르항가이 아이막 골모드, 투브 아이막 모린 톨고이, 아르항가이 아이막 호드긴 톨고이 고분군 등이 있다. 한-몽 공동조사단은 몽골의 동쪽인 헨티 아이막의 나르스 유적 등 대형분을 발굴했으며 보고서 발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용-울 고분군은 1923~1925년에 러시아인 P.K. 코즐로프를 단장으로 하는 몽골-티베트 지역 조사대가 최초로 대형무덤 6기와 소형무덤 4기를 발굴조사하였으며, 무덤의 규모가 크고 다량의 출토품이 발견되는 등 상황이 복잡해지자 전문적인 고고학자를 파견하였다. 1927년에는 A.D. 시무코프가 2기의 무덤을 발굴조사하였다. 노용-울 발굴조사는 20세기 초의 기념비적인 고고학 발견으로 인식되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⁷⁾

아르항가이 아이막 골모드 고분군은 몽골의 중앙 서부의 흉노고분군 가운데 가장 큰 무덤이 존재하고 있고 이는 1956~1957년에 <<북흉노>>의 저자인 몽골의 고고학자 Ts. 도르지수렝이 조사를 시도했으나 끝내지 못하고 몽골-프랑스 공동조사단이 2000-2001년

7) D. 체벤도르지, 2001, 「흉노 연구 개요」, 『몽골 모린 톨고이 흉노 무덤』, 한-몽 공동학술조사보고 제2책, 국립중앙박물관·몽골국립역사박물관·몽골과학아카데미 역사연구소, pp.200~209.

에 재발굴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모아 2003년에 울란바토르에서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 모린 톨고이 고분군에서는 1983년에 D. 나왕과 P.B. 코노발로프가 이끄는 몽골-소련 역사문화조사단이 2기의 흉노무덤을 발굴하였고 2000년에 한-몽 공동학술조사단이 이 유적에서 가장 큰 흉노무덤인 2000-1호를 발굴조사하였다. 아르항가이 아이막 호드긴 톨고이 유적은 타미르강 유역에서 중심되는 흉노 고분군으로 1987년에 D. 체벤도르지, I. 에르델리가 이끄는 몽골-헝가리 조사단이 2기의 흉노무덤을 발굴조사하였고, 2001년에 한-몽 공동학술조사단이 4기의 흉노무덤을 발굴조사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06년부터 도르릭나르스 고분군에서 발굴조사하고 있다.⁸⁾ 몽골-러시아(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고고민족학연구소 시베리아분소) 공동조사단은 2005년부터 노용-올에서 20호분을 비롯한 3기의 대형분을 발굴조사하였으며, 보고서 발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⁹⁾

1) 노용-올 24호(도면 5, 6)

1924년, 러시아의 훈련된 고고학자 C.A. 페뵐로루호프와 G.I. 보로브카가 유구전체에 대한 발굴작업을 진행하였고 45인의 중국인 노동자가 참여하였다. 분구는 16.0×14.0m의 방형이고 남측 중앙부에 길이 12.0m의 묘도가 이어졌으며 중앙부가 함몰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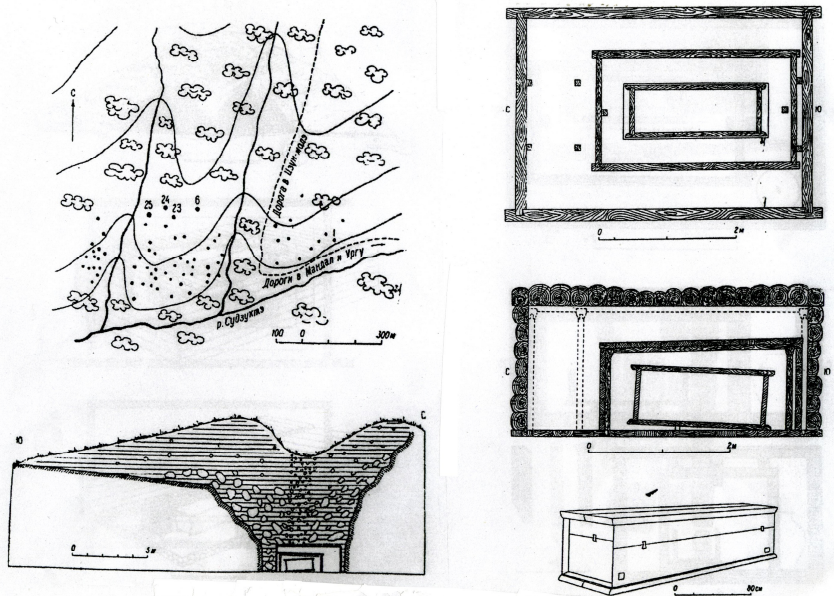
7.0m 깊이에서 목곽 뚜껑이 노출되었는데 통나무 19개를 이용하였다. 지표상에서 매장 주체부 바닥까지의 깊이는 약 10.0m에 달하며 묘광 내부에는 할석과 흙을 채웠다. 매장 주체부는 일부 도굴되어 파괴된 상태였으며, 외곽과 내곽 2중곽 안에 목관이 설치되어 있었다. 목곽의 크기는 외곽 길이 4.1m, 폭 2.7m, 높이 1.3m이고 내곽은 길이 3.16m, 폭 1.65m, 높이 1.22m, 목관 길이 2.16m, 폭 0.77m, 높이 0.85m 가량이다. 목관의 북쪽 바닥면에 삼각형 나무가 놓여져 있었다. 목관의 뚜껑과 바닥은 장방형 판재를 2매씩 나비장으로 결구했다. 목관 밖에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인골이 발견되었다. 출토유물은 화려한 무늬를 새긴 옥장식, 금박장식, 명문이 있는 직물, 칠기 숟가락, 청동제 목관손잡이, 포수 모양 손잡이가 달린 청동용기편, 석제구슬 2점, 진주구슬 3점이 출토되었다.

2) 노용-올 1호(도면 5-1)

1924년 P.K.코즐로프가 이끄는 몽골 티베트 조사단에 의해 조사되었다. 발굴 도중에

8) D. 체벤도르지 저, 이평래 역, 1997, 「몽골 고고학 연구」, 『고고학지』8.

9) N. 바트볼드 외, 2008, 「노용-올 20호 흉노 귀족무덤 발굴조사 성과」, 『초원의 대제국 흉노』, 한-몽 공동학술조사 1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울란바토르), pp. 299~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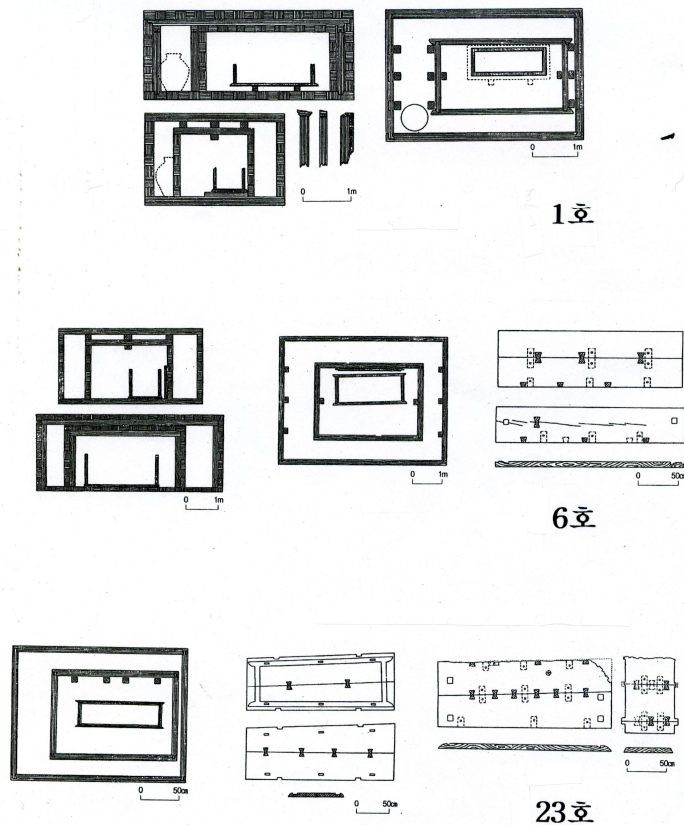
도면 4. 노용-울 24호 무덤 단면도 및 목곽복원도

지하수가 나와 ‘물무덤’ 또는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하부무덤’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분구는 21.9×21.9m의 방형이고 남측 중앙부에 길이 21.0m의 묘도가 이어졌으며 중앙부가 함몰되어 있었다.

매장주체부는 외곽과 내곽 2중곽 안에 목관이 설치되어 있었다. 내곽은 통나무 14개, 외곽은 통나무 21개로 상부를 덮었고 내곽을 외곽 남벽에 치우치게 두었다. 목관의 크기는 외곽 길이 4.61m, 폭 2.9m, 높이 1.75m이고 내곽은 길이 3.0m, 폭 1.55m, 높이 1.45m, 목관 길이 1.94m, 폭 0.74m, 높이 0.55m가량이다. 내곽의 벽 안쪽과 바깥쪽에 비단과 직물 조각이 부착되어 있었던 점으로 보아 내곽 양면에 직물을 걸어 장식했음을 알 수 있다. 내곽 바닥에서 문양이 있는 펠트 카펫 흔적도 확인되었다. 목관 바닥과 양측 벽에 날아가는 새를 표현한 채색흔적이 남아 있었다. 목관 주변에서 다양한 비단과 직물편이 수습되었는데 금박이 부착된 것도 있었다. 이와 함께 비단함에 넣은 사람의 땀겨리도 다량 수습되었다. 내외곽 사이공간과 내곽 내부에서 금박장식, 옥장식품이 출토되었으며 심엽형 철기, 일산살꼭지, 청동용기편, 금동칼손잡이, 동물문양 청동기, 다양한 문양과 명문이 있는 비단과 직물편, 철기편, 그리고 곡물이나 술을 담았을 것으로 보이는 대옹이 출토되었다.

3) 노용-을 6호<도면 5-2>

1924년 P.K. 코즐로프가 이끄는 몽골 티베트 조사단에 의해 조사되었다. 발굴 지역에서 북쪽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상부무덤’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분구는 24.5×24.5m의 방형이고 남측 중앙부에 길이 22.5m의 묘도가 이어졌으며 중앙부가 함몰되어 있었다. 4.5m 깊이에서 대형 할석층이 끝나고 6.0m 깊이에서 목탄층, 9.23m에서 점토평함층이 확인되었고 10.34m에서 덮개에 이르렀다. 유물 대부분이 도굴갱 주변에 모여 있었는데 도굴과정에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내곽이 외곽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목곽의 크기는 외곽 길이 5.34m, 폭 3.99m, 높이 1.98m이고 내곽은 길이 3.31m, 폭 2.23m, 높이 1.66m가량이다. 내곽 벽의 양면과 외곽의 안쪽에 다양하게 수 놓은 비단을 걸어 장식하고, 내곽 바닥과 천장에는 펠트카펫을 깔았다. 바닥카펫은



도면 5. 노용-을 1호, 6호, 23호 목곽 및 복원도

2.6×1.95m크기로 중앙에는 구름모양을 수 놓고 그 둘레로 서로 마주보고 싸우는 호랑이와 야크가 등장한다. 천장카펫은 4.4×3.2m크기로 거북이, 물고기 등을 수 놓아 물속 장면을 묘사하였다. 이 무덤에서는 378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비단으로 짠 펠트모자, 비단바지, 비단신발 등 복식자료와 동물문양 금은제장식, 드리개, 옥 건평오년(建坪午年, 기원전 2년)명 흑칠이배, 숟가락, 칠제 상, 청동주전자, 동복, 목제안장 등과 칠제 마차와 청동제 마차장식도 수습되었다.

4) 노용-올 23호(도면 5-3)

1924년 P.K. 코즐로프가 이끄는 몽골 티베트 조사단에 의해 조사되었다.

분구는 19.0×17.0m이고 남측 중앙부에 길이 17.5m의 묘도가 이어졌으며 중앙부가 함몰되어 있었다. 6.0m 깊이에서 낙타이빨과 불에탄 백화수피편이 수습되었고 목곽뚜껑이 교란된 채 노출되었다.

목곽의 크기는 외곽 길이 4.31m, 폭 3.0m, 높이 1.68m이고 내곽은 길이 2.98m, 폭 2.0m, 높이 1.41m가량이다. 유물은 대부분 도굴되었으나 목곽 장식 금박편, 금제 말모양 장식, 금제 막대기, 소머리모양 장식, 은제 단추, 청동환, 목제 숟가락, 발화구, 칠기이배, 토기 등이 수습되었다.

5) 골 모드 I 2001-1호(도면 6)

1956~57년에 몽골 고고학자인 Ts. 도르지수렌에 의해 배장묘 26기와 대형분 1기(1호)에 대한 발굴이 시작되었으나 불의의 사고로 대형분의 매장주체부에 이르지 못하고 중단되게 된다. 이 조사는 2000-2001년에 몽골-프랑스(국립기메박물관) 공동조사단에 의해 완료되며, 이때 방형무덤 2기(20호, 79호)를 추가로 발굴했다. 1호는 묘도의 길이가 36.0m이고 분구 동쪽 끝에는 석축이 11~12단 남아 있었다. 분구의 가장 높은 곳에서 5.0m깊이까지 돌과 흙이 섞여 나왔고 5.5m깊이부터 굴광선이 확인되었다. 묘광의 형태는 사다리꼴이고 13.5m깊이에서 적석층이 노출되었는데 이 층에서 한경, 청동용기편, 수레 부속구, 마구도 함께 발견되었다. 14.5m깊이에서 목곽이 노출되었는데 크기는 외곽 길이 5.4m, 폭 4.4m이고 내곽은 확인되었으나 보존상태가 좋지 못해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없다. 목관은 길이 1.9m, 폭 1.4m 뚜껑은 단면 반원형의 판재 5개를 이용해서 만들었다. 구슬 4점과 옥장식 1점, 금제 장신구 1점이 출토되었다.

6) 골 모드 II(발가손 탈) 1호 <도면 7>

이 유적은 몽골-미국 공동조사단이 ‘한오이 계곡 프로젝트’에서 발견하였다. 분구높이는 3.6m이며 크기는 외곽석축을 기준으로 할 때 길이 46.0×42.0m이고 묘도는 사다리꼴로 길이 37.5m(서쪽)에 달한다. 무덤 동쪽에 남북으로 배장묘 23기가 분포하고 있다. 몽골국립대의 에르텐바타르 교수가 이끄는 발굴단이 이 거대한 무덤을 발굴조사하였으며 현재 몽골에서 출토유물에 대한 보존처리와 보고서 발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7) 모린 톨고이 2000-1호¹⁰⁾<도면 8>

2000년 한-몽 공동학술조사단의 송의정·윤형원이 발굴하였다. 발굴조사된 흉노 무덤은 모린톨고이 고분군에서 가장 큰 무덤으로 귀족무덤으로 추정된다. 지상에 드러난 적석부의 지름은 14.0m, 묘광의 깊이는 약 5.0m에 이르며 장축방향은 남북이다. 무덤의 외형을 보면 적석의 전반부는 방형이고 후반부는 반원형을 이루고 있다. 전반부의 방형 석열은 제단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양쪽 모서리에 호석을 세운 듯 장방형의 돌이 배치되어 있었다. 지표하 70cm 지점에서 40대 이상의 남성 인골 1구와 동물뼈가 출토되었는데, 하부 매장주체부와는 달리 추가장 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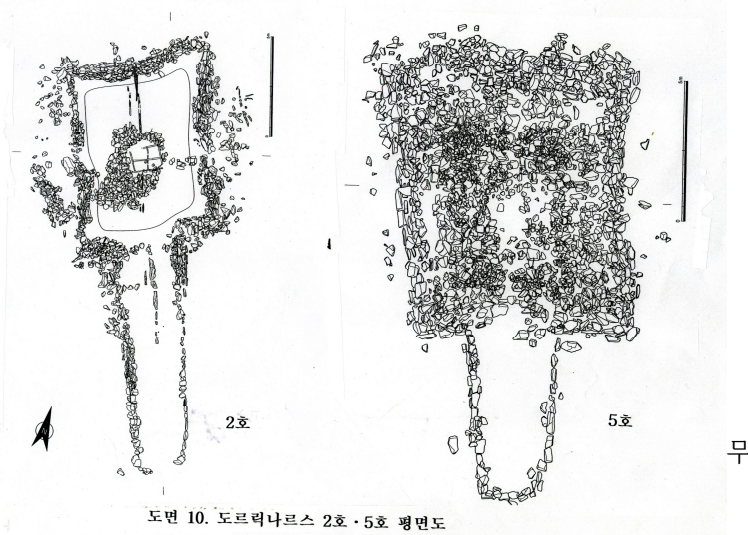
무덤의 내부구조는 계단식으로 3차에 걸쳐 굴광을 파고 매장주체부에 이르며, 굴광 내부에는 할석과 흙을 채웠다. 3차 굴광 상부 모서리에서는 개뼈 1구가 완전한 상태로 출토되었다. 매장주체부에는 받침목을 설치하고 목관을 안치하였으며 장벽이 튀어나온 ‘ㅍ’자형으로 결구되었으며 뚜껑 상부에 파경된 구구경 1점이 매납되어 있었다. 목관의 북쪽은 부장공간으로 소머리뼈와 30세 전후의 여성인골이 양호한 상태로 출토되었다. 3차 굴광 아래에 위치하는 목관과 부장공간 위에는 판재로 20매의 횡목으로 덮었다.

8) 호드긴 톨고이 2001-1호¹¹⁾<도면 9>

2001년 한-몽 공동조사단의 윤형원이 팀장으로 발굴에 참여하였다. 1호 무덤의 평면형태는 둥근 고리 모양으로 중앙부가 함몰된 상태이며 직경은 11.0m에 이르며 깊이는 4.3m에 이르는 대형급 무덤으로 크기와 출토유물의 성격으로 보아 흉노시대의 장군급 무덤으로 추정된다.

10) 국립중앙박물관·몽골국립역사박물관·몽골과학아카데미 역사연구소, 2001, 『몽골 모린 톨고이 흉노 무덤』, 한-몽 공동학술조사보고 제2책.

11) 국립중앙박물관·몽골국립역사박물관·몽골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2003, 『몽골 호드긴 톨고이 흉노 무덤』, 한-몽 공동학술조사보고 제3책.



도면 10. 도르릭나르스 2호·5호 평면도

덤의 내부구조는 2차에 걸쳐 굴광을 파고 매장주체부에 이르며, 굴광 내부는 할석과 흙으로 채웠다. 매장주체부에는 받침목을 설치하고 목관을 안치하였으며 바닥판은 모두 4매로 이루어져 있다. 목관의 크기는 가로 2.0m, 세로 1.0m, 높이 0.5m 가량이다. 유물은 청동 종방울·청동머리장식·활 등을 비롯하여 철제 무기류·옷장식 등이 다량 출토되었다. 목관의 내부 피장자의 오른쪽팔 부분과 허리, 발치부분을 부장공간으로 활용하였으며, 목곽 상부에서 었어 놓았다가 함몰된 유물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목곽 위에 횡목을 덮고 큰 할석으로 눌러 놓았다. 인골은 30~35세의 유럽계 남성으로 신장은 174.1cm로 추정되었으며, 우측 상완골이 골절된 흔적이 있으며 두개골 우측 관자놀이 부분에 원형의 수술 흔적이 남아 있다.

9) 도르릭 나르스 2호¹²⁾(도면 10)

도르릭 나르스 유적은 한국(국립중앙박물관)-몽골 공동조사단이 2002년에 현장을 답사하고 발굴계획을 세운 뒤 2006년부터 발굴조사를 시작하였다. 장은정, 황보창서, 윤상덕 등이 참여하였다. 2006-2007년(2년간) 발굴조사된 2호 무덤은 평면 철자(凸字) 모양 무덤으로 방형부 크기는 9.0×11.0m이고 묘도길이는 약 15.0m이며, 무덤군에서 중소형에 해당된다¹³⁾. 8.0m 깊이의 무덤은 1.5~2.0m마다 안쪽으로 폭 50cm 가량의 단을 이루어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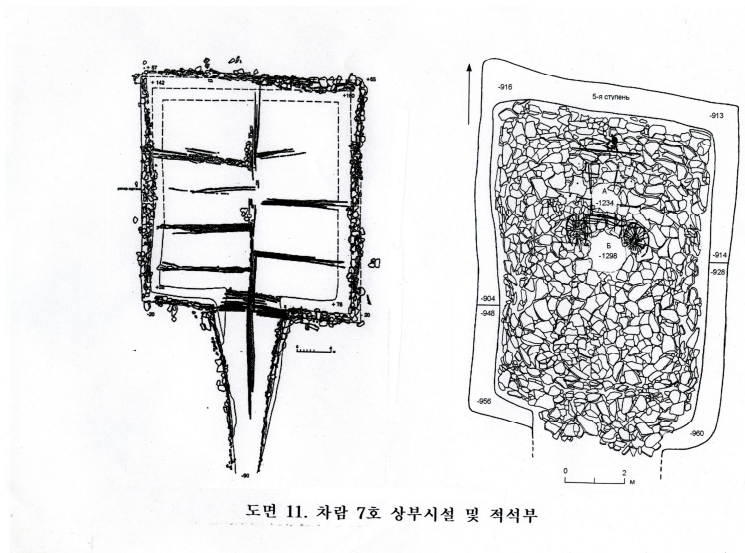
12) 국립중앙박물관, 2009, 『도르릭 나르스 흉노 무덤』, 고고관 테마전

13) 도르릭나르스 고분군에서 중대형에 해당하는 1호분을 발굴조사하였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고서 발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단식으로 파내려간 뒤, 목곽을 설치하고 목관을 안치하였다. 지표하 5.5m에서 30마리 이상의 말과 양의 머리와 앞다리가 놓여있었고, 두껍게 옷칠이 된 마차 1대가 부장되었다. 목곽의 남쪽에 치우치게 목곽을 놓아 북쪽공간은 부장곽으로 활용하였는데 대옹과 주철 용기가 발견되었다. 목곽의 외벽에서 심발형 토기 2점이 발견되었고 청동용기와 직물, 청동거울, 마구 등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목곽 내부에는 가슴부근에서 벽옥(碧玉)이 발견되었고 금제 누금장식, 금동제 말모양장식, 터키석 곡옥 등이 출토되었다. 목관의 외벽에는 금제 띠와 꽃장식을 부착했고 뚜껑에서 주철흔이 확인되었다.

10) 부리아트-차람 7호¹⁴⁾(도면 11)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물질문화사연구소 바이칼고고학조사단의 S.S. 미냐예프가 이끄는 발굴조사단은 1997년부터 2005년까지 9년간 차람 7호 대형분을 발굴하였으며, 대형분의 동서에 10개의 배장묘가 존재한다. 분구는 29.0×28.0m이고 남측 중앙부에 길이 20.0m의 묘도가 이어졌으며 중앙부가 함몰되어 있었으며, 돌과 나무로 내부를 구획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출토유물은 한경과 한식마차가 두드러지며, 청동 동물문양 장식, 금제 팬던트와, 향낭을 연상시키는 금제 주머니, 사티로스의 머리가 묘사된 베클 등이 출토되었다. 배장묘에서는 순장으로 볼 수 있는 증거도 발견되었다. 무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작업이 끝난 후에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도면 11. 차람 7호 상부시설 및 적석부

14) S.S.미냐예프, 2010, 「차람계곡의 흉노 귀족 고분군」, 『동아시아 고대문화 속의 흉노』, 부경대학교 · (사)중앙아시아학회 2010년 국제학술대회, pp.91~117.

3. 신라-흉노 대형분의 구조비교

신라와 흉노 대형분의 구조비교를 위해 대표적인 무덤을 중심으로 외형 및 크기, 내외부 구조물, 목곽 및 목관, 부장공간, 순장 문제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자료의 성격과 잔존상태의 차이로 말미암아 직접비교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되는 보조자료를 활용하였다.

가. 외형 및 크기

신라 무덤과 흉노 무덤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매장주체부의 위치이다. 신라 무덤은 지하를 얇게 굴착하거나 대형분은 지상에 매장주체부가 위치하나 흉노 무덤은 기본적으로 지하 깊숙이 매장주체부가 자리 잡고 있다.

신라 적석목곽분 중에서 초기에 나타나는 무덤들은 지하를 굴착하나 깊이는 0.5m ~ 2.0m 정도로 그리 깊은 무덤이라고 할 수는 없고, 경주 분지에 축조된 거대한 무덤들은 높은 봉토가 특징적인데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신라에서 가장 큰 무덤인 황남대총은 현재 봉토의 높이가 22.0m에 이른다.¹⁵⁾

흉노 무덤은 지상으로 올라온 부분보다 무덤 축조시에 지하로 깊이 굴착되어 있는 점이 큰 특징이다. 깊은 무덤을 축조하는 이유는 초원의 주인공이 바뀌어 다른 족속들이 흉노의 선조 무덤이 도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무덤을 깊이 굴착하는 작업 역시 지상으로 봉토를 쌓아 만드는 무덤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가장 깊은 무덤은 아르항가이 아이막 골모드 1호로 지하 20.0m 지점에 매장주체부가 축조되었다.

외형을 살펴보면 신라의 무덤은 평면형태가 원형이며 무덤 주위를 돌아가며 무덤 호석이 설치되어 있으며 목곽의 붕괴로 적석부가 일부 함몰되어 있다. 흉노의 무덤은 원형과 방형으로 구분되는데 모두 매장주체부 목곽의 붕괴로 중앙부가 움푹 패인 것처럼 함몰되어 있다. 노용-을 24호와 같은 방형 무덤에는 12.0m의 묘도가 이어져 있고 방형 모서리 부분에는 호석을 세운 경우가 많으며, 호드긴 툭고이 1호와 같은 원형 무덤에는 묘도가 없다. 크기를 살펴보면 신라무덤 중 가장 큰 황남대총 남분은 길이 83.0m, 폭 70.0m이며, 흉노 무덤 중 가장 큰 골모드 1호는 방형무덤으로 한변이 60.0m에 이른다. 황남대총과 같은 쌍분구조는 호드긴 툭고이 물리탐사 3호의 경우에도 찾아볼 수 있어 양자간에 유사

15) 조영현, 1993, 「봉토분의 성토방식에 관하여 - 구분성토현상을 중심으로-」, 『영남고고학』 13.

점을 상징해 볼 수 있다.¹⁶⁾

나. 내외부 구조물

신라의 무덤을 보면, 소형분은 묘광 내부에 목곽을 설치하고 묘광과 목곽사이를 흙이나 돌로 채우며 대형분은 목곽이나 목관의 주변에 석단을 설치하여 매장주체부를 보호한다. 또한 적석부가 있어 목곽을 보호하며 그 위에 점토 피복을 하여 매장주체부를 보호하는 방수시설을 하였다. 흥노의 무덤인 모린 톨고이 1호에서도 굴광을 덮고 있던 횡목 상부에 황색 점토를 발라 매장주체부에 물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방수시설을 한 흔적이 있다.

황남대총에서 나타나는 목가구 구조물은 일종의 건축기법을 이용한 것으로 통나무 구조물을 세워 내부를 구획하는 매우 독특한 기법이다.¹⁷⁾ 이러한 기법은 지하 매장유구에서는 설치할 필요가 없겠으나, 흥노의 대형분의 경우 골모드나 노용-올 등의 유적에서는 지반이 비교적 약한 모래땅을 굴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덤축조시에 묘광벽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조물을 세웠던 흔적이 부리야트 지역에 잘 남아 있다.

신라의 무덤 내부의 적석시설은 주로 강돌을 이용하며 목곽을 보호함과 동시에 높은 봉분을 쌓아 올리는 기초가 된다. 그러나, 흥노의 무덤에서 적석 개념은 횡목 상부에 1~2점의 판석을 일정하게 눌러 놓지만 깊은 굴광 내부에 엄청난 양의 할석을 채워 넣으며 대개는 무덤 외부에 적석을 이용해 묘역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다. 목곽 및 목관

신라 무덤과 흥노 무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매장주체부에 목곽(관)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형무덤의 경우 2중 목곽과 목관의 배치는 신라와 흥노 양문화에서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대형분의 목곽은 경우 매장주체부의 보호와 부장유물의 매납 등으로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황남대총 남분에는 이중 목곽과 2중 관이 있으며, 북분에는 목곽 내부에 2중 관이 설치되었다. 천마총에는 관내부에 관이 있으며, 황남대총 남분과 천마총에는 목곽내

16) 이상규 외, 2003, 「몽골 흥노무덤 발굴조사를 위한 전기비저항탐사」, 『몽골 호드진 톨고이 흥노 무덤』, 한-몽 공동학술조사보고 제3책, 국립중앙박물관·몽골국립역사박물관·몽골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17) 이은석, 1999, 「경주 황남대총 구조에 대한 일고찰」, 『고고역사학지』제15집, 동아대학교박물관.

부에 별도의 부장계가 설치되었다.¹⁸⁾ 노용-을 24호, 노용-을 1호, 노용-을 6호 등은 이중 목곽의 내부에 목관을 설치한 구조이다. 목곽 내부 바닥에는 단축 방향으로 받침목을 설치하였는데, 천마총에서 목관아래에 받침목이 장축 방향으로 놓인 것과 비교된다. 대형분에 설치되는 목곽의 크기는 외곽을 기준으로 할 때, 황남대총 남분이 길이 6.5m, 폭 4.1m, 높이 3.7m, 북분이 길이 6.8m, 폭 2.7m, 높이 4.0m, 천마총이 길이 6.6m, 폭 4.2m, 높이 2.1m 가량이며, 노용-을 24호는 길이 4.1m, 폭 2.7m, 높이 1.3m, 노용-을 1호는 길이 4.61m, 폭 2.9m, 높이 1.75m로 신라-흥노 양문화에서 모두 장대형 목곽의 위용을 나타내고 있다.

목관은 신라의 경우 전체적인 형상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 대략적인 크기만 알 수 있을 뿐이나 흥노의 경우는 노용-을 24호에서와 같이 좀더 정확한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데, 상하 2개의 판재를 이용하였고 측판은 2매를 잇대고 철재 이음새로 연결하였다. 이는 파지릭-우코크 지역의 영구동결층에서 발견되는 목곽묘와 비교해 볼 수 있다.¹⁹⁾

목곽(관)내부에 주철을 하는 전통은 신라와 흥노 무덤에서 나타나는 공통점 중의 하나이다. 이는 붉은 색이 나타내는 주술적인 의미와 함께 몇몇 흥노무덤에서는 주철 위나 천에 문양을 새겨 내부를 장식하는 경우도 있다. 황남대총 남북분 목곽내부와 골모드 1호 목곽 내부에서 주철이 되어있는 목곽편이 확인되며, 천마총 목관내부에는 주철과 금박이 입혀져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황남대총 남분에서는 목곽의 뚜껑을 폐쇄하기 위한 용도로 환형철구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며, 노용-을 24호 목관에서 역시 철제 연결구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목곽과 목관이 놓이는 부분의 바닥처리는 황남대총이나 천마총의 경우 잔자갈을 깔아 배수를 고려하였으며 일종의 목제 관대를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노용-을, 호드긴 톨고이 등에서는 자갈 등 별도의 배수시설을 하지 않고 바닥에 받침목이 설치되었다. 이는 몽골 전역에서 발견되는 흥노무덤에 공통적인 요소로 무덤을 축조하는 지역의 기후조건이나 토양의 성격과 관련하여 바닥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된다.

라. 부장 공간

신라 무덤의 부장공간을 살펴보면 목관내 피장자는 장신구를 착용하고 부장품 수장부에 유물을 매납한 후 목곽의 뚜껑을 덮은 후 그 상부에 다시 토기와 마구 장신구 등을 부

18) 이재현, 1994, 「영남지역 목곽묘의 구조」, 『영남고고학』 15.

19) V.I.폴로딘 저, 강인욱·이현중 역, 2000, 『고대 알타이의 비밀 - 우코크 고원』, 학연문화사.

장하였다. 대형분에서는 목곽 주변 석단 위에 부장하는 경우와 봉토에 말을 부장하는 경우가 특징적이다. 특히, 황남대총 남분과 천마총은 목곽 내부에 별도의 유물부장공간을 마련하여 다량의 유물을 매납하였다.

흥노 무덤의 경우 2중곽 무덤은 외곽과 내곽의 사이공간에 유물을 부장하였는데 노용-을 1호에서는 곡물을 담았던 대옹이 출토되었으며, 노용-을 6호에서는 양탄자와 같은 모직물들이 이 공간에서 다량 출토되었다. 모린톨고이 1호분의 경우에는 3차 굴광 즉 묘광 내부에 목관을 설치하고 그 북쪽에 부장공간을 두었는데 나무판으로 상하를 구분하여 2층의 부장공간을 마련하였다. 호드긴 톨고이 1호는 목관 내부 피장자의 팔 부근에 집중적으로 유물을 부장하였고 목관 상부에는 토기 등을 얹어 놓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 순장 문제

신라의 무덤에서는 황남대총 남분의 목곽 바깥의 석단위에서 15~20세 가량의 여인 한사람이 순장되었으며 황남대총 북분이나 천마총의 경우에도 상부에서 함몰된 유물의 출토위치를 보아 순장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중국 역사서인 사마천의 『史記』에는 ‘흥노의 무덤에 순장을 하는데 수백에서 수천의 여자와 노예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고고학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흥노에 순장풍습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인 듯하다. 차람 7호의 6호 매장묘에서는 도굴에 의해 훼손된 흔적이 없으나 다리뼈와 오른손 뼈가 없는 인골이 발견되었으며, 15호에서는 손이 묶인 채 순장된 결과로 볼 수 있는 인골이 출토되었다. 모린 톨고이 1호의 경우 목관 위 횡목 상부에서 30세 가량의 여인 한사람이 순장되었고 굴광 모서리에서 개 한 마리도 함께 매납되었다. 몽골의 건조한 기후와 토양으로 인해 인골과 동물뼈가 매우 양호한 상태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하계도 노용-을 6호에서는 많은 땀기머리 묶음이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죽은 사람과 함께 묻는 순장과는 차이가 있지만, 몸의 중요한 일부분을 죽은 사람을 위해 바치는 공헌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4. 맺음말

앞서 신라와 흥노의 대표적인 무덤구조에 대해 외형-크기, 내외부 구조물, 목곽 및 목관, 부장 공간, 순장 문제 등의 순서로 비교 검토해 보았다. 무덤구조 이외에 출토유물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는 더욱 어려운 일인데 그 이유는 무덤구조와는 달리 출토유물은 재지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유리제품이나 백화수피제품, 금공품²⁰⁾, 마구·무구 등의 철제품²¹⁾, 토기·기와 등의 토제품²²⁾ 등은 상호 비교검토가 가능하다.

어떤 집단의 문화적 전통을 고수하려는 노력은 물질문화에 녹아 있기 마련이므로, 중앙유라시아의 거시적인 관점으로 장제 문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중국의 진한(秦漢)의 통일국가 건설과 운영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북쪽 초원과 동쪽 한반도에서 독특한 문화를 지켜온 신라와 흉노의 문화적 관련성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2014.12)

20) 주경미, 2014 「몽골 흉노고분 출토 금공품의 기원과 영향」, 『한국고고학의 신지평』.

21) 장윤정, 2014 「마구로 본 흉노와 한반도」, 『한국고고학의 신지평』, 등

22) 양시은·P.알따르몽흐, 2014, 「흉노 토기의 초보적 연구」, 『한국고고학의 신지평』.

A stylized map of the Silk Road trade routes across Asia and Europe, with several nodes and connecting lines. Below the map is a horizontal line.

| 제2부 | 발표 02

실크로드의 재발견: 키르기스스탄과 한국의 만남



실크로드의 재발견: 키르기스스탄과 한국의 만남

백태현*

목 차

1. 머리말	3) 역사성: 역사의 숨결
2. 중앙아시아의 중요성	4) 키르기즈의 문화
1) 지정학적 중요성	5) 수려한 자연: 산(초원)과 물 (호수)과 말의 나라
2) 문화의 보고	4. 신실크로드를 향한 한국적 과제
3)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의 보고	1) 인식 변화의 필요성
4) 신실크로드의 중요성	2) 한국학(Korean Studies) 정착을 위한 노력
3. 키르기스스탄의 중요성	3) 구체적 실천운동의 필요성
1) 일반개요	5. 맺음말
2) 인적구성	

1. 머리말

중앙아시아 지역은 예나 지금이나 실크로드의 중요한 요충지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동서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했던 실크로드는 중세나 근대보다 영토와 국경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희박했던 고대시기가 그 중요성을 더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추론은 역설적이지만 당시 말, 낙타, 야크 등의 동물이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부각되었던 시기일수록 실크로드가 더 인간에게 개방적이었는지도 모른다. 실크로드는 근대를 전후로 하여, 구소련이 중앙아시아 지역을 지배한 이후로는 실크로드는 더 굳게 닫혀 버렸다. 이 같은

* 키르기스스탄 비쉬켈 인문대학교 교수

단절의 시기, 구소련의 언어지배정책하에서 소위 주변민족, 소수민족의 언어는 일정 부분 수면 아래로 잠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실크로드는 다시 열렸다. 이제 모든 길이 열린 것이다. 이제 모두에게 그 실크로드와 관련된 다양한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구소련의 해체와 더불어 한국에게도 이 실크로드는 열렸다. 이 지역에 수많은 고려인들이 산재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다소 늦은 편이다. 이제 이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지역은 해가 갈수록 강대국의 각축장이 되어가고 있고, 전략적 요충지, 정치경제적 요충지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 실크로드는 우리와도 연관이 깊다. 고대 한국과의 관계가 깊었다는 것은 다음 『삼국사기』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834년 신라 흥덕왕 때 사치금지령을 내린바 있다. “목수건을 짤 때 비취모를 사용할 수 없고, 머리빗과 모자에 슬슬전을 금하며, 말안장에 자단과 침향을 사용하지 못하며, 수레의 깔개로 구수탑 등을 쓰지 못 한다”. 비취모란 캄보디아에 서식하는 비취새의 털, 슬슬전은 타슈켄트산 푸른 보석, 자단과 침향은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향기 나는 나무들, 구수탑은 페르시아산 양탄자를 말한다. 사치금지령을 내릴 정도면 당시 이 물품들이 얼마나 유행했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발해의 옛 땅인 연해주에서 지금도 소그드인의 은화와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근래 한국에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현대판 실크로드의 구축’, ‘실크로드의 재발견’ 중앙아시아 지역의 현실적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화두는 넘쳐나고 있다. 중앙아시아를 향한 한민족의 미래지향적, 실천적 의지가 집약된 이 과제들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 가야만 하는 일들이다. 그러나 이런 과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열강 또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가고 있으며, 사실 많은 분야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다. 비록 늦었지만 중앙아시아 지역을 향한 우리의 관심 제고는 환영할 만하며,¹⁾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보다 전략적인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물질적 우위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세계열강의 제 전략에 맞서 우리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한국학의 체계화’이다. 현재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는 자국의 국가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학의 토대 구축을 위한 시대적

1) 중앙아시아 지역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전문 연구기관으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가 있다. 최근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두 개의 새로운 연구기관이 설립되었다. 2014년 후반기에 설립된 계명대학교의 <실크로드-중앙아시아연구원>(원장: 김중순 계명대학교 교수)과 동국대학교의 <유라시아 실크로드연구소>(소장: 윤명철 동국대학교 교수)가 그것이다.

배경은 아주 좋은 편이다.²⁾ 21세기 중앙아시아 지역을 향한 한국의 가장 효율적인 전진 기지의 뼈대는 중앙아시아 현지 대학에 구축한 ‘한국학 교육 및 연구시스템’이 될 것이다. 이제 신실�크로드는 상호 상생에 근거한 문화 교류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2. 중앙아시아의 중요성

실�크로드는 기원전부터 오늘날까지 동양과 서양이 엄청난 문명과 물자를 주고받으며 인류사의 지평을 넓혀 온 곳이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예나 지금이나 실�크로드의 중요한 요충지이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는 신실�크로드의 복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 간 교역이 연간 1조 달러 규모인 데 반해 중앙아시아 육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주 미미한 편이다. 지리적으로 세계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쟁력 있는 교역 경로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구소련의 해체와 더불어 이 실�크로드는 열렸다. 이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지역은 근래 전략적 요충지, 정치경제적 요충지로 부상하며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한국도 이 지역을 피해갈 수 없다. 이 지역은 미래 ‘먹거리의 보고’로서 향후 한국의 국운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실�크로드는 한국에게는 세계 어느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학습장이 되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상생하고 있는 다양한 민족연구가 가능한 지역이고, 풍부한 지하자원을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세계열강이 각축하고 있는 ‘국제관계의 교과서’와도 같은 지역이다. 한국, 한국인에게 이 실�크로드는 마치 ‘종합선물세트’와도 같은 곳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기회의 땅’, ‘생명의 땅’으로 부상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과 한국과의 연관성은 고대시기부터 매우 깊다.

이러한 현실성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고 볼 수 있다. 2013년 10월 한국정부는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을 만들자는 내용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을 주창하였다. 한국이 주축이 되어 철도, 도로 그리고 북극항로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이 하나가 되고, 에너지, 물류, IT, 문화가 어우러지는 다자간 경제협력을 이루어 가자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 내용이다. 비록 늦었지만 매우 시기적절하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책은 한국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와

2) Baek Tae-hyeon(2010),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Studies in Central Asia Its Future Prospects”, *KOREAN STUDIES ABROAD*,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p.440.

유사한 정책들이 유라시아 지역에 속하는 국가들에 의해 이미 실천되고 있다. 그 중의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은 ‘뉴 실크로드(New Silk Road)’라는 정책을 통해 중앙아시아 여러 지역과의 도로, 철도 물류망 건설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국경지역 카슈와 키르기스스탄의 비쉬케크를 잇는 예 초원길은 2014년 완공될 예정이고, 키르기스스탄의 나른과 오쉬에 이르는 천산남북로를 잇는 옛 비단길도 2014년 봄에 착공되었다. 한국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거대한 정책적 표어로만 시간을 허비할 수 없는 절박함이 이 지역에서 감지된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만이 요구될 뿐이다. 특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이 지역의 다양한 참여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가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공동의 목표가 필요하지만, 때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접근 전략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이 지역을 향한 한국의 가능성과 접근성은 좋은 편이다. 바로 이 지역에 수많은 고려인들이 산재해 있다는 것은 큰 호재이다. 한국이 알타이 언어권 연대에 대한 역사인식 구축과 문화적 상생의 역량을 구비한 풍부한 인적자원이 구비된다면 실크로드의 출발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주인공은 바로 한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크로드를 향한 한국적 과제는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실천 전략의 필요성이다.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한국인의 축적된 지성, 야성, 감성에 바탕을 둔 ‘교육문화분야’의 진출이다. 중앙아시아 지역에도 한류의 바람은 거세게 불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한국적 교육시스템을 통해 성숙시키고, 나아가 삶의 현장에 안착시켜 가는 ‘상생의 교육문화운동’이 지역에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관(官)과 민(民)이 모두 나서야 한다.

3. 키르기스스탄의 중요성

1) 일반 개요

키르기스스탄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함께 중앙아시아 5개국 중 하나이다. 전체 인구가 550만 정도 되는 중소형 내륙국으로 수도는 비슈케크이다. 키르기스는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두 차례의 혁명을 겪는 등 정치적 역경을 거쳐 중앙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일관되게 발전시켜 온 나라이다.

키르기스 민족은 수세기에 걸쳐 중앙아시아로 이동해온 유목투르크족의 한 민족이다.

대략 9세기경부터 바이칼호수와 예니세이 강 지역에서 이주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키르기즈 지역은 고대로부터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의 요충지에 위치하여 이민족간 무역과 전쟁, 이주를 통해 수많은 세력이 흥망성쇠를 반복하며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뒤섞여왔다. 현재 80여개 민족으로 구성된 키르기즈는 기본적으로 이슬람 유목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19세기 후반의 제정러시아의 지배와 20세기 70년에 걸친 구소련의 통치가 키르기즈 사회의 근대화를 가져 오는 계기가 되었지만, 아직도 이슬람문화를 바탕으로 한 유목민족의 전통과 풍습이 키르기즈인들의 의식과 생활양식의 주류를 이룬다.

키르기즈 지형은 94%가 산악지대로 천산산맥과 파미르 고원이 국토의 주를 형성한다. 주요 호수는 이쉬쿨 호수가 있으며 나른 강이 국토의 중앙부를 관통한다. 그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유목, 관광, 수력 발전, 자원 개발 등의 산업이 유망 시 되는 나라이다. 또한 유라시아 대륙의 중앙 및 비단길의 길목에 위치하여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제정치적으로 그리고 물류 측면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나라이다. 또한 알타이 계통의 민족으로 우리와 어원적 뿌리를 같이 하고 있어 문화적 친연성을 공유하고 있는 민족이기도 하다.

양호한 경제 발전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키르기즈 경제 수준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현재 1인당 GDP가 약 1,000 달러(물가 감안 GDP로는 약 2,400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아직 법치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고, 부패 문제, 잠재된 민족 분쟁의 개연성, 정당 정치의 미 정착 등이 현재 이 나라의 경제발전과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 개요〉

- 국명: 키르기즈공화국(Kyrgyz Republic),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 수도: 비슈케크(Bishkek)
- 기후: 대륙성기후
- 면적: 198,500 km² (한반도 220,000 km²)
- 접경지역: 북 - 카자흐스탄, 동- 중국신장 위구르 자치주, 남- 타지키스탄,
서- 우즈베키스탄(총 국경 길이: 약 4,500km)
- 위치: 북위 39도~43도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내륙국
- 지형: 산간 지형 (국토 80% 이상 해발 2000m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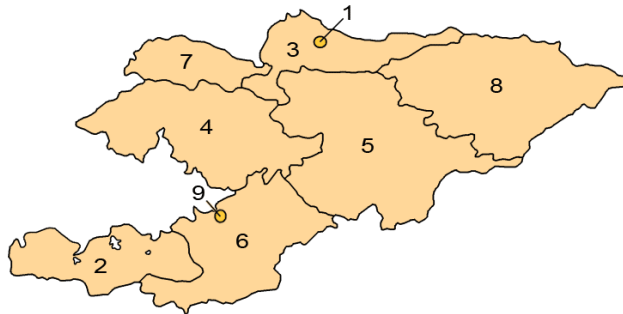
- 인구: 5,543,300명 (2014년 기준)
- 주요민족: 다민족 국가(80여개 민족)
- 주요언어: 키르기즈어(공식어), 러시아어(공용어)
- 종교: 이슬람교(75%), 러시아정교 (20%), 개신교등 기타(5%)
- 정부형태: 의원내각제
- 국내총생산(GDP): 59억불

1인당 GDP: 1,070미불(2014), 물가 반영 1인당 GDP: 2,372 미불

- 주요산업: 농업, 목축업, 농가공업, 광산업, 전력생산업, 관광업, 서비스업
- 독립일: 1991. 8. 31
- 지방행정조직: 7개주, 2개 특별시
- 주요도시: 비슈켄(Бишкек), 오쉬(Ош), 잘라라뱃(Джалал-Абад), 카라콜(Каракол), 나른(Нарын), 발류치(Балыкчы), 탈라스(Талас), 토크막(Токмок)

〈지방행정조직〉

- 행정도시: 2개의 특별시- 비슈케크 (Бишкек), 오쉬 (Ош)



- 행정주체: 주7개 (oblast, область)
 1. 수도 비슈켄 (Бишкек)
 2. 바트켄 주(州) (Баткенская область)
 3. 추이 주(州) (Чуйская область)
 4. 잘랄-아바드주(州) (Джалал-Абадская область)
 5. 나른 주(州) (Нарынская область)
 6. 오쉬 주(州) (Ошская область)

- | |
|--------------------------------------|
| 7. 탈라스 주(州) (Таласская область) |
| 8. 이쉬쿨 주(州) (Иссык-Кульская область) |
| 9. 오쉬 시(市) (Ош) |

2) 인적구성

키르기스공화국은 중앙아시아 대륙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은 카자흐스탄, 서는 우즈베키스탄, 남서는 타지키스탄, 동은 중국의 위구르 자치구와 접하고 있다. 국토 면적은 198,500km²(육지 191,300km², 호수 및 강 7,200km² : 한반도의 전체 면적과 비슷함)이고, 국토의 대부분은 천산산맥과 그 지맥인 알라타우산맥이 접하는 산악국가이다. 전국토의 80%이상이 해발 1,500m 이상으로서,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고 불릴 정도로 자연환경이 아름답다. 한국과는 1992년 1월 13일 정식 외교관계를 맺었고, 내년이면 수교 20주년을 맞는다. 2008년 7월에는 상주 한국대사관이 개설되어 다양한 민관외교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키르기스공화국은 수도인 비쉬켈, 남부 수도인 오쉬, 그리고 7개의 주로 나뉘어져 있다. 전국토를 남북으로 가르는 천산산맥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비쉬켈시와 추이주, 남쪽에는 오쉬시, 오쉬주, 잘랄라바드주에 인구가 집중하여 살고 있다. 2009년에 실시된 인구조사 결과에 따른 키르기스공화국의 지역별 인구수는 <표 1>과 같다.

<표 1> 키르기스공화국 지역별 인구현황(2009년)

번호	지역(주/도시)	인구수(명)	비고
키르기스공화국 전체		5,362,793	
1	바트켄 주	428,636	남부 지역
2	잘랄라바드 주	1,009,889	남부 지역
3	이슈쿨 주	438,389	북부 지역
4	나른 주	257,768	북부 지역
5	오쉬 주	1,104,248	남부 지역
6	탈라스 주	226,779	북부 지역
7	추이 주	803,230	북부 지역
8	비쉬켈 시	835,743	수도
9	오쉬 시	258,111	남부 수도

출처: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2010),
Население Кыргызстана.

키르기즈공화국은 전체 80여 개 민족이 살고 있는 다민족 국가이다. 그러나 주민족인 키르기즈인이 전체 인구의 71%를 점하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구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슬라브족인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은 본국으로 돌아가 그 비율이 상당히 줄었다. 그리고 본국 귀환의 길이 열린 독일인의 경우도 그 수가 상당히 줄었다. 고려인은 그 수가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민족 중 11위에 해당하는 인구구성(17,299명, 0.3%)을 보이고 있다. 키르기즈공화국의 주요 민족별 인구추이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키르기즈공화국 주요 민족별 인구 추이(1989~2009년)

순위	민족별	년도 별					
		1989년		1999년		2009년	
		인구수(명)	비율	인구수(명)	비율	인구수(명)	비율
	전인구수	4,257,755	100	4,822,938	100	5,362,793	100
1	키르기즈	2,229,663	52.4	3,128,147	64.9	3,804,788	71
2	우즈벡	550,096	12.9	664,950	13.8	768,405	14.3
3	러시아	916,558	21.5	603,201	12.5	419,583	7.8
4	둔간	36,928	0.9	51,766	1.1	58,409	1.1
5	위구르	36,779	0.9	46,944	1.0	48,543	0.9
6	타지키스탄	33,518	0.8	42,636	0.9	46,105	0.9
7	터키	21,294	0.5	33,327	0.7	39,133	0.7
8	카자흐	37,318	0.9	42,657	0.9	33,198	0.6
9	따타르	70,068	1.6	45,438	0.9	31,424	0.6
10	우크라이나	108,027	2.5	50,442	1.0	21,924	0.4
11	고려인	18,355	0.4	19,784	0.4	17,299	0.3
12	독일	101,309	2.4	21,471	0.4	9,487	0.2

출처: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2010), Население Кыргызстана.

1937년 구소련의 스탈린 정권의 의해 강제이주 된 고려인들은 이주 초창기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여러 지역에 살다가, 이들 중 일부는 1950년대 초반 스탈린 사후 고려인에 대한 거주지 제한이 철폐되면서 키르기즈 지역에도 재 이주하여 살기 시작하였다. 구소련의 소수민족으로서 여타 민족과 차별화되는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특성은 높은 도시화율과 교육열이다. 이 같은 특징은 키르기즈 거주 고려인들에게도 잘 나타난다. 키르

기즈 고려인들은 <표3>과 같이 수도인 비쉬켄시 와 남부 수도인 오쉬시, 그리고 비쉬켄 인근 추이주의 까라발타시와 토끄막시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

<표 3> 키르기즈공화국 고려인 주요 거주지역 인구 추이(1999~2009년)

지역별 (주/도시)	년도별 고려인수(명)		년도별 구성 비율(%)		1999/ 2009년 대비 구성 비율(%)
	1999년	2009년	1999년	2009년	
추이 주	5,684	4,388	0.7	0.5	77.2
비쉬켄 시	12,710	12,014	1.7	1.4	94.5
오쉬 시	535	327	0.2	0.1	61.1

출처: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2010),
Население Кыргызстана.

그 중에서도 아래 <표 4>르 통해 알 수 있듯이 수도인 비쉬켄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전체 민족 중에서 5위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주요 소수민족 중에서도 상위의 위치에 해당한다.

<표 4> 비쉬켄시 거주 주요 민족현황(1999~2009년)

순위	민족별	년도별 인구수(명)		년도별 구성비율(%)		1999/2009년 대비 비율(%)
		1999년	2009년	1999년	2009년	
	시 전체 인구	762,308	835,743	100	100	109.6
1	키르기즈	398,000	552,957	52.2	66.2	138.9
2	러시아	252,831	192,080	33.2	23.0	76.0
3	위구르	13,143	13,380	1.7	1.6	101.8
4	따따르	15,817	12,712	2.1	1.5	80.4
5	고려인	12,710	12,014	1.7	1.4	94.5

출처: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2010),
Населения Кыргызстана.

3) 역사성: 역사의 숨결

키르기즈인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민족중의 하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키르기즈 민족 기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아직도 논쟁중이다. 이는 그들의 주요 활동무대요 터전인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일 것이다. 고대로부터 천산산

맥 주변에는 유라시아 스키타이 문명을 이어온 인도-유럽인종(이란)계 사카인들이 거주해 왔다. 기원전 2세기 전후에는 흉노족과 투르크(돌궐)족이 이 지역으로 유입되었고 12세기 이후 에니세이 키르기즈인들과 몽골족들이 현재의 키르기즈 지역으로 이주하여 왔는데 이들이 인종적으로 현지인들과 융화되는 가운데 오늘날의 키르기즈 민족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키르기즈인들은 16세기 이후 천산산맥으로 세력을 확대한 중가리안 칸 국, 코칸트 칸 국, 칭나라, 제정 러시아 등 외세와의 끊임없는 항쟁을 통해 키르기즈 민족의 정체성을 다져 왔다.

• 사카 문명시대(~BC3세기)

사카 문명시대라 불리는 이 시기는 스키타이 황금 문명의 한 축을 이룬 사카 족이 천산산맥 주변까지 거주하였던 시대이다. 이들은 ‘페르시아-그리스’전쟁 시 페르시아군 용병으로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중앙아시아로 진출한 알렉산더 대왕 군대와 산발적으로 충돌한 바 있다.

• 흉노제국 시대(BC 3세기~AD 4세기)

천산산맥 주변에 우순 국, 대완 국, 강규 국, 유연 국, 월지(토하르)국 등이 각자 세력을 형성하였던 시대이다 이 시기에 한 무제는 흉노제국 정벌과 무역 확대를 목적으로 장 건을 중앙아시아로 파견하였으며 이후 우순국과 함께 흉노제국을 정벌하였다.

• 투르크(돌궐) 왕조시대(AD 6세기~13세기)

흉노제국이 망한 후 AD5세기 천산산맥지역은 에프탈리프 왕국의 영향력에 잠시 들어가나 AD 6세기 이후 500년 이상 투르크(돌궐)왕조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된다. 흉노제국에 버금가는 세력을 형성한 투르크 제국은 603년 망하지만 이후 서 투르크(603~704), 투르게시 칸 국(704~756), 위그르 칸 국, 카라한 칸 국(942~1210) 등이 계속해서 투르크 왕조 시대를 이어간다. 특히 카라한 왕국(942~1210)은 ‘이슬람’을 국교로 승인함으로써 중앙아시아 및 천산산맥 주변에 이슬람식 투르크 문예 부흥을 가져왔다. 13세기 말엔 카라 키타이(서요), 나이만 왕국 등이 천산산맥 지역에 진출하지만 약 1세기만에 몽골제국의 침입으로 이내 패망하고 만다.

• ‘에니세이 키르기즈’의 이주와 몽골제국 시대(13~15세기)

‘에니세이 키르기즈’족은 투르크족의 일파로서 ‘바이칼 호수’ 및 ‘에니세이 강’ 상류 주변에 넓게 분포 거주하였다. 6세기 중반에는 돌궐제국에 병합되었고 8세기경에는 위구르 제국의 지배를 받았으나 9세기경 세력을 키워 위구르 제국을 무너트리며 시베리아 남부 스텝지역으로 진출, 11세기까지 강력한 키르기즈 칸 국을 세웠다. 그러나 몽골의 확장과 함께 ‘에니세이 키르기즈’인들은 점차 남진을 시작하여 천산산맥 주변으로 이주한 후 이슬람(수니파)을 받아들이며 토착 유목민들과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융화 된다. 징기스 칸 이후 천산산맥 지역은 차카타이 칸 국에 복속되며 2세기 이상 몽골 화 되었다.

• 키르기즈 민족 형성기(15세기~19세기)

15세기 이후부터는 티무르 제국, 중가리안 칸국, 청나라, 코칸트 칸국 등 여러 외세들의 억압에 맞서 천산산맥 주변 부족단위 유목민들이 연합하면서 점차 ‘키르기즈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 제정러시아 합병과 근대화(19세기 말 이후)

1876년 코칸트 칸국이 제정 러시아에 정벌됨으로 제정 러시아에 합병된다. 제정 러시아는 키르기즈에 근대화를 가져왔지만 키르기즈인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했다. 키르기즈인들의 목양지가 강제로 탈취되어 러시아 이주민들의 대토지로 제공됨으로 키르기즈인들의 불만이 쌓였는데 특히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제정 러시아가 키르기즈인들을 군 노역에 강제 동원시키자 1916년 키르기즈 전 지역에 민중봉기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 봉기는 과도하게 진압됨으로 많은 키르기즈인들이 중국 신장, 타지키스탄 파미르 고원 등으로 피난, 난민을 형성하였다.

• 소연방시대(1920년 이후)

볼셰비키 혁명 이후 키르기즈도 소비에트군과 반소비에트군의 전장으로 바뀐다. 소비에트군이 내전에 승리하자 1922년 ‘카라 키르기즈 자치 주’가 되면서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 편입된다. 1936년 ‘키르기즈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승격되지만 스탈린의 독재와 정치탄압은 많은 지식인들과 무고한 시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이반 바실예비치 판필로브 대령이 이끈 키르기즈-카자흐 연합 316포대는 유럽 동부전선 여러 전투에서 많은 공을 세우며 키르기즈 전쟁 영웅들을 배출

한다. 60년대 이후 ‘키르기즈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제1서기장 투르단쿵 우수바리에브의 영도하에 농업, 공업, 문화부문에서 꾸준한 발전을 이룬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전반적인 정치경제 개혁(페레스트로이까)은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한 채 총체적 위기를 맞으며 키르기즈 독립의 서명이 오르기 시작한다.

• 소연방의 붕괴와 독립(1991년 이후)

1990년 10월 키르기즈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최고 소비에트 위원회는 개혁의 일환으로 대통령제를 도입하여 과학 아카데미 총장이었던 아스카르 아카예프를 공화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한다. 아카예프 대통령은 젊고 유능한 정치인들을 대거 등용하면서 공화국 정부구조를 개편하고 1990년 12월 ‘키르기즈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키르기즈공화국(the Republic of Kyrgyzstan)’으로 개칭하고 1991년 2월에는 수도 ‘프룬제’를 ‘비슈케크’로 개명하며 독립을 위한 수순을 진행한다. 그러나 1991년 3월 국민투표 결과 약 88%가 구소련 연방의 일원으로 남을 것에 찬성함으로써 독립에 위기를 맞는다. 게다가 1991년 8월 모스크바 쿠데타를 주도한 국가비상 위원회는 아카예프를 대통령직에서 제거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쿠데타가 3일만에 무위에 그치자 아카예프는 구소련 연방 공산당 탈당을 선언하고 모든 소비에트 행정 기구의 해산과 동시에 1991년 8월 31일 키르기즈 공화국의 독립과 자주를 선포한다. 아카예프는 1991년 10월 대통령선거에서 95% 지지를 얻으며 독립 키르기즈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재 선출된다. 중앙아시아 4개국과 함께 1991년 12월 CIS에, 1992년에는 UN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된다. 1992년 이후 미국, 러시아, 중국, 터키 등이 자국대사관을 비슈케크에 개설하기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약 23개 국가가 상주대사관을 설치하였다.

4) 키르기즈의 문화

키르기즈는 고대로부터 중앙아시아를 경유하는 실크로드의 길목에 위치하고, 80여 개 민족이 함께 사는 나라인 만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이다. 그러나 키르기즈 문화는 기본적으로 이슬람 유목 문화에 기반을 둔다. 의식주의 양태가 유목 문화와 이슬람 문화라는 2 개 주요 기축 문화를 반영하여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애니미즘이나 샤머니즘 같은 시베리아 문화적 요소도 많이 내포되어 있다.

키르기즈는 세계에서 유목민의 전통을 원형대로 간직해온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19세기 후반의 제정러시아의 지배와 20세기 70년에 걸친 구소련의 통치가 키르기

즈 사회의 근대화를 가져 오는 계기가 되었지만, 아직도 유목민족의 전통과 풍습은 키르기즈인들의 의식과 생활양식에 깊게 뿌리박혀 있다. 지금도 유목민족의 고유의 특징인 친족주의와 가부장적 가족형태 그리고 손님환대의 전통을 키르기즈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윗사람에 대한 깎듯한 인사와 예의를 존중하는 키르기즈 민족의 문화는 한민족의 전통문화와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나 최근들어 키르기즈 문화는 외국 문화의 영향으로, 이들과의 교류 속에서 빠르게 변모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키르기즈의 문화적 전통을 훼손하는 측면도 있지만 문화적 다양성을 가져 오는 장점도 있어, 그 장단점을 한 마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전반적으로 키르기즈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외국 문화는 러시아 문화다. 19세기 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그 오랜 연혁과 함께 키르기즈 문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독립이후에는 러시아 문화이외에도 다양한 서구 문화가 수입되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의 보급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특히 한류는 양 민족의 정서적 유사성으로 인해 TV 드라마와 K-Pop을 중심으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비슈케크 중심 거리에서 사이의 ‘강남스타일’ 노래를 쉽게 들을 수 있고,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는 엄청난 인기를 누리 이곳에서 ‘구준표와 결혼하는 법’이란 영화가 제작되었을 정도이다.

종종 외국 문화의 급속한 확산으로 키르기즈 전통 문화가 쇠퇴해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현대 키르기즈 문화는 전통을 지키는 가운데 문화적 다양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 카라반 사라이(타쉬라밧-돌집)

카라반 사라이는 10~15세기 사이에 중국으로 넘어가는 실�크로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다. 카라반 사라이는 나른주의 앳바쉬에서 60km 떨어진 곳의 3,000m 위치에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타쉬라밧은 실�크로드에 위치한 아름답게 잘 보관된 오래된 건축물로서, 현존하는 중앙아시아의 제일 큰 돌 성이다. 자체 크기, 건축 자재뿐만 아니라 디자인이 중앙아시아의 다른 건물과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건물의 반은 반지하이며, 건물의 중심에 큰 공간이 있고, 그것은 160m의 복도와 연결되어 있다. 이 건축물은 이전 반 정도가 파손되어 있었는데, 1984년까지 보수작업 완료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카라반 사라이는 실�크로드 주요 거점에 세워진 카라반들의 숙소이며 안식처였다. 낙타가 아침에 해가 뜨면 걷기 시작해서 해가 질 때 까지 걸을 수 있는 거리는 대략

20~40Km 안팎이라고 한다. 그래서 실크로드에는 30Km 마다 카라반의 숙소가 있었다고 한다. 카라반 사라이 내부에는 카라반들의 숙소와 목욕탕은 물론 지친 낙타와 말들을 돌보는 동물병원도 있었다. 또 실크로드를 떠도는 것이 카라반의 일이지만 내부 규율은 엄격해, 자체적으로 만든 감옥이 있었고, 외부의 도적들을 피해 달아날 수 있는 비상 탈주로도 비밀리에 만들어져 있었다.

• 마나스

마나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건국 영웅 마나스와 마나스 서사시이다. ‘초원의 일리아드’ 라는 별명을 가진 마나스는 무려 50만 행이 넘는 장편 서사시로 호머의 일리아드의 16배 길이이다. 마나스 서사시는 키르기스스탄의 민족영웅 마나스와 그 가족 3대의 이야기이다. 마나스는 UN이 1995년을 ‘세계 마나스의 해’ 로 지정하고, 유네스코 지정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주목받는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마나스는 마나스치라는 전문적인 암송가에 의해 암송이 된다.

현재까지 인물 마나스에 대한 논란은 많다. 다음 도표를 통해 마나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로 한다.

1. 마나스의 명칭

1) 마나스(인물) : 14세기 후반 원명 교체기에 몽고의 지배력이 약화되기 시작할 때, 마나스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산재한 키르기스인에게 독립국가를 쟁취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진 키르기스인의 전설적인 지도자

가. 마나스의 가계

* 부친 : 자곱

* 마나스의 탄생 : 부친 자곱이 56세가 되던 1346년에 탄생

* 16세에 키르기스인이 한으로 추대 : 수많은 전쟁을 치름.

* 32세에 키르기즈 영역으로 종족을 이끌고 돌아 옴.

* 1423년 사망

나. 그 후 60여년간 아들과 손자가 서사시의 전통을 이어 감.

다. 마나스의 종결 시점 :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

라. 마나스 서사시가 포괄하는 연대 : 250년~1500년 역 1300년 걸친 시간대

2) 영웅 서사시 마나스의 명칭(이원화)

가. 키르기즈 서사문학체의 총체적인 명칭

나. 내용의 상당부분을 구성하는 주인공인 마나스와 그와 관련된 서사로 이원화

* 2001년 키르기즈 정부에서 주도한 '마나스 탄생 일천 주년'

다. 키르기즈인들을 중심으로 한 튀르크인들의 역사에 대한 서사문학형태는 10세기 이전에도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전수, 10세기 후반에 들면서 키르기즈인들 사이에 일정한 통일적인 형태를 띠면서 구전, 그러나 서사문학형태를 포괄하는 특정 제목이나 명칭은 존재하지 않았음.

라. 마나스가 키르기즈 지역으로 돌아와 독립적인 국가형태를 갖추는 1세기의 역사를 후세 인들이 노래하게 되면서 서사시 마나스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어 불리기 시작

마. 개별적인 서사시의 형태를 취하고 있던 아들 '세메테이' 손자 '세이텍'의 서사시를 하나의 연속적인 형태로 인정 : 그 시기는 15세기를 훌쩍 넘어간다.

2. 마나스 서사시

* 튀르크 어족내 주요 종족들의 역사를 포괄하면서 키르기인의 역사에 사서의 초점이 맞추어진 삼부작(마나스, 세메테이, 세이텍)

1) '스텝의 일리아드'

2) 중앙아 지역의 역사 문화 철학 민속에 대해 상당부분 복원 가능해 줄 것으로 기대

3) 마나스치

* 소수의 전문인들에 의해 음송,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악기 사용이 금지

* 음송자들의 개인적인 특징에 따라 변용이 금지.

음송시 재량권은 마임적인 동작에만 국한

4) 마나스의 체계적인 음송과 전수의 시작은 10세기 말경

10세기 말경 키르기즈인을 상부구조로 한 튀르크인들의 복합적인 지배 왕국이 해체되어 구성 종족들이 산산히 흩어져야 했던 시기에 과거의 찬란했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음. 시베리아의 예니세이강 유역 인근으로 유랑의 길을 떠나면서 자기 위안의 길을 사서문학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모색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

- 5) 마나스는 그 기록형태가 시이고, 독자들과의 접촉은 노래와 같은 리듬을 가진 마나 스키의 공연을 통해 이루어져 왔음.
- 6) 다양한 민족들이 끊임없이 부침을 계속한 중앙아시아에서 천년이상 구비되어 오는 문학의 존재 자체가 경이로움.
- 7) 그 규모가 현존하는 구비서사문학 가운데 가장 크고, 그 포괄 내용 역시 천년 이상의 시간대 포함.

• 40의 의미

키르기스는 ‘40개의 민족’이라는 뜻이다. 키르기즈에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미루나무 40그루를 심어 집을 짓게 하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뽕나무 40그루를 심어 비단을 짜게 하며, 태어난 후 40일 만에 이슬람의 중요한 의식인 할례를 한다. 산모도 40일간 산후조리를 하며, 장례식도 고인의 영혼이 지상에 머물다 떠난다고 믿는 기간인 40일 동안 치른다. 키르기스스탄의 국기 문양에도 40개의 햇살이 그려져 있다. 키르기즈인들이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 하는 ‘40’이라는 숫자는 바로 ‘마나스의 충실한 부하 40명’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다.

5) 수려한 자원: 산(초원)과 물(호수)과 말의 나라

키르기스스탄의 3대 명물은 산과 호수와 말이다. 특히 말은 키르기즈인들에게 있어 고대에도, 현대에도 삶이자 현실이다. 키르기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수려한 경관으로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 불리어진다. 국토의 94%가 산으로 이루어진 산악내륙국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만들어진 협곡과 넓은 초원의 장대한 경관을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천산산맥 중간에 위치하여, 여름에도 녹지 않는 눈 덮인 바위산과 수없이 많은 빙하 호수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모습을 연출한다. 수정 같이 맑은 공기와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대초원이 눈 덮인 산을 배경으로 끝없이 펼쳐진다. 그 위에 수없이 많은 양떼들이 점점이 흩어져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은 절경 그 자체이다. 봄이 오면 이 광활한 초원위에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들꽃들이 만발한다.

키르기즈에는 오랜 세월 빙하작용으로 생겨난 2000여개의 크고 작은 산악호수가 있다. 그 중 가장 유명한 호수가 이쉬쿨 호수이다. 고산호수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이며 호수물이 맑고 따뜻하여 매년 이 백만 이상의 외국 휴양 인파가 몰리는 중앙아 최고의 휴양지이다. 이쉬쿨 호수는 청정하게 푸른빛을 띤 호수 주위로 만년설을 쓴 산들이 병

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다. 호수 주변의 산은 흰 구름에 싸여 하늘과 맞닿은 듯이 보이고 눈이 부시도록 반짝이는 호수는 은반지위에서 빛나는 에메랄드 보석처럼 아름답다. 키르기즈에는 또한 전나무 숲으로 우거진 깎아지른 듯한 계곡이 수도 없이 많다. 사계절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는 계곡물과 산골짜기마다 지천으로 피어 있는 야생화는 트래킹 하는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동서양을 잇는 요충지로서 실�크로드의 역사를 간직한 키르기즈 곳곳에는 오래된 유물들이 존재한다. 그 중, 암각화나 돌상들은 실�크로드를 오고간 오랜 과거의 발자취를 느끼게 해준다. 키르기즈는 대자연의 신비와 함께 자연의 낭만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현대인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기도 하다.

4. 실�크로드를 향한 한국적 과제

1) 인식 변화의 필요성

오늘날 중앙아시아 지역은 자원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그러한 지정학적 가치가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이 풍부한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와 달리 키르기스스탄은 상대적으로 그러한 위상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주소이다. 아울러 키르기스스탄을 바라보는 국제 사회 혹은 한국 국민들의 시각은 대체로 긍정적이지 못하다. 키르기스스탄의 작은 영토는 한반도 정도의 크기이고 천산산맥이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악국가, 또는 민족갈등과 정치 이슈 등으로 한번 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오늘날 키르기스스탄은 보이지 않는 지정학적 각축장이 되고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세계 강대국이라고 하는 중국과 미국의 역학관계로 볼 수 있겠는데 키르기스스탄에 거주하는 다수의 위구르족들을 미국이 계획적으로 자극, 분리 독립의 움직임을 지원하여 향후 중국의 정치적 안정을 방해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중국은 지속적으로 서부로의 세력 확장을 위해 키르기스스탄을 반드시 이용하려고 할 것이고 미국은 이런 중국의 세력을 제한하기 위해 키르기스스탄을 지원하는 등의 방해 공작을 끊임없이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이 오늘 날 키르기스스탄의 지정학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러한 키르기스스탄이 한국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단순히 중앙아시아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작은 산악 국가인가? 하지만 키르기스스탄의 가치와 더불어 중

국의 대륙 진출의 통로이자 미국은 중국의 세력 확장 억제뿐만 아니라 남쪽으로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견제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서, 아직까지 한국은 그러한 키르기스스탄의 위상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시점에서 양국에 필요한 개념은 바로 ‘상생(相生)’이다. 즉 우리가 그들로부터 무엇을 받는가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주고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다. 주지하는 것 처럼 한국에 대한 세계의 인식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긍정적이다. 특히 한국의 자본력과 인력, 발전 가능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말이다. 물론 그러한 배경으로 말미암아 한국은 경쟁이 치열한 국가이자 이 경쟁에서 뒤처지면 개개인의 역량을 내세우지도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단점도 있다. 이렇게 복잡한 한국에 비하면 키르기스스탄은 우리가 할 일이 정말 많은 곳이다. 비유를 하자면 ‘1+1’과 같이 양국의 좋은 점을 합쳐 놓으면 그 장점들이 배가되고, 충분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키르기스스탄의 자연 문화유산과 한국의 인적 자원을 합치는 사례 등이다.

21세기 세계의 중심은 더 이상 서구와 미국이 아니다. 바로 아시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라시아 대륙 극동에 위치한 한국과 중앙에 위치한 키르기스스탄과의 협력은 더욱 중요할 것이다. 또한 오늘날의 세계 강대국은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하는 국가일 것이며 중앙아시아의 가치는 더욱 상승하리라 예상된다. 아무튼 키르기스스탄에는 현재 80여 개 민족이 공존하고 있으며 그만큼 한국에서도 다양한 방면의 교류를 할 수 있다. 최근에 키르기스스탄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수도 비슈케에는 중국 상점들이 다수 상점났고, 키르기스스탄과 중국을 잇는 옛 실크로드는 물론, 키르키즈 국내간선 도로 건설까지 중국계 기업들이 투입되어 확장되고 있다. 이 상태로 10년 이고 20년이고 방치한다면 키르기스스탄도 정체성을 잃고 중국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염려까지도 든다. 더군다나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14세기부터 국가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고 유목생활의 영향으로 그들의 글자가 탄생한 것은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완성된 만큼, 키르키즈인들의 역사의식은 강하지 못하다. 중국에 비해서 한국은 아직 적극적인 자세로 키르기스스탄을 바라보지 않는다. 아쉬운 일이다.

2) 한국학(Korean-korean Colleg) 정착을 위한 노력

한국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세계화', '국제화', '글로벌 시대'라는 용어는 이미 보편화 되

었고, 국가 경쟁력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그 현실적 의미는 더욱 강조되고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바 '한국어의 세계화'에 대한 인식도 한국 내에서는 상당히 보편화된 듯싶다. 이제 과제는 세계 여러 지역에 어떻게 '한국어'를 세계화하고, 나아가 어떻게 '한국학(Korean Studies)³⁾'을 세계화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의 문제이다. 세계 여러 지역의 언어환경은 각국이 지니는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기 마련이다.

21세기 중앙아시아 지역의 한국학이 나아가야 할 목표는 분명하다. 중앙아시아 각국이 필요로 하는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 것이다. 물론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은 학문적으로 자체 자생력도 갖추어야 한다. 쉽지 않은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향후 효과적인 실천방안의 마련 및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라는 외적인 요인에 따라 그 자리매김의 시기가 빨라 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한국학 시스템 구축'의 필수 요건은 중앙아시아 각국의 현실적 필요성과 그에 따른 정착 의지라는 것을 항상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가 주입시키려는 한국학이 아닌 중앙아시아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한국학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부분이다⁴⁾.

아직도 중앙아시아는 한국학(Korean Studies)이라는 용어에 익숙하지 않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다. 구소련의 학문적, 교육적 시스템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국학은 동아시아학의 일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들이 생각하는 동아시아학의 중심은 여전히 중국과 일본이다. 이런 현상은 키르기즈공화국 쉬콜라(초중고등학교)의 중고등학생용 인문사회계통 교과서의 내용 분석을 통해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교과서 내의 한국 고대사나 중세사에 대한 기술은 거의 전무한 편이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 대한 내용도 아주 소략하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문화나 현대문화에 대한 소개도 아주 미미하다. 이에 비해 한국전쟁에 대한 기술은 비교적 자세한 편이다. 그렇지만

3) '한국학(Korean Studies)'은 한국에 관한 인문, 사회, 자연 과학 및 예술을 두루 포함하는 국가 학문으로 규정할 수 있겠지만 역시 인문사회학의 성향이 강하다. 최근의 한국학이 전통 한국학 뿐만 아니라 현대 한국의 제반 분야를 두루 포함하는 현실적 연구 영역까지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물론 한국학의 핵심 요체는 '한국어'이다. 한국어라는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를 한국어 언어규범에 맞게 올바르게 가르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국학은 동아시아학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근래 몇 십 년 동안 한중일 주요 3국의 정치경제적 성장 및 세계사적 영향력과 비례해 더욱 확대,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학은 아직까지 일본학이나 중국학에 비해 그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4) 손영훈, 김상철(2013), 「21세기 중앙아시아 한국학 현황과 발전 방향」, 『2103년도 한국-중앙아시아 국제학술회의 “한국-중앙아시아 경제, 문화교류 협력방안” 발표논문집』, 비취책인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비취책, 키르기즈공화국, pp.60~62 참조.

비교적 최근에 기술된 교과서에는 한국의 정치적 변화상과 경제적 발전상을 나름대로 소개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한류 열풍’에 비하면, 현재 키르기스스탄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의 내용은 너무 빈약하다. 그동안 한국어 보급에 심혈을 기울여 왔던 한국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뭔가 전략적 변화를 요구하는 압박감이 드는 시점이다.⁵⁾

이제는 키르기스 지역에서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정치, 놀라운 한국의 경제 발전상 등 한국 전반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한다. 대학의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학이라는 일종의 국가학문을 통해 새로운 미래지향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구축해 가는 것은 물론, 또 다른 지식 창출의 기회, 인생의 새 활로를 찾으려는 기회로 삼으려 한다.

3) 구체적 실천운동의 필요성

가.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발족(2014년 6월)

1991년 구소련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 각국의 한국어 및 한국학 보급은 여러 교육기관을 통해 상당한 양적, 질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다.⁶⁾ 키르기스공화국은 중앙아시아의 작은 나라이지만, 중앙아시아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 토대구축의 한 축을 담당해 왔던 소중한 지역이다.⁷⁾ 그런데 근래 이같은 키르기스스탄의 교육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키르기스공화국 한국학 교육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 왔던 대학의 한국학 교육현장이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현 상황이 개선되기보다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악화될 조짐이 보인다는 점이다. 사실 이런 징후는 2010년을 전후로 하여 키르기스공화국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감지되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위기의식은 2013년 6월에 중앙아시아 여러 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중앙아시아 한국학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 학술대회를 통해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육 및 연구 분야의 총체적 취약성

5) 백태현(2014), 「키르기스스탄 교과서 내 한국관련 내용 번역 및 교육현황 조사 보고서」(미발표), 참조. 본 조사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위탁 사업이다.

6) Baek Tae-hyeon(2010), 논문 참조

7) 백태현(2011), 「키르기스공화국 한국학 교육의 현황과 그 전망」, 『2011년 한국학국제학술회의 “세계와 소통하는 한국학 교육” 발표논문집』, 한국학중앙연구원, 논문 참조.

이 논의 되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중양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발족의 필요성이 개선되었다.⁸⁾ 그리하여 이듬해인 2014년 6월에 제2회 중양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가 “중양아시아 한국학 교육의 미래: 한국학 교육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고, 이 기간에 ‘중양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창립총회도 열려 공식적으로 발족하게 되었다.⁹⁾ 2015년 6월에는 제3회 중양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가 ‘중양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주관으로 “공존의 역사, 상생의 문화-21세기 실크로드의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중양아시아 한국학 정착을 위한 인식의 폭을 넓혀가는 보다 구체적인 주제의 선정이다. 2013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이런 일련의 모임은 한국학 후발지역, 한국학 초보단계지역에 해당하는 중양아시아 지역 한국학 교육, 연구자들의 자생력 확보 및 현안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일종의 몸부림이다. 나아가 이것은 구성원 대부분이 어려운 현실적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생의 교육적, 문화적 토대 구축을 위한 ‘중양아시아 한국학’의 미래지향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자는 서로간의 다짐이기도 하다.

나. 키르기스-한국대학(Kyrgyz-Korean College) 설립: 베이스 캠프의 필요성

키르기스-한국대학(Kyrgyz-Korean College)은 한국의 중양아시아 지역 진출을 위한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2012년 9월에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키르기스-한국대학(Kyrgyz-Korean College) 설립 목적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키르기스 경제발전 및 고용창출 기회의 확대
 - 다양한 분야의 중견 전문직업인 육성
- ② 한국의 선진 직업전문교육 시스템의 구축 및 교육 기회 제공
 - 맞춤형 교육을 통한 한국 취업 기회 확대
 - CIS 및 중동 지역 진출 한국 기업을 위한 맞춤형 인재 육성

8) 백태현, 미나라 웨리콜로바(2013), 「중양아시아 한국학 교육의 발전 방안」, 『2103년도 한국-중양아시아 국제학술회의 “한국-중양아시아 경제, 문화교류 협력방안” 발표논문집』, 비취책인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양아시아연구소, 비취책, 키르기스공화국, 논문 참조.

9) 주요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백태현(비취책 인문대), 부회장: 장호중(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지회장(5인), 우즈베키스탄: 김 빅토리아(타슈켄트 동방학대학), 카자흐스탄: 박 넬리(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키르기스스탄: 김창석(키르기스 법률대), 타지키스탄: 신낙균(타지크 국립외대), 투르크메니스탄: 전욱(투르크멘 국립아자디세계언어대)

- CIS 지역 유일의 한국 중심 직업전문교육기관
- ③ 한국과의 상호 협력 및 교류를 선도해 갈 수 있는 산학협동교육시스템의 구축
 - 중앙아시아 지역 유망 사업 진출 분야에 대한 진로 개척
 - CIS 및 중동지역 진출 기업을 위한 생산, 가공, 유통 및 마케팅 전문 인력의 육성
- ④ 여성 직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체계마련
- 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태권도 교육 진행: 맞춤형 취업을 위한 토대 구축

다. “찾아가는 한국 경제, 문화 교실”

키르기스-한국대학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12월말까지, 그리고 2014년 9월부터 지금까지 매월 2~3회 대학 재학생들과 함께 키르기스공화국 비쉬켈 및 추이주 소재 쉬콜라(초중고교)를 순회하면서 ‘찾아가는 한국 경제, 문화 교실’ 을 개최하고 있다. 키르기스-한국대학은 키르기스내 한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 초중고교 교직원 및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을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한국과 키르기스 양국간 돈독한 우호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양국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찾아가는 한국 경제, 문화 교실’은 한국의 경제, 문화 관련 특강과 더불어, DVD 상영, 사진 전시회 등을 통해 한국의 제대로 된 실상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일차 목적이다. 이와 함께 키르기스-한국대학 재학생들이 본 행사에 대거 참석하여 K-POP 부르기, 한국 전통춤,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진행하고, 참석자들에게 김밥 등 한식을 시식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제고 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바로알리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본 행사에 참석한 쉬콜라 교직원 및 학생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다.

5. 맺음말

구소련의 해체와 더불어 실크로드는 한국에게도 열렸다.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지역은 근래 전략적 요충지, 정치경제적 요충지로 부상하며 세계열강이 각축하고 있는 ‘국제관계의 교과서’와도 같은 지역이다. 한국도 미래 ‘먹거리의 보고’인 이 지역을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고대이후 한국과도 연관이 깊은 이 실크로드는 한국, 한국인에게 언젠가 기회와 땅

으로 부상할 수 있는 지역이다. 신실�크로드를 향한 한국적 과제는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실천 전략의 필요성이다. 여타 세계열강에 비해 이 지역의 대한 한국의 접근성과 향후 가능성은 좋은 편이다. 바로 이 지역에 수많은 고려인들이 산재해 있다는 것과 확산되어 가는 ‘한류 열풍’ 또한 큰 호재이다. 향후 한국이 주축이 되어, 문화적 상생의 역량을 구비한 중앙아시아 현지의 풍부한 한국학 전문가를 육성해 나간다면 신실�크로드의 출발점은 한국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¹⁰⁾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은 전세계적으로 볼 때 그 가치가 충분한 분야이다. 현재 다양한 체제와 변화가 상존하는 국가는 세계에서 그리 많지 않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과 정치경제학 분야, 특히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남다른 경험은 세계적으로도 높이 평가 받을 수 있는 분야이다. 키르기즈의 현 상황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은 키르기즈 국가 발전의 주요한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요소가 무척 많다. 향후 양국의 우호증진과 한국의 문화적, 경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키르기즈 지역의 한국학에 대한 수요 계속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 키르기즈 사회가 많은 한국전문가가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한국도 키르기즈의 방대한 자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양국의 실질적인 교류를 담당해 갈 우수한 한국학 전문가의 필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해 가고 있다. 키르기즈의 유능한 한국전문가 육성은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한국학 교수요원과 교육기관이 확보될 때 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한국에서는 실�크로드와의 연관성, 그 외연을 넓히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인들이 얼마나 더 오래 전에, 얼마나 더 멀리 이 실�크로드를 다녔는지 그 역사적, 문화적 흔적을 찾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듯하다. 좋은 현상이다. 다소 늦었지만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여러 관심의 발로로 보여 진다. 멀게만 느껴졌던 중앙아시아 지역이 한층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이다.

〈참고문헌〉

백태현(2014),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중앙아시아 한국학학

10) 백태현(2014),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육의 미래” 발표논문집』, 비취책인문대학교 한국학과, 키르기즈공화국, 참조.

- 술대회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육의 미래” 발표논문집』, 비취책인문대학교 한국학과, 키르기즈공화국.
- 백태현(2014), 「키르기스스탄 교과서 내 한국관련 내용 번역 및 교육현황 조사 보고서」(미발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
- 백태현, 미나라 웨리쿨로바(2013),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육의 발전 방안」, 『2103년도 한국-중앙아시아 국제학술회의 “한국-중앙아시아 경제, 문화교류 협력방안” 발표논문집』, 비취책인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비취책, 키르기즈공화국
- 손영훈, 김상철(2013), 「21세기 중앙아시아 한국학 현황과 발전 방향」, 『2103년도 한국-중앙아시아 국제학술회의 “한국-중앙아시아 경제, 문화교류 협력방안” 발표논문집』, 비취책인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비취책, 키르기즈공화국
- 백태현(2011), 「키르기즈공화국 한국학 교육의 현황과 그 전망」, 『2011년 한국학국제학술 회의 “세계와 소통하는 한국학 교육” 발표논문집』, 한국학중앙연구원
- Baek Tae-hyeon(2010),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Studies in Central Asia Its Future Prospects”, KOREAN STUDIES ABROAD,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2010), Население Кыргызстана.



| 제2부 | 발표 03

실크로드의 복식 문화교류



실�크로드의 복식 문화교류

김용문*

유목민은 역사라고 하는 경사와 사회라고 하는 위사에 의해 직조된 독자적인 생활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유목민은 생산수단과 생활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그들의 복식양식을 바꾸지 않는다. 북방의 유목민들은 스키타이와 같은 이란계이든 흉노와 같은 투르크-몽골계이든 관계없이 말 위에서 그들의 일생을 보냈으므로 유목민의 복식은 기동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들의 생활방식과 재산의 특성으로 인해 앗시리아-바빌로니아로부터 받은 영향 가운데에서 문장적인 주제나 싸우는 동물의 양식화된 표현 등이 나타났다.¹⁾

실�크로드에서 출토된 미라는 상반신에는 속옷과 상의, 하반신에는 속바지와 겹으로 만든 바지를 겹쳐 입고, 긴 포를 입고 얼굴에 복면을 덮고 천으로 감싸며, 머리 밑에는 베개를 베고 있고 손에는 악수(握手)를 하였으며 발에는 버선과 화를 신고 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의복은 카프탄형으로 페르시아의 듀베, 타지크의 빠란자, 티베트의 추바, 한국의 두루마기, 일본의 기모노가 속한다. 고대 한국복식은 스키타이계 복식으로 변형모, 대롱소매의 상의, 당이 달린 바지, 혁대, 가죽으로 만든 장화를 착용한다.

실�크로드의 복식문화 교류는 출토복식, 문헌과 회화자료를 중심으로 실�크로드의 복식, 실�크로드의 호복, 직물과 문양의 동서교류, 실�크로드 복식문화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1) 르네 그루쎈(2006), 『유목민족제국사』, 김호동·유원수·정재훈 역, 사계절, p. 51 참조.

I. 실크로드의 복식

1. 헤어스타일과 쓰개

1) 헤어스타일

변발은 유목민족의 대표적인 헤어스타일로 민족의 기원이나 생활양식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이다. 머리카락을 길게 땅는 풍습은 이미 흉노에 의해 알려져 있다. 몽골의 노용 올에서 붉은 색의 부드러운 변발이 발견되었다. 여성은 검은색 변발의 끝에 붉은 끈을 땅아 넣거나 한 개의 분묘에서 17가닥의 변발이 발견되었다. 잘려진 변발은 삼각형의 실크 주머니에 넣어져있으며, 상중(喪中)에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사마르칸드 아프라시압 서벽의 벽화는 상중하 세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하들은 변발을 하고 있다. 당시의 돌궐인들은 변발이었으므로 왕의 신하들 중 대다수가 돌궐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소그드인은 머리를 짧게 자르고 헤어밴드를 하고 있으며 남벽의 젊은 남자는 변발로 돌궐의 영향이다. 6세기 중앙아시아의 역사적 무대에 돌궐이 출현하였을 때, 소그드의 지배자만이 돌궐의 풍습을 따라서 긴 변발을 하고 시종들은 지배자와 돌궐과는 다르게 머리를 잘랐다.²⁾ 아프라시압 벽화의 돌궐인은 3~6가닥 변발이지만 몽골의 돌궐석인상은 1~2가닥의 변발이었다. 6세기 말 돌궐에 의한 투루판 정복이후 현지 사람들은 돌궐의 변발 풍습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612년에 투루판의 지배자는 돌궐의 풍습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돌궐만이 아니라 돌궐에 종속된 영주들이나 여러 민족도 서돌궐, 카가나르의 붕괴까지 변발을 하였던 것이다.³⁾ 『수서』돌궐전에는 수양제(隋陽帝)가 돌궐인의 단발은 그 민족의 특성에 맞지 않으므로 본래대로 행하라는 기록이 있다.

호탄의 남자의 헤어스타일은 변발과 상투 두 종류이다. 변발은 세 가닥을 합쳐서 하나로 땅았으며, 상투는 작게 틀어 올렸다. 『송운행기』에는 호탄의 습속을 “남자의 머리는 상을 당했을 때는 전발로 자르며, 머리카락의 길이는 4촌으로, 일상적인 것이다.”라고 기록하였다. 신장의 남부 지역 초기의 남자 헤어스타일은 문헌의 기록에 의하면, 한대이전에는 여러 가닥으로 땅았으며 상투도 있었다. 북위 시대에서 당대에 이르면서 신장의 남부 지역이 전발로 변화하였던 것이다. 『위서』서역전에 페르시아는 “장부전발(丈夫剪髮)”, 에후탈(壓嚙國)은 “머리는 모두 전발”, 강거(康居)는 “장부전발”이라고 하여 2세기 후반경 신

2) L·I·アリバウム(1980), 『古代サマルカンドの壁畫』, 加藤九祚 譯, 文化出版局, p. 79.

3) Ibid., p. 75.

장 남부 지역이 여러 지역과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발은 본래 페르시아의 헤어스타일이다.

투루판의 남자의 헤어스타일은 전발로 아스타나의 98호묘 남주인도 깃 근처까지 오는 전발이 분명하다. 부녀의 헤어스타일은 여러 가닥으로 땀은 변발과 수소환계(垂髻環髻)가 있다. 세 가닥을 합쳐서 한 가닥으로 땀으며 많을 때는 네 가닥으로 땀는다. 가발을 넣어 2, 4, 6, 8가닥 등으로 땀으며, 그 중 두 가닥은 가발이나 말총으로 채웠다. 기원전 5~4세기경에는 여러 가닥으로 땀은 변발이었다. 『북사』토욕혼전에 “토욕혼의 부녀는 많이 묶을수록 귀하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여러 가닥으로 땀은 변발일수록 높은 계급의 헤어스타일로 생각된다. 아스타나 98호묘 벽화 중의 부녀도 머리를 땀아서 둘러 엮었다. 『책부원구』권961, 외신부에 기록된 고창(高昌)의 부녀는 “여자는 땀아서 늘어뜨리지 않는다.”고 한 것과 일치한다. 하서지역의 습속으로 선비족에 의해서 고창지역에 도입되었다. 선비족은 “피발좌임이며 옛날에는 색두(索頭)라고 한다.”⁴⁾ 색두는 선비족의 변발이다. 선비는 원래 흉노의 동쪽에 살았다. 반발(盤髮), 환계(環髻)는 선비족과 흉노가 가깝기 때문에 풍속과 습속이 서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선비족 부녀의 환계는 원래 있던 것이 아니고, 흉노가 서쪽으로 옮겨간 후 선비족이 서하(西夏)에 유입되어 거주하면서 환계라는 헤어스타일이 들어왔다.

『신당서』에 “신라의 남자들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고 흑건을 썼다, 시장에서 모든 부녀들이 팔고 산다.”는 기록이 있다.⁵⁾ 신라 남자들의 헤어스타일 중에 단발로 자른 전발(剪髮)은 소그드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실�크로드의 헤어스타일은 유목민족에게 편리한 변발과 이란 문화의 영향을 받은 단발이 주된 양식이며, 중국의 영향을 받은 니야, 투루판지역에서는 남자는 상투를 틀고 여자는 고계로 빗기도 하였으며, 중국풍의 계(髻)에 호풍의 화려한 장식과 가발을 혼합한 회홀계(回鶻髻) 등이 나타났다. 투루판의 여성의복은 중국풍으로 변화였지만 헤어스타일은 그들만의 고유한 형태였다.

2) 쓰개

모자는 고깔 모양의 변형모(弁形帽), 조우관(鳥羽冠), 첨정모(尖頂帽), 원정모(圓頂帽)

4) 隋書 卷 84, 列傳 第49, 北狄.

南室韋在契丹北三千里, …其俗丈夫皆被髮, 婦人盤髮, 衣服與契丹同.

5) 新唐書 卷20 列傳 第145 “男子剪髮 昌以黑巾 市皆婦女買販”

등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변형모는 백화수피(白樺樹皮)나 펠트로 만들었다.

공작하 고분, 로프노르의 5호 공동묘지와 체르첸에서 침정모와 원정모가 출토되었다. 비교적 낮고 끝이 뾰족한 침정모는 한대(漢代) 이후에는 매우 드물게 보이지만, 비교적 높고 끝이 둥근 침정모는 당대(唐代)에도 계속되어 투루판의 아스타나 묘에서 출토된 마부 인형, 중앙아시아의 벽화 등에서 볼 수 있다. 실크로드의 쓰개 중 조우관, 복탁, 장옷과 빨란자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조우관

조우관은 변형모에 조우를 꽂은 것으로 북방 유목민족들이 수렵할 때 새의 깃털을 머리에 꽂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조류(鳥類) 숭배사상의 샤만적 의미에서 대중화 되었을 것이다. 누란(樓蘭)에서 출토된 미라의 모자에도 새의 깃털이 꽂혀있다.

조우관은 『위서』 고구려전에 “머리에 절풍을 쓰는데 그 모양이 고깔과 같고 옆에 새의 깃을 꽂는데 귀천의 차이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⁶⁾

양직공도(梁職貢圖), 둔황(敦煌)의 벽화, 왕회도(王會圖), 장회태자묘(章懷太子墓), 아프리카 벽화에 그려진 한국 사신은 조우관을 쓰고 있다. 둔황 220굴(642년)의 동벽 유마경변상도의 외국사신들 중에 한 명이 조우관을 쓰고 소매가 넓은 포와 바지를 입고 공수한 자세로 서있다<도 1>. 335굴(686년)의 북벽 유마경변상도에 두 명의 한국사신이 쓴 조우관이 확실하게 보인다<도 2>. 왕회도의 삼국사신 가운데 조우관을 쓰고 있는 남자가 고구려의 사신이다<도 3>. 장회태자묘(8세기초)의 한국사신도 조우관을 쓰고 있으며, 고구려의 무용총벽화, 신라, 백제, 가야 고분에서 나온 출토유물에서 새의 깃털이나 모형을 모자에 부착하는 조우관이 대표적인 쓰개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7세기 사마르칸드의 아프리카 벽화에 그려진 오른쪽 끝의 두 남자는 고구려의 사신으로 흰색 소형의 복 두 위에 2개의 깃털을 꽂은 조우관을 쓰고 무릎까지 오는 황색의 상의와 발목부분이 오므라진 바지를 입고 화를 신고 있으며 공수한 자세이다. 직령상의 소매길이가 길고 허리에는 대를 두르고 환두대도(環頭大刀)를 차고 있다<도 4>. 원본이 훼손되어 명확하지 않아 단령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발굴 당시의 묘사도에 옷깃이 직령으로 그려져 있으며 벽화를 실지로 확인한 결과 직령을 입고 있다.

6) 魏書 卷100 列傳 88, 高句麗, “頭著折風 其形如弁 旁插鳥羽 貴賤差異”



〈도 1〉 둔황 220굴의 고구려 사신,
『敦煌莫高窟』, 3, 도 31



〈도 2〉 둔황 335굴의 고구려 사신,
『敦煌莫高窟』, 3, 도 61



〈도 3〉 왕회도의 사신도, 저자촬영



〈도 4〉 아프리카시암 벽화의 사신, 저자촬영

(2) 복탁

몽골에서는 복탁(Bogtag, baghtag, бoгтаг), 孛哈(bocca)라고 하며, 중국 문헌에는 고고(罽罽, 顧姑, 故姑, 姑姑, 故故)로 기록되어 있다. 서방의 문헌에는 bogtag, boghtdak boctac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원조비사(元朝秘史)』에 칭기스 칸의 어머니 후엘룬이 쓴 아시아 북방민족 부인의 모자인 패흑탑(孛黑塔)은 고고관(固姑冠)의 음역이다.⁷⁾ 고고관(顧姑冠)은 7세기말 이후 패흑탑이라고 불리면서 급격하게 변화 발전하였다. 돌궐, 에프탈 등 아시아의 기혼여성의 관모로 터키에도 있다.⁸⁾

7) 元朝秘史(1985), 上海書店影印.

8) 제·바이사흐(1993), 「제13세기 몽골민족의상과 두발형태」, 제11회 국제복식학술회의 발표요지, p. 36.

고고(姑姑)는 고대 몽골어 Kekel 현대몽골어 Kükül의 음역이라고 하는 설이 있다.⁹⁾ Kükül은 몽골의 헤어스타일로 부분적으로 밀고 뺀 머리모양이다. 복탁(baghtag)은 페르시아어의 터번(bogtag)에 기원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¹⁰⁾ 복탁이 거위나 오리의 모양 또는 닭의 울음소리에서 기원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복탁의 기원설은 다양하다. 알타이의 머리장식, 10세기의 회화자료에 복탁이 등장하고 있으나 13세기부터 14세기에 걸쳐서 몽골의 대표적인 모자 복탁이 유럽까지 대유행한 이유는 몽골제국의 세력 확장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문헌적·회화적 자료에 의하면 복탁이 고대의 세습된 특별한 유행이며 다른 나라와 몽골의 모자를 구별하는 양식이었으며, 결혼한 부인들만의 모자라는 것이 확실하다. 몽골 부인들이 복탁을 꿩, 공작, 닭의 일종인 오대산에 사는 새의 깃털로 장식하였다. 어떤 것은 복탁 모자 끝부분에 깃털을 다발로 달며, 어떤 것은 깃털을 꽂기 위해서 특별히 대나무통을 고정시켰다. 또한 원대(元代) 왕후의 초상화와 몽골의 고고학적 출토유물에서 복탁은 색상, 소재, 깃털장식으로 구별되는 최상층의 상징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문헌, 회화 및 출토유물에 나타난 13세기 복탁의 구성과 변천을 시대적으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13세기 복탁의 구성과 변천

시대	높이	관통	드림	장식	출처
칭기스 칸 (1206~1227)	2척 (약 57cm)	자작나무껍질, 홍색비단, 검은색 褐, 거위, 오리형	검은색	진주	長春真人 遊記
	3척 (약 85cm)	철사염음, 홍·청색 비단		자수, 구슬, 금, 가지와 융장식	蒙韃備錄
톨루이 시대 (1227~1233)		홍색	홍·녹·황색	긴 깃털장식(관통 의 4배 길이)	
우구데이 카안 (1229~1241)	4~5척	버드나무, 은홍색, 금색 비단	청색 펠트	비취색 깃털/닭 털, 오색비단, 꽃	黑韃事略
구육 칸 (1246~1248)	1 엘 (약 30cm)	나뭇가지, 나무껍질, 네모형	선홍색 목면, 바그다드 비단	금, 은, 나무, 깃털, 거친 삼베, 벨벳, 브로케이드	카르피니

9) 蔡美彪(2010), 「罽罽冠一解」, 『中國文史論叢』, 2010-2(總 98), 世紀出版, pp. 365~370.

10) 江本敬二(1940), 「アジア北方諸部族の婦人帽字黑塔」, 『東亞論叢』3, 文求堂, p. 29.

시대	높이	관통	드림	장식	출처
몽케카안 (1251~1259)	1 큐빗 (약 46~56 cm)	자작나무껍질, 홍색 錦織物, 역사다리형	녹·청색, 분 홍색, 검은색 (금색 화문)	깃털(공작/들오 리), 보석	루브룩
쿠빌라이 카안 (1260~1294)	대, 중, 소	사각형, 타원 형	홍·청·녹색	다양한 장식	
홀레구 칸 (1256~1265)		역삼각형	검은색	꽃잎, 짧은 깃털	

복탁은 깃털장식, 관통, 모자와 드림장식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복탁은 초기에는 버드나무, 자작나무 껍질로 만들었으나 철사를 사용하는 등 더욱 견고해졌다. 13세기의 복탁은 긴 나뭇가지, 깃털장식이 많으며, 칭기스 칸과 툴루이 시대의 복탁에 꽃은 깃털장식이 가장 높고 화려했다. 복탁은 결혼한 여자, 왕비가 궁정의례에 착용하던 관모이지만 수렵, 초상 등의 행사에 참석할 때는 모자만 쓴다. 복탁의 높이는 문헌에 의하면 약 28cm~112cm까지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 회화자료에 의하면 툴루이 시대의 복탁은 깃털장식이 관통의 4배 정도로 가장 높으며 홀레구 시대에는 관통과 깃털장식이 매우 짧다. 쿠빌라이 카안의 시대에는 다양한 소재와 화려한 장식이 사용되며 복탁의 크기도 대·중·소로 나누어졌다. 14세기 후기가 되면 복탁의 높이는 낮아지고 깃털에 다양한 장식을 달며, 깃털장식이 없는 복탁도 등장한다.

북경의 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오대(五代, 907~960년)시기 그림에 말이나 낙타를 타고 험악한 날씨에 사막을 여행하는 일행을 그리고 있으며, 두 명의 여인이 쓰고 있는 높은 모자가 복탁이다.¹¹⁾ 복탁의 윗부분은 부츠를 거꾸로 쓴 모양이며, 붉은 색이고 새의 깃털 장식을 꽃고 있다. 아래 부분은 밤색직물로 싸고 있으며, 그들 중 6명은 양옆에서 어깨까지 붉은색 천을 두르며 입을 가려서 강한 바람과 모래폭풍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도 5>. 『집사』에는 붉은색 포를 입고 붉은색 복탁을 쓰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왕후의 복탁에 꽃은 깃털장식은 두 개의 원형으로 다른 사람보다 화려하고 장식성이 강하다<도 6>.¹²⁾ 쿠빌라이 카안의 부인 차비(Chabi)가 쓴 복탁은 세로로 길게 작은 꽃줄 장식이 있으며 머리에 쓰는 부분과 진주로 연결되어 다른 황후의 복탁보다 장식이 많으며 화려하

11) Jin Weinuo(1988), *The Great Treasury of Chinese Fine Arts Painting*, Beijing, p. 66, pp. 109~110.

12) IPSIROGLU(1965), Saray-Alben, *DERS Malerei der Mongolen*, München, p. 11; Herrn Gerhard Schröder(2006), *DSCHINGIS KHAN UND SEINE ERBEN*, München, Fig 285.



〈도 5〉 사막을 건너는 대상, The Great Treasury of Chinese Fine Arts Painting, p. 110



〈도 6〉 화려한 복탁, Dschingis Khan und Seine Erben, fig 285



〈도 7〉 차비황후 故宮圖像選萃, 圖 32



〈도 8〉 칭기스 칸의 궁정의례,

며 가장 높다<도 7>. 툴루이와 왕비, 가족들을 그린 그림으로 우임으로 여며 입은 직령포가 길어서 온몸을 감싸고 있다. 모자에 꽂은 깃털장식은 매우 높으며, 왕비의 깃털에만 중간에 원형장식이 그려져 있다<도 8>.

복탁은 칭기스 칸 시대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여 13세기 중엽에 가장 높은 깃털장식을 꽂았으며 13세기 후반에는 복탁의 관통과 깃털장식의 높이가 짧아졌다. 쿠빌라이 카안에 의해 1271년 몽골제국이 중국을 통치하게 된 대원(大元) 울루스가 성립되고 복탁의 크기와 소재도 다양해졌다. 복탁은 대원 울루스(1271~1368)시기 즉, 팩스 몽골리카 시대인 13~14세기 유라시아에서 유행한 몽골 기혼여성의 대표적인 예장용 관모이며, 크게 유행한 이유는 몽골인들이 세계적인 규모의 제국을 성립하여 유명해졌고 강성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사료에도 많이 기록되었으며 당시에 몽골인의 복식에 관한 법률을 정하고 지켰던 것과도 또한 관련이 있다.

몽골제국은 초원의 유목국가에서 출발하여 유라시아 대륙의 거의 대부분과 해상까지 장악하는 세계제국이 되었고 몽골의 전통적인 예장용 부인의 관모인 복탁이 유라시아 전

역으로 퍼져나가 유행하였으며, 몽골제국의 멸망과 함께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복탁의 기본 요소는 몽골 여성의 전통적인 모자와 머리 장식에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3) 장옷과 빠란자

조선시대의 장옷, 일본의 가츠기(被衣)는 타지크의 빠란자와 같은 양식으로 구성된 내외용 쓰개이다.

타지크의 빠란자는 외출할 때 모든 옷을 입고 최후에 머리 위에 걸쳐서 전신 혹은 상반신을 덮었다. 여성의 얼굴을 덮어 가리는 것은 『코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빠란자는 전통식 튜닉의 하라이드와 같은 재단으로 옷길이는 길고, 몸통 폭은 넓으며 소매길이는 대단히 길다. 얼굴은 검은 말꼬리로 만든 차시무밴드로 가렸다. 현재에는 혼례의상에 사용된다. 하라이드도 겹옷뿐 아니라 장옷의 역할도 한다. 사루기라크는 옷길이가 짧고 좁은 소매로 장옷전용으로 만든 것이다.

2. 의복

오늘날 동서양을 막론하고 복식의 기본을 이루는 옷차림은 상의와 하의 이부형식(二部型式)이다. 이부형식은 활동성이 강조된 것으로, 그 기원이 북방의 기마민족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알타이지역의 카탄다고분(기원전 5세기~기원전 4세기)에서 연미복형태 의복이 출토되었다.¹³⁾

상의와 바지를 체형에 꼭 맞도록 만드는 복잡한 재단법은 동물의 가죽을 사용하면서 시작되었을 것이며, 보온을 위한 효과적인 양식이다. 바지를 견직물로 만드는 경우 말을 탈 때 바지의 밑이 터지지 않도록 당이 꼭 필요하였을 것이다.

실�크로드의 의복의 특징은 통수 또는 착수, 좌임, 바지, 포, 번령이다.

1) 통수(筒袖) 또는 착수(窄袖)

통수 또는 착수의 상의는 바지와 함께 북방 유목민족에 공통되는 것으로 중국에서는 호복(胡服)이라고 부르는 기마민족의 복장이었다.

상의는 직령좌임형(直領左衽形)의 유(襦)를 엉덩이선까지 내려오게 입었다. 상의는 띠와 더불어 상반신을 완전히 둘러싸서 방한과 활동에 편리한 기능적 역할을 하며, 통수 또는 착수의 상의는 바지와 함께 북방 유목민족에 공통되는 것으로 중국에서는 호복(胡服)

13) 加藤定子(2002), 『古代中央アジアにおける服飾史の研究』, 東京: 東京堂, 참조.

이라고 부르는 기마민족의 복장이었다.

2) 좌임(左衽)

복식을 여미는 방법으로는 좌임과 우임, 마주보게 여미는 합임(合衽)이 있는데 중앙아시아의 복식은 좌임으로 여며 입는 것이 특징이다. 한문자료에 의하면 주변의 소수민족이 모두 좌임으로 중원의 우임과 다르다고 기록되어 있다. 호복은 일반적으로 좌임이다. 좌임은 말을 탈 때 편리하다고 하며, 흉노, 돌궐, 선비 거란, 집안지역의 고구려 고분 벽화 인물이 의복을 좌임으로 여며 입었다.

3) 바지

피혁으로 만든 바지가 기마와 재료의 변천에 따라 당이 달리고 막힌 궁고(窮袴)와 바지통이 넓은 관고(寬袴)도 착용하였다. 양쪽으로 갈라져 말을 타기에 편안한 바지는 스키타이인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그들의 상징적인 복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바지를 입으면 자연스럽게 몸에 달라붙고 말을 타는데 편리하므로 유목민의 대표적인 복식이 되었다. 바지에 관하여 최초로 언급한 역사서는 헤로도토스의 『역사(歷史)』이다.

하미(哈密)의 우푸(五堡)에서 기원전 11세기경 긴 가죽으로 만든 바지와 철모직(綴毛織)의 바지가 출토되었다.

자흥루크에서 출토된 바지는 중국보다 몇 천 년이 빠르며 이후 신장지역의 중요한 복식이 되었다. 한대이전의 바지는 당이 없는 바지로 입을 때는 따로 허리 부분을 묶어야 한다. 당이 있는 바지는 유목민족의 특징이다. 노용 올에서 당이 달린 바지가 출토되었다.

중국은 조무령왕(趙武靈王)이 기원전 307년에 병사에게 호복 즉, 페르시아 풍의 얇은 갑옷과 바지를 입게 한 개혁을 실행하였다. 조무령왕은 흉노를 비롯한 북방민족의 호복을 받아들여 고습(袴褶)으로 입었다.

니아에서 수놓은 덧단이 붙어 있는 남성용 바지가 출토되었으며, 백제 사신도의 사신이 입은 바지도 끝에 장락대명광(長樂大明光) 금직물(錦織物)을 덧대고 오므리지 않은 같은 형태이다.

현재 중앙아시아의 바지는 이들의 대부분이 회교민족이므로 샤르왈 형식을 착용하고 있으나, 타지크 등지에서는 마루폭에 당이 첨가된 형식도 볼 수 있다. 대부분 원래의 샤르왈이 바지통이 좁아지면서 능형의 당을 더한 것이며 모두 허리말기가 없다. 기후적인 여건으로 말미암아 샤르왈의 폭이 좁아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바지에서 허리말기가 보

이지 않고 가는 끈을 사용하는 방식은 이슬람 바지인 샤르왈 계통에서만 볼 수 있는 것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의 바지가 샤르왈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4) 포

좌임직령포가 가장 처음 보이는 예는 이집트의 카스켄 왕의 조각상이다. 기마유목 민족인 루리스탄(기원전 1000~800)과 스키타이인도 좌임직령을 입었다.¹⁴⁾ 실�크로드의 요충지인 누란에서 좌임직령포가 출토되었다.

호탄에서 펠트나 거친 모포로 만든 40벌의 긴 포가 출토되었다. 어른·아이 모두 입었다. 둥근 목둘레의 관두의 형식으로 발밑까지 내려오며, 왼쪽 또는 양쪽이 트여 있다.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좌우 양쪽을 각각 박아서 삼각형의 무를 덧대어 폭을 넓힌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두식에 소매가 달린 것이다. 무를 대는 것은 신장의 고대 복식과 중국 복식을 구별하는 요소로, 증폭하는 재단 방법은 니아의 금포(錦袍)에서 볼 수 있으며, 당대 전후 무의 사용은 볼 수 없다.

『위서』서역전 페르시아조에는 “그 풍속에 장부는 관두삼(貫頭衫)을 입으며 아래까지 터져 있다.”¹⁵⁾ 『구당서(舊唐書)』서역전 페르시아조에는 “왕은 금포를 입고 영락을 덧붙였으며, 장부(丈夫)는 앞이 트이지 않은 옷을 입는다.”¹⁶⁾ 는 장포에 대한 기록이 있다. 관두의 형식의 장포는 페르시아의 벽화에서도 볼 수 있다. 영락은 페르시아 왕복의 장식으로 포위의 모직물 띠에 영락이 많이 달려 있다.

우푸의 미라 중에서 부녀자는 겉에 홑 가죽으로 만든 큰 옷을 입고, 속에 몸에 붙는 모포(毛布)로 만든 긴 포를 입었다. 길이가 135cm이며 옷깃이 없고 소매가 좁다. 소매는 두 부분으로 재단되어 있으며, 엄밀하게 말하면 위의 반쪽 부분은 소매라고 할 수 없으며, 여전히 길의 한 부분에 속하며 다만 입을 때는 소매의 작용을 할 뿐이다. 이런 재단 방법은 중국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현대의 로프산푸란에서 출토된 관두의 형식의 포와 로프노르지구에서 발견된 당대의 포의 소매가 모두 이와 같은 재단 방법으로 만들어졌으며, 신장지역 고대 복식의 특징이다.

14) 劉頌玉(1998), 『韓國服飾史』, 경춘사, pp. 33~36.

15) 魏書 卷 102, 列傳 第90, 西域.

其俗 丈夫剪髮, 戴白皮帽, 貫頭衫, 兩廂近下開之, 赤有巾帔, 緣以織成, 婦女服大衫, 披大帔, 其髮前爲髻, 後披之, 飾以金銀花, 仍貫五色珠, 絡之於膊.

16) 舊唐書 卷 198, 列傳 第148, 西域.

其王冠金花冠, 坐獅子牀, 服錦袍, 加以瓔珞. …丈夫剪髮, 戴白皮帽, 衣不開襟, 并有巾帔.

니아에서 출토된 만세여의금포(萬事如意錦袍)는 남성용으로 홍색과 어두운 황색의 복합색이며, 좌입으로 입었다. 어깨 부분에 손을 덮는 긴소매가 달렸고, 오른쪽에 삼각형의 무가 달려있어 고대 신장 남부 지역의 전통복식임을 알 수 있다.

투루판의 토용은 소매가 큰 장포를 우입으로 입고 있으며 품이 넉넉하다. 중국의 영향이다. 시종은 장포를 좌입으로 여며 입었으며 호복의 영향이다.

5) 번령(翻領)

돌궐의 카프탄은 양복의 라펠칼라처럼 옷깃을 제쳐서 입는 번령이다. 번령은 돌궐, 소그드, 중국의 카프탄에 나타나며 돌궐복식의 특징이다. 많은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그 시기에 소그드와 돌궐은 서로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실크로드 상인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돌궐의 관습, 문화, 의복이 확산되었다.

아프라시아 벽화에 나타난 돌궐 복식은 소그드 복식의 영향으로 카프탄을 단추로 여며 입고 칼라와 소매끝부분에 화려한 동물연주문을 사용하여 장식하였다. 소그드 유적에서 금목걸이와 라피스 라즐리로 만든 꽃모양의 파란색 단추가 출토되어 벽화의 사실적 표현을 입증해주고 있다.

경주 구정동 방형분의 무인상은 소그드인으로 왼쪽 깃이 선명하게 접힌 짧은 번령포를 입고 가죽장화를 신고 있다.

3. 장화와 접섭대

1) 장화

화는 수초가 많은 지역에서 다니기 편하여 착용하는 것으로서, 유목민들의 기마생활에 적합한 신발이다. 『석명(釋名)』에 “옛날에는 석리(寫履: 목이 없는 단화)는 있었지만 장화는 거의 없어서 쉽게 볼 수 없었는데, 조무령왕이 처음 착용하기 시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수서에는 “화는 호족의 신으로 편리해서 용복(戎服)에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중화고금주(中華古今注)』에는 “장화는 대개 옛 서쪽 오랑캐들의 것이다. 조무령왕이 호복을 좋아하여 항상 그것을 신었는데 짧은 신발에 황색 가죽을 덧붙여 만들어 한가로울 때 신었다. 승마에 편리하기 때문에 문무백관이 모두 신게 되었다.”고 기록되었다. 이 장화는 아마도 유목민들이 말을 타고 외출할 때 신는 장화 바깥쪽에 훈피(熏皮)로 만든 덮개를 씌운 장화였을 것이다. 이러한 덮개장화는 유목민들에게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화라는 것은 옛 서호(西胡)제로 조무령왕이 상복(常服)으로 삼았다.”고 하여

화의 원류는 서쪽의 스키타이계통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화(hiua)라는 말도 선비어의 승마용 장화를 나타내는 말을 한자로 음역한 것이다.¹⁷⁾

중앙아시아인의 다수가 유목생활을 하며 산간 초지에서 주로 활동했으며, 반드시 물을 건너야만 했다. 이와 같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장화가 생겨나게 되었고, 자흥루크에서 출토된 장화는 중앙아시아의 초기 장화를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흉노의 장화는 완전한 것이 남아 있지 않으나 가죽으로 만들었으며 화염문이 자수되어 있고, 신바닥에는 자수 문양의 흔적이 남아 있다.

경주 노서리 적석분에서 출토된 금동신발은 얇은 동판에 도금한 것으로, 신바닥 측면에는 이중으로 짠 승문과 단선승문을 배치하고 그 중간을 화염문으로 메우고 있다. 거북문, 화문, 쌍조문, 동물문, 귀면문 등의 문양에 의해 중앙아시아와의 문화교류를 알 수 있다.

2) 접섭대(蹠躩帶)

유목민족들에게 허리띠는 일상생활의 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매서운 추위로부터 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복에는 허리띠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또한 유목생활의 여건상 말의 다리를 묶는 끈, 말의 입을 묶는 끈, 칼, 부싯돌 등의 생활필수품들을 매달았다. 전쟁터로 떠나는 군사들은 칼, 군도, 사다크(화살통), 활집 등을 허리띠에 매달고 있다.¹⁸⁾ 북방유목민족들의 가죽벨트는 동시에 장식품으로도 사용하였다. 허리띠는 사슴돌에도 나타나며, 돌궐시대 석인상<그림 9>에 표현되어 있으며 알타이 산에서 실물이 출토되었다. 허리띠에 필요한 일상품을 매단 접섭대는 유목생활에 편리한 것이었다.

우푸의 남자 미라는 외투에 흰색 모직물로 만든 허리띠를 하였고, 허리띠 위에 솟돌이나 두개의 작은 주머니를 달아 놓았으며, 안에는 청동 장식의 작은칼과 돌송곳이 있다.

조무령왕이 주소(周紹)에게 호복의관(胡服衣冠), 구대(具帶), 황금사비(黃金師比)를 수여한 기록이 있다. 구대는 호인(胡人)의 가죽 허리띠의 현대장식으로 황금장식이 되어져 있다. 일반인은 가죽으로 만든 현대를 사용하였으며, 내몽골 흉노묘에서 동물문양의 버클이 출토되었다.¹⁹⁾ 접섭대(鞬鞞帶)는 생활용품용 끈에다 매달아 늘이는 북방 유목민족과 서북 소수민족의 풍속으로 위진남북조시대 중국으로 전해지며 접섭대라고 불리었다. 대

17) 藤堂明保(1976), 「胡ということば」, 『服裝文化』150, pp. 112~114.

18) Ibid., p. 109.

19) 김용문(2013), 「匈奴의 복식문화에 관한 연구」, 『복식』63(3), p. 11.

에 교구(鉸具) 이외에 작은 장식판을 부착하는 풍습은 이미 청동기를 비롯한 금속문화의 발달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패식을 늘어뜨리는 습속은 6~7세기에 유라시아 동서로 널리 퍼졌던 것 같다. 중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었던 돌궐, 몽골 등의 선조들은 금속장식이 있는 허리띠에 무기와 생활용품 등을 매달아 사용하고 있었다. 돌궐시대가 되면 장식 끈을 몇 개 더 늘어뜨리고 장식 끈에 장식을 붙이는 풍습이 유행했으며, 이는 당대에 중국에도 도입되고 일본에 까지 전해졌다. 이미 휴대품을 건다는 본래의 실용적 의미보다는 장식적인 의미가 더 컸던 것 같다. 당대(唐代)에는 패용에 대한 규정이 생겨났다. 직사관 3품 이상은 금장도(金裝刀), 숫돌(礪石)을, 1품 이하는 수건(手巾), 산대(算袋), 패도(佩刀)와 숫돌을 받았다. 5품 이상의 무관들은 접섭칠사를 찾는데 칠사는 패도, 단도, 숫돌, 계필진(契苾眞), 사궐(唆厥), 침통과 화석 7가지이다. 돌궐시대가 되면 장식 끈을 몇 개 더 늘어뜨리고, 장식 끈에 장식을 붙이는 풍습이 유행했으며 이는 당대에 중국에도 도입되고 일본으로 전해졌다.²⁰⁾ 문무관원이 접섭대를 띠고, 칠사를 매달았으며, 칠사란 패도(佩刀), 칼, 숫돌[磨石], 계필진(契苾眞), 화궐(曷厥), 침통, 부싯돌주머니[火石袋]이다. 『집운(集韻)』에 “黏, 黏鞞, 帶具”라고 하였고 궐(厥)은 돌궐의 약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스기모토(杉本正年)는 돌궐의 한자음으로 보기도 하며, 하라다(原田淑人)는 의미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돌궐과 관련이 있음은 분명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어 접섭대는 돌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²¹⁾

피혁제로 만든 환대(環帶)의 끝에 금속의 교구와 대구(帶具)를 사용한 대를 과대(鈔帶)라고도 하는데, 원래 북방 유목민족의 호복적 요소로 신라의 과대는 돌궐의 접섭대 영향을 받은 유목민족의 대이다. 선비(鮮卑)라는 것은 그들이 애용한 대구 serbi를 음역한 것이다.

위구르의 접섭대는 실용품(부싯돌, 침통, 수건 등)을 더 늘어뜨리고 있는 것이 돌궐의 접섭대와 차이를 보인다. 회골고창 후기에는 접섭대에서 실용품을 늘이는 것이 사라지고 앞 중앙에 비단띠를 두 줄로 늘어뜨려 장식하고 있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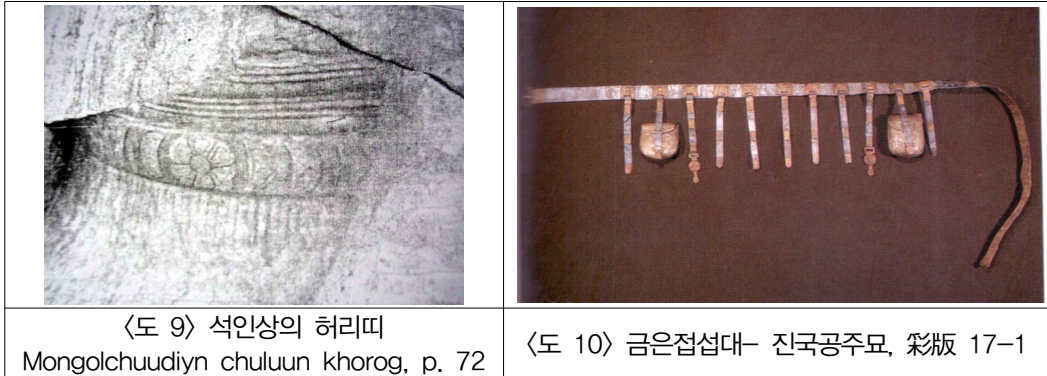
금관과 함께 출토되는 과대는 북방유목민족들이 허리띠에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매다는 풍습에서 시작되었으며, 위구르시대의 귀족이나 돌궐귀족이 사용한 접섭대 등에 그

20) 林俊雄(1999), 「유적을 통해본 유목민, 몽골유목문화」, 경기도박물관, pp. 144~145.

21) 杉本正年(1977), 「7世紀における東アジアの服制と服飾」, 『服裝文化』, 153, p. 47; 原田淑人(1970), 『唐代の服飾』, 東京: 東洋文庫, p. 103.

22) 권현주(2012), 「투르크제국의 복식문화」, 『中央아시아研究』17(1), pp. 165~166.

모습이 남아있으며, 요대(遼代) 진국공주묘(陳國公主墓)에서 실물<그림 10>이 출토되었다.²³⁾



4. 장신구와 주머니

1) 장신구

장신구는 의복장식품,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등을 사용하였다. 의복장식품은 의복에 금판장식(Gold Plaque)을 꿰매 붙이는 것이며, 마한인이 사용한 기록이 있다. 경주에서 출토된 많은 금판장식은 이식고분의 황금인간처럼 복식에 달아 입었던 것이다.

옥류 연결 목걸이와 쇠식(鎖式) 목걸이, 환식(環式) 팔찌와 쇠식 팔찌, 능형(菱形) 반지는 스키타이계 장신구에서 그 원류를 찾을 수 있다.

아프라시아 남벽에 그려진 말을 끌고 가는 소그드인은 큰 귀걸이를 하고 있다. 라피스 라즐리, 터키석, 진주가 박힌 금팔찌를 양손에 하고 있다. 소그드, 돌궐, 차가니안의 여성들 모두 팔찌를 착용하였다. 금목걸이의 가운데 부분에 라피스 라즐리, 수정 등의 큰 보석이 있다. 벽화에 그려진 목걸이는 608년에 사망한 이정훈(李靜訓, Li Jingxun)묘에서 실지로 출토되었다. 페르시아 등 서방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파란색의 보석은 토르말린이다.²⁴⁾

2) 주머니

작은 주머니를 허리에 차는 것은 기마 유목민족의 특성이다.²⁵⁾

주머니는 돌궐에서 합타가(kaptarga)라고 하며 석인상에도 나타난다. 유목민족이 필요

23) 內蒙古地區文物考古研究所(編)(1993), 『遼陳國公主墓』, 北京: 文物出版社, 彩版 17-1.

24) Mori Art Museum(2006), *China Crossroads of Culture*, 東京, pp. 232~233.

25) 古代オリエント博物館 編(2009), 『ユ-ラシアの風 新羅へ』, 山川出版社, pp. 114~115.

한 물품을 넣어 사용한 것으로 소그드 상인도 애용하였다. 내몽골 고원에서 1018년 조영된 요대(遼代)의 공주의 허리 오른쪽 부분에서 금으로 만든 실물이 출토되었다<도 11>.26) 경주 패릉의 무인석상은 서역인의 모습을 하고 머리띠를 두르고 있으며 허리에 작은 주머니를 뒤에 늘어뜨리고 있다<도 12>. 러시아 어커쓰키 유적에서 출토된 가죽 주머니는 허리띠에 매단 상태로 출토되었다<도 13>.

패릉과 흥덕왕릉의 무인석상의 외모, 머리띠, 허리띠 위로 드리운 복장, 허리에 늘어뜨린 주머니(pochette) 등은 중국 각지에서 출토된 소그드인 석관상 조각과도 일치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 소그드인 도래의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황성동에서 출토된 호모를 쓴 심목고비의 호인용과 7세기 통일신라 경주 용강동고분에서 출토된 홀을 들고 단령포를 입은 토용도 소그드인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당시 신라에 소그드 상인의 왕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27)



<도 11> 금주머니
遼陳國公主墓, p. 201



<도 12> 패릉 무인석상의 주머니, 저자촬영



<도 13> 러시아 어커쓰키 유적 출토 가죽 주머니, 저자촬영

II. 실크로드의 호복

실크로드 복식은 유목민의 복식으로 대표적인 호복이다. 호는『설문(設文)』에 “호라는 것은 소의 양 턱에 늘어진 살”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위로부터 아래의 물건을 덮는 듯이 씌워져있다는 의미이다.

『사기(史記)』에 의하면 조무령왕 19년(기원전 307년)에 공식적으로 호복인 고습이 중국에 채용되었고 그 후 호복이 중국 병단의 군복이 되었다. 짧은 상의와 바지를 입고 발

26)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1993), op. cit., pp. 26~29.

27) 민병훈(2009), 『중아시아의 소그드문화』, 『우즈베키스탄의 고대문화』, 국립중앙박물관, pp. 238~239; EDVARD RIVELADZE(2009), *CIVILIZATIONS, STATES, AND CULTURES OF CENTRAL ASIA*, KO'HI-NUR, p. 239.

목을 꼭 묶는 복장이었다. 그러나 전국시대 이전에 이미 이민족 복식이 도입되었음을 상대(商代)의 유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제가 동정(東征)에 의하여 중앙아시아의 박트리아와 소그디아나에 이르기까지 대하국(大夏國)을 세웠으므로 기원전 4세기에는 서양과 동양의 복식문화가 실�크로드를 통해서 많이 혼용되었을 것이다.

호는 시대적으로 다른 대상을 의미한다. 어떤 때는 흉노만을 가리켰고, 어떤 때는 동북에서 서북까지의 모든 유목민족을 총괄하여 가리켰고, 당대에는 소그드를 가리킨다. 즉, 조무령왕이 받아들인 호복은 흉노를 비롯한 북방 유목민족의 복식이며, 북위시대의 호복 특히, 검은색 풍모와 대구가 달린 가죽대는 선비계 호복의 영향이다.

당대의 호복은 소그드 복식의 영향을 받은 호모와 주머니, 돌궐의 영향을 받은 번령과 접섭대, 서아시아풍의 반비 등이 나타난다. 낙양과 서안에서 출토된 당대 호용인의 복식을 고찰함으로써 당대에는 소그드상인에 의한 호풍, 호희, 호악 등 페르시아와 서역의 문화교류와 함께 서역계 호복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당대 이전의 호복은 풍모, 고습, 좌임, 화 등 선비계 호복을 착용하였으며, 당대의 호복은 소그드, 돌궐과 페르시아를 비롯한 서역계 호복으로 호모, 번령착수포, 반비, 접섭대와 주머니, 남장호복이 특징적이다. 호복은 소매가 좁고 허리가 꼭 맞아서 활동이 편리한 의복이다. 당대의 호복은 복두의 착용, 긴 포, 우임 등 중국복식과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국제화된 복식이라고 할 수 있다.²⁸⁾

Ⅲ. 직물과 문양의 동서교류

직물은 300년 이상을 보존하기가 어렵지만 투루판 및 신장지역은 건조한 기후 덕분에 원형 그대로 출토되므로 실�크로드의 직물과 문양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로프노르의 공작하, 하미의 우보수, 체르첸의 자글리그의 기원전 묘에서 출토된 직물은 대부분이 모직물이며 문양도 줄무늬, 체크무늬 등으로 고대 중앙아시아 직물의 단순한 조형적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기원전 2세기부터 당대말까지, 소그드의 상인들은 실�크로드의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페르시아와 중국의 아름다운 견직물을 운반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매매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수요에 의해 수입하였다. 직물의 제직방법 및 동서 각 지역의 문양

28) 김용문(2012), 「唐代 胡人俑의 복식문화」, 한국복식학회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참조.

은 실크로드에 의해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소그드인에 의해 동물문양과 위금 기법의 동점이 이루어졌다. 소그드 관련 금직물은 둔황, 투루판, 청해성의 도란에서 출토되었다. 소그드에서 제직된 금직물을 잔다나지(Zandanachi)라고 하며, 둔황 17굴과 투루판에서 사자, 사슴, 새문양의 능조직 위금이 출토되었으며 색상이 화려하다.

잔다나지는 실크나 면으로 만들며, 면으로 만든 잔다나지는 다른 지역과 거래할 때 브로케이드와 같은 가격으로 거래될 정도로 유명한 직물이었다. 잔단에서 처음으로 실크를 사용하여 직조를 시작하였으며, 부하라의 직공들도 잔다나지의 수요가 늘어감에 따라 실크를 짜기 시작하였다. 부하라의 직공이 짠 견직물은 잔다나지로 시장에 소개되었다.²⁹⁾

투루판에서 출토된 초당의 아스타나 55호묘의 사슴 연주문<도 14>, 7세기 전반의 아스타나 325호묘의 멧돼지 연주문<도 15>은 위금으로 제직되었다. 8~9세기에 옥서스 지방을 포함한 동이란에서 제작된 바티칸의 사자문금과 상스 성당의 사자, 새, 폐가수스, 휴의 대양문금(對羊文錦)은 소그드 금직물로 볼 수 있다. 가장 완벽한 유물은 오리문양의 소그드 금직물로 만든 8세기의 어린이 코트이다<도 16>.



<도 14> 사슴 연주문
소그드 금직물, 아스타나
332호묘(633년)



<도 15> 멧돼지 연주문
소그드 금직물, 아스타나
325호묘(7세기)



<도 16> 오리문양의 소그드 금직물
(8세기)

니아에서 출토된 직물은 대부분이 견직물이며 그 다음으로 모직물이 많다. 금직물도 있으며, 마직물은 미라가 생전에 그다지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일반인은 색채가 화려한 모직물과 면직물로 만든 의복과 융담(絨氈)을 일상생활에 사용하였다. 양모, 캐시미어, 낙타의 털이 모직물의 주요 원료이다. 융담은 서양의 주제인 인물, 짐승, 포도문의 계로

29) Kokyogdi Jumaev(2007), 99 *IKAT CHAPANS, NUANS AJANS LTD*, pp. 17~18.

만든 카펫이다. 카로슈티 문서에는 화전용담(和田絨毯)이라는 기록이 있어 중앙아시아에서 용담을 짚음을 알 수 있다.³⁰⁾

호탄(和田)의 로푸산푸란(洛浦山普拉) 묘에서 출토된 직물은 모직물이 대부분이며, 대칭적인 화훼 문양 등에서 서역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으며. 곶, 사슴, 산과 식물변형 문양에서 북방초원의 문화가 배어나고 있다.³¹⁾ 호탄에서는 모직물과 견직물, 면직물이 출토되었으며 비율은 85% : 10% : 5%로 주로 모직물이 대부분이다. 계(關)는 고급 모직물로 서호의 모직물이라고 하며 두꺼운 모직물 위에 위금(緯錦)을 붙여서 사용한 서양식 문양의 직물이다. 계의 주산지는 파르티아를 비롯한 중앙아시아 일원이지만 로마에서도 오색의 계가 생산되었다.³²⁾ 같은 시대의 중국에서는 기하 문양을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간략화 된 인물, 용, 봉황 무늬를 넣은 견직물이 많으므로 이 시기까지도 실�크로드 지역은 유목생활의 독특한 직물문화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동아시아의 영향보다는 오히려 서아시아의 영향권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잉판의 남자 미라는 인물문양이 대칭적인 붉은 색의 모직물 포와 자수가 아름다운 모직물 바지를 입고 있다.

중국의 비단은 기원 전 1세기경의 로마의 지리학자인 스트라본(Strabon)에 의해 ‘세레스(Seres)’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으며, 서양인이 처음으로 비단을 본 것은 기록상으로는 기원전 4세기의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 때였다.³³⁾ 그 후 비로소 비단이 누에로부터 얻어진다는 사실이 알려지지만, 헬레니즘 시대 이후에 전개되는 서아시아와 로마와의 정치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고대 중국의 견직물은 월지나 흉노의 매개에 의해, 기원 전 2세기부터 서방에 활발히 수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기원전 3세기 말 흉노는 매년 수많은 비단을 한으로부터 공납 받았다. 비단의 일부는 흉노사회에서 소화되고 나머지는 실�크로드를 따라 서방으로 전해졌다. 시리아의 팔미라에서 한대의 기(綺)·라(羅) 등 50점이 출토된 것은, 당시의 흉노가 비교적 용이하게 서아시아의 파르티아와 왕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견직물을 풀어서 그 지역의 모섬유와 섞어서 짠 호능(胡綾)이 출토되어 직물의 동서교류를 알 수 있다.³⁴⁾

30) 韓翔, 王炳華, 張臨華(編)(1988), 『尼雅考古資料』, pp. 208~245.

31) 朝日新聞社(1992), 『樓蘭王國と悠久の美女』, 日本國交正常化20周年記念展. pp. 70~79.

32) 무함마드 칸수(1992), 『新羅·西域交流史』, 檀國大學校出版部, pp. 255~256.

33) 夏鼐(1984), 『中國文明的起源』, 東京: 日本放送出版協會, p. 125; 長澤和俊·橫張和子(2001), 『シルクロード染織史』, 東京: 講談社, pp. 46~49.

34) 夏鼐(1963), 「新疆新發見的古代絲織品-綺, 錦和刺繡」, 『考古學報』, 1963-1; 長澤和俊·橫張和子(2001), op. cit., p. 50.

한대에 장건에 의해 실크로드가 열리고 나서 중국의 견직물은 이란과 로마까지 교역되었다. 같은 루트에 의해 중앙아시아의 문화가 중국에 소개되었으며, 위진남북조시대에 동서간의 접촉은 굉장히 증가되었다. 모직물과 견직물의 결합에 의해 직물은 다양해지고 특히 소그드와 페르시아 직물의 특징이 되었다. 이런 직물은 페르시아 금(jin)이라는 직물로 중국의 직물산업에 큰 영향을 주었다. 신장지역에서 출토되며 6세기로 기록되어 있다.³⁵⁾ 민풍과 누란지역은 이미 다량의 동한대 경금(經錦)이 출토되었으며, 경금에는 구름과 동물문양이 가장 유행하였다. 구름은 불멸의 것으로 천상의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구름과 함께 동물문도 유연한 곡선으로 표현되었고 문양의 사이에 내세의 염원을 기원하는 문자가 있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한대 경금의 조형적 특징이었다.³⁶⁾ 그러나 같은 동한 시대에도 모직물에서는 서역인물의 모습과 기마문, 사자문, 포도문 등의 서아시아의 요소가 강하게 남아있다. 즉 견직물에서는 동아시아의 조형이, 모직물에서는 서아시아의 조형이 혼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위진남북조에서 수대에 이르는 기간에는 견직물의 문양에도 확연히 중앙아시아적인 요소가 드러난다. 이들의 문양은 서역의 진귀한 낙타, 사자, 코끼리, 공작과 같은 서역의 독특한 동물과 수렵기사, 낙타를 끌고 가는 호상, 그리스의 태양신(Helios)의 문양도 등장한다.³⁷⁾ 금직물은 경금조직이지만 문양에서는 이미 당대 위금에서 나타날 경향이 앞서 보여진다.

당대는 실크로드를 통한 동서문화의 교류가 절정에 이르며, 670년경 망명한 사산조 페르시아의 공예가들에 의해 염직 또한 큰 영향을 받아 위사로 문양을 내는 기법이 채용되었으며, 독립된 문양이 직물 전체에 배치되고, 인동문이나 포도문이 유행하였다.

초당 시기의 직물은 위금 방식으로 변화한다. 연주문 안에 사자, 천마, 양, 사슴, 공작 등의 새나 동물을 한 마리 혹은 쌍으로 대립시킨 사산조 페르시아 문양이 널리 이용되었으며, 특히 수목을 중심으로 2~4마리의 대칭문양이 배열되는 서아시아 영향의 조형적 특징이 나타난다. 사산조 페르시아의 동물문양은 7세기 전반부터 8세기 후반까지 성행하였으며, 소그드에서 동물 연주문의 견직물이 화려했던 것은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초반이다. 연주문은 동로마제국에서도 많이 제작되어 연주문은 7~8세기 유라시아 대륙에 강하게 퍼져 있었다.³⁸⁾ 이 시기에는 기원전부터 중앙아시아에서 모직물에 즐겨 사용하던

35) Feng Zhao(1999), *TREASURES IN SILK* . Costume Squad Ltd. Hong Kong, p. 95.

36) 趙豐(1992), 『絲綢藝術史』, 杭州: 浙江美術學院出版社 pp. 115~123.

37) Ibid., p. 303.

38) 岡崎敬(1980), 『増補東西交渉の考古學』, 東京: 平凡社, pp. 7~8.

줄무늬를 응용한 금직물도 출토된다,

8세기로 추정되는 시무르그 문양의 카프탄과 소그드 금직물로 만든 변형모가 카프카즈의 Balka에서 출토되었다<도 17, 18>.39) Dorothy Shepherd는 8~9세기의 전형적인 소그드 직물 잔다나지로 생각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중앙아시아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사산조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왕의 문양이었던 시무르그가 소그드인에 의해 고급문양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도 19>는 아프리카시압 벽화에 그려진 시무르그 연주문이다.



<도 17> Balka 출토 카프탄(8세기), 저자촬영



<도 18> Balka 출토모자 (8세기), 저자촬영



<도 19> 시무르그 연주문 『古代サマルカンドの壁畫』, p. 55

중당에서 만당 시기의 위금은 두란(都蘭)이나 둔황에서 많이 출토되며 위사의 색상이 더욱 풍부해졌다. 조수문, 사자문이 대표적인 예이다. 사산조 페르시아의 은기에 묘사된 사자수렵도, 아스타나 출토의 수렵도, 일본 쇼쇼인(正倉院)에 소장된 사기사자수문금(四騎獅子狩文錦)에 이르기까지 문양의 동점(東漸)을 볼 수 있다. 다양하게 장식된 연주문 속에 리본을 입에 문 새, 사자, 매, 염소 등의 문양이 더욱 화려한 효과를 자아내고 있다.40) 동시에 서아시아의 영향에서 벗어나 좀 더 동아시아의 문화에 적합하게 변형된 위금도 출현한다. 연주문 대신에 당화문으로 들레를 장식하고, 그 중심에는 서역의 동물 대신에 보상화풍으로 구성된 화조문을 배치하여 동아시아적인 새로운 조형의지를 표현한 당화문금, 보상화문금, 화조문금도 신장지역에서 출토되었다.41)

실크로드는 직물의 교역뿐 아니라 새로운 직조기술을 만들어 낸 길이었다. 중국의 견

39) 五木寛之(1989), NHKエルミタージ ヌ美術館, 4 : 『スキタイとシルクロードの文化』, 日本放送出版協會, p. 90.

40) Ibid., p. 99.

41) 김용문·조효숙(2000), 「新疆의 고대 직물문화」, 『실크로드 3000년 전』, 온양민속박물관. p. 43.

직물 직조기술은 2~3세기경 서역남도의 여러 나라를 거쳐 3세기말에는 서북인도에 전해지고, 4~5세기경에는 페르시아로부터 시리아 지방에까지 전파되었으며, 6세기 중엽에는 비잔틴 제국에까지 전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8세기 위금기법은 세계화하고 경금기법은 사라져 버렸다.⁴²⁾ 8세기 소그드의 금직물은 단순화되고 추상화 된 동물문양을 생명감 넘치는 화려하고 선명하게 표현되었다. 소그드인에 의해 동쪽으로 전해진 동물문양과 위금직물은 동서문물 교류의 위대한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⁴³⁾

IV. 실크로드의 복식문화

실크로드 복식은 유목민족 복식으로 한국복식과 중앙아시아복식의 공통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카프탄양식으로 앞트임이다. 앞 중심선에서 일부분 혹은 전체가 트여져 있다. 다른 유형의 의복에도 트임이 있으나 주로 옆이나 뒤쪽이 트여 있다. 둘째는 재단법이 직선과 사선을 사용하며, 길과 소매가 직선으로 재단되어 팔과 동체의 일체감을 준다. 셋째는 쇄과 무가 달려있으므로 아랫단 쪽이 넓어서 기마에 편리하다. 넷째는 앞에서 띠나 끈, 단추 등으로 여며 입는다. 다섯째는 기후조건에 따라, 상류층의 옷이나 예복인 경우 몇 겹을 겹쳐 입는다. 속옷이 겉옷보다 더 길게 나오게 겹쳐 입는다. 타지크의 원피스는 속에 입는 소매가 길어서 자수를 한 소매부리가 조금씩 차이가 나서 소매의 색동이 나타나게 된다. 여섯째는 쓰개가 다양하며 장옷과 얼굴 가리개를 사용한다. 일곱째는 장신구가 다양하며, 색감이 강렬하고 다양하다. 여덟째는 깃, 소매끝, 도련에 두르는 선장식이 있다. 선을 두르는 목적은 털을 둘러 추위로부터 보호하며 주술적 의미도 있었을 것이며, 당시에는 직물이 귀하므로 옷의 가장자리 부분이 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보강적인 목적에서 점차 장식화되고 계급이나 신분의 상징적 역할도 하였을 것이다.

모자는 침정모나 원정모이며 펠트, 모피, 모직물로 만들었고 새의 깃털 장식이나 나무 핀을 꽂았다. 스키타이와 흉노의 침정모는 한(漢) 문화의 영향 이후에도 변화 없이 계속 된다. 여자의 헤어스타일은 여러 가닥의 변발로 가닥이 많을수록 높고 귀한 사람이다. 남자는 변발과 상투였으며, 북위시대 이후 단발이 전래되었다.

42) 横張和子(1976), 「シルクロードと染織文化」, 『服装文化』150, 東京: 文化出版局, p. 57.

43) 김용문(2007), 「소그드의 錦織物과 동물문양」, 『中央아시아研究』, 12, pp. 141~149.

상의는 여자의 경우 통수·관두형이고, 남자는 통수·전개형이며 기후조건에 따라 겹쳐 입는다. 의복은 길과 소매가 직선으로 재단되어 팔과 동체의 일체감을 준다. 알타이 지역에서 출토된 상의와 긴 포는 기원전부터 입체구성으로 추위에 적당한 밀착형으로 만들어졌다. 서양에서 입체적인 의복구성은 14세기경 시작되었지만 현대인이 입고 있는 양복은 알타이 지역에서 기원전부터 입기 시작하였다. 기원전 5세기~기원전 4세기의 카탄다 고분에서 현대의 양복이나 연미복과 같은 형태의 모피로 만든 의복이 원형 그대로 출토되었다.

남녀 모두 바지와 포를 입었고 펠트 버선과 가죽 장화를 신었다. 한대는 띠나 끈으로 여며 입었다. 쇠과 무가 달린 포는 아래 단 쪽으로 넓어져서 종모양을 이루어 말을 타기에 편리하며, 당을 대고 발목을 오므린 바지, 현대는 유목민족 복식의 특징이다. 침정모, 바지와 화는 중앙아시아에서 기원전 19세기 이전부터 착용되었다.

직물은 주로 모직물을 사용하였으며, 견직물, 면직물, 마직물 등이 있다. 기원전 2세기 이후에는 실�크로드를 통하여 중국의 견직물이 신장지구로 들어와 혼용되어 상류 계층에서는 포, 버선, 장갑 등에 견직물을 사용하였다. 문양에는 유목민의 특징인 양이나 동물문이 혼용되거나 서양의 인물상이 표현되어 서방과 중국의 영향이 혼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호탄지역의 복식에서 서방과 인도의 영향을 알 수 있으며, 중국에서 신장으로 보낸 금직물에는 문자를 직조해 넣었고 니야에서 많은 양의 문자금이 출토되었다.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경금기법의 견직물은 서역으로 전파된 후 서아시아의 모직물의 제직법인 위금기법으로 변하여 회귀한 것은 실�크로드를 통한 동서문물 교류의 위대한 소산이다.

실�크로드의 호복은 소매가 좁고 허리에 대를 두르며 바지를 입는 활동에 편리한 의복이다. 기원전 307년에 조무령왕이 받아들인 호복은 흉노를 비롯한 북방유목민족의 복식으로 당대이전의 호복은 선비계 호복으로 풍모, 바지, 현대, 좌임, 화가 대표적이며, 당대의 호복은 서역계 호복으로 침정모, 단령 또는 번령착수포, 반비, 화, 접섭대와 주머니가 대표적인 복식이다. 서아시아의 영향은 남성의 단발, 솔, 동물문양 및 서양 인물의 위금에 나타나며, 당대의 복식은 서역계 호복과 복두의 착용, 긴 포, 우임 등 중국복식과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국제화된 복식이라고 할 수 있다.


삼국시대부터 외교를 목적으로 한 중앙아시아 및 중국과의 인적교류로 각지의 벽화에 그려진 사신의 복식이 남아 있으며, 경주 괘릉과 구정동의 무인상의 복식에서 실�크로드를 통한 소그드의 영향 및 복식문화 교류를 확인할 수 있다.



제3부

유라시아 실크로드 지역의
정치 경제





| 제3부 | 발표 01

다층의 통일- 시진핑 시대의 실크로드 외교전략



발표요약

다층의 통일

-시진핑 시대의 실크로드 외교전략

李隽昶*

1. 지도층 설계와 민중기초의 통일

우선 실크로드의 외교전략은 시진핑 주석이 개인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한 중국의 국가 전략이다. 이는 중국에서 우수한 수준의 전략설계로 인증 받았다. 시진핑 주석의 등장 후 실크로드 외교 전략은 더욱더 깊은 주목을 받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된 국가를 방문하여 이러한 전략설계를 각 국가별 지도층에게 알림으로서 오히려 실크로드 외교 전략이 지도층부터 추진해야 된다는 설계의도를 명확히 표출하였다.

둘째, 시진핑주석이 제시한 실크로드 외교전략은 2개 주요 부분 丝绸之路经济带的 건설과 “21世纪海上丝绸之路” 건설로 나뉘져 중국현지에서 민중기초와 분위기를 영조하고 있다. 실크로드 지역에서 생활한 주민들은 이민 등 중국 인민과 서로 간의 접촉을 통해 고대부터 빈번한 민간 교류와 왕래가 형성되었다. 이를 통해 상호 간의 우호 관계와 협조에 진일보 발전하는 등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실크로드 발전의 원동력을 살펴보면 시진핑 주석의 실크로드 외교 전략은 중국 지도자의 지도층 설계, 대중기반을 통일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법학 박사, 中國外交學院 助理研究員

2. 자국 발전과 세계발전의 통일

우선, 실크로드 외교 전략은 중국 국내와 국제 2개 국면을 위해 설정된 것이다. 이는 중국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며, 이 외 경제 건설을 위한 양호한 외부적 환경을 영조하는 역할 담당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광범위한 기회를 가져온 것도 실크로드 외교 전략의 한 중요 목적이다. 말하자면 실크로드 전략은 중국 자체 발전을 힘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시진핑 주석의 실크로드 외교 전략은 실크로드와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향한 것이다. 전략적으로 더 나아가 세계경제의 발전에 활력과 기회를 함께 주입하였다. 실크로드 외교 전략의 돌출 특징은 전략의 목적이 참여하는 모든 지역의 국가 공동 발전으로 삼은 것이다. 따라서 시진핑주석의 실크로드 외교 전략은 중국 자국의 발전, 주변 국가의 발전, 세계발전을 위한 설계로 볼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의 실크로드 전략은 중국 자국발전의 노력이 세계발전에 협조와의 통일을 구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통일

우선, 실크로드 외교전략 務實과 협작을 주목하여 다자 이익의 汇合点进行 추구하고, 협작과 공영을 추진하고자한 것이다.

또한, 실크로드 외교전략의 구체적 실시와 조치과정에 다양한 기초시설 건설작업이 포함되며, 이는 현지 사회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현지의 인민생활과 경제발전의 근본적 조치와 부합한다.

결어. 다른 ‘마셜 플랜’이 아니다.

우선, 실크로드 외교 전략의 종지는 중국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 것이며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다.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어느나라 어느지역에서 과거의 통치 질서의 회복과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국제질서를 추진하는 것도 당연히 아니다.

또한 실크로드 외교 전략은 전체 지역의 협조와 공동발전을 위해 설정한 것이며, 중국을 중심으로 발전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 현실의 협조와 구체적 조치들이 중

국 한나라를 위해 설정한 것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실크로드 외교 전략은 국제협조, 국제경제의 신질서에 대해 유익한 모색과 새로운 창의이다. 이는 서로간의 혜택과 평등, 합작과 공영, 공동의 발전을 토대하여 각 측은 협력을 강화하여, 모두가 이익을 얻는 방도를 찾고 있다. 지역과 세계 상호의 적극적 발전과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시도해보는 것이다.

**Multi-Unity:
President Xi's Silk Road Diplomacy**

(draft version)

to be presented at Eurasian Civilization and Silk Roads Conference

Dongguk University

December 10, 2014

Junyang LI

Ph.D., Research Associate at China Foreign Affairs University

I. Combination of Top-Level Policy Design and Grass-Root Foundation

First, the Silk Road Diplomacy was proposed by President XI Jinping himself when he visited Kazakhstan¹, China's neighbor located on the ancient Silk Road. Thus, this diplomatic strategy is in itself a design from top level. What's more, President Xi pays much attention to this diplomatic strategy, as we can observe in quite a few visits to related countries. In those visits to the related countries, he drew a clear blueprint for the development of this strategy.

Second, the diplomatic strategy of "Silk Roads", including the construction of the "Silk Road Economic Belt" and the construction of the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is benefited from a profound popular base. The peoples living in related regions and the people of China share a long history of communication, social interaction, trade, as well as people-to-people changes. If stronger ties of economic connection, political trust, and social interaction shall be made, the history provides future development with enough foundation.

To sum up, as far as motives and locomotives are concerned, the diplomatic strategy of Silk Road is a combination of top-level policy design and a popular foundation.

¹ "习近平在纳扎尔巴耶夫大学的演讲（全文）", 新华网, http://news.xinhuanet.com/world/2013-09/08/c_117273079.htm, visited December 8, 2014.

II. an Effort

to Integrate China's Development to World's Development

First, the diplomatic strategy of Silk Road is conceived given full consideration of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situations. This strategy is designed to promote economic construction in China, to maintain a peaceful and stable environment for economic construction in China, and to provide economic construction in China with bountiful overseas opportunities. Of course there is an objective for China behind this strategy. However, that does not mean that this strategy is exclusively for China.

Second, the diplomatic strategy of Silk Road is also designed to meet the needs that proposed by local development in all related regions and to provide economic development in the world with bountiful opportunities. A notable characteristic of this strategy is the joint-development-oriented nature of it. Another notable characteristic of this strategy is the openness in all its efforts.

To sum up, the diplomatic strategy of Silk Road is designed as much for China as for the world at large. Given that China and the world are closely linked in terms of economic situations, this characteristic is easy to understand.

III. Unit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Well-Being

First, the diplomatic strategy of Silk Road focused on practical cooperation by coordinating and absorbing different resorts to interest and promotion of win-win practice. Last November, the Chinese government has declared that a fund for Silk Road Diplomacy named the Silk Road Fund will be set up². Interestingly this fund is open to all and it serves all.

Second, in the detailed design for the diplomatic strategy of Silk Road there are numerous efforts to improve the well-being of local people, including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and so on. In the meantime, due to its openness the Silk Road Diplomacy and other diplomatic efforts are compatible with each other, probably including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These efforts are not only economically stimulating but also socially beneficiary. In the meantime, these efforts integrant in this strategy and other compatible strategies alike will benefit local peopl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related regions, not exclusively China.

Concluding Remarks:

Not another version of "Marshall Plan"


² "中国将出资400亿美元成立丝路基金", 新华网, http://news.xinhuanet.com/world/2014-11/08/c_1113170681.htm, visited December 8, 2014.

First, the diplomatic strategy of Silk Road aims at sustainable and creative development in China and related region. This strategy is not politically-motivated. The Marshal Plan was more a political design as well as an effort to restore the order that favored by the conceiver in a certain region after a disastrous war. The distinction is more than obvious. A war-wrecked Europe in 1945 awaited renaissance with potential exterior help, which means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in the Marshal Plan back in 1945 is something like an “Empire by invitation”, if one can justly say so. Without a disastrous war and the misery of its aftermath there is no space for such “empire by invitation”. Given knowledge on international situation by now, China cannot dream of any imperialist influence.

Second, the diplomatic strategy of Silk Road aims to promote coordinated and joint development of the whole region and the world. It is not designed to benefit China on its own. All integrant efforts are not made exclusively for China. Given analysis on the impossibility of any imperialist efforts in the above paragraph, China cannot have conceived a blueprint of any imperialist efforts. By contrast, the diplomatic strategy of Silk Road aims at a development at larger scale and a necessary prospect of sharing this development.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China is not able to exert an exclusive influence over the regions that Silk Road Diplomacy would cover. Thus looking for a joint development is much wiser than boldly exerting any exclusive influence.

Last, but not least, the diplomatic strategy of Silk Road is a creative effort to build positive interactions and prosperous development on the basis of equality and cooperation of different countries. This strategy benefits from historical wisdom and the Chinese-characterized diplomatic theory, by which I imply the Five Principles of Co-Existence. To control and to benefit by a political hierarchy in international system is way too out-dated and way too over given China's limited capacity by now. By contrast, diplomatic practices based on diplomatic theories like the Five Principles of Peaceful Co-Existence suggest gaining through joint development, not political hierarchy.

Given that the world is somewhat balanced and based on equal rights and sovereignty of states, as well as China's limited capacity in such a world, there is no space for China to act like the United States in the aftermath of World War II and China cannot be that unwise to have had conceived anything like the Marshall Plan.



| 제3부 | 발표 02

유라시아 · 실크로드 지역의 변화 한국의 외교



유라시아·실�크로드 지역의 변화

한국의 외교

-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

이종국*

들어가는 글

냉전종식과 함께 유라시아·실�크로드 지역은 새로운 공간으로 등장하였다. 그동안 유라시아 지역은 사회주의 진영에 속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지의 땅이었다. 소비에트의 영향력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전개할 곳은 아니었다.

다시 말해 냉전기 이 지역은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위치하면서 소련의 영향권에 속한 좁은 의미의 유라시아 지역이었다. 이곳은 안전보장분야에서 구소련의 전략핵무기와 관계있는 지역이었다. 그러므로 유라시아는 소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냉전 종식이후 이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해주는 지역으로서의 유라시아로 그 의미가 넓어졌다. 그 결과 한국은 소련의 붕괴후 유라시아 지역의 변화에 새로운 대응을 하기에 이르렀다. 즉 옛 실�크로드 지역과의 교류가 다시 시작되었고, 이 지역에 한국이 지원하는 등 한국도 유라시아 지역과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유라시아 지역은 변화하는¹⁾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중양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세 가지 정도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한국의 발전모델을 그곳에 조언하여 중양아시아 지역이 새롭게 발전하도록 하고,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계기를 만들어 한국과 중양아시아 지역이 협력프로그램

* 동북아역사재단(NAHF) 연구위원

1) 켄트 칼더 『신대륙주의』 (아산정책연구원, 2013), 137쪽

램을 활성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유라시아 지역에 많은 고려인이 생활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어느 국가보다 인적교류를 강화하면서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지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좋은 조건에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오래전부터 중앙아시아 지역과 실크로드 문화를 교류하였고 그리고 불교를 통하여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고 교역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야말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문명의 교류의 역사를 한국이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한국이 유라시아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산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유라시아의 변화에 우리의 대응은 어떠한가? 라는 문제제기로부터 시작하였다. 그동안 일본이 적극적으로 유라시아 실크로드 외교를 전개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몽골에 회의 차 갔을 때 터키와 유라시아 지역의 대학연구소들이 2014년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현재 어떠한 상황인가라는 의문점을 가지면서, 현재 한반도와 유라시아 지역의 관계를 이해하고 싶었다. 그러므로 필자는 유라시아 지역의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유라시아 대륙에 속한 한반도와 좁은 의미의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과의 지정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우리는 어떠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정책을 전개하여야 하는지 고민하는 기회로 삼기로 하였다.

최근 유라시아 변화에 대한 연구들로는 이번 발표에서 전적으로 의존하는 겐트 칼더의 『신대륙주의』가 대표적이다. 칼더 선생의 책을 받고 유라시아의 변화의 현상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시타 아키히로의 『유라시아 국제질서의 재편』이라는 공동연구는 냉전기 유라시아의 모습을 이해하면서 새롭게 ‘확대되고 변화된’ 유라시아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국내에서는 많은 중앙아시아 관련 연구소들과 관련 연구자들이 많은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모두 유라시아 지역이 냉전기와는 달리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왜 유라시아·실크로드 외교인가?

냉전 종식 이후 유라시아 실크로드 지역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히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 유라시아 지역은 철의 장막과도 같은 곳이었고, 그곳은 발전하는 서방세계를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고립된 지역이었다. 이러한 지역이 구 소련공화국의 붕괴로 새로운 공간으로 발전하면서 점진적인 통합이 시작되었다. 유라시아 지역은 새로운 에너

지 자원을 공급하는 공급지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기술력과 자본이 필요로 하면서 동시에 정치체제면에서는 불안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발전하는 유라시아 지역은 우리에게 중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한국의 박근혜정부도 정권초기부터 새로운 구상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고, 이 구상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추진하고 있는 구상들과 의미를 같이하면서 동북아와 유라시아의 협력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중국, 러시아, 일본 모두 유라시아 지역을 통하여 자국의 에너지 안전을 중심으로 상호의존 관계를 높여가겠다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통합되어 가는 유라시아의 움직임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한반도에 있어서 유라시아 지역은 옛 부터 전해져 온 유라시아 실크로드의 문화교류를 시작으로 물질문명의 회랑으로 재인식되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경제지리적인 영향을 새롭게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 냉전기 바다를 통해서만 공급받던 에너지 공급을 육로를 통해서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올 수도 있으며, 이것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하나의 동북아와 유라시아 지역의 재구성을 가져오게 하여 지역간 상호의존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의 복잡한 시너지 효과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긴장완화의 역할이 여기서부터 올지도 모른다는 거친 가설을 이 번 기회에 새롭게 제기하고자 한다. 즉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발전하고 상호의존관계가 강화된다면 이것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유라시아 지역은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경제적 효과를 주는 지역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곳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 다시 말해 한국이 에너지 확보와 지역안정을 위한 평화와 협력을 이룩하려면 기술력과 자본을 통해 유라시아 지역에 개발협력 사업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라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위치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지역으로 유라시아 지역의 필요성과 우리의 절실함이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유라시아 외교의 중심은 자원외교와 국제협력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2. 유라시아 지역의 변화와 영향

냉전기 유라시아는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위치하였으나 많은 제약 속에서 우리와 관계 정상화가 되지 못하였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냉전종식으로 이 지역이 지정학적으로 확대

되고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졌으며, 그곳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매장하고 있는 지역의 중심으로 우리의 기업들과 관계를 강화해 가고 있다. 유라시아 지역국가들은 긴장이 완화되어 경제발전을 통하여 국가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 당면한 문제이다. 이들 국가들은 다각적인 외교를 전개하면서 주변 강대국들과 균형있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북아 국가들과도 관계를 정상화하고자 한다. 또한 유라시아 국가들은 주변국인 중국과 인도가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자 유라시아의 에너지 지정학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잠재력은,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의 경우 유전과 우라늄 부분에서 세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유전지역으로 알려진 카샤간 유전은 세계적인 규모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라늄 역시 세계적인 매장량을 가지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유라시아의 이러한 잠재력은 유라시아 국가들의 지형을 변화시킬 것이며 주변 국가들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먼저, 중국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성장을 거듭하는 중국에게 에너지 확보는 절대적이므로 중국은 신장과 티베트 지역을 유라시아 지역의 에너지를 연결하는 지역으로 정하고 서부개발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국내적으로 중앙과 지방이라는 차원에서 안정과 통합이라는 새로운 관계설정을 하기에 이르렀고, 신장지역은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지금 중국은 유라시아 지역통합을 촉진시키는 차원에서 국가발전전략을 전개하고 있으며, 최근 뉴실크로드 지역의 발달로 중국역시 국가의 정책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유라시아 지역과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상하이와 신장지역을 연결하는 동서 파이프라인, 사막 석유고속도로 건설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²⁾. 이러한 사업이 잘 진행되면 중국은 고대 실크로드의 이웃국가들과 교류를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유라시아의 변화는 부존자원이 없는 한국에게도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에게 있어서 에너지는 안보자원과도 같은 것이다. 자원이 없으면 수출산업이 존재할 수 없고, 국가경영도 어렵다. 그러므로 유라시아 지역의 천연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국제경쟁력 분야에서 앞서가는 분야를 중심으로 유라시아에 진출하여 수출을 강화하고 서비스 산업도 발전시켜 유대의 강화를 이룰 수 있다. 그

2) 칼더 332~333쪽

리고 한국의 선도기업의 기술력은 높은 수준에 있으므로 유라시아 지역의 인프라 건설이나 기술개발협력에 적극적으로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의 의료시설이나 농업 분야는 기초설비와 고도의 기술력을 제공하면서 유라시아 지역국가들이 안정적으로 국가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분단국가 한국이 유라시아 국가들에게 개발 전략을 전해주면서 권위주의적인 국가체제가 안정적으로 민주화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라시아와 한반도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한다면 남북한의 긴장완화에 영향을 미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유라시아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과 인도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가운데 한국이 촉매작용을 하여, 한국의 지도력,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통하여 지원하는 역할 할 수 있다.

인도, 중국과 유라시아 지역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대륙주의 관계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인프라를 건설하면서 통합의 방향으로 가면, 유라시아 지역과 중동 그리고 러시아의 관계는 정치경제적인 관계를 강화하게³⁾ 될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한국과의 관계는 중요 할 것이고, 특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경우 에너지 관계를 통하여 남북한을 조정하면서 한반도에서 역할을 모색하는 계기도 될 수도 있다.

3. 한국의 유라시아 외교

(1) 유라시아로 접근과 전략

냉전기 때 유라시아 지역은 한국외교에 있어서 사활적인 이익이 걸려 있는 곳은 아니었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은 러시아, 중국, 인도의 영향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으며 인구로 보면 40억 명이 살아가는 지역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에게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점점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한국은 유라시아와 의 관계를 강화하기위하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⁴⁾라는 구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 구상은 유라시아 지역과 한반도를 하나로 묶어 유라시아 대륙을 평화와 안정의 벨트로 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계획을 보면 그 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를 연결하여 물류 네트워크를 확보하자는 것이다⁵⁾. 이러한 목

3) 칼더, 350쪽

4)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어 가는 구상이다(외교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5)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807138&code=11121400&cp\(2014,10,07\)](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807138&code=11121400&cp(2014,10,07))

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절실하다.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가 진행하고 있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이 간접적으로 참가하여 석탄을 공급받기 시작하였다. 향후 이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진행된다면 북한의 나진항을 통하여 물류네트워크를 전개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겨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을 위한 협력에 합의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⁶⁾ 두만강 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새로운 단계로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향후 경제협력개발 기구로 발전하게 되면 두만강하류지역은 물류, 에너지, 관광분야의 발전이 기대되고 다국간 경제협력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정부의 GTI 구상은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이 진전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은 동북아에 평화와 안정을 가지고 올 것이며, 한반도에서도 평화 정착을 앞당길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설에 따라 우리의 역할을 변화시켜 나가는 정책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경제는 긴장을 협력관계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가설이다. 일반적으로 경제교류와 인적교류가 활발해지면 고전적인 형태의 갈등은 약화되고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이다. 우리는 부족한 에너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유라시아 지역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으므로 자원부국인 그곳의 국가들과 다양한 자원외교를 전개하여야 한다⁷⁾. 이러한 것은 분단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둘째로, 긴장관계에 있더라도 상호보완 관계가 유지된다면 정치·경제관계가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라시아 지역의 에너지와 우리의 발전된 금융과 기술력 그리고 외교노력은 서로 상호보완 관계를 이루어 서로의 국가 간의 관계를 강화시켜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⁸⁾. 마지막으로, 우리의 적극적인 정책은 유라시아 지역의

6) 그동안 두만강개발 프로젝트는 참여국들 간의 의견 차이와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북한의 계속되는 경제적 곤란과 미온적 태도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2016년부터 공식적으로 국제기구로 전환된다면 새로운 계기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7) 켄트 칼더, 위의 책, 381쪽

8) 위의 책, 385쪽, 386쪽~387쪽, 한국의 역할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기술력과 자본 그리고 소비재 부분에서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에게 공헌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절실하며, 그곳과 지정

정치, 경제적 안정화를 가져와 한국과 유라시아 지역에서 윈·윈하는 결과를 가지고와 한반도 안정과 통일문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과거 유라시아 지역은 냉전기 정치적 제약 속에서 발전과 거리가 먼 곳으로 정치적인 사건으로 불안정한 곳이었다. 그러나 냉전 종식 후 유라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의미가 변화함에 따라 세계정치경제의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하였고, 중국과 인도의 발전으로 에너지가 소비되면서 에너지 공급지역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기술, 금융 분야에서 상호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유라시아 지역과의 변화를 가져와 서로 상호의존성이 강화되고 정치, 경제 구조에 안정화를 가져오고 있다.

현재 정부는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으면서 북한의 개혁개발을 유도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의미는 변화하는 유라시아 지역을 잘 이해하는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다.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의 끝부분에 위치하면서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수출전략이 아니면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어렵다.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하신 “물류, 에너지, 인적교류를 비롯한 대부분의 협력과제들은 남북관계의 안정 없이는 풀어나가기 어려운 과제”⁹⁾라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다. 바로 우리는 변화하는 유라시아 지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가 그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의 추진전략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 유라시아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유라시아 단일시장 구축이라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유라시아 지역과 중국이 통합하는 현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¹⁰⁾에 한국이 유라시아 외교를 전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유라시아 지역국가들과 중국, 인도의 협력 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2) 우리의 대유라시아 외교 현황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¹¹⁾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 등을 통하여 우리는 신뢰구축과 새로운 질서 창출을 위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개념을 제시하였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의제별 협력사업들¹²⁾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아태

학적 관계 강화가 필요하다.

9) 2013년 10월 박근혜 대통령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콘퍼런스’ 기조연설

10) 켄트 칼더 『신대륙주의』 (아산정책연구원, 2013), 31쪽

11) http://www.mofa.go.kr/information/government/government2/index.jsp?menu=m_60_60_10&tabmenu=t_2(검색일: 2014.12.01)

에너지 서밋(Pacific Energy Summit, PES), 미중일러 현지 설명회, 아산·SIPRI 동북아 협력구상, 한·EU관계, 동북아 협력포럼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한·중아시아 관련¹³⁾하여 협력포럼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한중아시아 정상외교¹⁴⁾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연구용역 차원에서 한·중아시아 협력포럼¹⁵⁾이 진행되고 있고, 두 지역의 협력포럼을 활용한 다차차원의 유망 협력사업 발전 방안 등이 검토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역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중아시아 카라반 행사를 개최하여 섬유분야의 협력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최근 한·중아시아 관계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더욱 발전하고 있다. 먼저 한·키르기스 정상회담을 통하여 경제통상, 에너지자원, 농업협력,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우리와 이 지역 간의 실질적인 협력강화방안을 모색하는 등 큰 틀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지역간의 협력강화를 논의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협력확대 및 협력 강화 외교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¹⁶⁾.

양국은 1992년 이후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기본가치를 공유하면서 협력강화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상회담을 통하여 우리는 유라시아와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싶은 의지를 전달하고, 키르기스는 유라시아 지역과의 협력 강화에 동의하면서 양국 간의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양국 간의 관계 강화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협력 강화 방안이 실천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면 영농센터 개소, 아시아 농식품 협의체(AFACI) 가입, 키르기스내 한국형 종합병원 건립추진, 자원개발 협력, 개발원조 관련 협력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과 한국과의 관계에서 협력을 강화하여 상호보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¹⁷⁾.

그리고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을 통하여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G20 정상

12) 주요사업으로는 「동북아 가스트레이딩 허브 심포지엄」, 아시아 가스 가격 저감을 위한 동북아 5개국 협의 개최, 동북아지역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 협력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회의 개최, 동북아 오일허브 심포지엄 개최, 국제마약회의(IDEC) 계기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간담회 개최 등이다.

13) 위의 자료

14) 한·카자흐 정상회담 개최(13.9.6.), 우즈베크·카자흐·투르크 정상 국민 방문 등이 진행되었다.

15) 섬유·산림·철도분야 협력 그리고 보건·농업·산림·환경분야 등 신규 협력 분야에 대한 구체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포럼을 개최하였다.

16) 외교부, 『2014년 외교청서』 (외교부, 2014년), 103쪽

17) 외교부 『2014년 외교청서』 (외교부, 2014년), 102쪽

회의 참석 차 러시아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9월 6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라시아 협력 확대’ 추진에 있어 ‘상생과 협력의 대중양아시아 외교’ 강화 의지를 표명하고, 양국 정상은 양국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한·카자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 가자는데 뜻을 같이하면서, 양국관계 발전방향 및 실질협력 증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국 정상은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및 아티라우 석유화학단지 건설, 잠빌 해상광구 석유탐사 등 대규모 경협프로젝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고, 광물자원 개발이나 신재생 에너지 분야 협력도 확대하기 위해 양국 간 경협사무국을 설립하여 경협을 촉진하기로 하였다¹⁸⁾. 이밖에도 양국 정상은 2017 아스타나 EXPO 계기로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 및 산림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한시적 근로협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하여 양국 기업인들의 경제협력확대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3년 12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아흐메토프 총리를 접견하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어서 현오석 부총리는 세릭 아흐메토프(Serik Akhmetov) 총리와 유라시아 협력확대 정책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로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2017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리는 엑스포를 계기로 기업들 간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고, 그밖에도 많은 경협 프로젝트는 물론, 전력, 광물,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¹⁹⁾.

다음으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 강화는 루스탐 아지모프(Rustam Azimov) 우즈베키스탄 부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인프라 현대화 사업에 참가한 한국기업의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양측은 IT, 교육 분야의 협력확대를 희망하였으며, 태양광발전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3) 우리의 지역협력외교 강화

우리나라는 중앙아 지역과의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기반 마련을 통해 상생과 협력의

18) 외교부 『2014년 외교청서』 (외교부, 2014년), 104쪽

19) 외교부 『2014년 외교청서』 (외교부, 2014년), 105쪽

한·중양아시아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한·중양아 협력포럼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중양아시아 5개국과의 경제, 문화, 기술 분야 등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2007년부터 외교차관급 ‘한·중양아 협력포럼’을 창설하고, 중양아 국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하고 지역협력외교를 전개하고 있다²⁰⁾.

그리고 한·중양아시아 간 다자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3년에는 신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중양아 5개국과 함께 제7차 한·중양아시아 협력포럼을 키르기스 비슈켄에서 개최하고, 한·중양아 간 다자협력사업 발굴 및 중장기 협력방향을 모색하고, 섬유, 철도, 산림분야 협력 사업들 추진에 대해 협의하였다. 특히, 한·중양아 산림협력 MOU를 체결하여 포럼 창설이후 최초로 중양아 5개국이 모두 합의한 다자협력사업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우리는 동 포럼을 개최하면서 중양아 5개국 외교차관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중양아 5개국 대사들과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포럼을 통해 양자 및 다자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우리 신정부 유라시아 협력 확대 및 상생과 협력의 대중양아시아 외교를 실현했다.

(4) 에너지외교 인프라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외교부의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GECC: Global Energy Cooperation Center)는 에너지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하였다. GECC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수집한 에너지 자원 정보를 ‘일일/특집 국제에너지자원동향’, ‘국제 에너지 자원 입찰정보’로 작성하여 국내 주요 에너지기업 및 유관 기관, 협회 등 에너지 분야 실무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국내 중소·중견 에너지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직접 면담 및 유무선 상담을 통해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과 외국 에너지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인적 교류를 지원하였다²¹⁾.

그리고 2013년에는 에너지 프로젝트 중점관리 공관과 에너지 보좌관 등 재외공관의 에너지외교 인프라를 활용하여 에너지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였다. 주요 자원 부국 및 신흥 에너지 시장에 위치한 50개 에너지 프로젝트 중점관리 공관은 주재국과의 에너지·자원 행사 공동 개최, 현지 에너지자원 동향 정보 수집,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양국 간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20) 외교부 『2014년 외교청서』 (외교부, 2014년), 107쪽

21) 외교부 『2014년 외교청서』 (외교부, 2014년), 108쪽


또한, ‘중장기 에너지협력외교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자문회의’, ‘동북아 에너지 그리드구축 관련 정책협의회’, ‘비전통 에너지자원개발동향 정책협의회’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학계, 에너지 업계가 참여하는 다양한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민·관 협력 체제를 강화하였다²²⁾.

맺으면서

어떻게 하면 유라시아 국가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을까? 유라시아 지역국가들과 어떻게 서로 윈·윈하는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까의 문제이다. 유라시아 국가들도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경제발전을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에 안정화하는데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유라시아와 한반도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상과 같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만약 유라시아+한반도 틀이 어려울 경우 이것을 보완하는 차원의 틀도 필요하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한국, 중국이 함께하는 포럼도 필요하다. 한국의 통일문제와 지속적인 경제발전은 에너지 문제 확보문제 뿐만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입장에서 유라시아 지역의 발전프로그램에 공헌하는 일이다.

우리의 유라시아 실�크로드 외교는 우리에게 새로운 공간에서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정치안보적인 차원에서, 옛 실�크로드라는 역사·문화적 차원에서, 경제적인 투자라는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22) 외교부 『2014년 외교청서』 (외교부, 2014년), 제4장 경제협력 역량강화, 183-184쪽



| 제3부 | 발표 03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국제질서에서 몽골과 한국의 관계



발표요약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국제질서에서 몽골과 한국의 관계

마트투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관계, 그 중에서도 특히 중앙(내륙) 아시아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경향의 하나는 실크로드(비단길)를 둘러싼 공동 협력 사업이 확대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몽골국은 역사, 지리적 위치, 종교 문화, 대외 교류 관계 등 여러 분야에서 실크로드 지역 구성원 중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몽골의 중요성은 실크로드의 길목에 위치하는 것과, 남북 양국과 공히 공평한 대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몽골과 한국 관계를 연구하는 방향, 관점, 이해 등에서 일부 부족한 면이 보인다. 그 뿐만 아니라 몽골은 어디까지나 민주적인 정치체제와 평화를 지향하며 경제적인 면에서도 발전을 계속하면서 해당 지역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고 있지만, 동북아시아 여러 나라 중에서 인구가 가장 적으며, 사회적 기반도 가장 취약하며, 경제적으로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고, 약소국(small state, small power)이며, 취약국(weak state)에 속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도 발전해 있으며, 중소국(middle power)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나라는 추후에 어떻게 협력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양국 사이에 어떤 기회와 시도가 놓여 있는가? 해당 지역에 위치한 강대국들은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J. Battur, 몽골국립대 교수

1. 한국과 몽골의 관계 연구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필요가 있다.

A. 민족 기원에 관한 견해 : 오늘날까지 한국과 몽골의 연구자들은 양국의 관계를 단선적으로, 또는 평면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해 오고 있다.

예) 한국과 몽골 민족은 기원이 같은 민족이다.

한국과 몽골은 형제국가이다. 등등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예) 한국과 몽골의 경제 협력은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한국과 몽골은 국가 통합할 가능성이 있다. 등등

이와 같은 예를 살펴보면 양국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와 곤란한 점 등을 설명하고자 할 때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언급한 경향과 견해 중 일부는 근거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연구한다면, 흥미로운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부는 처음 들을 때는 아주 손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양국 간에 외교관계를 맺은 1990년대 이후 양국의 연구자들의 주된 시각과 근거들은 지금도 더욱 확대되고 있는 양국 관계를 어떻게 더 긴밀하고 공고하게 할 것인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또한 어떤 어려움이 놓여 있는가? 등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연구를 더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양국의 역사학과 민족학, 종교 문화, 언어학, 문명 연구 등 방면에서는 훌륭한 연구 성과가 적지 않게 출간되었다는 사실도 여기서 밝혀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양국 관계에서 보다 정밀한 이론이 발전하지 못하고, 더 많은 기회를 놓치고, 보다 폭 넓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 한국의 자본 투자를 유입할 수 있는 경제력과, 유치 조건, 시장 경제 등이 몽골에는 부족하다.

둘째, 몽골은 약소국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적다는 점이다. 국제 관계에 해당 지역의 수준에서 몽골의 지원이 미약할 수밖에 없다.

셋째, 오늘날 몽골과 더욱 긴밀하게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서 한국은 비교적 늦게 외교 관계를 맺었다.

넷째, 오늘날까지 눈에 띄는 커다란 자본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 없다.

B. 근본적인 이론 연구가 부족하다.

양국의 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고, 심화 발전시키는 방향에 대한 이론과 근거 연구와 보다 치밀한 연구 경향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제 관계에서 최근에 종속 이론(Dependency Theory), 복잡 이론(Complexity Theory), 영향력 분해 이론 등 다양한 이론이 발표되어 성공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우리들은 그러한 이론의 근거도 연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약소국에 대한, 약소국의 대외 관계 정책의 결정 과정, 성격, 약소국과 중소국의 교류 관계 등 이론의 근거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단순한 형식으로만 연구해왔던 이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필요가 있다.

2.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일본으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
4. 한반도의 양국 통일에 참고할 “몽골 모형”
 - A. 정치 체제의 변환을 경험했다.
 - B. 경제 체제의 변화를 경험했다.
 - C. 안전보장을 확립한 경험.
 - D. 사회 조화(통합)를 이룩한 경험.
5. 몽골의 의견 개진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몽골국 정부가 동북아시아, 그 중에서 한반도의 통일에 관한 구상으로 분명히 밝힌 것은 “울란바타르 대화(Ulaanbaatar Dialogue)”라는 제안이다. 동북아시아의 상호 이해와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역적 분쟁의 역사적 상처가 악화되고, 각 나라 사이의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예로는, 최근에 격화되는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

(territorial dispute), 항공 방위 문제(Air defence identification problem), 한반도의 군비 증강, 2013년 3월에 실시한 합동군사훈련 등을 들 수 있다.

- “울란바타르 대화”을 성사시킬 방법과 형태
- 회담의 주제
- 회담의 원칙

상호 신뢰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장기간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헬싱키 진행 과정”이 보여준다. 따라서 몽골국은 “울란바타르 대화”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천천히 그러나 굳건하게 전진할 것”이라는 원칙을 기준으로 삼아 진행하고 있다.

효 과

몽골국 엘벡도르지(Ц. Элбэгдож) 대통령이 2013년 4월에 ‘제 7차 민주주의 국가 협의체 장관 회담’에서 “동북아시아 안전보장에 관한 울란바타르 대화” 제안을 2013년 4월에 개진한 이후 1년여가 지났다. 그 동안에 몽골국 외교부에서는 “울란바타르 대화” 제안에 관한 각서를 발행하여, 2014년 6월에 연구자와 관계자가 참석한 학술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결 론

유라시아의 협력 관계에서 한국과 몽골의 협력 사업은 양국만의 독특한 형태와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몽골의 경제 협력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당면한 과제이다. 최소한 양국 사이에 ‘자유 무역 협정’을 시급히 체결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몽골의 협력 관계에 있어 반드시 유념해야 할 한 가지 요인은 중국의 영향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이 실행하고 있는 “신 비단길 공정”과 같은 형태의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경제 프로젝트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몽골도 또한 (한국과 몽골) 양국 사이에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경제 협력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유연한 자세로 대하여 협력 사업에 참여시키는 것 또한 우리 두 나라가 해야 할 일이다. 아울러 몽골과 일본이 ‘적극적 협력과 상호 신뢰에 기반한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기로 한 합의, 명확한 창조적 건설 등을 연구하고, 경험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ЗҮҮН Хойд Азийн төвөгтэй орчин дахь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

21-р зуун гарсны дараагаас олон улсын харилцаа, түүний дотор Төв Ази, Дотоод Азийн орчилд хамгийн их өрнөж буй Үйл явцын нэг нь Торгоны замыг тойрсо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шинэ боломж, өрсөлдөөний шинэ давалгаа юм.

Монгол улс өөрийн түүх, газарзүйн байршил, шашин соёл,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 зэргээрээ өнөөгийн Торгоны замын чухал нэгэн бүрэлдэхүүн хэсэг болдог. Монголын Үнэ цэнэ нь Торгоны замын дагуу байрладаг, бас хоёр Солонгостой жигд найрсаг харилцаатай байдагт оршдог.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г өнөөг хүртэл судлаж ирсэн хандлага, Үзэл хараа, ойлголтоор авч Үзэх нь зарим талаар учир дутагдалтай бол оод байгаа юм. Түүнчлэн Монгол улс хэдийгээр ардчилсан засаглалтай, энх тайвныг тууштай дэмждэг, эдийн засаг нь өсч байгаа, БҮС нут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хүсдэг ч ЗҮҮН хойд Азидаа хамгийн цөөн хүн амтай, хамгийн муу дэд бүтэцтэй, эдийн засаг нь одоо ч сул байгаа, ядууралтай, жижиг улс (small state, small power), сул дорой улс (weak state) гэсэн ангилалд байгаа орон. БНСУ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рьцангуй сайн хөгжсөн, дунд зэргийн улс (middle power). Ийм хоёр улс хэрхэн цаашдаа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 вэ? Манай хоёр оронд ямар боломж, сорилт байна вэ? БҮС нутгийн хүчирхэг гүрнүүд хэрхэн нөлөөлөх вэ? зэргийг авч Үзэнгээ асуудалд хандах нь зөв хандлага гэж бодож байна.

1.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судалгааг шинэ шатанд гаргах хэрэгтэй байна.

А. Угсаа гарвалын Үзэл

Өнөөдрийг хүртэл Монголын болон Солонгосын судлаачид хоёр орны харилцааг ерөнхийдөө шугаман маягаар (linear system) буюу энгийн байдалаар тайлбарласаар ирсэн. Тухайлбал, хоёр улсын ард түмний гарал Үслийг маш энгийнээр:

-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 Үндэстэн бол нэг гаралт угсаатай Үндэстэн,
-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 хҮҮхдҮҮд төрөхдээ хөх толботой төрдөг. Үүнийг Монгол толбо гэх агаад энэ нь хоёр Үндэстэн нэг гарал угсаатайн илрэл.
-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 хэл нэг гаралтай буюу Урал Алтай аймгийн хэлний бүлэг.
-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 хэлэнд ижил утгатай Үгс олон байдаг. Үнэндээ маш цөөхөн бий.
-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 ах дүү улс,
-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 хоёр ард түмэн садан төрлийн хэлхээ холбоотой, учир нь Монгол хэлний “Садан” гэдэг Үг, Солонгос хэлэнд “Садун, садон” гэдгээр бий.

Мө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талаар:

-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эдийн засаг бие биенээ нөхсөн шинжтэй.
-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 /БНСУ-ыг хэлэв/ нэгдсэн улс байгуулах боломжтой.
- Монголын нүүдлийн мал аж ахуй Солонгосын суурьшмал хөдөө аж ахуйтай сайтар хослон хөгжих боломжтой.
- БНСУ-ын түргэн хурдацтай хөгжлийн туршлагаас Монгол улс суралцвал маш хурдан хөгжих боломжтой.

Ийм жагсаалтыг цаашид Үргэжлүүлж болох ч эдгээр нь хоёр орны харилцаанд гарч буй шинэ сорилтууд, адармаа төвөгтэй байдал зэргийг

тайлбарлахад хангалттай биш гэж бодож байна.

Дээр дурдсан Үзэл хандлагын зарим нь Үндэслэлтэй бөгөөд мөшгөн судлавал сонирхолтой Үр дүн гарахыг ҮгҮйсгэх аргагүй. Зарим нь анх сонсоход их амархан хэрэгжмээр санагдаж магадгүй юм. Гэхдээ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он 1990 оноос хойш хоёр орны судлаачдын гол хараа, Үзэл баримтлал нь одоо өрнөж буй харилцааг яаж илүү боловсронгуй болгох вэ, ямар боломжууд байна, бас ямар эрсдэлүүд байна гэдэг дээр шинжлэх ухааны Үндэслэлтэй судалгаа илүү их хийх хэрэгтэй байсан нь харагддаг.

Харин хоёр орны түүх угсаатны зүй, соёл зан заншил, хэлзүй, иргэншлэл судлал зэргээр цөөнгүй сайн бүтээл гарсныг энд тэмдэглэе.

Тэгвэл хоёр орны харилцаан дахь онолын суурь илүү нарийсан хөгжихгүй, илүү их бололцоог алдаж, илүү өргөн хүрээнд судалгаа хийгдэхгүй байсан, одоо ч тийм байдалтай яваад байгаагийн шалтгаан юу вэ?

Нэгд, Солонгосы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г татах эдийн засгийн чадвар, таатай боломж, зах зээл Монголд дутагдалтай байна.

Хоёрт, Монгол жижиг улс учраас хүч нөлөө бага гэсэн Үг. Олон улсын болон бүс нутгийн түвшинд Монголын дэмжлэг бага байна.

Гуравт, одоо Монголтой илүү нягт хамтран ажиллаж буй аль ч орноос илүү Солонгос улс Монголтой хожуу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он.

Дөрөвт, бариад авах тодорхой том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 одоо хэр алга байна.

Б. Онолын суурь судалгаа ҮгҮйлэгдэж байна.

Хоёр орны харилцааг илүү өндөр түвшинд гаргах, гүнзгийрүүлэн хөгжүүлэх чиглэлд онолын илүү суурь судалгаа, илүү нарийвчилсан хандлага дутагдаж байгаа юм. Олон харилцаанд сүүлийн Үед Харилцан хамарлын онол (Dependency Theory), Адармаат байдлын онол (Complexity Theory: International Affairs as a Complex System), нөлөөллийн задарга Casual loops гэх мэт янз бүрийн онолууд гарч ирж амжилттай хөгжиж байна. Тийм онолын Үндэслэл ч бид судалгаанд хэрэглэх хэрэгтэй болж

байгаа юм.

Мөн өмнө дурдсан Жижиг улсын тухай, жижиг улсын гадаад бодлогын шийдвэр гаргалт, зан төлөв, сул хүч болон дунд ангиллын орны харилцаа гэх мэт онолын Үндэслэлийг Үл тоомсорлож ерөнхийдөө энгийн (simple) маягаар судласаар ирсэнээсээ дараагийн шатанд гарах хэрэгтэй байна.

2. Хятадын хүчин зүйлийг тооцоолох хэрэгтэй байна.

Өнөөдөр Монгол улсын нийт экспортын 95 хувь зөвхөн Хятад улсад ногдож байгаа бөгөөд түүний дотор гадаадад зарж валют болгож буй эрдсийн 90 хувийг мөн Хятадад худалдаж байна. Үүний дийлэнх нь нүүрс, алт, зэс, төмрийн хүдэр, жонш, молибден, боловсроогүй нефть зэрэг эрдсүүд орно. / “Өдрийн сонин” (Daily News) 2014.11.19 N 277(4977) Ц. Б. Аасансүрэн “Их гүрнүүдийн зөрчил Монголын эдийн засагт шинэ болгомж өгнө” /

Ингэхээр Монголоос БНСУ руу гаргах экспорт, ялангуяа эрдэс түүхийг эд бараг байхгүй болж байгаа юм. Өнөөдөр Монгол болон Хятадын улс төр,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урьд үзэгдээгүй ихээр өрнөж байна. Хятад улс Зүүн Өмнөд Азийн орнууд түүний дотор Вьетнам, Филиппин гэх зэрэг орнуудтай харилцаа нь туйлын тааруу байгаа ч Монгол зэрэг эх газрын, Дотоод Ази, Төв Азийн орнуудтай эрс өөр,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хөхүүлэн дэмжих бодлого баримталж байна. Монголчуудын хэлдгээр “Мөнгөөр цохисон” эдийн засгийн дипломат ажиллагаа явуулж байгаа билээ. Өнөөдөр Хятад Монголын харилцаанд хамгийн гол нөлөө Үзүүлж, тодорхойлж буй хүчин зүйл нь дээр дурдсан хэт хамааралтай байдлаас үүдсэн Хятад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ноёрхол түүнээс үүдсэн Монголын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нд дахь Хятадын нөлөө гэж үзэж байна.

Үүнийг эдийн засгийн хэт хамааралтай байдлаас гадна Монгол улсаа

с бусад улсуудтай тогтоосон албан ёсны тҮншлэлийн хэлбэр, харилцааны тҮвшин харуулж байна.

Монгол улсын тҮнш орнууд

ТҮншлэлийн хэлбэр	ТҮнш улс	ТҮншилсэн он
Иж бҮрэн стратегийн тҮншлэл	БНХАУ	2014
Стратегийн тҮншлэл	ОХУ,	2009
	Япон	2010
Иж бҮрэн тҮншлэл	АНУ	2011
	Герман	2008
	БНСУ	2011
	Энэтхэг	2009
	Турк	2005
Өргөтгөсөн тҮншлэл	Австрали	
	Канад	2010

Эх сурвалж: “Монгол улсын Гадаад бодлогын Хөх ном 2007-2011”-ээс тҮҮвэрлэв.

Дээрх албан баримтаас харахад Монгол улсаас гадаад орнуудтай тогтоосон тҮншлэлийн харилцаанд зэрэглэлийн хувьд хамгийн дээгүүрт “Иж бҮрэн стратегийн ТҮншлэл”-ийн хэлбэрээр БНХАУ байрлаж байгаа юм.

Харин БНСУ “Иж бҮрэн ТҮншлэл”-ийн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он 5 орны нэг болж байгаа юм.

Хятад улстай тогтоосон Монголын харилцаанд БНСУ хэрхэн холбогдох вэ гэсэн асуулт гарч ирнэ. Өнөөдөр дээрх байдал Солонгосын бизнес эрхлэгчдэд хоёр том боломж олгож байгаа юм.

Нэгд: хэдийгээр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хооронд худалдааны эргэлт даж

гүй сайн байгаа ч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зөвхөн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гаар хязгаарлагдсан байдалтай байгаа нь бодит байдал.

Мөн Монголд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 хийж буй Солонгосын талы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гч нар голлон хувь хҮмҮҮс байж, бас тэдгээр жижиг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 нь голлон хоолны гуанз, жижигвтэр дэлгүүр мухлагуудад төвлөрч байгаа нь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д эрс өсөлт авчрахгүй, өдөр хоногоо өнгөрөөсөн байдалд л хҮргэж байгаа нь бас бодит байдал билээ.

Чухамдаа эдийн засгаа гадаадаас хэт хамаарсан байдал, ялангуяа Хятадын нөлөөллөөс гарахын тулд Монголын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раас дотоодын Үйлдвэрлэлийг дэмжих, ялангуяа импортыг орлох бүтээгдэхүүнийг Монголд Үйлдвэрлэх бодлого боловсруулж хэрэгжүүлж байгаа бөгөөд энэ томоохон бодлогын хүрээнд дотоодын хэрэгцээг хангахад зориулсан Үйлдвэр байгуулвал Засгийн газраас бүх хөрөнгийг нь ихээхэн бага хүүтэй зээл олгож буй “888” хөтөлбөр юм. Энэ хүрээнд Солонгосын Үйлдвэрлэл эрхлэгчид болон Үйлдвэрийн суурь машин, дамжлага, тоног төхөөрөмж Үйлдвэрлэгчид Монголд өөрсдийн салбарыг байгуулах, Монголын Үйлдвэрлэл эрхлэхээр чармайж буй бизнесмэнүүдэд жижиг, дунд, том хэмжээний Үйлдвэр байгуулахад тоног төхөөрөмжөөр хангах боломж гарч ирээд байгаа юм.

Хоёрт,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д хамгийн том боломж 2014 оны 8 сарын 21-22-нд Хятадын удирдагч Си Жинпиний Монголд хийсэн айлчлалын хүрээнд байгуулсан Монгол Хятад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баримт бичгийн Үеэр гарч ирээд байна. Тэр нь Монголд Үйлдвэрлэсэн бүтээгдэхүүн, түүний дотор хүнсний чиглэлийн бүтээгдэхүүнийг Хятад улс хэмжээ харгалзахгүй хилээ нээнэ, таатай нөхцөл олгоно гэсэн заалт юм.

3. Японоос суралцах хэрэгтэй байна.

Монгол улсын ерөнхийлөгч Ц. Элбэгдорж 2014 оны 7-р сарын 22-23-

нд Япон улсад айлчилж хоёр эдийн засаг, биенес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шинэ шатанд гаргахаар тохиролцлоо. Яагаад энэ жишээг дурдаад байна гэхээр өнөөдөр Монгол болон ЗҮҮн хойд Азийн улс орнуудын харилцаа,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урьд өмнөхөөс улам бүр идэвхижиж байна, Үүнд бодлого боловсруулагчид, судлаачид, шийдвэр гаргагчид илүү их анхаарлаа хандуулах хэрэгтэй боллоо гэдгийг хэлэх гэсэн юм.

Аливаа улс орны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төдийгүй, хоёр хҮний хооронд ч ямарваа байдлаар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 болвол заавал харилцан итгэлцэл хэрэгтэй байдаг агаад, “Энэ хҮнтэй ажиллах нь надад ашигтай, хэрэгтэй” гэсэн энгийн Үнэн, энгийн ойлголт шаардлагатай байдаг. Түүнчлэн уг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 гэж буй хҮнийхээ талаарх нҮдэнд харагдахуйц Үйл ажиллагааг харах хэрэгтэй болдог.

Монгол Японы харилцаа төдийлөн дардан байгаагүй юм. Тэр бүү хэл, Монголчууд олон жил Японд дургүй, Үл итгэсэн байдлаар хандаж ирсэн. Үүний Үндэс гарвал нь бүр 1930-аад оноос эхлэлтэй юм. Энэ нь “Лхүмбийн хэрэг” гэдэг нэрээр нийгмийг цочроосон, зохиомол хэргээр маш олон хҮнийг Японы тагнуул байсан гэж ялласан байдаг. Энэ нь нийгэмд айдас бий болгох, олон хҮнийг дайсан бидний дунд, хаа сайгүй байна гэсэн хардлага сэрдлэг төрүүлэхийн тулд тухайн Үеийн коммунист засаглалаас зохион байгуулсан Үйлдэл байсан билээ. Мөн Халхын голын дайн буюу Номонханы цэргийн мөргөлдөөн, 1945 оны Чөлөөлөх дайнаар Монголын арми Японы Квантуны армитай дайтсан зэрэг нь Монголын олон нийтэд Япончуудад Үл итгэх, дургүйцэх Үзэл хандлагыг бий болгосон юм. Ийм байдалтай явж ирсэн явц 1990-ээд оноос хойш эрс өөрчлөгдсөн.

Энэ явцад урд нь дайсан явсан Япон улстай боловсрол, хөдөөд аж ахуй, банк санхүү, эрүүл мэнд,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 гээд олон салбарт амжилттай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 болсон. Энэ явцад Япон улстай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өргөжүүлэхэд хамгийн том тҮлхэц бол хоосон гоё яриа бус, бодитой, нҮдэнд Үзэгдэхүйц Монголчуудад ашигтай бүтээн байгуулалтууд ба

йсныг дурдвал зохино. Тухайлбал,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ыг дундуур нь баруунаас зүүн тийш холбосон хурдны зам болох “Нарны зам”, өмнө болон хойд хэсгийг холбосон “Нарны гүүр” гэх мэт.

Наад захын жишээг дурдахад, Монголын нийгэм эдийн засгийн шилжилтийн үед хүнд байдалд ороод байсан боловсрол, эрүүл мэндийн салбарыг өөд нь татахын тулд Японы талаас 280 орчим сургууль, өрхийн эмнэлэн шинээр барих болон урьд нь байсан барилгыг өргөтгөсөн байдаг. Эдгээр жишээ нь жирийн иргэдийн дунд ихэд үнэлэгдэж Японтой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ыг иргэд дэмжих болсон нь ойлгомжтой. Тийнхүү 10 хүрэхгүй жилийн дотор дайсагнан үздэг, бие биенээ үл итгэдэг байсан хоёр орон хамтран ажиллагч тунш орнууд болсон төдийгүй одоо итгэлцэл,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дээд түвшин гэж хэлж болох “Чөлөөлт худалдааны Хэлэлцээр” хийх түвшинд хүрлээ. Чөлөөт худалдааны хэлэлцээр нь тийм амархан ажил бус. Наад зах нь Монголын талаас л гэхэд 80 гаруй хүний бүрэлдэхүүнтэй баг хоёр жилийн турш хэлэлцээрийн өмнөх шатанд ажилласан нэр их хөдөлмөр байсны дээр Монголын багийнханд ч том сургууль болсон байна. Нийт 16 бүлэг 10000 гаруй хуудас бүхий хэлэлцээрийн төсөл бэлэн болоод байна. Одоо хоёр орны Засгийн газрын тэргүүн нар уг хэлэлцээрийг үзэглэж, улмаар хоёр улсын хууль тогтоох байгууллага соёрхон батлах учиртай. Хоёр тал ирэх оны хагас гэхэд хэлэлцээрийг соёрхон батлуулахаар ажиллаж байна. Маш товчхондоо хэлбэл, Японоос машин техник, технологийн бараа, бүтээгдэхүүн орж ирвэл Монголын тал импортын татвараас чөлөөлөх агаад Монголын мах махан бүтээгдэхүүн, гурил, чацаргана гэх мэт хөдөөд аж ахуйн бараа бүтээгдэхүүнийг Япон улс татваргүй оруулна. Мөн визний нөхцөлийг эрс хөнгөвчилж, бизнес эрхлэгчид нэг жилийн виз олгох зэрэг заалтууд байна. Бас нэг том боломж нь Монгол орны байгалийн баялагийг Японы технологи,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аар ашиглахад аль аль талаасаа дэмжлэг үзүүлэх заалт орж байна.

4. Хоёр Солонгосын нэгдэлд хэрэглэж болох “Монголын загвар”

БНСУ жинхэнэ мөн чанараараа Евразийн бҮс рҮҮ нэвтрэн орж, эдийн засаг, соёл, улс төрийн нөлөөгөө ихэсгэх, цаашид нэмье гэвэл зайлшгүй Хойд Солонгостой “хэл амаа ололцох” шаардлага тулгарах нь ойлгомжтой. Хойд Солонгостой ингэж “хэл амаа ололцох”-д Монголы нөлөө багагүй бөгөөд энэ зорилгод ч Монгол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БНСУ-тай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ад бэлэн гэдгээ илэрхийлсээр ирсэн. Мөн Монголын тал сүүлийн жилүүдэд “Зуучлагч” гэсэн статустой болохоор идэвхийлэн чар майсаар ирсэн. Энэ утгаараа Монгол БНСУ-ын харилцаанд орхиж болохгүй нэг хэсэг бол Хойд Солонгос мөн.

Хойд Солонгосыг нээлттэй улс болгоход БНСУ -ын зҮгээс ганц АНУ юм уу, БНХАУ-ыг харах бус Монгол улстай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 хэрэгтэй байгаа юм. Үүнд: Монголын коммунизмаас ардчилсан улс болсон туршлагыг Хойд Солонгост тайлбарлах, ойлгуулах, хоёр Солонгосын эвлэрэл, нэгдлийн Үйл явц дахь жишээ баримжаа болгох зэргийг дурдаж болно. Доорх хэсэгт яагаад Монголын ардчиллын туршлага Солонгосын Хойгийн нэгдэлд хувь нэмэр оруулахыг тодруулахыг хичээсэн болно.

А. Улс төрийн өөрчлөлтийн туршлага

Хойд Солонгос бол нэг намын тогтолцоотой улс гэдгийг бид мэднэ. Монголд ч мөн 1921-1990 он хүртэл бараг 70 жил МАХН гэсэн нэг л нам нийгмийн бҮхий л салбарыг удирдан манлайлж байсан. Тиймээс Монголын хувьд 1990 онд ардчилсан нийгэм рҮҮ шилжихдээ хамгийн тҮрүүнд Үндсэн хуулиндаа хоёр чухал өөрчлөлт оруулсан юм. Үүнд: нэгд, зөвхөн МАХН Монгол улсыг удирдан чиглүүлэх Үүрэгтэй гэсэн Засаглалын эрх мэдлийг өөрчилсөн. Мөн социализм коммунизм байгуулна гэснийг хассан юм. Гэхдээ ЗҮҮн Европ болон ЗХУ-д гарсан шиг коммунист намыг бүр мөсөн хориглоогүй. Хэрвээ хориглох ахул Монголд дотоодын

томоохон мөргөлдөөн гарах байсныг ҮгҮйсгэх аргагүй. Учир нь нэгэнт энэ нам урт удаан хугацааны туршид улс орныг бҮх салбарыг удирдаж байсан тул боловсон хүчин, мэргэжилтнүүдийн дийлэнх нь энэ намаас гаралтай, түүний дотор аюулаас хамгаалах, батлан хамгаалах, цагдаа г эхчилэн хүчний байгууллагын удирдлага, мэргэжилтнүүдийн дийлэнхи нь энэ намаас гаралтай гэсэн Үг. Тиймээс хэрэв уг намыг хориглосон т охиолдолд ямар ч төрлийн эсэргүүцэл түүний дотор төрийн эргэлт хүр тэл гарах магадлалтай болно.

Мөн коммунист угшилтай намууд олон түмнийг хагалан бутаргах, хуу рч мэхлэх, өрсөлдөгч намуудыг задлах, тагнаж мөрдөх, цуурхал тараах гэх мэт төрөл бүрийн хорлон сүйтгэх Үйл ажиллагааг эзэмшсэн байдаг. Тиймээс 70 гаруй жил төр нийгмийг дангаараа захирч байсан МАХН-ыг татан буулгаагүй, харин “Улс төрийн нам”-ын тухай хууль гарган уг на мыг “жирийн нам” болгон хувиргасан нь “zero-sum” бус, “win-win” ший дэл байлаа.

Б. Эдийн засгийг өөрчлөлтийн туршлага

1990 оны Монгол улсад төрийн өмч хэт ноёрхсон байсан нь өнөөгийн Хойд Солонгостой ихээхэн төстэй байгаа юм. Монголд улсын өмчийг х увьд шилжүүлсэн том Үйл ажиллагааг “Өмч хувьчлал” гэсэн хөтөлбөр өөр шийдсэн. Өмч хувьчлалыг “Их хувьчлал”, “Бага хувьчлал” гэж хува асан. Ингэхийн тулд 1991 оноос өмнө төрсөн бҮх хүнд /нялх хүүхдэд ч гэсэн/ тухайн Үеийн ханшаар 10 000 төгрөгтэй тэнцэхүйц эрхийн бичиг буюу тасалбарыг хүн болгонд ижил тоогоор тараасан юм.

“Бага хувьчлал” гэдэг нь харьцангуй бага болон дунд зэргийн хэмжэ этэй худалдаа Үйлчилгээний газрууд, хөдөө аж ахуйн нэгдлүүд, жижиг дунд Үйлдвэрийн газрууд байсан бол “Их хувьчлал” гэдэг томоохон аж ахуй, Үйлдвэрийн газрууд байсан билээ. Бага хувьчлалыг ихэвчлэн дуу длага худалдаагаар хийсэн бол их хувьчлалыг хувьцааны бичгээр хувь

д өгсөн.

Гэвч тухайн Үеийн Засгийн газар гурван чухал шийдвэрийг яаралтай гаргасан нь гҮнзгийрч байсан хямралыг багасган яваандаа иргэд өөрс дөө хөрөнгөжихөд нэн чухал ҮҮрэг гҮйцэтгэсэн билээ. ҮҮнд:

Нэгд, иргэдээ бҮгдэд нь гадаад паспорттой болгов. Энэ Үйл явдал б ол тухайн Үедээ жинхэнэ хувьсгалт өөрчлөлт гэмээр зҮйл байсан гэж х элж болно. Учир нь өнөөгийн Хойд Солонгос шиг тухайн Үед гадаад ул с орнуудаар аялан явах, худалдаа бизнес эрхлэх нь цөөхөн тусгай хамг амж эдэлдэг хҮмҮҮст зөвшөөрөгддөг зҮйл байв. Харин ард иргэдийн ху вьд гадаадад явах нь байтугай улс орныхоо дотоодод зорчих, нийслэл хотод очих зэрэгт заавал дээд газрын зөвшөөрөл авах ёстой байсан аг аад тҮҮний дотор цагдаагийн газраас заавал зөвшөөрөл авдаг байв. Эн э журмыг 1990 онд цуцалсан нь маргаангҮй том Үйл явдал байсан агаа д ҮҮний араас ямар нэгэн гэмт хэрэг зэрэг холбогдоогҮй л бол иргэн б олгон гадаад улсад явах боломжийг нээсэн гадаад паспорт авах эрхий г хуулиар зөвшөөрөв. ҮҮнтэй зэрэгцэн иргэд гадаадад явж ганзагын х удалдаа хийх эрх нээгдсэн билээ.

Хоёрт, хил залгасан ОХУ, БНХАУ-тай нэг сарын дотор визгҮй чөлөөт эй орж гарах эрхийг Монгол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дээрх хоёр оронтой хэлэл цэн тохиролцож чадсан юм. Хятад улстай Монголын иргэд одоо ч нэг сар визгҮй зорчих боломжтой харин ОХУ-д 1994 оноос Чечений дайн дэ гдэн, мафи гэмт хэргийн бҮлэглэлҮҮд идэвхижиж эхэлсэнтэй холбоото йгоор визтэй болгоод эргээд энэ 2014 оны 9-р сарын 3 нд Монгол улса д хийсэн ОХУ-ын Ерөнхийлөгч В.В. Путины ажлын айлчлалаар хоёр улс 2015 оны 1-р сарын 1-нээс эхлэн харилцан визгҮй зорчих хэлэлцээрт г арын Үсэг зурсан болно.

Гуравт, малыг хувьчлав. Монголчууд бол эртнээс мал аж ахуй эрхэлс ээр ирсэн орон гэдгийг бҮгд мэднэ. Энд нэг сонирхолтой жишээ хэлж болно. Коммунизмын Үед Монголын засгийн газраас малын тоог 20 сая д хҮргэх гэж асар их зардал гаргаж, иргэдийг асар ихээр шахаад төлөв

лөгөөндөө хҮрээгҮй юм. Гэтэл мал иргэдэд хувьчилагдсанаас хойш эдҮгээ 61 саяд хҮрээд байгаа юм.

Хойд Солонгосын хувьд тариалангийн талбайг хувьчилах юм бол асар хурдан хҮнсний хомсдолоос гарч чадах нь лавтай. Өлсгөлөнг даван туулж иргэд хоол хҮнстэй, илҮүдэл бҮтээгдэхҮүнээ зарснаар бэлэн мөнгөтэй, эдийн засгийн чадавахитай болж чадна.

В. АюулгҮй байдлаа хангасан туршлага

Монгол улс бодит байдал дээр өнөөгийн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хувьд Хойд Солонгосоос илҮү хҮнд нөхцөлд оршдог. Монгол улс юуны тҮрҮүнд дэлхий дээр хамгийн том газар нутагтай ОХУ, хамгийн их хҮн амтай БНХ АУ дунд оршдог. ҮҮнийг Power-locked гэж нэрлэж болно. Мөн дээрх хоёр гҮрэн цөмийн зэвсэгтэй тул Nuclear-locked гэж илэрхийлдэг. Монгол улс далайд гарцгҮй тул Land-locked гэдэг. Тиймээс аюулгҮй байдлаа цэрэг зэвсгийн хҮчээр хамгаална гэдэг боломжгҮй гэсэн Үг.

Тиймд Монголын удирдагчид өвөрмөц арга хэрэглэхээс өөр аргагҮй болсон юм. Ингээд 1990 оноос эхлэн нухацтай судалсаар 1992 онд НҮБ-ын 47-р Чуулганы хуралдаан дээр Монгол улс нутаг дэвсгэрээ цөмийн зэвсэггҮй бҮс болгож буйгаа тунхагласан. ҮҮнээс хойш 20 жил маш их хҮчин зҮтгэл гаргасаар 2012 оны 9-р сарын 12-нд НҮБ-ын АюулгҮйн 3 өвлөлийн Байнгын таван гишҮүн орноор баталгаа гаргуулсан юм. ҮҮний дундуур буюу 1998 оны 12 сарын 4-нд НҮБ-ын Ерөнхий Ассамблейн 53/77 Д тоот тогтоолоор дээрх таван гҮрэн Монгол улсын АюулгҮй байдалд баталгаа гаргаж өгсөн./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эс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гадаад, дотоод орчины судалгаа, дҮн шинжилгээ. УБ. 2014, 75-80-р тал./ Эдгээр нь өнөөдөр Монгол улсын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олон улсын эрхзҮйн гол баримт бичиг мөн. Энэ сэдвээр тусгайлан судлах шаардлага тай бөгөөд энд ерөнхийдөө ихээхэн товч дурдав.

Өнөөдөр Хойд Солонгос эдийн засгаа хөгжҮүлэх янз бҮрийн төлөвлөг

өө гаргасан, мөн Өмнөд Солонгостой нэгдэх тухай ч янз бүрийн мэдэгдэл гаргадаг. Гэхдээ цөмийн хөтөлбөрөө бүрмөсөн зогсоогоогүй цагт Хойд Солонгос эдийн засгаа ч сэргээж чадахгүй, Солонгосын хойг дээр хурцадмал байдал ч арилахгүй нь тодорхой байгаа. Хойд Солонгосын хувьд Монголын цөмийн зэвсэггүй статустай болсон, улмаар аюулгүй байдлаа НҮБ-ын Аюулгүйн Зөвлөлөөр баталгаажуулж эдүгээ олон улсын дэг журам (regime) байгуулахаар ажиллаж буй туршлагыг суралцан дагах нь хамгийн зүйтэй алхам болох нь тодорхой.

Г. Нийгмийн эвлэрэлийг бий болгосон туршлага

Монголын Засгийн газраас энэ талаар нийгмийн эв нэгдэл, ойлголцол, уучлалын бодлогыг хэрэгжүүлсэн юм. Юуны түрүүнд коммунизмын Үед төр засгийн буруугаас болж хэлмэгдсэн, хохирсон, амь насаа алдсан иргэдээ нэг бүрчлэн цагаатгав. Үүний тулд Засгийн газрын дэргэд “Цагаатгах ажлыг эрхэлсэн комисс” хэмээх байгууллага байгуулж энэ ажлыг хариуцуулав. Мөн судалгааны Хүрээлэн байгуулж, өргөн хэмжээнд судалгаа явуулсан юм. Ингэснээр олон мянган иргэнийг цагаатгав. Улмаар Засгийн газраас ард иргэдээсээ уучлал гуйсан билээ. Ингэсэн нь олон арван жил засгийн газартаа, төр засагтаа цаашлаад хувь заяандаа гомдож гутарч явсан иргэд, тэдний Үр хүүхдийн зүрх сэтгэлийн шархыг бага ч гэсэн эдгээж өгсөн юм. Жил бүрийн тодорхой өдрийг хэлмэгдсийн өдөр болгон тэмдэглэдэг ч болсон билээ. Мөн нийслэл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ын төв хэсэгт Хэлмэгдэгсдэд зориулсан хөшөө босгосон.

Үүнтэй зэрэгцүүлэн нийгмийн эв нэгдлийг хангах Үүднээс хэлмэгдүүлж явсан хүмүүс, нууц цагдаагийн газрын ажилтнуудын нэрсийг олон нийтэд дэлгээгүй юм. Зарим хүмүүс тэдгээр нууц цагдаагийн нэрсийг бүгдийг нь дэлгэж нээлттэй болгох ёстой гэдэг ч тэгэх юм бол нийгэмд хариу өс хонзон авах явдал дэлгэрэх байсан билээ.

5. Монголын санал санаачилгыг дэмжих хэрэгтэй байна.

Монгол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раас ЗҮҮн хойд Ази, тҮҮний дотор Солонгосын Хойгийн нэгдлийн талаар бодит хүчин чармайлтын голлох жишээ нь Улаанбаатарын яриа хэлэлцээ /Ulaanbaatar Dialogue/ хэмээх санаачлага юм.

ЗХА-д ойлголцол, итгэлцэл сул байгаагаас ужгирсан газар нутгийн маргаан тҮҮхэн шархыг сэдрээж, улс орнуудын хооронд мөргөлдөөн ҮҮсгэж болзошгүй байна. ҮҮнд, сҮҮлийн жилҮҮдэд эрчимжсэн Хятад, Японы газар нутгийн маргаан (territorial dispute), агаарын таних бҮсийн асуудал (Air defense identification problem), Солонгосын хойг дахь цэргийн төвлөрөл, 2013 оны 3 сард зэрэгцэн болсон цэргийн сургуулилалт зэргийг нэрлэж болно.

Монгол Улсын Ерөнхийлөгчийн урт хугацааны зорилт нь тус бҮс нутагт ужгирсан Үл ойлголцлыг яриа хэлэлцээний замаар арилгаж, итгэлцлийг бэхжҮҮлэхэд дөхөм ҮзҮҮлэх, улмаар ЗХА-д бҮс нутгийн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яриа хэлэлцээрийн механизм байгуулахад оршиж байна. Энэ утгаараа Монгол Улсын санаачилж буй ЗҮҮн Хойд Азийн асуудлаарх “Улаанбаатарын яриа хэлэлцээ” нь нээлттэй яриа хэлэлцээгээр дамжуулан бҮс нутгийн итгэлцэл, харилцан ойлголцлыг бий болгож, тҮҮнд дэмжлэг ҮзҮҮлэх зорилготой юм.

ХэрэгжҮҮлэх арга зам, хэлбэр: ЗХА-ийн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олон талт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Үндсийг тавих зорилготой гэдэг утгаар, Монгол Улс “Зургаан талт хэлэлцээ”-г байнга дэмжиж, зохих хувь нэмрээ оруулсаар ирсэн билээ. Тухайлбал, “Зургаан талт хэлэлцээ”-ний хүрээнд, Япон-БНАСАУ-ын уулзалтуудыг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ноо зохион байгуулсны Үр дүнд 2014 оны 3 дугаар сард Японы хулгайлагдсан гэр бҮлҮҮдийн уулзалт мөн Улаанбаатарт болсон билээ. Иймээс Монгол Улсын санаачилж буй, “Улаанбаатарын яриа хэлэлцээ” нь “Зургаан талт хэлэлцээ” “СөҮлийн Үйл явц” (Seoul Process) зэрэг бҮс нутгийн энх тайван, аюулгүй

байдалд хувь нэмэр оруулах зорилготой яриа хэлэлцээг орлох юмуу эсвэл тэдгээртэй өрсөлдөх зорилго агуулаагүйг энд дурдах нь зүйтэй.

Монгол Улс “Улаанбаатарын яриа хэлэлцээний”-ийн хүрээнд ЗХА –ийн эмэгтэй парламентчдын бүс нутгийн уулзалтыг 2013 онд байгуулсан билээ. Энэ уулзалтын үеэр, эмэгтэй парламентчид анх удаа нүүр тулан уулзаж, нийгмийн салбаруудад эмэгтэйчүүдийн оролцох оролцоог нэмэгдүүлж, тэднийг чадавхжуулахад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аар тохиролцсон билээ.

Яриа хэлэлцээний сэдэв: Улаанбаатар яриа хэлэлцээ бҮс нутгийн орнуудын сонирхсон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олон талт асуудлыг өргөнөөр хамрах бөгөөд эхний ээлжинд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цэргийн салбарын ил тод байдал, байгаль орчны тулгамдсан асуудлууд,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уламжлалт бус сорилтууд, бҮс нутгийн тогтвортой байдал зэрэг асуудлууд юм. Цаашид бҮс нутгийн орнууд “Улаанбаатарын яриа хэлэлцээ”-ний хүрээнд өөрт тулгамдсан асуудлаа тавьж, яриа хэлэлцээ өрнүүлэх бүрэн боломжтой бөгөөд Монгол Улс ийм санал санаачилгыг талархан хүлээн авч байхаар тохирсон билээ.

Яриа хэлэлцээний зарчим: Улаанбаатарын яриа хэлэлцээ нь бҮс нутгийн орнуудын хооронд харилцан итгэлцэл бий болгох зорилготой тул эхлүүлж хэрэгжүүлэхэд аль нэг улс буюу нэг талын эрх ашгийг давууд тавихгүй байх, бҮс нутагт энхтайван, тогтвортой байдлыг хангах урт хугацааны зорилтыг Үндэс болгон зөвхөн итгэлцлийн Үндэс дээр яриа хэлэлцээг явуулах зэрэг зарчмыг эн тэргүүнд тавина.

Аливаа итгэлцэл бий болгох Үйл явц урт удаан хугацааны хүчин чармайлт шаарддагийг Хельсинскийн Үйл явц харуулдаг. Иймээс Монгол Улс “Улаанбаатарын яриа хэлэлцээг”-г урагшуулахад “ажим боловч баттай урагшлах” зарчмыг мөн баримтланх ажиллаж байна.

Үр дүн:

Монгол Улсын Ерөнхийлөгч Ц.Элбэгдорж Ардчилсан орнуудын хамты

н нийгэмлэгийн Сайд нарын 7 дугаар хурлын Үеэр “ЗХА-ийн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асуудлаарх Улаанбаатарын яриа хэлэлцээ” санаачилгыг албан ёсоор 2013 оны 04 дүгээр сард дэвшүүлснээс хойш нэг жил гаруйгийн хугацаа өнгөрөөд байна. Өнгөрсөн хугацаанд ГХЯ-наас “Улаанбаатарын яриа хэлэлцээ” санаачилгын талаар Меморандум гаргаж, 2014 оны зургадугаар сард эрдэмтэн, судлаачидын дунд олон улсы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бага хурал амжилттай зохион байгуулсан.

6. ДҮГНЭЛТ

Евраз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д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өөрийн гэсэн дүр төрхтэй, зорилго зорилттой оролцох учиртай.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шинэ шатанд гаргах нь тулгамдсан зорилт болоод байна. Наад зах нь манай хоёр орны хооронд Чөлөөт Худалдааны хэлэлцээр яаралтай байгуулах хэрэгтэй байгаа юм.

Монгол БНСУ-ын харилцаанд зайлшгүй анхаарах ёстой асуудал бол Хятадын нөлөөг тодорхойлох, харгалзан Үзэх явдал юм. Хятадын хэрэгжүүлж буй “Торгоны Шинэ зам” маягийн бүс нутгийн улс орнууд оролцсо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томоохон төсөл хэрэгжүүлэх хэрэгтэй байгаа юм. Монголд ч мөн хоёр орны хамтарсан эдийн засгийн Үр өгөөжтэй, алсыг харсан томоохон бүтээн байгуулалтын төсөл хэрэгжүүлэх цаг нь болсон гэж бодож байна.

Хойд Солонгосыг зөөлрүүлэх,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д татан оролцуулах нь мөн манай хоёр орны хамтран хийх ёстой Үйл ажиллагаа мөн.

Түүнчлэн Монгол Японы эрчимтэй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итгэлцэл, Чөлөөт худалдааны Хэлэлцээр байгуулахаар тохиролцсон, бодит бүтээн байгуулалт зэргээс судлах, туршлага авах хэрэгтэй болов уу.



종합토론

「한국에서 본 유라시아 문명과 실크로드」에 대한 토론문

이난아*

이희수 교수님의 “한국과 유라시아간 실크로드 문화교류와 역사적 접촉”이라는 제목의 논문은 최근 국내 학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유라시아 실크로드 연구의 향방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침서라고 생각합니다.

발표자는 먼저, 실크로드의 중요성과 역사에서부터 시작하여, 신라-중앙아시아-서아시아, 몽골시대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육상 및 해상로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 정보와 성과에 대해 언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발표자는, 터키와 중앙아시아를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그것도 지극히 미국 중심으로 왜곡된 현실의 축이 아니라, 깊은 역사성과 우리와의 문화적 교류를 중심으로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역사적 사실과 사료의 발굴과 재해석을 통해 함께하는 협력적 파트너로 나아가야 한다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발표문의 말미에서는 한국-유라시아간 실크로드 지식네트워크 구축, 실크로드(유라시아) 박물관 건립, 실크로드 지식포럼과 국제학술지 발간 그리고 경제 협력 사업에서의 인문학적 교육 연계 등의 제안 등 향후 유라시아 실크로드 국가와의 협력 아젠다 구축에 필요한 실질적인 제안들도 내놓으셨습니다. 유익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토론자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1. 발표자께서 제시한 유라시아 실크로드 국가와의 협력 아젠다에 ‘실크로드 지식포럼과 국제학술지 발간’을 제안하셨는데, 혹시 유라시아 국가들 중에 실크로드 관련 학술지를 발간하는 국가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으신지요? 만약 있다면 국내에서 향후 발간될 학술지는 이들 학술지와 어떤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2. 발표문은 유라시아 실크로드 연구의 인문학적 교류 부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발표자는 협력 아젠다 부분에서 ‘경제 협력 사업에서의 인문학적 교육 연계’에 관한 언급을 했습니다. 역사상 실크로드라고 하면 물론 이 길을 통해 다양한 문화들이 교류하고 상호 전파되었지만, 역사적으로 경제적, 상업적 교류 의미가 강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현재 중국의 신 실크로드 프로젝트도 그러하고요. 인문학자로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3. 국내에 실크로드, 중앙아시아, 유라시아 관련 연구소,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이 연구단체들이 서로 축적된 연구 성과와 콘텐츠를 공유하고 이 분야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어떠한 협력 방안들을 구축해야 할까요? 소속 기관별로 각기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협력하여 연구 성과를 낸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발표자께서 제안한 세계적인 연구 인프라 구축에 더 빨리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실크로드를 통한 고대 이란인들의 중국과 한반도 이주」에 대한 토론문

김창겸*

이 글은 고대 중국과 한국(신라)으로 이주한 이란이민에 관한 역사적 연구로서, 고대 인구이동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연구이다.

이주의 동기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자연재해·질병과 유언비어의 유행 등의 사회적 원인, 부의 획득과 무역이나 흉년으로 인한 기근현상 등의 경제적 원인, 전쟁·반란 및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서 오는 피해 위험 등 정치적 원인에 있었다.

그리고 이주민의 성분은 기록에는 왕자와 군인 등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양한 신분이 있었을 것이며, 특히 바다를 오가는 상인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발표문에서는 종교적 이유(불교)와 정치적 이유(전쟁)를 언급하였는데, 좀더 광범위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또 이주민이 생성하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탈 지역에는 고급 인력과 부의 유출과 더불어 인구 구성비의 불균형, 인구감소, 출생률 저하, 생산량 감소, 경제 파탄, 후발 유이민 발생 자극, 군사력 약화, 기존신분질서 붕괴를 야기하지만, 반대로 이주민을 받아들인 지역은 고급 인력과 자원 확충과 함께 인구증가, 새로운 기술 이식과 생산량 증가, 지역 개발, 일시적 사회적 혼란 이후 새로운 신분질서 형성하게 된다고 하겠다.

한편 한국의 문헌 《三國遺事》 권2 ‘處容郎望海寺’조에, 879년에 헌강왕이 開雲浦(지

*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금의 울산) 바닷가에서 만나 데리고 온 처용은 미녀와 결혼하고 벼슬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처용을 아라비아에서 온 상인으로 보고 있다. 또 《三國史記》를 보면 신라에서 무역을 통해 들어온 아랍의 호화 사치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 신라시대 만들어진 경주의 왕릉(괘릉, 흥덕왕릉)에는 아랍인 모습의 석상이 세워져 있다. 그리고 한국의 성씨 중에서 ‘덕수 장씨’의 조상은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많은 아라비아인(이란)들이 신라로 이주해 왔던 것을 알 수 있다.

「유라시아 실크로드 발전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의 공헌」에 대한 토론문

지배선*

우즈베키스탄 학술원 고고학 연구소 소장 베르디무로도프 (Berdimurodov A) '우즈베키스탄에서 본 유라시아문명과 실크로드' 의 대한 토론이다.

1990년대 국제적 냉전이 종식된 이후 유라시아 대륙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잠재적인 가치를 평가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다. 과거 냉전기 러시아와 중국은 동북아시아 환경의 장애요소로 작용하여 우리의 대륙외교에 많은 제한을 초래하였다. 다행히 냉전종식과 함께 유라시아 대륙은 옛 실크로드의 아름다움을 재현하기 시작하였으며, 한국은 역사적-문화적 관계성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이에 효율적인 전략을 전개하기 위하여 '전략지정학적인'인 한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되는 유라시아 실크로드의 교류 협력을 학술적으로 재구성해 보자.

유럽과 동아시아의 중간 지점의 우즈베크 민족도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실크로드 상의 있는 우즈베크는 8천여 종의 문화유산들이 있어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다. 범 대륙적 교류에 있어서 소구드인들의 역할을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Sogdia(소그디아)라고 하며, 무예에 능하고 이재에 밝아 흉노·돌궐·위구르 등 주변 유목국가를 넘나들며 다양하게 교역했다. 소그디아어는 중앙아시아 스텝지역을 지배했던 대 돌궐제국에서 공용문자로 쓰일 정도였다.

소그드와 수도 사마르칸트는 동서, 남북을 연결하는 가교의 상업 지역이었다. 실크로드 상의 모든 지역의 대접을 받는, 기원전 2세기부터였다. 康國은 漢代부터 전한다. 『舊唐書

*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의「康國傳」에「康國은, 즉 漢시대 康居에 있는 나라다. 그 왕의 성이 溫씨로 月氏人이다.」 소그드인의 중국 증원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五胡十六國(기원후 4세기)시대에도 있다. 즉 康居 또는 康國의 Sogdian이 311년 匈奴에 의해 西晉 洛陽이 불 탄 소식을 본국 康國에 알렸던 나라가 소그드인의 康國이다. 요사이 용어로 상 거래하던 나라의 시장거래를 알린 첫 정보였던 귀중한 것이다.

康國을 薩末鞬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사마르칸트’지명의 借音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杜環의 『經行記』에서도 康國을 薩末鞬이라 기록했다는 데에서 추론할 수 있다. 오늘 베르디무로도브 고고학 연구소 소장의 말로, 사마르칸트는 명칭 기원은 산스크리트 어로 ‘상인들이 모이는 곳’이나 ‘생동적인 교차로’를 뜻하는 -사마리아에서 나왔다는 해답을 얻었다.

5-8세기 사마르칸트의 영향력은 대단히 컸다. 사마르칸트의 남쪽 아프가니스탄의 지방에서 큰 시장과 수공업의 발달이 매우 컸다. 사마르칸트의 지역 명이었다. 동쪽은 중국, 남쪽은 케쉬, 북쪽은 부하라라고 한다. 그런데 사마르칸트의 서쪽이 부하라인 것 같은데, 이는 필자가 잘 내용을 모르는 사항이다.

1965년 발굴된 아프라시아의 궁정 벽화에다가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사마르칸트의 바르흐만 왕 재위시(650-670) 초에 제작됐다. 우즈베크 전문가들의 연구 끝에 신라의 사신보다는 필자는 고구려라는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은 고구려 사신의 벽화에 관한 1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종합한 것이다. 또한 아나르바예브 박사가 소그드 8세기경에 제작된 경주 패릉의 무인석상이 소그다아 스타일이다. 그렇다면 아프라시아 2인의 그림은 조우관을 쓴 고구려의 것인데, 그 후에 통일신라시대의 그림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마르칸트의 18km의 남쪽에 있는 카쉬카다리아와 사마르칸트의 교역자들 관장하는 견고한 성이다. 여기서 500여개의 밀납 인봉에서 소그드의 행정법과 소그드의 내부 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다.

사마르칸트 소그드의 생활과 교역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예로 펜지켄트라는 5세기경에 세워진 작은 도시다. 대장간, 세라믹 제조장등이 발굴되었다. 이는 펜지켄트가 국제 교역에서 큰 몫을 한 것이다. 더 나아가 실크로드 상의 생활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사마르칸트와 펜지켄트 사이에는 자르테파라고 하는 배화교 사원이 있다. 5세기경의 소그드인의 종교적인 삶에 대하여 잘 보여준다. 사마르칸트에서 부하라 가는 위치에 이쉬티한은 아랍이 사마르칸트 점령했을 때 이곳을 임시 소그드의 수도였다. 수양제

605-616년에 쿠산에서 중국으로 사신을 파견했다. 이러한 사료들을 보면, 쿠산 왕조도 실크로드 상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인다.

부하라의 파이켄트 지방은 상인들이 거쳐 갈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무역이 행해졌던 지역이다. 아랍이 침공했을 때 자신의 몸값으로 673-674년간 부하라의 무역량 상당의 비단을 제안했던 예가 있다.

나르샤히의 기록에 의하면 파이켄트의 침공 시, 이 도시 남자들은 모두 극동지역으로 교역하러 나갔다. 이것보다 6세기의 『삼국사기』 「온달전」의 濶達이다. 그 뒤 648년에 죽은 濶君解도 같다. 고구려의 ‘바보 장군’ 온달과 신라 김춘추의 호위무사 온군해가 중앙아시아 옛 소그디아 왕국의 왕족과 혈연관계라는 이야기이다. 당나라 초기의 동전도 중앙아시아의 많은 도시에서 발굴되었던 것은 무엇일까?

중국에서 소그드로 유입된 것 중 하나는 거울이다. 콕테파에서 거울이 발굴되었고, 배화교 사원인 자르테파-2가 발굴되었고, 거울에는 복을 기원하는 한자도 적혀있다. 그 밖의 잘 수련된 무희를 선물하는 경우가 소그드였다. 소그드는 낙타에 앉아있는 무희들이 묘사된 상이 있는 것이 발견된다.

중국의 사료를 보면, 4명의 소그드 출신 승려들이 중국에 불교를 전래하였다. 이것은 종교로 가장 기여를 한 불교의 교류이다.

여기서 대상들의 규모를 보면, 고구려가 동북아에서 강력한 교역국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사료가 있다. 즉 隋煬帝 大業(605-616)초 營州를 침구하는 거란을 공격하기 위해 通事謁者 韋雲起에게 돌궐 啓民可汗의 2만 기를 거느리고 가서 거란을 공격하기 한 전략에서 고구려로 오간 교역단의 규모와 빈도수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韋雲起가 거란 영내로 들어갈 때 고구려와 교역하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1천 기 단위로 柳城郡으로 가려한다고 거란인에게 거짓으로 말한 데 대해, 거란이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란 영내를 지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은 암시하는 바가 크다.

「新羅-匈奴의 무덤구조 비교 검토: 대형분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金在弘*

국립전주박물관 윤행원 학예연구실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玉稿는 글로 벌시대에 동서양을 연결하는 문화교류가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동서양을 이어주는 유목민족 중에서도 가장 활동무대가 넓었던 “흉노”문화와 한국 고대의 독특한 문화를 대변하는 “신라”문화를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적시성, 현장성을 가진 논문입니다. 실장님께서 국립박물관에 20여 년간 근무하시면서 한국 역사고고학뿐만 아니라 흉노(몽골)고고학을 개척하여 박물관의 연구활동 범위를 넓혔고 발굴조사, 연구, 전시, 교육, 소장품 관리 등 다방면에서 업무실적을 쌓은 분입니다. 특히 몽골지역의 고고학적인 발굴 조사를 개척하여 새로운 자료를 소개하고 이를 연구성과로 연결하여 “흉노 고고학”이라는 분야를 개척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및 업무실적을 바탕으로 작성한 “신라-흉노의 무덤구조 비교 검토; 대형분을 중심으로”은 유라시아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본 국제 학술대회와 관련하여 시의적절한 발표로 판단됩니다.

논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 고고학의 범위를 확장하여 신라와 흉노의 대형분의 구조비교를 상호 비교하였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무덤을 중심으로 외형 및 크기, 내외부 구조물, 목곽 및 목관, 부장공간, 순장 문제 등을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차이점과 공통점을 기준으로 보면, 차이점은 매장주체부의 위치, 적석 시설, 부장공간이며, 공통점은 매장주체부인 목관(관), 순장 등 입니다. 선생님의 전체 논지에 공감하면서 세부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는 수준에서 토론에 임하려고 합니다. 신라고고학에 대한 몇 편의 논문을¹⁾ 작성한 것에 불과한 토론자가 흉노와 관련된 사항까지 질

* 국민대학교

문하는 점에 대해 두려움이 앞서지만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신라 무덤과 흉노 무덤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매장주체부의 위치이며, 신라 무덤은 지하를 얇게 굴착하거나 대형분은 지상에 매장주체부가 위치하나 흉노 무덤은 기본적으로 지하 깊숙이 매장주체부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흉노 무덤은 기원전후의 것이고, 신라무덤은 4-5세기의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신라무덤의 초기 형태는 얇게 굴착하는 것이므로 초기 형식은 흉노와 관련지을 수 있는 매개고리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시기는 다르지만 매장주체부의 위치에서 서로 연결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지요.

2. 선생님은 “신라의 무덤 내부의 적석시설은 주로 강돌을 이용하며 목곽을 보호함과 동시에 높은 봉분을 쌓아 올리는 기초가 된다. 그러나 흉노의 무덤에서 적석 개념은 횡목 상부에 1~2점의 판석을 일정하게 눌러 놓지만 깊은 굴광 내부에 엄청난 양의 할석을 채워 넣으며 대개는 무덤 외부에 적석을 이용해 묘역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상식인 신라 적석목곽분과 지하식인 흉노무덤과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목곽 상부나 주위를 적석으로 채우거나 덮는다는 의미에서는 공동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덤의 위치를 고려한다면, 공통성의 시각에서 볼 수는 없는지요.

3. 선생님은 “신라 무덤과 흉노 무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매장주체부에 목곽(관)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형무덤의 경우 2중 목곽과 목관의 배치는 신라와 흉노 양문화에서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이라고 하였습니다. 무덤의 가장 주요한 부분은 매장주체부입니다. 이것이 자연발생적으로 각각의 지역에서 목곽(관)을 사용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전파의 시각에서 서로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문화 전파의 결과로 볼 수 있다면 한(漢)나라의 무덤의 목곽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최근 신라 적석목곽분의 연구에서 장례의식과 관련하여 목곽과 석단 사이에서 이루

1) 2001 「4-5세기 신라의 고분문화와 지역지배」『한국고대사연구』24; 2014 「금관총 출토 ‘余斯智王’銘 大刀와 피장자」『한국상고사학보』 86

어진 순장에 대한 연구(최종규,²⁾ 이은석)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흉노와 신라에서 순장이 동시에 확인된다면 장례의식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흉노의 순장인은 주로 어느 위치에 부장되며, 어떠한 장례순서에서 매장하였는지에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부분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세부적인 측면에서 두서없이 질문한 것은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윤형원 선생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崔鍾圭, 2014 『鐵箱集 I - 葬送』, 考古.

「실크로드의 재발전-키르기스스탄과 한국의 만남」에 대한 토론문

최형원*

백태현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중앙아시아는 그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과 관계가 깊은 지역이고, 오늘날에도 정치적·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기에 백 선생님의 발표는 의의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발표문은 중앙아시아에 대한 개괄과 키르기스스탄에 관한 일반적 소개로 나누어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예를 들어 중국이 중앙아시아 여러 지역과의 도로, 철도 물류망 건설을 진행 중이고, 국경지역 카슈와 키르기스스탄의 비쉬케크를 잇는 옛 초원길과 나른과 오쉬에 이르는 천산남북로를 잇는 옛 비단길도 새로 개통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3년 10월 핵심 외교 정책으로서 유럽과 아시아를 복합 물류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문화교류와 창의성을 극대화해 창조의 시너지를 만들어 나가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을 만들자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토론자로서 질문을 드리자면, 중앙아시아는 이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열강이 진출하고 있어 그 지정학적·경제적 중요성이 부각이 되어 각국의 이해관계가 거미줄과 같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역입니다. 미국은 중앙아시아의 안보적 불안정성이 과거 9.11 테러와 같은 자국의 안보에 심각한 도전과 위협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지역을 세계경제와 연결시켜 경제발전과 내부의 모순을 개혁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과거 소비에트 연방 시절처럼 유라시아의 통합을, 중국은 물류망 건설 사업에 대중앙아시아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자원 획득이라는 현실적·실용적 정책을 펴고 있고, 정부개발원조와 차관 제공을 하여 지역 국가

*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들의 인프라 건설과 중소기업 육성, 교육 분야 등에 지속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중아시아 정책은 이들 나라와 차별되는 외교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높이고 지역 주민에게도 좋은 인상을 줄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키르기스스탄이 ‘자원의 보고’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크로드의 복식문화 교류」에 대한 토론문

권현주*

1. 실�크로드의 호복, 유목민족에 공통된 복식으로 호복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복식 또한 ‘북방계 호복’으로 기마민족의 수렵생활복이라고 하는데, 호복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2. 호복은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었는지요? 시대별 호복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유목민족의 대표적인 헤어스타일은 변발, 페르시아는 전발.. 등 민족마다 헤어스타일에 차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실�크로드에 나타난 헤어스타일의 특징과 중국과의 영향, 변발의 구체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 실�크로드 복식에 나타난 소그드 복식의 영향에 관하여 말씀해 주세요.

* 호원대학교 교수

A discussion of 「유라시아 실크로드 지역의 변화와 한국 외교-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Alexandre Repkine, Konkuk University.

While geographically Korea is located at the edge of the Eurasian continent, the author is correctly stating that Korea's role in Eurasia is important for at least two reasons. First, Korea has a lot to offer in terms of economic advice to the transitional economies of Central Asia. While Korea has never been a Soviet-type planned economy, it shared surprisingly many features with the USSR economy at the start of its economic growth miracle story such as the five-year plans, reliance on gigantic corporations whose management enjoyed close ties with the government, and the general extent of involvement of the government in economic affairs. Korea since then has developed to become a developed OECD member wher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re playing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and where Korean products are successfully selling around the world. Korean economists are thus in an advantageous position to study and apply Korean economic experience to countries like Kazakhstan or Uzbekistan. Second, in all of the five Central Asian economies there are a sizable number of ethnic Koreans living there, which facilitates economic, diplomatic and cultural exchange. The one sad fact is, a lot of those ethnic Koreans do not speak the language of their ancestors any more, which provides for a great opportunity to teach and spread Korean culture and language around the world. Third, Korea is one of the

very few countries that successfully dealt with the problem of corruption that plagues nearly all successor states of the former Soviet Union. Corruption is a problem in Central Asia too, so there is an ample room for study of the Korean experience in eradicating corruption and advising the Central Asian governments on how to do that.

An important point that does not appear to be too much emphasized in the author's treatise is that Eurasia is not only about the Central Asian states, it is also about Russia. Since economic and political ties between Russian Federation and the Central Asian states (except Turkmenistan) are constantly growing, any involvement with these countries' economies almost inevitably means an involvement with Russia, too. Suffice it to say that up to this moment the only international language used when, say, a Uzbek and Kazakh politicians or business managers use for communicating with each other, remains to be Russian. I would thus suggest that the author emphasize the Russian role in the Silk Road countries regaining their important geopolitical role. In particular, I would mention the fact that Korean railway system in principle can be linked to the Transsiberian railway, from where it is easy to ship goods to both Central Asia, the European part of Russia, and Western Europe. It is safe to say that most of the Silk Road connecting Far East and Western Europe passes through Russia and through the countries maintaining intimate economic and political ties with Russia. My grand vision of the Korean involvement in the process of resurrection of the Silk Road is thus including a contribution to the Korean peace negotiations and, possibly, unification.

To conclude, Korea is in a unique position to establish itself as an economic adviser, investor, and cultural friend in the Central Asian region. As I tried to emphasize, there are both economic and cultural similarities between Korea and those countries that can be fruitfully exploited. As I also mentioned, this sort of Korean involvement will inevitably produce a sizeable positive externality on the geopolitical situation in the region since any such involvement will include dealing with the broader Russian world, which is presenting another great chance for strengthening ties between Korea and Russia, too. This is now a unique historical chance that, if grasped, will significantly improve the welfare of both Korea and Central Asia alike.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에서 한국과 몽골의 관계」에 대한 토론문

김홍진*

한국과 몽골은 내년이면 공식 수교 25주년을 맞이한다. 그동안 양국은 선린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사회, 문화, 교육, 정치외교, 경제 등 각 방면에서의 협력을 꾸준히 증대시켜 왔다. 현재 한국에는 3만 명이 넘는 몽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수많은 몽골 학생들이 한국의 대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다. 양국 대통령과 고위층도 정기적으로 회동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자원협력 등 중요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몽골에도 많은 한국인과 한국 기업이 진출하고 있으며,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가 몽골의 안방에서 사랑받고 있다.

먼저 경제교류 측면에서 보면, 양국 교역규모는 5억 달러에 가까운 규모로 증가하였다. 몽골은 한국으로부터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철강금속제품 등 원자재를 많이 수입하고 있으며, 이것은 몽골의 산업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몽골이 한국에서 많은 상품을 수입하는 이유는, 먼저 몽골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수요 증가 때문이다. 또 한국 상품의 품질이 중국이나 기타 국가보다 우수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몽골에는 한류의 인기가 높기 때문에, 한국 상품에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몽골로부터의 수입은 수출에 비해 매우 작다. 주요 수입품은 광산물로 전체 수입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캐시미어를 비롯한 의류와 일부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다. 그 결과 양국의 무역수지 측면에서 몽골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수교 이래 이러한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일방적인 무역역조가 지속되는 것은 양국의 상호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양국은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거나 완화

* 순천향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

정작 몽골의 수출입 규모와 국가별 교역비중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국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다. 2013년 몽골은 약 43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수출품은 광물 자원으로 거의 전량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한국은 몽골 총수출에서 0.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몽골의 2013년 수입은 약 63억 달러인데, 중국과 러시아가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8%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 및 미국과 비슷한 규모이다. 몽골은 제3의 이웃 정책(The Third Neighbor Policy)을 추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비중을 낮추고 한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가야 할 것이다.

한국의 몽골에 대한 직접투자는 199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3년 말까지 한국은 몽골에 3억5천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업종별 대몽골 투자 현황을 보면 광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도소매업과 건설업, 부동산업 등의 비중이 높다. 대몽골 투자는 초기에는 개인과 소규모 기업의 투자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비교적 대규모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캐나다에 이어 제3위 투자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통계상으로는 7위이지만 중간의 4개 국가는 조세회피지역이라 순위에서 제외하면 3위가 된다) 중국은 제1위 투자국으로 대부분을 광업과 석유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캐나다는 2위 투자국으로 거의 전적으로 광업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오유 톨고이(Oyu Tolgoi) 구리 광산이 대표적이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다양한 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업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만큼 한국 건설기술의 우수성이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몽 양국의 교역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규모 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하다. 현재 5억 달러 수준인데, 앞으로 10~20억 달러는 넘어야 활발한 경제협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몽 양국 사이에는 역사·문화적 유대감이 있고 몽골 현지에서 한류 열풍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양국 교역규모가 이 정도에 그치고 있는 이유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한국 상품은 몽골 총수입의 6~8%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대몽골 직접투자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다양한 산업에 투자되고 있으나, 아직도 규모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 개선할 부분이 많다. 그동안 한국은 몽골의 제반 리스크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여 대규모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측면이 있다. 그 결과 몽골의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참여가능성과 입지가 좁아진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최근 건설공사 수주에서 양호한 성과를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다.

양국 경제협력의 확대에 어려움을 주는 장애요인은 몽골이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약점

과 위협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적은 인구와 혹독한 기후, 수자원 부족,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높은 물류비용 등이 태생적인 약점과 애로사항이 될 것이다. 최근 몽골정부가 외국인투자법 개정을 통해 보여준 정책 비일관성과 불확실성도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양국의 상호인식에 있다고 본다.

먼저 한국의 입장에서는 몽골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낮은 인식이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몽골경제의 부상과 재평가에 따라 몽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의 각종 위원회가 열리는 등 나름의 협력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몽골에서 강력히 원했던 FTA 추진과 대통령의 조기 방몽 등에 대해 한국은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하였다. 한국 기업도 몽골의 장기적인 발전과 가치에 주목하기 보다는, 자원 획득과 단기적 이익 추구에만 주력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으로 인해 ‘한국이 진정으로 몽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라는 인식을 몽골 측이 갖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몽골의 입장에서도 ‘제3의 이웃’ 정책에서 한국이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측면이 있다. 특히 남북한 동시수교 국가로서, 중요한 때에 확실하게 한국을 지지하지 않고 어정쩡한 등거리 외교관계를 보여줌으로써 한국 정부를 실망시켜 왔다. 이로 인해 한국도 몽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유보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현상의 선후 관계는 분명치 않지만, 양국이 한 단계 높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면 상호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러시아와 중국의 패권주의로 인해 한국이 끼어들 수 있는 입지가 매우 좁다는 점도 주요 애로사항이다. 몽골은 광물자원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중국, 기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지역이다. 중국은 몽골 광산물의 최대 수요자로서 유리한 가격에 수요독점자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이 시장 경쟁에 뛰어드는 것을 원치 않으며, 중국을 경유하는 광물 운송에도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대몽골 에너지 수출 공급독점자이면서 몽골 광물자원 개발과 운송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러시아는 철도를 동부 몽골을 경유하여 시베리아까지 연결하는데 적극적이며,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으로 광물 운송 경로를 마련해 주고 철도 이용 수익을 얻고자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복잡한 정치경제 방정식은 당사국인 몽골이 나서서 풀어야 할 것이다.

몽골은 정책변화의 불확실성이 있고 사회주의 시절의 유산으로 각종 규제가 많은 편이며 비즈니스 환경도 좋지 않다.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여러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정치경제 상황이 복잡다단하게 전개될 때

도 있다. 이러한 몽골과의 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입장에서도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 몽골 경제협력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 결국 수요자인 몽골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방향으로 기본적인 전략을 수립하면서,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은 몽골의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도, 반드시 몽골의 전통산업인 식품가공업, 섬유산업, 농업개발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칫 한국은 자원개발을 통해 금전적 이익만 추구하고, 몽골에서 필요로 하는 협력에는 인색하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 오히려 경제협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러한 협력 방향에서 상호 진정성을 이해하고, ‘몽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속성 있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관광산업 분야도 양국이 협력하면 상호 win-win이 가능한 분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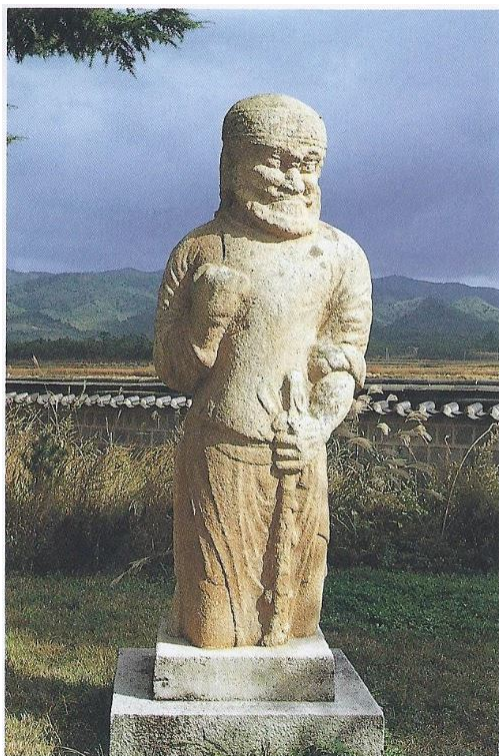
또한 몽골과의 경제협력은 몽골의 법과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전통적 가치관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몽골은 자원개발로 인해 국토가 황폐화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많은 국민들이 과거 러시아의 약탈적 개발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환경파괴 조사와 복구 사업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최근 신흥국가들의 경제성장이 재평가 받고 있으며, 몽골도 자원가격 하락으로 환율이 1850 투그릭에 달하는 등 경제상황이 어렵다. 그러나 자원부국 몽골의 성장 잠재력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한·몽 양국이 상호 진정성을 가지고 상대방을 더욱 진지하게 바라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부 록





괘릉 무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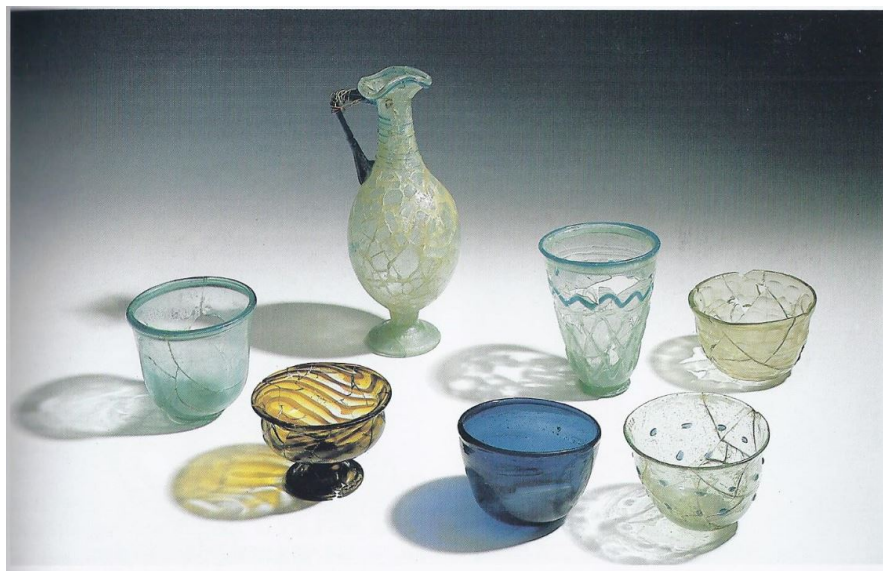
신라 5세기, 경주 황남대총, 봉수병



신라 5-6세기, 경주 미추왕릉 C지구 4호
무덤, 목걸이



흥덕왕릉 무인상



경주 고분 - 유리그릇



신라 6세기, 경주 금령총, 그릇



신라 5세기, 경주 황남대총, 그릇

Bowl

Silla, 5th century C.E.
Hwangnamdaechong,
Gyeongju, Gyeongsangbuk-do
Glass



신라 5세기, 경주 황남대총, 그릇 1



신라 5세기 그릇 1



신라 5세기, 그릇



신라 6세기, 포항 냉수리 고분, 뿔잔

목걸이

기원전 1000년경
이란, 페르시아, 아비도, 수단
에그립트, 에티오피아, 수단
L 85

Necklace

1st Millennium B.C.E.
Iran, Persia, Abid, Sudan
Egyptian blue, Agate, Glass



이란 목걸이 2



이란 목걸이 1



이란 목걸이 1



045
목걸이
기원전 2500-2000년
시스탄 주 자볼, 시스탄에 속함
수질 마노
L 27
Necklace
2500-2000 B.C.E.
Shahri Sokhta, Zabol, Sistan
95 Rock Crystal, 1 Agate

046
목걸이
기원전 2500-2000년
시스탄 주 자볼 시스탄에 속함
마노, 금, 청금석
L 18.6
Necklace
2500-2000 B.C.E.
Shahri Sokhta, Zabol, Sistan
12 Agate, 6 Gold, 1 Lapis

이란 목걸이



154. 쇠살촉
고 투르크시대(쿠라이문화)
기원 600-900년
산지 알타이 보로탈
길이 (오른쪽) : 10, 8cm
ARROWHEADS, Iron
Borotal, Gorny Altai
A.D. 600-900, (Kuraian Culture)
Old Turkic Age
Length (R) : 10, 8cm

고 투르크 시대(쿠라이문화), 기원전 600~900, 쇠살촉



155. 쇠팡치 · 자귀
 고 투르크시대(쿠라이문화)
 기원 600-900년
 산지 알타이 보로탈
 길이(오른쪽): 14, 0cm
HAMMER · ADZES, Iron
 Borotal, Gorny Altai
 A. D. 600-900, (Kuraian Culture)
 Old Turkic Age
 Length(R): 14, 0cm

고 투르크 시대(쿠라이문화), 기원전 600~900년, 쇠팡치-자귀



169. 투르크 전사 석상
 고 투르크시대
 기원 700-900년
 알타이 지역
 높이: (왼쪽) 128, 3cm, (오른쪽) 93, 4cm
SCULPTURES OF TURKISH
WARRIOR, Stone
 Altai Area
 A. D. 700-900
 Old Turkic Age
 Height: (L) 128, 3cm, (R) 93, 4cm

고 투르크 시대, 기원 700~900, 투르크 전사 석상



고 투르크(turks)의 룬(lun)문자가 새겨진 비석, 몽골접경지역



날개 달린 사자 장식 뿔잔



139
말 모양 그릇
기원전 5세기
서아시아(아제르바이잔, 마쿠)
토제
H 21 L 31.5 W 11
Horse-shaped vessel
5th century B.C.E.
Maku, West Azerbaijan
Clay

말 모양 그릇 1



138
말 모양 그릇
기원전 5세기
후제스탄, 수사
토제
H 22.8 L 30 W 10.5
Horse-shaped vessel
5th century B.C.E.
Susa, Khuzestan
Clay

말 모양 그릇



171. 마노제·유리제 목걸이

몽골지배시대(위구르족)
기원 800-1200년
산지 알타이 비취투-봄 묘지
길이(마노구슬): 2,5cm

NECKLACES, Carnelian · Glass
Bichiktu-Bom Burial, Gorny Altai
A. D. 800-1200, (Uigirs Culture)
Mogolian Age
Length(Carnelian Bead): 2,5cm

몽골지배, 기원 800~1200, 마노제-유리제 목걸이



170. 은제 귀걸이·석제 목걸이

몽골지배시대(위구르족)
기원 800-1200년
산지 알타이 비취투-봄 묘지
지름(귀걸이): 5,5cm

**EARRINGS · NECKLACE,
Silver · Lapis-lazuli**
Bichiktu-Bom Burial, Gorny Altai
A. D. 800-1200, (Uigirs Culture)
Mogolian Age
Diameter (Earrings): 5,5cm

몽골지배, 기원800~1200, 은제 귀걸이-석제 목걸이



157

관료의 흉상

사산 왕조
페르시아, 다리브, 하자바드
스투코
H 32.7 W 37 Th 11.6

Cast stucco bust of an official

Sassanian period
Hajjabad, Darab, Fars
Stucco

스투코 흉상. 머리에 쓴 모자와 양쪽으로 꼬아 늘어뜨린 미리카카, 네모난 턱수염을 가진 관료의 모습이다.

사산 왕조, 관료의 흉상 1



사산 왕조, 사냥 무늬 접시



원무늬 병
사산 왕조 기원후 400-700년
이란 북서부
높이 28.4, 직경 12.9
Bottle with circular patterns
400-700 C. E. Sassanian period,
Iran Northwest
Glass

사산 왕조, 원 무늬 병



아케메네스 왕조, 로제트 무늬 장식판



033
 이란 신화 무늬 잔
 기원전 1050~1100년
 길림, 푸둥시현, 아웨이진묘
 금
 H 29 D 13.7 Wt 22g
 Goblet decorated
 with gaoctics
 1250-1100 B.C.E.
 Marik, Roodbar, Blian
 Gold

길림 주 아웨이진묘에서 출토된 금속제 잔 기원전 1050년이다. 가젤 왕의 권은 가젤의 장례를 태연으로 나타내 표현하고 있다. 맨 아래 단은 아가 가젤의 꼬리를 뿜고 있는 어린 가젤을, 그 위에는 양이서서 나무를 먹고 있는 어린 가젤을, 다시 그 위에는 가젤이 죽인 어린 가젤과 독수리를, 맨 위에는 독수리에게 쫓겨 버리고 있는 가젤의 시체를 새겼다. 이 가젤은 당시의 장사관 용 갈래를 수 있는 귀중한 직물이기도 하다.

이란 가젤 신화 무늬 잔

060

귀대 향아리

기원전 1000-800/750년
 푸리스탄, 피쉬코, 카툰반-비
 청동
 H 11.2 L 26.2 D 9.3

Long-spouted vessel
 with a spherical body

1000-800/750 B.C.E.
 Khatunban-B, Pishkoh, Lorestan
 Bronze



이란 귀대 향아리

038

그리핀과 스피нк스 무늬 접시판

아케메네스 이전 시대
페르시아
경
D 34.1 Th 2

Plaque decorated
with griffins and sphinxes

Pre-Achaemenid
Lorestan
Silver

동굴 흔 장식편으로, 판 둘레에 광택의 무늬를 두르고 안쪽에는 날개 달린 그리핀과 스피нк스를 배치하였다. 스피нк스 한 쌍은 아래쪽에 서로 마주보게 조각되어 있고, 스피нк스의 머리 위에는 두 벌로 서서 마주한 새 시선은 앞을 향 한 그리핀 한 쌍이 조각되었는데 왼쪽 부분은 상대적으로 단단히 붙었다. 그리핀은 날개의 열공을, 스피нк스는 아치의 열공을 하고 있다.



사산 왕조, 사냥 무늬 접시



066

나뭇잎 모양 단검

기원전 3000년기 후반
페르시아, 포슈트 카오, 탁테 칸
성토
L 23.2 W 3.75

Leaf-shaped dagger

Late 3rd Millennium B.C.E.
Takte e Khan, Posht e Kaoh, Lorestan
Bronze



067

나뭇잎 모양 단검

기원전 3000년기 후반
페르시아
성토
L 17.7 W 5.27

Leaf-shaped dagger

Late 3rd Millennium B.C.E.
Lorestan
Bronze



0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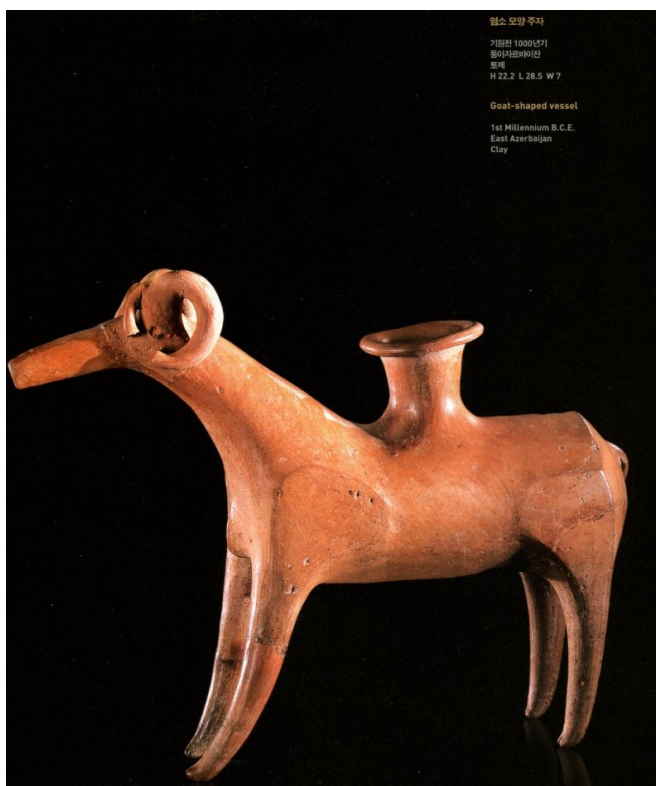
단검

기원전 3000년기 후반
페르시아
성토
L 27.2 W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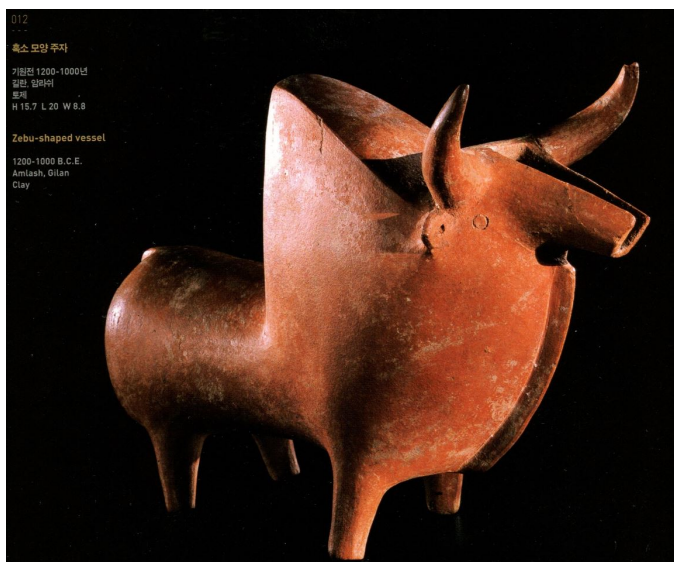
Dagger

Late 3rd Millennium B.C.E.
Lorestan
Bronze

사산 왕조, 원 무늬 병



이란 염소 모양 주자



이란 황소 모양 주자

아이벡스 장식 뿔잔

파르티아기원후 100-200년
디나반, 페르시아, 대아르메니아
높이 38cm, 직경 20.2cm

Rhyton with an ibex protome

100-200 C.E. Parthian period
Dinavand, Firoozkoh, Tehran
Clay



파르티아 아이벡스 장식 뿔잔

유라시아 문명과 실크로드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2014년 12월 6일 인쇄

2014년 12월 10일 발행

펴낸곳 :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유라시아 실크로드 연구소

펴낸이 : 소장 윤명철

주 소 : 서울시 중구 필동로 1-30

전 화 : 02-2290-1356

F A X : 02-2260-8368
